

CBETA電子佛典集成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J26nB177

破山禪師語錄

清 海明說 印正等編 附年譜

印巒等輯 印綬等編

原書缺依駒本印

財團
法人

佛教電子佛典基金會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序](#)
 - [敘](#)
 - [目錄](#)
 - [上堂一](#)
 - [上堂二](#)
 - [上堂三](#)
 - [上堂四](#)
 - [上堂五](#)
 - [小參一](#)
 - [小參二](#)
 - [問荅機緣](#)
 - [勘辯機緣](#)
 - [法語一](#)
 - [示象崖西堂](#)
 - [示問津禪人](#)
 - [示萍止禪人](#)
 - [示空外禪人](#)
 - [示淑雲禪人](#)
 - [示息知禪人](#)
 - [示方知禪人](#)
 - [示清白禪人](#)
 - [示破浪禪人](#)
 - [示翠融禪人](#)
 - [示琢璞禪人](#)
 - [示雲影禪人](#)
 - [示知止禪人](#)
 - [示遍拙禪人](#)
 - [示慈援禪人](#)
 - [示恂範禪人](#)
 - [示參白禪人](#)
 - [示隱輝侍者](#)
 - [示默融禪人](#)

- [示應如禪人](#)
- [示妙旨禪人](#)
- [示圓融禪人](#)
- [示聞修禪人](#)
- [示巔石禪人](#)
- [示字水禪人](#)
- [示百拙禪人](#)
- [示離指禪人](#)
- [示汝水禪人](#)
- [示重雅禪人](#)
- [示掌如禪人](#)
- [示華仲李孝廉父太初老居士](#)
- [示月江藏主](#)
- [示丈雪禪人](#)
- [示梵梵行者](#)
- [示素微禪人](#)
- [示法空戒子](#)
- [示含光禪人](#)
- [示大石徐居士](#)
- [示景山趙居士](#)
- [示唯心禪人](#)
- [示玉寔向居士](#)
- [示紹儀何居士](#)
- [示獻南張居士](#)
- [示渭陽金居士](#)
- [示佛掌侯居士](#)
- [示耀泉丁居士](#)
- [示念中程居士](#)
- [示荊獻羅居士](#)
- [示起予曹居士](#)
- [示楫吾楊居士](#)
- [示近宸張居士](#)
- [示仁伯馬居士](#)
- [示從之馬居士](#)
- [示道標呂居士](#)
- [示文靖馬居士](#)
- [示恆初禪人](#)
- [示蓮月禪人](#)

- [示靈隱禪人](#)
- [示雲幻禪人](#)
- [示繡石禪人](#)
- [法語二](#)
 - [示雲嶠禪人](#)
 - [示指元禪人](#)
 - [示覺幻禪人](#)
 - [示太平禪人](#)
 - [示佛牛禪人](#)
 - [示徹空戒子](#)
 - [示上提戒子](#)
 - [示湛林禪人](#)
 - [示慧心禪人](#)
 - [示水月禪人](#)
 - [示昇所冉居士](#)
 - [示問一禪者](#)
 - [示戒如禪人](#)
 - [示秀玄禪者](#)
 - [示六聰禪者](#)
 - [示六一禪人](#)
 - [示寄凡禪人](#)
 - [示習儀火頭](#)
 - [示禪源禪人](#)
 - [示知我戒子](#)
 - [示深省戒子](#)
 - [示燕石戒子](#)
 - [示慧白靜主](#)
 - [示象含禪人](#)
 - [示蒼然禪人](#)
 - [示非一禪人](#)
 - [示白崖禪者](#)
 - [示參之傳秘禪者](#)
 - [示唯然禪人](#)
 - [示機樞黃成衣](#)
 - [示相宇曾居士](#)
 - [示曇郁禪人](#)
 - [示若無禪人](#)
 - [示空如戒子](#)

- [示松谿禪人](#)
- [示冰白主人](#)
- [示若愚戒子](#)
- [示灰一行者](#)
- [示語莊禪人](#)
- [示佛菴法孫](#)
- [示碧浪禪者](#)
- [示寒瀑禪人](#)
- [示佛語禪人](#)
- [示徹骨禪人](#)
- [示谷音禪人](#)
- [示月宗禪人](#)
- [示本空禪人](#)
- [示大參禪者](#)
- [示心日禪人](#)
- [示返聞禪人](#)
- [示均鬱禪人](#)
- [示蔡夫人](#)
- [示燈鯨王善人](#)
- [示發輝蔡善人](#)
- [示越凡禪人](#)
- [示仁燭禪人](#)
- [示四一禪人](#)
- [示書雲法孫](#)
- [示繼祿禪人](#)
- [示允一禪人](#)
- [示聞思禪人](#)
- [示體然禪人](#)
- [示古拙禪人](#)
- [示映夢禪者](#)
- [示伯符法孫](#)
- [示秀峰禪人](#)
- [示水心法孫](#)
- [示道雅典座](#)
- [示非外禪人](#)
- [示百城禪人](#)
- [示易菴禪人](#)
- [示印觀江夫人](#)

- [示去玷禪者](#)
- [示波雲禪者](#)
- [示玄白禪人](#)
- [示紫芝禪者](#)
- [示陳善人](#)
- [法語三](#)
 - [示秋水西堂](#)
 - [示惺月禪者](#)
 - [示電影禪者](#)
 - [示曇華禪人](#)
 - [示心玄禪者](#)
 - [示伴石禪者](#)
 - [示回初禪人](#)
 - [示祥微茶頭](#)
 - [示源遠行者](#)
 - [示明重程居士](#)
 - [示靜修禪人](#)
 - [示光慧行者](#)
 - [示南之行者](#)
 - [示牟廣文](#)
 - [示虞卿譚總戎](#)
 - [示若愚禪人](#)
 - [示耶湘禪人](#)
 - [示古城禪人](#)
 - [示大用禪者](#)
 - [示大徹禪者](#)
 - [示心見禪者](#)
 - [示貫牛禪者](#)
 - [示雲影禪人](#)
 - [示參微禪人](#)
 - [示明哲禪者](#)
 - [示拙之禪者](#)
 - [示徹也行者](#)
 - [示明暉禪人](#)
 - [示雲石禪者](#)
 - [示唯唯沙彌](#)
 - [示九彥禪人](#)
 - [示惺幻禪宿](#)

- [示凌虛禪人](#)
- [示印璽戒子](#)
- [示頃仁禪人](#)
- [示若鏡禪人](#)
- [示爾寧禪人](#)
- [示太和禪人](#)
- [示慈雲禪人](#)
- [示先開上人](#)
- [示省一禪者](#)
- [示心安禪者](#)
- [示冰若禪者](#)
- [示一默禪者](#)
- [示知圓禪人](#)
- [示世美冉居士](#)
- [示印廣張居士](#)
- [示印常郭居士](#)
- [示印樂善人](#)
- [示印我徐居士](#)
- [示印淨善人](#)
- [示印直王居士](#)
- [示印香王善人](#)
- [示印通張居士](#)
- [示印仙魏善人](#)
- [示印志居士](#)
- [示印桂劉居士](#)
- [示印善涂居士](#)
- [示印春牛居士](#)
- [示印見陳梅菴居士](#)
- [示寂高沙彌](#)
- [示發力劉居士](#)
- [示發機陳道者](#)
- [示鳳臺毛居士](#)
- [示去慵上人](#)
- [示禪源戒子](#)
- [示心空禪人](#)
- [示真空戒子](#)
- [示明睿禪人](#)
- [示明宗沙彌](#)

- [示恆圓禪人](#)
- [示天峰禪者](#)
- [示石林沙彌](#)
- [示六也沙彌](#)
- [示海玉李居士](#)
- [示太宇蕭居士](#)
- [示亨我王居士](#)
- [示東也侍者](#)
- [法語四](#)
 - [示本一禪人](#)
 - [示遍慈飯頭](#)
 - [示瀛洲禪者](#)
 - [示雲拙禪人](#)
 - [示正一禪者](#)
 - [示靈碧禪者](#)
 - [示養直禪人](#)
 - [示六吉禪者](#)
 - [示些些行者](#)
 - [示伴雲禪人](#)
 - [示湛旋禪者](#)
 - [示寂光禪人](#)
 - [示卓爾禪人](#)
 - [示聖意禪人](#)
 - [示引之禪者](#)
 - [示西來禪宿](#)
 - [示雲南法空上人](#)
 - [示叵得印安禪人](#)
 - [示厥中戒子](#)
 - [示雲倚行者](#)
 - [示繼竹禪人](#)
 - [示自若禪人](#)
 - [示獨吼禪人](#)
 - [示語之禪人](#)
 - [示策眉禪人](#)
 - [示悟一禪者](#)
 - [示我非禪者](#)
 - [示寅水行者](#)
 - [示惺若禪者](#)

- [示深居禪人](#)
- [示圓虛禪人](#)
- [示吳孝廉](#)
- [示印道黃居士](#)
- [示宜城伯龍淵王居士](#)
- [示石砭司官馬嵩山](#)
- [示玄旨禪者](#)
- [示山明禪者](#)
- [示塔坡禪者](#)
- [示再三禪人](#)
- [示紫蓮禪者](#)
- [示發盛行者](#)
- [示萬仞禪者](#)
- [示如岳禪人](#)
- [示可度禪人](#)
- [示玉林上人](#)
- [示恒玄戒子](#)
- [示脩柴頭](#)
- [示印宗禪人](#)
- [示知微禪人](#)
- [示已純戒子](#)
- [示朴存禪人](#)
- [示又甦禪者](#)
- [示旨一禪者](#)
- [示印直劉夫人](#)
- [示含章張夫人](#)
- [示尼發聞](#)
- [示尼佛然](#)
- [示尼性空](#)
- [示尼惺惺](#)
- [示尼若蓮](#)
- [示尼見微戒子](#)
- [示尼聞修](#)
- [示光著禪人](#)
- [示禹若禪者](#)
- [示澄月禪人](#)
- [示祥雲行者](#)
- [示智初禪人](#)

- [示光徹行者](#)
- [示脫塵禪人](#)
- [示等持禪人](#)
- [示瞿止禪者](#)
- [示含明禪人](#)
- [示發秀沙彌](#)
- [書問](#)
 - [與雪灘陳太史](#)
 - [復華仲李孝廉](#)
 - [復伯井馮銓部](#)
 - [復訥夫程居士](#)
 - [復開縣諸檀越](#)
 - [復新寧眾檀越](#)
 - [復猗蘭李文學](#)
 - [復宕渠流長蘇縉紳](#)
 - [復樵李眾縉紳](#)
 - [上天童密雲老和尚](#)
 - [復海鹽子穀蔡居士](#)
 - [復嘉興眾孝廉](#)
 - [復昭覺惟一上人](#)
 - [與雙峰寶座上人](#)
 - [復字水上座](#)
 - [復破雪關主](#)
 - [與瀑崖高居士\(諱射斗\)](#)
 - [復大石長老](#)
 - [復觀止法師](#)
 - [復竹陽太乙王兵馬\(諱錫燦\)](#)
 - [復竹陽鳳山李居士](#)
 - [復林文學送字書](#)
 - [復湛清俗諱黃至道](#)
 - [復歐道人](#)
 - [與東川呂相國](#)
 - [復侍佇黃居士](#)
 - [與石砭司素直秦總戎](#)
 - [復秉素牟銓部](#)
 - [復培之李總制](#)
 - [復十心譚慕義侯](#)
 - [與西崑譚涪侯](#)

- [復達州王刺史](#)
- [復嘉興眾縉紳](#)
- [復\[車*度\]轢嚴居士](#)
- [復弘覺木陳和尚](#)
- [復祭酒譚埽菴](#)
- [復江南眾文學](#)
- [復東塔住持清白長老](#)
- [復丈雪上座](#)
- [復嘉興吳孝廉\(諱泰來\)](#)
- [復樵李古新菴清白長老](#)
- [寄覺城禪人](#)
- [復南充羅西谿居士](#)
- [復語嵩法孫](#)
- [復忠南雲鳳胡長陽侯](#)
- [復離指上座](#)
- [復體宗上座](#)
- [與蓮月上座](#)
- [復本源上座](#)
- [復清溪首座](#)
- [復天峰法孫](#)
- [復壁觀上座](#)
- [復雲嶠禪人](#)
- [拈古 頌古](#)
- [聯芳偈](#)
 - [付空外大達禪人](#)
 - [付四維普寬禪人](#)
 - [付象崖性斑禪人](#)
 - [付含璞淨燦禪人](#)
 - [付靈筏印昌禪人](#)
 - [付破雪道璽禪人](#)
 - [付字水圓拙禪人](#)
 - [付破浪海舟禪人](#)
 - [付竺微智泰禪人](#)
 - [付無漏印涵禪人](#)
 - [付體宗道寧禪人](#)
 - [付離指方示禪人](#)
 - [付尼足如瀾禪人](#)
 - [付本明圓徹禪人](#)

- [付雪臂印巒禪人](#)
- [付圓明德印禪人](#)
- [付敏樹如相禪人](#)
- [付淡竹行密禪人](#)
- [付孤石直憲禪人](#)
- [付燕居德申禪人](#)
- [付丈雪通醉禪人](#)
- [付蒼松印鶴禪人](#)
- [付壽山性福禪人](#)
- [付竹帆印波禪人](#)
- [付默石道悟禪人](#)
- [付覺城明杵禪人](#)
- [付東川呂相國](#)
- [付雪眉方坤禪人](#)
- [付蓮月印正禪人](#)
- [付靈隱印文禪人](#)
- [付西瞿印望禪人](#)
- [付石龍印雪禪人](#)
- [付慧覺照衣禪人](#)
- [付靈木印綬禪人](#)
- [付僧可印實禪人](#)
- [付三際如通禪人](#)
- [付雲幻印宸禪人](#)
- [付普天印圓禪人](#)
- [付密行寂忍禪人](#)
- [付大吼印傳禪人](#)
- [付本源海液禪人](#)
- [付碧觀印嵩禪人](#)
- [付象含寂定禪人](#)
- [付月宗印星禪人](#)
- [付寂光印豁禪人](#)
- [付易菴印師禪人](#)
- [付古城印堅禪人](#)
- [付清谿道昶禪人](#)
- [付耶湘印\[、/\(、*、.\)\]禪人](#)
- [付聖可德玉禪人](#)
- [付快雪印國禪人](#)
- [付石幢寂壽禪人](#)

- [付秋水智能禪人](#)
- [付無私海源禪人](#)
- [付百城印著禪人](#)
- [付萬竹通葦禪人](#)
- [付遺聞如幻禪人](#)
- [付兩生直從禪人](#)
- [付直指性歸禪人](#)
- [付六岫海奎禪人](#)
- [付九彥慶曆禪人](#)
- [付勝幢印鎧禪人](#)
- [付唯旃印道禪人](#)
- [付中天照朗禪人](#)
- [付三止印昇禪人](#)
- [付千松印萬禪人](#)
- [付深省德純禪人](#)
- [付禦木印章禪人](#)
- [付凝直性定禪人](#)
- [付慈門性毓禪人](#)
- [付忍微性道禪人](#)
- [付耕雲澄鑑禪人](#)
- [付古拙印可禪人](#)
- [付當臺印森禪人](#)
- [付卓爾普文禪人](#)
- [付含光真玉禪人](#)
- [付四不行弘禪人](#)
- [付雪嶠印水禪人](#)
- [付九昭惟朗禪人](#)
- [付竺意普傳禪人](#)
- [付寶峰洪慧禪人](#)
- [付穎初印顯禪人](#)
- [付不會通法禪人](#)
- [付蒼峨德海禪人](#)
- [付嘯宗印密禪人](#)
- [付指北通鑑禪人](#)
- [付靈源印淵禪人](#)
- [付如岳覺無禪人](#)
- [示偈一](#)
 - [示融一禪人](#)

- [示須石禪人](#)
- [示蕊蓮禪人](#)
- [示慧理禪人](#)
- [示達愚禪人](#)
- [示靜涵禪人](#)
- [示毒風禪人](#)
- [示威力禪人](#)
- [示剔眉禪人居山](#)
- [示渙如上人](#)
- [示里巷禪人](#)
- [示靈隱禪人](#)
- [示自若侍者](#)
- [示朗愚侍者](#)
- [示得元關主](#)
- [示述明典座](#)
- [示牛山見斯禪人](#)
- [示純一禪人](#)
- [示直指菴了塵主人](#)
- [示正元禪人](#)
- [示文光禪人](#)
- [示玉光禪人](#)
- [示無漏禪人](#)
- [示興渭成居士](#)
- [示成居士](#)
- [示茂瞿向居士](#)
- [示瑞環陳居士](#)
- [示君實蒲居士](#)
- [示繪先黃居士](#)
- [示棘生白居士](#)
- [示鐵壁黃居士](#)
- [示桂宇張居士](#)
- [示心宇胡居士](#)
- [示德宇萬居士](#)
- [示瑞華李居士](#)
- [示玉所班居士](#)
- [示仁吾陳居士](#)
- [示聘吾黃居士](#)
- [示廓宇黃居士禮峨眉](#)

- [示聞所班居士禮法華](#)
- [示周居士](#)
- [示默石禪人\(師示眾說偈命眾續後句凡有續者師復聯而示之此紀其七\)](#)
- [示唯心禪人](#)
- [示心融禪人](#)
- [示師中禪人](#)
- [示大疑禪人](#)
- [示南詢禪人](#)
- [示遍拙禪人](#)
- [示雪臂巒禪人](#)
- [示唯也禪人](#)
- [示蒼松禪人](#)
- [示壽山禪人](#)
- [示靈隱禪人](#)
- [示慧心禪人](#)
- [示靈木禪人](#)
- [示微言關主](#)
- [示靜虛禪人](#)
- [示心田戒子](#)
- [示無著禪人居山](#)
- [示六疑禪人](#)
- [示復源沙彌](#)
- [示悅可禪人](#)
- [示悅心禪者](#)
- [示不我禪人](#)
- [示大慈禪人](#)
- [示半偈飯頭](#)
- [示龍淵禪者](#)
- [示得中施居士](#)
- [示唯然禪人](#)
- [示崑源孫居士](#)
- [示無宗禪人](#)
- [示梅熟禪人](#)
- [示快雪禪人](#)
- [示心宗知客](#)
- [示仁安禪宿](#)
- [示道雅典座](#)

- [示了宗禪人](#)
- [示東也禪者](#)
- [示空如監院](#)
- [示瑞雲禪者](#)
- [示二隱禪人](#)
- [示空谷禪人](#)
- [示印中趙居士](#)
- [示雙谿楊居士](#)
- [示觀生行者](#)
- [示易菴西堂](#)
- [示石幢首座](#)
- [示勒石禪宿](#)
- [示明璽禪者](#)
- [示觀宇禪人](#)
- [示惺幻禪宿](#)
- [示雲嶠禪人](#)
- [示繼竹法孫](#)
- [示燕石法孫](#)
- [示吼雪禪人](#)
- [示當臺禪人](#)
- [示四聰禪人](#)
- [示笑白禪人](#)
- [示太素禪人](#)
- [示洞初禪人](#)
- [示雲嶠監院](#)
- [示策眉禪宿](#)
- [示無息禪人](#)
- [示再三禪人](#)
- [示隱玄禪者](#)
- [示宏悌葉孝子割股愈親](#)
- [示秋水西堂](#)
- [示密旨法孫](#)
- [示朴存禪人](#)
- [示懋弼火頭](#)
- [示明暉禪人](#)
- [示慈容上人](#)
- [示唯唯禪人](#)
- [示穎凡禪人](#)

- [示九彥禪人](#)
- [示無私維那](#)
- [示淡月行人](#)
- [示四可禪人](#)
- [示先開禪者](#)
- [示機樞禪人](#)
- [示伴石禪者](#)
- [示心源禪者](#)
- [示南枝禪人](#)
- [示常然禪人](#)
- [示心止禪人](#)
- [示盡浪沙彌](#)
- [示拈笑禪人](#)
- [示本空禪人](#)
- [示三堅禪者](#)
- [示五空圍頭](#)
- [示天鏡侍者](#)
- [示尼西宗關主](#)
- [示尼一喝](#)
- [示尼湛源](#)
- [示尼天然](#)
- [示尼惺默](#)
- [示尼惺凡](#)
- [示尼自惺](#)
- [示尼若玉](#)
- [示尼林菴主](#)
- [示尼佛然](#)
- [示印空善人](#)
- [示發聞善人](#)
- [示祖聯善人](#)
- [示天階秦居士](#)
- [示劍白菴居士](#)
- [示桂牛秦居士](#)
- [示一吾曹居士](#)
- [示慶吾陳居士](#)
- [示榮所胡居士](#)
- [示紹泉周居士](#)
- [示偈二](#)

- [示猊曹禪人](#)
- [示廐中禪人](#)
- [示蒼然禪人](#)
- [示三笑上人](#)
- [示蓮之禪人](#)
- [示九昭禪人](#)
- [示松虛上人](#)
- [示慧融行者](#)
- [示輝乾禪者](#)
- [示光藻沙彌](#)
- [示月痕禪者](#)
- [示碧\[王*函\]禪者](#)
- [示居山清月禪人](#)
- [示心宗監院](#)
- [示太奇禪人](#)
- [示月樵禪人](#)
- [示體心禪人](#)
- [示正祿禪人](#)
- [示居山天竺禪人](#)
- [示印善居士](#)
- [示懷德飯頭](#)
- [示靈源禪人](#)
- [示本來禪人](#)
- [示太和禪人](#)
- [示碧雲禪者](#)
- [示止止禪人](#)
- [示若也禪人](#)
- [示辰\[亠@日\]上人](#)
- [示美石禪人](#)
- [示不違火頭](#)
- [示默識行者](#)
- [示世美胡居士](#)
- [示玄初莊主](#)
- [示玉若圍頭](#)
- [示星北禪者](#)
- [示寶峰禪人](#)
- [示發重居士](#)
- [示正如和居士](#)

- [示別傳書記](#)
- [示西性禪者](#)
- [示蒼峨禪人](#)
- [示涂居士](#)
- [示常參典座](#)
- [示清虛上人](#)
- [示博達法孫](#)
- [示不會禪人](#)
- [示直修上人](#)
- [示水月禪人](#)
- [示涵之禪人](#)
- [示非外禪人](#)
- [示居山見愚禪人](#)
- [示決蕃禪者](#)
- [示晉山禪者](#)
- [示常先沙彌](#)
- [示如岳禪人](#)
- [示息之禪人](#)
- [示佛旨水頭](#)
- [示心師禪人](#)
- [示汝密沙彌](#)
- [示鏡南沙彌](#)
- [示源初禪者](#)
- [示慧圓戒子](#)
- [示冰源戒子](#)
- [示繼初禪人](#)
- [示歸宗禪人](#)
- [示智林禪人](#)
- [示恒一上人](#)
- [示泐石禪宿](#)
- [示摩雲禪者](#)
- [示紹吾嚴居士](#)
- [示守山禪人](#)
- [示明川張居士](#)
- [示棟林李居士](#)
- [示磐石余居士](#)
- [示收飯行者](#)
- [示卉木禪人](#)

- [示月相侍者](#)
- [示德雲侍者](#)
- [復石帆岳司馬](#)
- [復青城陳居士韻](#)
- [復華仲李居士](#)
- [復干珊郎居士來韻](#)
- [復黃居士來韻\(道號六解\)](#)
- [復鱗伯吳居士](#)
- [復蟾賓鄧文學](#)
- [復梅生鄧居士](#)
- [復焦山寄雲主人](#)
- [復破浪禪人](#)
- [復淡竹上座](#)
- [復燕居上座](#)
- [復萍石關主](#)
- [復覺城禪人](#)
- [復怡聞禪人](#)
- [復隱初禪人](#)
- [復維那辭執事](#)
- [復塔坡法孫](#)
- [復以門修知客](#)
- [號象崖西堂](#)
- [號靈筏禪人](#)
- [號雪臂禪人](#)
- [號丈雪禪人](#)
- [號非如禪人](#)
- [號念空禪人](#)
- [號嘯宗禪人](#)
- [號時雨禪人](#)
- [號指南寂法禪人](#)
- [號石傘禪人](#)
- [號梅林禪人](#)
- [號平谿禪人](#)
- [號天樹禪人](#)
- [號爾赤馮居士](#)
- [號若崖華柱禪人](#)
- [號慶雲禪人](#)
- [贈流長蘇居士](#)

- [贈高梁田邑侯](#)
- [贈松影律主](#)
- [贈正彌律主](#)
- [贈山居念一禪人](#)
- [贈山居不二禪人](#)
- [贈心蓮院主開接眾堂](#)
- [贈行可住持](#)
- [贈石年曹居士](#)
- [贈蒼松上座](#)
- [贈偕之劉居士](#)
- [贈蓮月上座](#)
- [贈東林菴居士](#)
- [贈顯餘上人書經](#)
- [贈鑑吾居士出家](#)
- [贈靈隱上座](#)
- [贈廖縉書生](#)
- [贈隱初上座](#)
- [贈三笑上人](#)
- [贈忘我侍者](#)
- [贈蜀眉姜孝廉\(持在雙桂剎變\)](#)
- [贈龍丘陳撫憲](#)
- [贈御錫陳居士](#)
- [贈小山干將軍](#)
- [贈魁寔段總戎](#)
- [贈公日文文學](#)
- [贈任卿譚元戎](#)
- [贈雲幻上座](#)
- [贈靜也江居士](#)
- [贈薛總戎](#)
- [贈三祐陳童子](#)
- [贈亦峻劉文學](#)
- [贈鳳寔楊副戎](#)
- [贈鑑玄禪人](#)
- [贈印良禪人](#)
- [贈幽之侍者](#)
- [示偈三](#)
 - [送善菴禪人歸五臺](#)
 - [送微言禪人歸楚](#)

- [送百拙書記歸閩](#)
- [送含璞禪人歸秋林](#)
- [送死心禪友住山](#)
- [送丈雪上座南遊](#)
- [送體宗上座歸方山](#)
- [送燕居上座病歸楞伽](#)
- [送觀止法師歸黃龍寺](#)
- [送六融禪人](#)
- [送無隱禪人歸里](#)
- [送大休法師歸巴江](#)
- [送蒼蘊禪友行腳](#)
- [送悟玄上座住大樹堂](#)
- [送丈雪上座之江南](#)
- [送彼岸禪人住山](#)
- [送禦木禪人歸里](#)
- [送耕雲禪人歸里](#)
- [送含光禪人歸里](#)
- [送覺城上座歸平都山](#)
- [送斷峰禪友歸黃山](#)
- [送蓮月上座歸九青山](#)
- [送幻融禪人結茅](#)
- [送靈隱上座之楚](#)
- [送別枕石法孫](#)
- [送別紫芝法孫](#)
- [送隱初上座住太寧寺](#)
- [送耳毒法孫歸寶蓮](#)
- [送石雲禪人之江南](#)
- [送語之法孫荷師靈骨之峨眉入塔](#)
- [送指月之川北](#)
- [送天吼法孫](#)
- [送話石禪人](#)
- [送聽雪法孫歸牛山](#)
- [送朴存禪人歸里](#)
- [送印璋吳居士歸渝州](#)
- [送順空禪宿](#)
- [別我劬樊居士](#)
- [別秉素牟居士](#)
- [別首四譚居士](#)

- [別行素牟居士](#)
- [別昭慶松雲主人](#)
- [別太石長老](#)
- [別君一院主](#)
- [別悟心長老](#)
- [別文字牛居士](#)
- [寄東川呂相國](#)
- [寄遠離毛總制](#)
- [寄林一牟將軍](#)
- [寄玉光禪人](#)
- [寄破雪關主](#)
- [寄離指上座](#)
- [寄淡竹上座](#)
- [寄雪臂上座](#) ([時師目語嵩語錄](#)).
- [寄慧覺上座](#)
- [寄聖可上座](#)
- [寄六岫上座](#)
- [寄鄒元戎](#)
- [寄龍門涌泉禪人](#)
- [寄炎雪禪友](#)
- [寄嬾石法孫](#)
- [寄伯符法孫](#)
- [寄居山聞初禪人](#)
- [寄養玄譚向仕侯](#)
- [寄忠路敦源覃司君](#)
- [寄素菴田居士](#)
- [寄教宗禪宿](#)
- [寄萬壽寺主人](#)
- [寄蓮月上座](#)
- [壽夔州拙谿熊太守](#)
- [壽壽伯涂兵憲](#)
- [壽淡如劉居士](#)
- [壽節也黃孝廉](#)
- [壽榮寔趙居士](#)
- [壽乾德張居士](#)
- [壽雪臂上座](#)
- [壽蒼松上座](#)
- [壽石砭嵩山馬司君](#)

- [壽丈林上座](#)
- [壽心修禪人](#)
- [壽九彥禪人](#)
- [壽繼竹法孫](#)
- [壽世知上人](#)
- [壽可度禪人](#)
- [壽笑宇唐居士](#)
- [壽天池居士七十](#)
- [壽敬之呂居士](#)
- [壽合江馮居士](#)
- [壽達吾馮居士](#)
- [壽泰寔張居士](#)
- [壽總戎袁聯宇](#)
- [壽燦碧楊居士](#)
- [壽昇所冉居士](#)
- [壽瑞岐楊居士](#)
- [壽瑞亭張居士](#)
- [壽紹籌范總戎](#)
- [壽道之胡總戎](#)
- [壽光大卉牛行者](#)
- [壽乾素徐居士](#)
- [壽龍城上座](#)
- [示清白禪人](#)
- [示湛林禪人](#)
- [示禪石禪人](#)
- [示完篤座主](#)
- [示禪木禪者](#)
- [示若愚監院](#)
- [示見雅禪者](#)
- [示語嵩禪人](#)
- [示引之禪者](#)
- [示習儀戒子](#)
- [示止止禪人](#)
- [示葦東禪人](#)
- [示不我禪人](#)
- [示牛日禪者](#)
- [示岫木禪者](#)
- [示參微戒子](#)

- [示完谷禪者](#)
- [示古拙禪人](#)
- [示若鏡禪者](#)
- [示佛語法孫](#)
- [示谷崖法孫](#)
- [示忘我禪人](#)
- [示太奇禪人](#)
- [示發用上人](#)
- [示燕樵禪者](#)
- [示爾寧禪人](#)
- [示四聰禪者](#)
- [示心空碗頭](#)
- [示鳳臺毛居士](#)
- [示白崖禪人](#)
- [示寶月禪人](#)
- [示燕巢禪者](#)
- [示懷素禪者](#)
- [示戈文禪者](#)
- [示曇雲禪者](#)
- [示九昭禪人](#)
- [示玄暉戒子](#)
- [示昌昌禪者](#)
- [示紹宗法孫](#)
- [示耶湘禪人](#)
- [示繼竹禪者](#)
- [示竺意禪人](#)
- [示萬一禪者](#)
- [示靈碧行者](#)
- [示見若禪人](#)
- [示徹天知客](#)
- [示現知禪者](#)
- [示物外禪者](#)
- [示徹也莊頭](#)
- [示意玄戒子](#)
- [示本一禪人](#)
- [示默念莊主](#)
- [示無私禪人](#)
- [示世美胡居士](#)

- [示見吾李居士刺股愈親](#)
- [示李居士](#)
- [示張文學](#)
- [示付衣成居士](#)
- [示見宇熊居士](#)
- [示桂寔彭居士](#)
- [示尼心源](#)
- [示玉亭鄧居士](#)
- [示見宇李居士](#)
- [送蓮月門人歸渝州](#)
- [佛祖讚](#)
 - [釋迦老人](#)
 - [彌勒大士](#)
 - [觀音大士](#)
 - [普賢大士](#)
 - [三大士](#)
 - [伏虎尊者駕象普賢](#)
 - [羅漢](#)
 - [過海羅漢](#)
 - [降龍羅漢](#)
 - [達磨大師](#)
 - [握杖達磨](#)
 - [南嶽讓和尚](#)
 - [馬祖一和尚](#)
 - [百丈海和尚](#)
 - [黃檗暉和尚](#)
 - [臨濟玄和尚](#)
 - [昭覺勤和尚](#)
 - [虎丘隆和尚](#)
 - [東明昂和尚](#)
 - [天童悟和尚](#)
 - [徑山雪嶠和尚](#)
- [自讚](#)
 - [石蓮馮居士請讚](#)
 - [念中程居士請讚](#)
 - [侍橋程居士請讚](#)
 - [東川呂居士請讚](#)
 - [二祖雪臂門人請讚](#)

- [昭覺丈雪門人請讚](#)
- [蒼松首座請讚](#)
- [德山竹帆門人請讚](#)
- [默石門人請讚](#)
- [開縣令萬鼎臣請讚](#)
- [空如監寺請讚](#)
- [玉泉蓮月門人請讚](#)
- [天樹禪人請讚](#)
- [天柱禪人請讚](#)
- [天池禪人請讚](#)
- [常明禪人請讚](#)
- [月朗禪人請讚](#)
- [靈隱門人請讚](#)
- [師林禪人請讚](#)
- [心朴禪人請讚](#)
- [可可禪人請讚](#)
- [雲幻侍者請讚](#)
- [丈林門人請讚](#)
- [太吼門人請讚](#)
- [本源門人請讚](#)
- [壁觀門人請讚](#)
- [水月禪人請讚](#)
- [印水監寺請讚](#)
- [寂光門人請讚](#)
- [靜行禪人請讚](#)
- [參之侍者請讚](#)
- [本空禪人請讚](#)
- [易菴西堂請讚](#)
- [耶湘書記請讚](#)
- [雲拙禪人請讚](#)
- [石幢首座請讚](#)
- [天竺禪人請讚](#)
- [無私維時請讚](#)
- [百城門人請讚](#)
- [六岫首座請讚](#)
- [三止禪人請讚](#)
- [深省門人請讚](#)
- [禦木門人請讚](#)

- [忍微門人請讚](#)
- [耕雲門人請讚](#)
- [當臺門人請讚](#)
- [雲嶠監院請讚](#)
- [穎初首座請讚](#)
- [笑宗門人請讚](#)
- [指北知客請讚](#)
- [西來禪人請讚](#)
- [朴存禪人請讚](#)
- [兩石上座請讚](#)
- [立雪禪人請讚](#)
- [伯符法孫請讚](#)
- [石雲禪人請讚](#)
- [紫芝法孫請讚](#)
- [密旨禪人請讚](#)
- [燕石法孫請讚](#)
- [三壁法孫請讚](#)
- [牛日法孫請讚](#)
- [徹靈禪人請讚](#)
- [法印禪人請讚](#)
- [發印禪人請讚](#)
- [靜浪禪人請讚](#)
- [發榮居士請讚](#)
- [修福禪人請讚](#)
- [湛宇禪人請讚](#)
- [繼六禪人請讚](#)
- [見南禪人請讚](#)
- [天鏡侍者請讚](#)
- [守一禪人請讚](#)
- [本來禪人請讚](#)
- [何善人請讚](#)
- [海玉李居士請讚](#)
- [太奇禪人請讚](#)
- [洞源禪人請讚](#)
- [本一禪人請讚](#)
- [尗寧禪人請讚](#)
- [彼岸禪人請讚](#)
- [心空禪人請讚](#)

- [忘我侍者請讚](#)
- [渭陽金居士請讚](#)
- [繡石禪人請讚](#)
- [悟玄禪人請讚](#)
- [月如禪人請讚](#)
- [凌虛禪人請讚](#)
- [東也侍者請讚](#)
- [昌昌禪人請讚](#)
- [雲谷禪人請讚](#)
- [明暉禪人請讚](#)
- [湧泉禪人請讚](#)
- [南溟禪人請讚](#)
- [雜偈一](#)
 - [金粟辭師歸蜀](#)
 - [辭樵李檀越](#)
 - [次我劬樊總制韻](#)
 - [復法弟石車和尚](#)
 - [復君山文督學](#)
 - [懷和石孫居士](#)
 - [壽培之李總制](#)
 - [宿玉屏山](#)
 - [因事感懷](#)
 - [雙桂警眾](#)
 - [天祐遣懷](#)
 - [警緇倫](#)
 - [平西營居](#)
 - [插秧口占](#)
 - [茶臺山居](#)
 - [從軍行](#)
 - [忠路大樹堂與雪眉上座言懷](#)
 - [夏日訪虛白禪友憩蟠龍洞](#)
 - [母難有感](#)
 - [午日復太常古文學](#)
 - [復東林黃居士](#)
 - [復象崖上座](#)
 - [復澄靈禪師](#)
 - [和水月禪師韻](#)
 - [勉祇園禪師山居](#)

- [送性空禪人歸山結茅](#)
- [與文初禪人](#)
- [復宗白上人](#)
- [訪空如禪人](#)
- [哭雲門湛然和尚](#)
- [弔福嚴費隱和尚](#)
- [舟中弔震宇張都督](#)
- [弔太常古文學](#)
- [弔榮吾姚薦紳](#)
- [悼李邑侯遇難](#)
- [弔象崖門人](#)
- [弔破雪門人](#)
- [弔默石門人](#)
- [弔覺城門人](#)
- [弔心海法師](#)
- [弔玉屏山無著禪師](#)
- [贈密空禪友伴親板](#)
- [聞虛白友人訃音](#)
- [留別石砮嵩山馬司君](#)
- [福城留別](#)
- [寄別法弟石車和尚](#)
- [登太白崖](#)
- [過白兔亭](#)
- [次東川呂相國韻](#)
- [宿九峰山](#)
- [贈養玄譚向仕侯](#)
- [贈十心譚慕義侯](#)
- [贈西崑譚涪侯](#)
- [贈君維余僉憲](#)
- [贈梁山林邑侯](#)
- [贈祐衢李廣文](#)
- [留別蒼松上座](#)
- [別流長蘇居士](#)
- [贈馬孔育陳天球過訪](#)
- [贈大休法師](#)
- [贈靈木監院](#)
- [贈怡聞座主](#)
- [復匡山李居士](#)

- [復忠路敦源覃司君](#)
- [贈李君石不仕](#)
- [送十心譚檀越赴川北蒞任](#)
- [送維敘田居士蒞任](#)
- [送鍾山陳僉憲](#)
- [送雲嶠禪人住山](#)
- [送穎本法孫行腳](#)
- [送井觀法孫歸宕渠](#)
- [送佛菴法孫之江南](#)
- [寄語齋李孝廉](#)
- [寄壁觀上座](#)
- [寄無塵禪宿](#)
- [寄蒼然禪人](#)
- [寄古高原法孫](#)
- [寄五眼鉢法孫](#)
- [寄竹山多福夏護法](#)
- [喜友人話舊](#)
- [示秋水西堂](#)
- [示百城禪人](#)
- [示穎初禪人](#)
- [與忠宸張居士話舊](#)
- [示兩石禪人](#)
- [示青萃禪人](#)
- [示指北禪人](#)
- [示參之侍者](#)
- [示止止禪人](#)
- [示三明禪人](#)
- [示不我禪人](#)
- [示自誠戒子](#)
- [示雲田法孫](#)
- [示公調吳居士](#)
- [示三客禪人\(時師寓三臺\)](#)
- [示泰寔李居士](#)
- [示印殊殷善人](#)
- [示悟徹善人](#)
- [示尼常樂](#)
- [擬燕送醒世尼歸忠南](#)
- [壽培之李總制](#)

- [壽太府潘公](#)
- [壽首四譚銓部](#)
- [壽向化侯譚養玄](#)
- [壽涪侯譚西崑](#)
- [壽總戎譚任卿](#)
- [壽總戎譚虞卿](#)
- [壽總戎譚永譽](#)
- [壽元戎姜完初](#)
- [壽石砮司君馬嵩山](#)
- [壽桂生秦居士](#)
- [壽西瞿上座](#)
- [壽月宗上座](#)
- [壽總戎姚聖瑞](#)
- [雜偈二](#)
 - [游靈谷寺](#)
 - [過七佛菴](#)
 - [宿閱藏菴](#)
 - [金陵靜心禪師請題指月軒](#)
 - [永慶寺](#)
 - [崖艇](#)
 - [圓津禪人請題推蓬室](#)
 - [佛恩寺除夕](#)
 - [宿三臺寺](#)
 - [寓三教寺](#)
 - [大覺寺](#)
 - [天福菴](#)
 - [白兔亭](#)
 - [三過蟠龍洞值雨](#)
 - [中慶寺水口](#)
 - [雪獅子](#)
 - [木魚](#)
 - [鐘](#)
 - [燕](#)
 - [拄杖](#)
 - [佛手中柑](#)
 - [竹](#)
 - [竹鞭](#)
 - [移新荷](#)

- [即事](#)
- [偶成](#)
- [過瀘陽](#)
- [留別](#)
- [世變口占](#)
- [夢中占](#)
- [師被蜈蚣螫口占](#)
- [眾乞開示師拈梨子示之眾不契遂占此](#)
- [眾備禮儀進方丈為師慶生師拈拄杖一時打散以偈復之](#)
- [癸巳冬師謂能事畢矣欲建活埋菴于佛香寺之後時二三子請題師信筆書之](#)
- [和會稽女郎三首](#)
- [上天童悟和尚塔前](#)
- [師至迎橋寺冰鏡上人乞偈](#)
- [次秋潭大師題茂敘孫居士嘯竹亭韻](#)
- [美人卷\(呂相國請題\)](#)
- [一陽李將軍請為小青龍說法](#)
- [含輝王居士請題牡丹梅竹蒲萄四畫](#)
- [天錫姚文學請題書薰](#)
- [圓知禪人請題血書華嚴經](#)
- [寄均一契友](#)
- [號塊雪禪人](#)
- [號白山禪人](#)
- [贈紹光禪宿建塔](#)
- [訪悠也上座](#)
- [訪西林鏡宗主人](#)
- [雖愚王春元赴京會試舟中著險請偈復去](#)
- [瑞廬蕭居士為母誕請偈](#)
- [訪遍周上人](#)
- [示心所曹居士](#)
- [敬樓孫居士七十請偈](#)
- [安然上座入山呈偈師拈此復之](#)
- [與拱北羅居士坐話](#)
- [現儒楊居士元霄獻燈請題](#)
- [目光秀上人倣陳艸蟲](#)
- [警眾](#)
- [弔西崑譚涪侯](#)
- [弔首四譚銓曹](#)

- [弔蒼松門人](#)
- [弔耳毒法孫](#)
- [重晤本明上座](#)
- [重晤蓮月上座並日語錄](#)
- [寓公高居士西園看新荷](#)
- [坐禪箴](#)
- [學道四箴](#)
- [病中十二時歌](#)
- [頌普明禪師牧牛圖并次韻](#)
- [題梵儀上人小像](#)
- [題行圓珠上座小像](#)
- [題不二禪人小像](#)
- [題茂敘孫居士像](#)
- [題超然居士像](#)
- [題西橋陳居士像](#)
- [題良玉施居士像](#)
- [題君錫程居士像](#)
- [題育吾金居士像](#)
- [題念中程居士像](#)
- [題默臺凌居士像](#)
- [題瀛台吳居士像](#)
- [題象崖門人像](#)
- [題永直上人像](#)
- [題碧虛禪宿行樂圖](#)
- [題空外門人行樂圖](#)
- [題慧林上人行樂圖](#)
- [題敬雲施居士行樂圖](#)
- [題岷瞻趙居士行樂圖](#)
- [題華仲李居士行樂圖](#)
- [題玉可張居士行樂圖](#)
- [題洪宇黃居士行樂圖](#)
- [題廣生費居士行樂圖](#)
- [題華宇吳居士金蘭文會圖](#)
- [題古淑沈居士行樂圖](#)
- [題棧道圖](#)
- [題非非禪人自謂息息關](#)
- [題去凡嚴居士自謂\[車*度\]轢道人](#)
- [號敏樹門人](#)

- [號語豆李孝廉](#)
- [萬峰景](#)
 - [寶石坡](#)
 - [金鵝池](#)
 - [響山子](#)
 - [天龍峰](#)
 - [大歇場](#)
 - [蒲峽口](#)
 - [馬鞍石](#)
 - [滑石板](#)
 - [涼水井](#)
 - [虎跳丫](#)
 - [飛雲石](#)
 - [虎兒崖](#)
 - [長松嶺](#)
 - [琴案山](#)
- [雜著](#)
 - [臨濟三十四世語錄序\(白山布公集成讀序\)](#)
 - [先覺宗乘序](#)
 - [風穴雲峨禪師語錄序](#)
 - [絕知禪人請題持金剛經序](#)
 - [寂聞程居士請題鳩友結社](#)
 - [棘牛白居易士請題山居詩序](#)
 - [而敕錢居士請題聽竹樓詩序](#)
 - [開禪堂緣起](#)
 - [題復牛柏](#)
 - [宕渠黃龍寺碑文](#)
 - [募盂蘭盆疏](#)
 - [募茶疏](#)
 - [化薑](#)
 - [五雲山塔銘](#)
 - [偶言](#)
- [佛事](#)
 - [為乘空禪人下火](#)
 - [為受菴禪人下火](#)
 - [為味玄禪人下火](#)
 - [為念修禪人下火](#)
 - [為恆超禪人下火](#)

- [為半偈禪人下火](#)
- [為本無圓頭下火](#)
- [為敏言禪人下火](#)
- [為悟圓禪人下火](#)
- [為寶蓮行人下火](#)
- [為無我庫頭下火](#)
- [為含平禪人下火](#)
- [為慧光行人下火](#)
- [為慧宗禪人下火](#)
- [為樂安行人下火](#)
- [為心通碓頭下火](#)
- [送尼淨空靈骨入塔](#)
- [為靜林禪師移骨塔](#)
- [為覺凡監院舉龕](#)
- [為皂林覺知監院下火](#)
- [為發慧優婆夷舉龕](#)
- [為月井禪人舉龕](#)
- [為行首行人下火](#)
- [為無隱侍者下火](#)
- [為林菴禪人下火](#)
- [為廓虛禪人下火](#)
- [為可可禪人下火](#)
- [為空如知事下火](#)
- [行狀](#)
- [年譜序](#)
- [年譜](#)
- [塔銘](#)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贊助資訊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4」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 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序

嘗聞古人有言：「馬大師位下出八十四員善知識，真得法髓者不過數人，其餘盡是唱導之師。」余頗疑之，以為馬祖弟子皆大冶精金，安有彼此？況擔荷大法豈是易事？能以所得唱導後學，則佛祖慧命可續，更何他求？

既乃始省黃梅五祖已有北宗一支，雖毫釐之差且至千里，故曰：

「智過於師，方堪傳授。」印空、印水、印泥則不同矣。

所以天童中興臨濟，惟雙桂破山和尚洵今日之百丈歸宗也。其入處斬絕，不涉廉纖，又得密老人與之扣擊，似黃檗之於潯沱，全提正令，不放一鍼出路。宜其開法嘉興東塔，後旋返蜀鄉，坐道場一十有四。凡三十七年中，秉吹毛慧劍，倒用橫拈，咳唾掉臂，無非向上提持。如塗毒鼓，聞者沾其氣息無不喪身失命，即王公勢要亦皆頰首屈服。化導所至，寧復知解所能測識哉？今語錄具在，將使天下後世觸著、磕著，悉與斷卻命根，豈止一時？

昔歲丁酉，昭覺醉師至禾，曾刻本師語錄十二卷行世，時和尚固無恙也，又十載而圓寂，則初刻為未全。茲玉泉正師裒集全稿，付梓入藏，問敘於博思和尚。

昔年住福城時，余年猶少，聞衲子群言：「和尚說法迥出尋常。」而余竟以塵緣所繫，不及一領法誨，以至老而無聞，寧堪作弁首之序？但吾里東塔為和尚開法第一道場，古新清白師當日親炙左右，每向余稱述一言半句，不覺想梅生液。余雖愚鈍，實深信之。

兩師不遠數千里，與古新協力了本師公案，區區縱不能道其萬一，烏可以不言？正如掉棒打月，何所不可？

康熙庚申，佛生日，樵李約庵道人施博拜撰

敘

破山大師道化之盛，平生所開法會凡十有四處。其最先在吾禾之福城，於時師年甫三十，方得法於金粟即受斯請。予嘗同友人周子貞可數往參謁，媿初學無所契，但見有知解之宗徒、心性之禪說，竊疑其非，以落艸之談相質，師每笑而然之。此事迄今遠矣，尚能記憶之也。

自師之入蜀，隨阻寇亂，彼此不相聞久，及乎陽平通道門人丈雪攜師語錄來禾中授梓，予當分守川北。丈雪以所刻成書，付其徒竹石偕予行，予抵川，而師在金城仍見阻，懷三十餘年之別，有重歎焉。

予嘗聞蜀人言師折伏呂督，師大器，不啻宋悅公之於無盡，十三家之賊殺師不得反信奉。師為之止殺，將頭臨刃，七難不渝，有古德之風，而兇威自戢，其道力似尤過之也。

師念不忘吾禾，常有東行之約，因三峽未開，望夔州而返。以後譚姚二家俱效順，吾友沈子子相令新寧，適鄰其地，得數禮覲師。師語及禾中道侶，每為惓惓，不數年而師竟示寂去，由是予繼見之望絕矣。

予前在保寧，屢晤其門人離指云：「丈雪刻行之書芟逸頗多，師意猶見少。」今師歿十餘載，門人蓮月從荆門來禾，復彙刻全錄共二十卷，實承師之志。

蓮月請予言為弁，予與師多舊緣，不敢辭。且今宗門敝壞，聰明者濫于文詞、樸實者流于義學，竊謂非師之大用大機不足以振起，二十卷之刻良不厭多，不然，則諸方之著述已日夥矣，此又何求益也？

康熙十九年，四月望後五日，樵李王庭拜題。

破山禪師語錄目錄

- 序文二
- 第一卷
 - 上堂一
- 第二卷
 - 上堂二
- 第三卷
 - 上堂三
- 第四卷
 - 上堂四
- 第五卷
 - 上堂五
 - 小參一
- 第六卷
 - 小參二
- 第七卷
 - 機緣
- 第八卷
 - 法語一
- 第九卷
 - 法語二

- 第十卷
 - 法語三
- 第十一卷
 - 法語四
- 第十二卷
 - 書問
- 第十三卷
 - 拈古
 - 頌古
 - 聯芳偈
- 第十四卷
 - 示偈(七言四句)
- 第十五卷
 - 示偈二(七言四句)
- 第十六卷
 - 示偈三(七言四句 五言四句)
- 第十七卷
 - 佛祖讚
 - 自讚
- 第十八卷
 - 雜偈(七言八句 五言八句)
- 第十九卷
 - 雜偈
 - 坐禪箴
 - 十二時歌
 - 牧牛圖頌
 - 題小像
 - 題行樂圖
 - 萬峰景
- 第二十卷
 - 序
 - 疏
 - 銘
 - 偶言
 - 佛事
 - 行狀
 - 年譜(附)
 - 塔銘(附)

破山禪師語錄目錄(終)
破山禪師語錄卷第一

當陽玉泉嗣法門人印正等編

上堂一

住嘉興府東塔廣福禪寺，師在苕谿福山受請，崇禎二年八月一日入院。至佛殿，以坐具拂一拂，云：「八字打開，當陽拋出，坐斷報化佛頭底人，正好不向佛求、不向法求、不向僧求，常禮如是。」便拜。

伽藍堂，云：「前三三，後三三，俱在者裏。弘護今日被山僧一瓣香觸碎鼻孔，莫怪山僧粗糙。」

祖堂，云：「一華開五葉，至今狼籍不少，更要起模做樣作麼？咄！」

眾請陞座，拈香云：「此瓣香喫盡國王水土，養成一肚豪氣，放之則彌六合，卷之退藏於密，爇向爐中，恭為今上皇帝祝嚴聖壽，萬歲萬歲萬萬歲。」

次拈香云：「此瓣香奉為闔朝文武、天下官僚、本山請主、護法居士，惟冀同明般若，共證菩提。」

又拈香云：「此瓣香斧斫不開、刀劈不破，雨灑風吹遂成乾屎橛，此是第一回拈出，供養見住金粟山廣慧禪寺傳曹谿正脈第三十四世密雲和尚，用酬法乳之恩。」

就座，維那白槌，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云：「香已拈了，更要山僧說箇什麼？」

時和石孫居士稽首請垂語，師云：「山僧素志本欲深棲巖竇，隱遯過時，不意撞夥鐵面皮居士，善具辣手，慣會拏雲，將山僧拽入者保社，開張臭口，說幾句燥脾胃話以光法門。山僧自揣愚劣，不會打葛藤，只好舉則古人住院因緣以塞來命。昔日圓通禪師入院，云：『圓通不開生藥鋪，單單只賣死貓頭，不知那箇無思算，喫著通身冷汗流。』者老漢住院還有箇死貓頭賣弄腥羶，遂引蒼蠅成群作隊。山僧今日到院，也無死貓頭賣，亦無生藥鋪開。」以兩手作擎瓶勢，云：「單單只有者箇，大眾且道：者箇是什麼？」

眾無對，師高聲云：「曹山好顛酒。」復云：「破山喫著曹山酒，醉得通身俱是口，瞎禿光兒罵上天，又來拈棒打顛狗。山僧恁麼告報，非是壓良為賤，抑且法爾如然。未審眾中還有傍不甘底衲僧麼？出來相見。如無，更與諸人重下註腳去也。」驀拈拄杖卓一

卓，云：「還知麼？知，則途中受用；不知，則世諦流布。」喝一喝。復白槌云：「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下座。

開爐，上堂。[車*度]轢嚴居士問：「大悲千隻手，那隻是正手？」師云：「四稜著地。」進云：「大悲千隻眼，那隻是正眼？」師云：「八面玲瓏。」進云：「手眼不勞重舉似，單傳意旨是如何？」師震威喝一喝。進云：「雙手劈開生死路，一眼覷破是非關。」師便打。進云：「瞎。」師云：「瞎瞎。」士禮拜，師乃云：「新開爐鞴辣鉗錘，正打傍敲下下隨，本是幾團零落鐵，一回入火一回奇。大眾還有一回奇底也未？」一僧出眾，喝一喝，師云：「好喝。」僧無語。師云：「此奇未足盡善，看木上座為汝諸人弄奇去也。」以拄杖擲地，鼓掌呵呵，云：「也大奇，也大奇。」

孫弘祚、弘福為薦祖簡肅尚書請陞座。師云：「一念普觀無量劫，非去非來亦非住，如是了知三世事，超諸方便成十力。」以拄杖卓一卓，喝一喝，云：「也甚奇怪，山僧適才舉首上場詩，引得簡肅孫公跳在山僧拄杖頭上，現大人相，出廣長舌，道山僧眼華不少，被山僧一喝，依然向山僧拄杖頭邊默默隱去。山僧所見如是，未審諸人同見也無？若也同見，便見三世諸佛、歷代祖師、并及人人生身父母、歷劫宗親，全體如是來、全體如是去、全體如是住；其或未然，更聽山僧與尚書題額去也。」以拄杖劃一劃，云：「昔日君王為柱石，今朝佛法作金湯。」

上堂，師云：「天得一以清；地得一以寧；君王得一，天下太平；衲僧得一，海眾雲臻。雖然總之是一，爭奈緇素分明。舉其緇也，兵隨印轉；舉其素也，將逐符行；直饒不緇不素，未是輟芥投鍼。大眾！正恁麼時，如何是鍼芥相投句？龍得水時添意氣，虎逢山勢長威聲。」

上堂，師云：「今朝正值臘月八，釋迦原是小悉達，經行忽地面仰天，撞著明星刺眼瞎。阿哪阿哪，相救相救。」卓拄杖，云：「幸爾還有者箇在，不然終是扶籬傍壁漢。」

金粟專使送法衣至，上堂，師云：「大庾嶺頭提不起，雞足山前成滯貨，山僧今日獲一披，如雲普覆華王座。大眾記取：三十年後切不可動著。何也？動著則禍生。」

望日，上堂，師云：「天上月正圓，人間道月半，撞著閻羅王，便把飯錢算。咄！休打算，且待山僧細細與你從頭判。天上月正圓，陝府鐵牛頭角攢；人月半，嘉州大象皮毛換。撞著閻羅王，大蟲被犬傷，便把飯錢算。兩箇五百是一貫，不管三七廿一、二五一十，挨排算到臘月三十日祇算得一半，設或完全，直待驢年。」喝一喝，卓拄杖下座。

歲旦，上堂，僧問：「新年百草頭，早已露公案，舊時底春風，華放滿園香。如何是不涉新舊句？」師豎拂，云：「是新？是舊？」進云：「密密無蹤跡，相逢帶喜顏。」師云：「閒言語。」僧禮拜，師乃云：「爆竹一聲，蒼天兩字，艸木昆蟲，全彰意氣。柳眼拖不價之金，梅梢吐不瑕之玉，龍兒鳳子齊歌舜德堯仁，癩狗泥豬同和祖風佛日。導群倩而越死超生，普萬有而豐衣足食。大眾！正當恁麼時，還有不威而嚴、無為而化者麼？」良久，云：「東風吹出林間去，引得遊蜂攘舊新。」

元宵，上堂，師云：「今朝正月十五，處處敲鑼擂鼓，將調移苦為樂，誰知翻樂為苦？一念此界他方，卻被風隔雨阻。放出鐵鷄流星，打殺街頭石虎，引得彌勒呵呵，笑到日輪當午。大眾且道：他笑箇什麼？心生大歡喜，自知作佛祖。」

解制，上堂，師云：「東風解凍，百艸萌芽，行腳衲僧，似粟如麻。拖泥帶水兮，艸鞋寧似虎；溷俗和光兮，拄杖活如龍。向有佛處不可住，無佛處急走過，方稱英俊衲家。切不可向萬里無寸艸處去，虛度生涯。大眾！且如今日臨行慶賞一句作麼生道？摘楊華，摘楊華。」

浴佛，上堂，師云：「山僧偶患腹瀉，撒尿不成屎橛，將此塗污諸人，諸人鼻孔未徹。徹不徹，一條白棒當頭楔。雖然如是，怎奈事無一向，今遇釋迦老子誕辰，不無也要應箇時節。大眾且道：應時應節一句作麼生道？時破浪在。」眾鼓掌作聲，師拈起拄杖，云：「還要第二杓惡水麼？」卓一卓，下座。

丘檀越送銅鍋至，上堂，師云：「存曾丘方伯不識好惡，布施一口大鍋，要山僧煮鐵釘飯、炊木樵羹，供養盡大地人箇箇咬嚼。山僧今日開此無遮大會，豈肯私瞞？普欲是天、是人，是僧、是俗，受此食者盡教同福同壽、同證同得，功超五果、行越三賢。未如是者，且向碗底箸頭豁開兩眼，切莫瞌睡，將木樵羹、鐵釘飯細細咬嚼，看是什麼滋味？參。」

金居士生日，請上堂，師云：「時當毒熱渾如火，逼得通身白汗流，只為諸人不肯薦，山僧特地一場愁。咄！愁箇什麼？莫是衣不足身、食不足口麼？若是衣不足身，不蠶而衣者有也；食不足口，不耕而食者有也。但世間名利、富貴榮辱，種種亦復如是，何足致愁？單單只愁生死交謝、寒暑迭遷，有物流動，捨死趣生、捨生趣死，如旋火輪無有休息，所以愁耳。今日幸我金居士誕期，營齋供眾，強山僧舉揚箇事。然居士本意惟求壽命比南山、福德如東海，不若將此馳求之心用在生死際頭，求得生死二字脫然無累，方知壽命福德盡未來際不曾增、盡未來際不曾減，盡未來際不曾生、盡未來際不曾滅，淨裸裸絕承當，赤灑灑無回互。」

驀拈拄杖，卓一卓，云：「還委悉麼？體取本來堅密身，永證金剛無量壽。」

上堂，師云：「昨日盆傾大雨，今朝杲日麗天，帶累人衣乍乾乍溼，哄得艸鞋增價增錢。忽地乾坤一色，宇宙同源，為復是佛祖誕生？為復是神僊脫陰？問取拄杖子，拄杖子道：『是我敬雲施居士八十老母高陞壽域，所以有如是無量無邊不可說不可說華藏莊嚴海，一一流出無量無邊不可說不可說福德智慧門，一一含容無量無邊不可說不可說壽命聚，一一聚中或現大身、或現小身，或現男形、或現女形，凡有所為悉皆現之。』」山僧聞已，入是三昧，洞見十方，無障無礙。」

驀拈拄杖，卓一卓，召大眾云：「還見麼？眼窺海屋添籌處，悟取中間不老人。」

[車*度]轢嚴居士送大悲菩薩進院，請上堂，嚴問：「千僧拱侍，法海波騰，風恬浪靜即不問，如何是興波作浪事？」師震威一喝。進云：「今朝大士歸禪院，手眼憑師為點明。」師云：「瞎。」進云：「轉大士為羅剎則易，化羅剎為大士則難，非難非易一句作速道來。」師云：「截斷葛藤。」進云：「依然日午打三更。」師豎拄杖，士拂袖歸眾，師乃云：「福城東際煙水漲，大塔廟前樓閣開，千手大悲捫不住，無端放出善財來。大眾且道：善財來作甚麼？隨行蹋斷流水聲，縱觀瀉出飛禽跡。」

克彬禪人為師祖送靈骨入塔，請上堂，僧問：「生滅去來即不問，如何是密師安身處？」師云：「主山前，案山後。」僧禮拜，師乃云：「一葉落，天下秋；一塵起，大地收。所以道因緣和合，虛妄有生；因緣別離，虛妄名滅。殊不知我密化上座性真常中求于去來迷悟生死涅槃了無所得。既無所得，且道伊即今在甚麼處安身立命？」

驀拈拄杖，卓一卓，云：「還委悉麼？不離當處常湛然，覓則知君不可見。」

上堂，師云：「秋風起，秋夜長，未歸客，思故鄉。阿誰是未歸客？莫是三賢十聖是未歸客麼？西天四七、東土二三是未歸客麼？今日現前大眾，若僧、若俗，是未歸客麼？若然歸者，掉臂不顧；其或未然，且漫躊躇，切不可終日塵勞汨汨、業識忙忙，蹉跎過日。急須繫緊芒鞋，牢縛裙褲，慎勿思前算後、思後算前，中途解退；必要猛著精彩，驀直歸到故鄉田地始住腳。」乃拈拄杖，卓一卓，云：「還有恁麼人麼？」良久，云：「來到寶山須採寶，莫教赤手又空回。」

受印開，為僧上堂，師云：「金鋤剷盡千峰雪，露出天涯星月孤，照得世間人廓徹，都來依樣畫葫蘆。大眾還有依樣畫得者麼？有則

不妨好手手中呈好手，紅心心裏中紅心；其或未然，山僧自畫去也。」以拄杖打圓相於中，擲地云：「層落落，影團團，千古萬古與人看。」

開爐，上堂，師云：「盡空盡界惡爐鞴，人與非人俱在內，烈火猛煙恆熾然，鍛生煉死渾無礙。放行則瓦礫生光，把住則黃金失色，正當此際，三緣未就、二俱不了，檀那添煤添炭與之助力、山僧扇風扇火與之激揚，大眾還有當爐不避者麼？出來與山僧拄杖子相見。」卓一卓，云：「有麼？有麼？」一僧不出眾，連喝兩喝，師云：「焦頭爛額，似粟如麻。」

佛成道日，上堂，問：「當時雲門為甚麼要打殺釋迦老子與狗子喫？」師云：「智眼難容俗漢。」進云：「倘有人打和尚，又作麼生？」師和聲便打。進云：「者一棒是打雲門？是打某甲？」師云：「任你卜度。」僧喝一喝，師復打。僧禮拜，師乃云：「昨夜釋迦老子打翻漆桶，帶累多少人頭破腦裂；今日山僧忍俊不禁也，只好是看孔著楔。」拈拄杖向空畫此[○@(\、/(、*、))]

云：「會麼？於此會得，說什麼麻三斤、乾屎橛？要休便休，要歇便歇。所以道：無邊剎海，自他不隔於毫端；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其或未然，更聽山僧曲引旁通去也。」

復舉：「世尊初出母胎，一手指天，一手指地，云：『天上天下，惟吾獨尊。』及至雪山苦行六年，睹星悟道，亦云：『盡大地眾生一時成佛了也。』據山僧判斷，世尊一口兩舌，處處惹人情見，引得雲門大師道：『我當時若見，一棒打殺與狗子喫，貴圖天下太平。』然雲門大師只解騎虎頭，不解捉虎尾，遞相鈍置。山僧當時若聞此語，只消掩耳而出。何也？佛之一字，吾不喜聞。」喝一喝，卓拄杖下座。

上堂，師云：「柴米油鹽事事空，客來無計可融通，山僧昨夜動饑火，燒得須彌走芥中。大眾還救取得麼？試救取看。」時象崖維那舞坐具，云：「和尚會麼？」喝一喝，便出，師云：「只好救取一半，然那一半還須山僧自救取。何故？輸得自己，贏得他人。」

歲旦，上堂，僧問：「黃道初開，彩雲彌布，如何是新年頭佛法？」師云：「恰好。」進云：「和尚還有為人處也無？」師云：「有。」僧喝一喝，師正色噓一聲。問：「天雨寶華，空現寶色；地隱山河，芥含塵剎。如何是芥含塵剎句？」師驀頭一棒。僧喝一喝，師又打。僧連喝，師連打，云：「胡喝亂喝作麼？」僧禮拜，師云：「掠虛漢。」

問：「新年原是舊年人，如何是新年人？」師云：「搥胭抹粉。」進云：「如何是舊年人？」師云：「灰頭土面。」進云：「新舊相去幾何？」師云：「看取上頭註腳。」

問：「舊歲已去，新歲到來，新舊二歲了然不涉時如何？」師以手向面摸兩摸，云：「會麼？」進云：「也要和尚相委悉。」師云：「為汝兩次不薦，委悉箇甚麼？」

問：「舊歲新年即不問，如何是春到梅華撲鼻香？」師云：「你鼻孔為什麼被他換卻？」進云：「還在。」師云：「在什麼處？」僧喝，師打，云：「且道是賞你？是罰你？」僧無語，師乃云：「今朝新年頭，昨日舊年尾，頭尾與舊新，總較者些子。」遂呈拄杖，云：「大眾且道：者些子又作麼生較？」良久，以拄杖擲地，云：「從今拋擲在春風，一任華開與華落。」

師誕日，上堂，問：「清白池前蒼古柏，拈得彌盧作壽山。今日拈來，和尚如何受用？」師云：「子丑寅卯辰巳午，甲乙丙丁莫莽鹵。」僧禮拜，師乃云：「三十五前一著子，本無生也本無死，釋迦狼籍雪山頭，彌勒收歸布袋裏。」驀拈拄杖，云：「今日落在山僧手裏，逢人切莫錯舉。」

師剃髮上堂，云：「山僧昨日髮鬢鬆，誰料今朝頭顱禿？箇事分明本現成，大都只是人輕忽。不輕忽，咄！咄！咄！六六原來三十六。」卓拄杖，下座。

浴佛，上堂，師云：「問底也問四月八，答底也答四月八，兩兩三三沒偈[仁-二+(天/韭)]，都盧只逞口頭滑，引得釋迦老子一時惡發，指天指地，獨尊已大，卻被雲門一棒要打殺，撞著琅琊，道箇『將此深心奉塵刹』。今日山僧不解明中抽橫骨、暗中坐舌頭，只好輕輕道箇『活驚殺，活笑殺』。大眾且道：驚箇什麼？笑箇什麼？試箇點看。箇點得出，強中更有強中手，惡人還有惡人磨。」

上堂，僧問：「海乾日出時如何？」師便打。僧喝，師又打。僧又喝，師云：「三喝四喝後如何？」僧無語，師云：「掠虛漢。」僧禮拜，師乃云：「古佛與露柱相交，逢人且說三分話；金剛與泥人揩背，未可全拋一片心。正恁麼時，是誰境界？」靠拄杖云：「默默自知田地穩，騰騰誰調肚皮愁？」

復舉：「東印土國王請齋，一眾俱誦經，惟二十七祖般若多羅尊者默默晏坐。王問尊者：『何不誦經？』者曰：『貧道人息不居陰界、出息不涉眾緣，常轉如是經百千萬億卷。』山僧看來：本是一卷不斷頭經，卻被尊者話為兩段，致使無人信受奉行。今日我翼乾沈大檀越來山請陞座，山僧自忖口門窄，盡力道不出箇元字腳，只好將遠祖者卷不斷頭經，拈向人天眾前下箇註腳。」以拄杖卓一卓，云：「還會麼？下文繁長，付在來日。」

上堂，師云：「六月炎天傾大雨，聲聲因地啟無生，洞知五十年前事，滿目飛埃不是塵。如是，則截瓊枝而寸寸是玉、析旃檀而片片皆香，其體也奚四山之可恃、其用也非五色之能媒。正恁麼時，不

涉體用一句作麼生道？」卓拄杖，云：「有時扶過斷橋水，依舊伴歸明月村。」復卓拄杖，下座。

解夏，上堂，師云：「休夏自恣，千古同規。諸佛歡喜，眾生皺眉，喜者甚喜，悲者甚悲。」以拄杖卓一卓，云：「惟我木上座迴出悲喜之外，終日閒閒，倚牆靠壁。今日卻被山僧握在手中，收之則撐天拄地，放之則七縱八橫，發大機、顯大用，佛來也與一頓、魔來也與一頓，現前若僧、若俗，若男、若女來也與一頓，過去七世父母、歷劫宗親，有主、無主，乃貴、乃賤來也與一頓。」復卓拄杖三下，云：「大眾且道：山僧何故如此響？只因聖制告圓，大家做箇滿散。」喝一喝，下座。

地藏菩薩誕日，上堂，師豎拄杖，云：「大眾見麼？有眼必見。」卓一卓，云：「聞麼？有耳必聞。如是聞見分明，所以山僧陞座為汝諸人證據。且道聞箇什麼？見箇什麼？莫是地藏菩薩捨其尊貴而降卑小，為汝四眾發大誓云：『眾生度盡，方證菩提；地獄未空，誓不成佛。』麼？雖然汗馬功高，要且不是衲僧巴鼻。」以拄杖敲香几，云：「不若山僧今日更為諸人翻案去也。眾生度盡，不證菩提；地獄已空，誓不成佛。山僧怎麼告報，還知落處麼？」卓拄杖，下座。

孫起伯建大悲閣，請上堂，師云：「山僧住此二三秋，拄杖芒鞋未徹頭，千手大悲來摸索，一莖艸上現瓊樓。如是則塵塵垂手，剎剎現身。垂一手，則千手萬手俱備；舒一目，則千目萬目皆然。其慈也，與三世諸佛同；其悲也，與一切眾生共。玉殿瓊樓因念而感，雲路丹霄隨心而至。」時[車*度]轢居士問：「古殿藏僧棒，巍樓顯法幢，法幢今大顯，棒頭旨未明。請師垂慈，傍通一線。」師驀頭打一棒，云：「棒頭有眼。」進云：「謝師指示。」師云：「血滴滴地。」卓拄杖，下座。

結制，上堂，師驀拈拄杖，卓一卓，喝一喝，云：「會麼？若也會得，便知結制從此結、解制從此解，結解本同源，桑田變滄海；其或未然，更聽山僧為汝諸人說偈註破。福城結制三冬，惟有今年最兇，捉敗五湖衲子，兼收四海鯢龍。佛祖尚未預數，人天豈立上風？會得棒頭喝下，管教及第心空。」喝一喝，卓拄杖，下座。

淨心禪人為師祖覺然入塔，請上堂，僧問：「昨夜紫霞朝北闕，今朝瑞氣向南開，且道靈骨入塔是何作用？」師云：「魚行水濁，鳥飛毛落。」

問：「諸行無常即不問，覺公去後歸何處？」師云：「東西不管，南北不收。」進云：「死去生來不依本分，過在甚麼處？」師云：「腳跟下好與三十棒。」僧禮拜，師乃云：「颯颯腥風撲面來，肩頭酸處難開，分明一具黃金骨，東擲西拋經幾回？莫是一為無量、

無量為一得麼？且喜沒交涉。莫是小中現大、大中現小得麼？且喜沒交涉。莫是菩提涅槃真如佛性得麼？且喜沒交涉。莫是山河大地明暗塞空得麼？且喜沒交涉。莫是四大本空、五蘊非有得麼？且喜沒交涉。既然未得，且道作麼生是覺然上座底黃金骨？」喝一喝。云：「百骸俱潰散，一物鎮長靈。」

上堂，僧問：「虛空無背面，八面絕玲瓏，向什麼處安身立命？」師云：「懷州牛喫禾，益州馬腹脹。」問：「衲僧共住學無為，誰是心空及第者？」師便打。僧喝一喝，師復打。僧連喝，師連打。僧禮拜，師乃云：「十五日已前，為人膿滴滴地；十五日已後，為人血滴滴地；正當十五日，為人乾暴暴地。朝打三千，暮打八百，畢竟落處如何？黃狗喫食，黑狗遭殃。」

清白知客為受業師覺凡入塔，請上堂，師云：「纖塵不染，淨裸裸地絕承當；寸絲不挂，赤條條地無回互。所以道：和合妄生、和合妄死，既生死都盧是妄，安有罣礙染污而著其間哉？今辰覺凡定公數門人請山僧為伊陞座露布葛藤，翻是無罣礙處立罣礙、無染污處成染污矣。何故？我王庫內無如是刀。大眾！且頓超一句作麼生道？南北東西收不得，天堂地獄孰能該？」

佛成道，解制，上堂，師云：「一點明星刺眼開，輝天鑑地嘆奇哉，當時想是無禪客，若有和聲打落腮。大眾且道：釋迦老子有什麼過，要和聲打落腮？試簡點看。若簡點得出，不枉在者裏朝參暮請之勤、長期短限之逼；其或未然，連山僧龜毛拂兔角杖只好擲向福城東際又東際去。何也？為眾竭力，禍出私門。」擲杖，下座。師誕日，上堂，僧問：「世尊生時指天指地，和尚生時有何祥瑞？」師云：「七縱八橫。」進云：「慶賞一句又作麼生道？」師便打。僧撫掌呵呵，云：「別有曇華一朵新。」便拜，師云：「莫眼華。」

問：「三十六年前行棒行喝，三十六年後度人已畢，正當三十六年以何為人？」師便驀頭一棒。僧喝，師連打兩棒。僧禮拜，師乃云：「山僧久不陞座，想是舌頭爛卻，四眾與吾慶生，震威痛下一喝。」乃喝一喝，云：「大眾且道，者一喝落在什麼處？」時四維上座以兩手掩耳，師復喝兩喝，下座。

結夏，上堂，師云：「東塔今年結夏，老牛老馬歸舍，雖無水艸供看，且有鞭繩惡辣。未審眾中還有擎頭戴角者麼？試出來[跳-兆+孛]跳看。」時象崖西堂以兩手作擎空勢，師云：「且喜出來，相共拖犁拽耙。」下座。

解夏，上堂，師云：「今朝七月十五，處處追宗薦祖，山僧總不恁麼，單牧一頭水牯。所謂：法無定相，隨遇即宗。以一事明，則千差萬別無不明；以一理契，則萬別千差無不契。然而事也、理也，

無不從此法界流出，究竟還歸此法界。所以道：實際理地不受一塵，佛事門頭不捨一法。大眾！正與麼時，德山棒、臨濟喝，麻三斤、乾屎橛，庭前柏樹子、青州布衫重七斤，還當得鬼神茶飯麼？還當得本分艸料麼？試辯別看。若辯別得出，一任擎頭戴角，宇宙縱橫；其或未然，莫將學解生知解，別起眉毛子細看。」

辭院，上堂，師云：「山僧肚裏亂如麻，伎倆無能盡爪牙，千日禪期今日畢，杖頭卓處活龍蛇。」遂卓一卓，云：「還有現躍飛騰者麼？」眾無出，師以拄杖橫眉，云：「柳栗橫擔不顧人，直入千峰萬峰去。」

破山禪師語錄卷第一

（嗣法門人蜀渝州治平寺照衣敬刻破山和尚語錄第一卷 玉陽堆藍弘禮禪人對秀水謝禎仙書 嘉興倪天章刊）

（康熙庚申歲孟春月嘉禾楞嚴寺般若坊藏板）

上堂二

住夔州府梁山縣萬峰山太平禪寺，崇禎六年四月初一日入院。方丈，云：「萬峰山頂別人間，上有梧桐開合歡，不是假雞棲泊處，箇中惟許鳳凰參。」顧視左右，云：「有麼？有麼？」時一居士向前問訊，師云：「雞棲鳳巢，非吾同類。」

銓部文選郎中馮公善長、孝廉朱公維豐請開堂，師至法座前，以杖擊云：「棒敲千樹梅梢月。」喝一喝，云：「喝散萬峰山頂雲，露出華王獅子座，當陽一著許誰登？大眾見麼？」遂陞座，拈香云：「此一瓣香形同枯木，狀似鐵牛，曾向十字街頭橫行直撞，今在萬峰手裏倒弄顛拈。爇向爐中，端為祝延今上皇帝萬歲萬歲萬萬歲。此一瓣香，逢強即弱、遇柔則剛，統中外之權衡，樹文武之赤幟，奉為在任宰官高增祿位。」末拈香云：「此瓣香冤入骨髓，過犯彌天，自從親遭毒手，此是第二回拈出，供養見住浙江寧波府鄞縣天童山景德禪寺密雲老和尚，用酬法乳之恩。」

就座，上首白樵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云：「若論第一義，白樵上座已露了也，更要山僧鼓兩片皮、弄三寸舌，堪作什麼？雖然如是，要且新萬峰不忍杜口去也，只得向無言語處形言語、無機用處發機用，終不似三家村裏裝聾賣啞、咳唾掉臂，以當宗乘極則。我者裏禪道佛法，如山之高、似海之深，須是過量者來略較些子。如或未能……」以拄杖卓一卓，云：「且向者裏薦取。」復白槌，下座。

上堂，玉川胡居士問：「生死關頭事如何？」師云：「七又八篆。」進云：「正恁麼時向甚處安身立命？」師云：「蒲峽口橫說豎說，天龍峰頭顛尾顛。」士喝一喝，師便打。士云：「者向無情破屋，藏躲曠劫生死，今朝徹底掀翻，現出本來面目。」師徵云：「如何是你本來面目？」士云：「本來面目誰似他？水中明月鏡裏華，蕩蕩空空無不是，歷歷分明更不差。」師搖手。士便出，問：「石砬坪萬峰山相見了也，即今陞座更為阿誰？」師云：「你眼華。」進云：「者老漢也具者般眼。」師便打。

問：「鐵牛不怕獅子吼，獅子即不問，如何是鐵牛之機？」師云：「怕殺人。」僧喝一喝，師云：「者喝濟得汝甚邊事？」僧無語，師乃云：「太平寺裏新開堂，衲子齊來露所長，儘力吐無元字腳，有何佛法可商量？」

上堂，僧問：「如何是萬峰境？」師云：「青青翠翠山頭疊。」進云：「如何是境中人？」師豎拄杖，云：「直直條條肩上橫。」進云：「無境無人時如何？」師便打。僧連喝，師連打。僧禮拜，師乃云：「春至百華開，秋來黃葉落，四時尚不遷，誰縛欲誰脫？如是，則知天地同根，萬物一體，聖凡一心，古今一道，事理一揆，更無一絲毫強言巧詐處兩人。向此不悟，轉生人我，妄計是非，輪回是中，自取流轉。今日山僧只得向好肉上剜瘡、虛空裏掘洞。」以拄杖舉起，召眾云：「還見麼？見月休觀指，歸家罷問程。」冬月，一日上堂，師云：「識得一，萬事畢，南山起雲，北山下雨。」震威喝一喝，云：「娑羯羅龍王被山僧一喝，嚇得倒退三千里，大地降了一夜濃霜，箇箇凍得腰脰熟睡。大眾且道：醒來受用一句作麼生道？乾坤老我一頭雪，歲月消磨百甕蠶。」

上堂，師云：「十五日已前為人，前不搆村；十五日已後為人，後不抵店；正當十五日，棒如雨點，喝似雷奔。大眾且道是什麼意旨？作何話會？一馬生三寅。」

上堂，僧問：「如何是諸法實相？」師便打。僧佇思，師云：「死漢。」僧禮拜，云：「假饒劫壞時，實相在什麼處？」師云：「合取狗口。」僧禮拜，師乃云：「山僧纔上蒲團，正在做夢，忽遇尹、戴二居士到榻前作禮，請山僧陞座，為眾說法。山僧自揣世、出世法渾然是夢，妻財子祿也是夢、真如佛性也是夢、田園屋宅也是夢、菩提涅槃也是夢、為官為吏也是夢、成佛成祖也是夢，所以道：一切有為法，如夢幻泡影，如露亦如電，應作如是觀。此是閉眼底夢，還有開眼底夢，待大眾禮拜了，即向伊道。」眾無出，師下座，尹居士跪乞說破，師驀頭一棒，歸方丈。

上堂，僧問：「如何是異類中事？」師打云：「者畜生。」進云：「也須還我話頭來。」師又打。僧喝一喝，師又打。進云：「棒頭縱有真消息，也落時人第二機。」師云：「如何是你第一機？」僧擬議，師云：「不識痛癢在。」

問：「如何是打死人底棒？」師便打，僧作死勢倒地。云：「如何是活人底棒？」師高聲云：「將者死屍拖出去。」僧即起，趨出。師乃云：「山前山後雨濛濛，就裏渾無一竅通，惟有山僧拄杖子，撐天拄地活如龍。大眾且道：朝打三千，暮打八百，成箇甚麼邊事？」眾無語，師喝一喝，下座。

佛成道日，上堂，僧問：「有物先天地，正恁麼時，是先？是後？」師云：「待天龍峰點頭即向汝道。」

問：「滿眼滿耳，非色非聲，是甚麼意？」師云：「滿眼滿耳，非色非聲。」

問：「海浪藏識，境界法身。如何是境界法身？」師云：「進前來向汝道。」僧禮拜，師云：「猶未向汝道，禮拜箇甚麼？」僧喝一喝，師便打。

問：「世尊拈華，迦葉微笑，未審笑箇甚麼？」師云：「笑汝不薦。」進云：「薦後如何？」師云：「世尊不拈華，迦葉不微笑。」僧禮拜，師乃云：「華綠楹居士為我釋迦老人成道來山設齋，山僧只得因齋慶讚。」以拄杖畫此○，云：「大眾會麼？」時升吾張居士出眾作禮，卓然而立，師云：「此處會得，虛空粉碎，大地平沉，心、佛、眾生，三無差別。」士展兩手。師復以拄杖畫此○，云：「六^年冷地無人問，一點明星是禍胎。」

上堂，師云：「昨夜梅華香宇宙，今朝雪子播長空，就中一點真消息，拈向諸人鼻孔中。」驀呈拄杖，云：「未證據者向此嗅嗅看，是甚麼意旨？」時破浪在眾作呵呵聲，師以拄杖擲地，云：「穿過髑髏。」

解制，上堂，師云：「萬峰解制萬峰雪，封著聖凡人路絕，只許寧龍躍碧空，橫身天外搖長舌，說道一切法不生、一切法不滅。問取諸人：向此長期短限就中者點徹不徹？徹，則掉臂不顧；不徹，從前與汝眉毛廝結。何故？太平寺裏原與諸方迴別。」

為受業大持師翁埽塔，上堂，僧問：「始別三巴去，終歸桑梓來。還鄉曲調作麼生唱？」師云：「哩囉哩囉。」進云：「大持師翁即今在什麼處安身？」師卓拄杖，云：「會麼？」進云：「我則不然。」師打云：「不然箇什麼？」僧拂袖便出，師乃云：「山自青兮水自綠，其中一具黃金骨，巍然坐斷長松村，日有風雲常拭拂。如是，烏用忤逆兒孫拈帚而為祭埽哉。蓋人人本有者具黃金骨，一向東擲西拋，出生入死，不知生之來處、死之去處，所謂佛佛出世唯為一大事因緣者是也。然祭埽者，世俗中臣當盡其忠、子當盡其孝，仁義道中，理不可無。吾教中亦有授受之源，燈燈相續，師資之禮亦復如是。總之，祭埽中為活計，不明生死大事因緣，則祭埽何益也？畢竟將大事因緣看到不疑之地，方可君恩、親恩、三宗九族恩一時報畢。大眾！且報恩一句作麼生道？將此深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喝一喝，下座。

上堂，僧問：「峰巒挺秀，鶴不停機，未審夜來還許歸巢否？」師云：「松樹下一場懨懨。」進云：「長飛去時如何？」師云：「腳跟下好與三十棒。」僧禮拜，師乃云：「昨夜濃霜鋪大地，今朝杲日麗長空，箇中一點真消息，怒起泥牛吼萬峰。所以道：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時節若至，其理自彰，如迷忽悟。如我字水上座曾向三乘十二分教已具一隻眼，不以得少為足，遠來萬峰，痛為激揚，正是時節因緣至也。」

復舉：「周金剛云：『三乘十二分教略頗羈知，終不聞南方一類魔子道：「直指人心，見性成佛。」』于是出蜀，澧陽路上見一婆子賣餅，買餅點心。婆指擔曰：『什麼文字？』曰：『青龍疏鈔。』曰：『講何經？』曰：『金剛經。』曰：『我有一問，你若答得，施與點心；若答不得，且別處去買。金剛經道：「過去心不可得，現在心不可得，未來心不可得。」未審上座點那一箇心？』渠無語，婆指參龍潭。及到龍潭，談及此事，抵夜，潭曰：『更深，何不下去？』周珍重便出，卻回曰：『外面黑。』潭點紙燈度與，周擬接，潭復吹滅，周於此大悟，便禮拜。潭曰：『子見箇什麼？』周曰：『從今向去更不疑天下老和尚舌頭也。』至來日，潭陞座，謂眾曰：『可中有箇漢，牙如劍樹，口似血盆，一棒打不回頭，他時向孤峰頂上立，吾道去在。』周將疏鈔堆於法堂前，舉火炬曰：『窮諸玄辯，若一毫置於太虛；竭世樞機，似一滴投于巨壑。』遂焚之。」

師云：「試看者著子未悟時，以舌尖利辯處認為大海，殊不知似一毫而已。從吹滅紙燈時，方知小大不相容隱。大眾！且道未悟時云：『三乘十二分教略頗羈知。』還知箇什麼？已悟後，又悟箇什麼？還委悉也無？未到盡驚山險峻，曾來方識路高低。」

師誕日，上堂，僧問：「和尚誕生是有量，如何是無量？」師云：「耳朵原來兩片皮。」僧禮拜，師乃云：「人人道我生，我生則我死，應知生死根，棒徹虛空髓，驚起石烏龜，能吞鐵鷄子。大眾！當恁麼時，不涉春秋一句作麼生道？僥伊數到劫雲初，不識平天華甲子。」

佛誕日，結制，上堂，僧問：「從上佛祖所傳正法眼藏、涅槃妙心，涅槃妙心即不問，如何是正法眼藏？」師云：「瞎。」進云：「瞎。」師云：「是你瞎？是我瞎？」僧頂鞋而出，師云：「大似西施戴箬帽。」師乃云：「今辰是我釋迦老人從摩耶夫人腹中走出，周行七步，目顧四方，一手指天，一手指地，云：『天上天下，惟吾獨尊。』起干戈時節也。後雲門老賊道：『我當時若見，一棒打殺與狗子喫，貴圖天下太平。』亦是勾賊破家，不免傍觀者哂。萬峰恁麼告報，未審眾中還有抱不平底麼？有，不妨推倒禪床，喝散大眾，寧不俊哉？如無，且向萬仞峰頭結夏，千軍隊裏安禪，平陂一併拈卻，處處楊華吐煙。」

上堂，師云：「黑漆皮燈籠，中間欠點紅，有人解挑撥，無處不光通。大眾！莫是三世諸佛橫說豎說是解挑撥麼？料掉沒交涉。歷代祖師顛拈倒弄是解挑撥麼？料掉沒交涉。明宇趙居士施點長命光燈是解挑撥麼？料掉沒交涉。今日現前檀越營齋供眾是解挑撥麼？料掉沒交涉。香燈蚤晚殷勤是解挑撥麼？料掉沒交涉。既總未是，畢

竟是甚麼人解挑撥？」以杖指燈，云：「我見燈明佛，本光瑞如此。」

因雪，上堂，師云：「颯颯風聲動林野，飄飄雪片滿丹墀。當年有箇龐居士，問著十人九不知，只為不識陰陽造化皆從此，始被寒暑境物熱瞞了也。」

舉藥山十禪客送龐居士至門外話雪因緣，師云：「萬峰當時若預數，待伊道：『好雪片片，不落別處。』便劈口與他一拳，直饒龐居士辯似懸河，塞斷咽喉而去。還知麼？莫言清蚤起，更有不眠人。」

上堂，師云：「天晴日頭出，落雨地下溼，人情所必然，何用強分析？不分析，且道蹇棟宇者裏牧一群水牯牛，痛添艸料。」驀呈拄杖，云：「還會麼？」眾無語，師高聲云：「少間向碗底箸頭上薦取。」卓拄杖，下座。

解制，上堂，師云：「年年七月十五，惟有今年最苦，田禾又被天收，人物盡遭賊擄。太平寺裏今朝解制，明上座不妨隨例顛倒。」以拄杖一時打散，歸方丈。

開爐，上堂，師云：「舊年始，今年末，爐鞴鉗錘分外惡，任是銅頭鐵額來，頂門一擊傾湫嶽。如是，則全殺全活，鑄利器於目前；半掩半開，運腐滓於腦後。千妖百怪，結舌藏鋒；十聖三賢，潛蹤絕跡。正當恁麼時，且道鳳泉黃居士祈嗣一句作麼生道？麒麟出而鳳凰現，金輪御而玉燭調。」

上堂，師云：「今辰是我尼足上座營齋供眾，請山僧陞座，露布者箇消息。然者箇消息，自我釋迦老人初出母胎，一手指天，一手指地，云：『天上天下，惟吾獨尊。』已露了也。後出孔聖人道：

『未知生，焉知死？』『吾無隱乎爾。』亦露了也，更要山僧露布箇什麼？雖然如是，事無一向，有條攀條、無條攀例。」

舉：「韓文公參大顛禪師，問曰：『春秋多少？』顛舉念珠云：

『晝夜一百八。』公回致疑。次日再來，遇堂中首座，舉前話問意旨如何，座扣齒三下。公復造大顛之室理前問，顛亦扣齒三下。公曰：『原來佛法無兩般。』顛徵其故，公曰：『適來問首座亦如是答。』

「顛召首座問曰：『是汝如此對否？』座曰：『是。』顛拈拄杖打二十，擯出院。」師云：「文公若不深入虎穴，爭得虎子？大顛雖有定亂之謀，且無安邦之計，大似打蠻子嚇好人。大眾！如大顛不肯首座則且置，且道今時人與古時人春秋數目畢竟是多少？還委悉麼？饒君晝夜一百八，數到驢年卒未休。」

修造畢，上堂，師云：「復古太平寺，淒然感廢興，寒灰八百載，破衲兩三僧。黠鼠居香積，妖狐吹佛燈，黃金重布地，不識有誰

能。」

上堂：昨夜冬瓜勸瓠子，今朝瓠子勸冬瓜，分明曲直兩條路，行者如何不到家？大眾且道：誰是途路客？誰是到家者？屋北鹿獨宿，谿西雞齊啼。

佛成道日，上堂，師云：「天上明星突出，釋迦打失一目，回觀六道四生，箇箇如蟲禦木。」

解制，上堂，值放爆竹，師乃云：「一聲爆竹響元宵，露柱燈籠話寂寥，漆桶依然還不快，青藜拄杖打驢腰。」卓拄杖，喝一喝，云：「討甚麼碗。」

師誕日，上堂，師云：「此眾無枝葉，惟有諸真實。」驀呈拄杖，召大眾云：「且道者箇是真實？是枝葉？試辯別看。若辯別得出，盡未來際不曾生、盡未來際不曾滅，淨裸裸絕承當、赤灑灑無回互，到此喚作無生話、無縫塔、無底籃、無根樹，既一切俱無，現前椎鐘播鼓，雲集四眾，強山僧登曲木床弄鬼眼睛底復是何物？只知事逐眼前過，不覺老從頭上來。」

結夏，上堂，師云：「正仁張居士為我釋迦老人降誕之辰澆一杓惡水，要山僧痛為雪屈，只得驅天龍峰、倒卓蒲峽，口橫開說幾句長言短語，應箇時節。」遂高聲云：「世亂年荒事事微，道人行履白如圭，饑餐渴飲渾無事，煉得身輕同鶴飛。」

上堂，僧問：「盡力道不出底句分付阿誰？」師云：「猢猻入布袋。」僧即舞坐具出法堂，師喝一喝，乃云：「十方同聚會，天龍八部、人非人等箇箇學無為。」卓拄杖一下，云：「唯有者箇不墮諸數，此是選佛場，東邊牛欄、西邊馬圈，心空及第歸，淳底自是淳、暴底自是暴。萬峰恁麼註腳，且道還有龐居士轉身吐氣處也無？」時破雪同眾齊下一喝，師噓一聲，卓拄杖，下座。

上堂，師云：「六月一，毒熱極，路上人頂傘，田中人戴笠。此事極分明，何用強分析？咦！不分析，將謂赤鬚鬚，更有鬚鬚赤。」開爐，上堂，師云：「大地分明一座爐，聖凡渾是火柴頭，挨挨濟濟無他伎，一度生煙一度愁。大眾且道：那裏是他生煙處？莫是出生入死是生煙處麼？超凡越聖是生煙處麼？無明煩惱是生煙處麼？貢高我慢是生煙處麼？喜怒哀樂是生煙處麼？若也如是，則攀宇宋居士飯僧祈嗣，得非生煙而何？所以道：凡有所求，一切皆遂，求官位得官位、求富饒得富饒、求長壽得長壽、求男女得男女；其或未然，且『將無明而證解脫，即煩惱而獲菩提』湊作一話頭，朝也如是、暮也如是，行也如是、坐也如是，參到情忘見絕，智泯心灰，因地一聲，方得倒斷。」以拄杖卓一下，云：「還會者箇麼？覓火和煙得，擔泉帶月歸。」

解制，上堂，師云：「長期短限，不惜寸陰；暮請朝參，非圖蛙步。且如俊鷹快鷂，終登鳳子龍兒，人人氣宇吞空，箇箇光明含象。不因正打傍敲，奚具銅頭鐵額？雖然如是，要且諸方大有人不肯在。何以故？開門放出郎當漢，腦後分明欠一槌。」

開爐，上堂，僧問：「不與萬法為侶者是什麼人？」師云：「頭上漫漫，腳下漫漫。」

問：「萬法歸一，一歸何處？後高峰大師道：『我當時打失一隻眼也。』且道那裏是他打失眼處？」師云：「十字街頭甌磚。」僧無語，師噓一聲。僧禮拜，師乃云：「萬峰今歲強開爐，柴米油鹽事事無，珍重兩堂雲水客，肚饑須用篋條箍。如是，則知馬祖問藥山云：『子近日見處何如？』山云：『皮膚脫落盡，惟有一真實。』祖云：『汝既如是，何不拾取三條篋束取肚皮，隨處住山去？』山云：『某甲何人，敢言住山？』祖云：『不然，未有常行而不住、未有常住而不行，欲益無所益、欲為無所為，宜作舟航，無久住此。』」師云：「藥山老漢受恩深處便為家，只得恁麼去；馬大師憐兒不覺醜，只得恁麼行。萬峰者裏，雖是與他同條生，不與他同條死，也無真實處，那更有皮膚？以百日為限、以徹為期，各各放開肚皮，隨處鼓粥飯氣去。何故？男兒自有衝天志，不向他人行處行。」喝一喝，下座。

上堂，問：「如何是透關句？」師云：「胡笳塞上知音少，羌笛城頭和者稀。」進云：「劍為不平離寶匣。藥因救病出金鉗。」師拈杖便打。進云：「恁麼、不恁麼，鑽山透海幾鯢鼇？」師噓一聲。僧禮拜，師乃云：「兩又不成雙，單又不成隻，曼殊三更三，長慶蒲團七。德山末後句，雲門顧鑑咦，萬峰不恁麼，無孔鐵錘當面擲。」以拄杖擲地，云：「參。」

上堂，師云：「古人道：第一句薦得，與佛祖為師；第二句薦得，與人天為師；第三句薦得，自救不了。雖然如是，魚魯參差，刀刁相似。今日山僧又且不然，第一句薦得，好肉剜瘡；第二句薦得，虛空掘洞；第三句薦得，爛泥有刺。大眾！山僧恁麼告報，且道與古人是同？是別？」時字水鼓掌一下，師噓一聲，下座。

解制，上堂，僧問：「有結有解，世諦流布；無結無解，未是全提。和尚到此如何指示？」師便豎起拄杖。進云：「八角磨盤空裏走，腳頭不覺是春來。」師云：「腳跟下好與三十棒。」僧禮拜，師乃云：「今日萬峰解制，驢唇馬嘴齊出，渾如春燕喧梁，宛似秋蟬語樹。拄杖芒鞋致疑，石頭瓦塊瞥地，分明告報諸人，只恐諸人不薦。」卓拄杖，召大眾云：「還薦麼？」有兩僧齊喝。師云：

「艸鞋腳底疑無路，拄杖前頭別有山。」下座。

辭院，上堂，師云：「奔東走西，腳跟猶未點地；去此就彼，鼻孔依舊遼天。龜毛拂子，刺瞎釋迦眼睛；兔角杖頭，敲破狸奴腦蓋。蒲峽口讚揚莫及，金鵝池水洗不清，只得撩起便行，亦是令行符到。正恁麼時，且道如何行履？菊徑兩行煙淚落，引鞭一轡馬蹄黃。」

住梁山中慶禪寺，三門，云：「天王賜與華屋，要因門入，且道如何是門？」喝一喝，云：「從者裏入。」

方丈，「窮廝煎、餓廝炒，中慶本分艸料，喫著令人便飽。」

指法座云：「聲、色二上座已為諸人露頭露面了也，還見麼？燭華光滿座，梁燕語留人。」遂陞座，拈香云：「此一瓣香，端為祝嚴今上皇帝萬歲萬歲萬萬歲，伏願鵬弓已挂狼煙息，萬里謳歌賀太平。」次拈香云：「此瓣香奉為闔國勳貴、當道宰官，伏願風以時、雨以時，道安百姓，齊其家、治其國，德被萬民。」末拈香云：「此瓣香威音那畔盤根，今世門頭秀實，第三回拈出，供養天童山密雲老人，用酬法乳，斂衣敷座。」

上首白椎竟，師云：「鉤頭有餌，意外無私，擬汎扁舟，魚龍[跳-兆+孛]跳，還有現躍飛騰者麼？」

僧問：「釋迦老人今日生是謂謗佛、釋迦老人未生亦是謗佛，生與未生即不問，如何是瞿曇獨尊處？」師云：「將謂寧龍躍，誰知跛鱉來？」僧喝一喝，師云：「此喝落在甚麼處？」僧擬測，師便打。僧禮拜，師乃云：「山僧向南方走一回，拾得幾箇金剛圈、一籃栗棘蓬，今日向人天眾前不辭拈出，與諸人共相吞跳。」以拄杖打圓相，云：「者是金剛圈，試跳看。」僧云：「跳。」師舉拄杖，云：「者是栗棘蓬，試吞看。」僧云：「吐。」師云：「多口阿師未在。」僧無語。師云：「不是與人難共聚，大都緇素要分明。」

上堂，師云：「撞到今朝五月一，荒田瘦地都栽畢，我儂有首洗泥歌，唱出令人笑尿滴。哩哩囉，囉囉哩，種田博飯家常事，不是飽參人不知。」

復舉：「地藏問眾禪客從何方來，一僧云：『從南方來。』藏曰：『南方佛法近日如何？』僧云：『商量浩浩地。』藏曰：『何如我者裏種田博飯喫？』僧云：『怎奈三界何？』藏曰：『喚什麼作三界？』僧無語。」師云：「者飯袋子大似逆風揚塵，自取撲面。若是箇漢，待他問：『南方近日佛法如何？』只消當面便唾，更再如何若何，拂袖便行，不惟疑著地藏，亦且不玷行腳。山僧怎麼告報，未審眾中還有傍不肯底麼？」良久，眾無出，師云：「行腳不開如是眼，艸鞋終被石頭欺。」

上堂，師云：「般若如大火聚，四面不可入；般若如清涼池，四面俱可入。大眾且道：入底是？不入底是？試簡點看。若簡點得出，不妨到方丈裏通箇消息。」

開爐，上堂，師云：「鍛煉幾團頑鐵，入火鑪而出火細；療理幾箇病人，吞藥易而吐藥難。只須吞吐得宜、入出得所，慈悲下智之庸愚成就上根之利器。若遇冷脆熱焦、牛溲馬溺，任是扁鵲盧醫見之拱手、巧匠良工聞之吐舌。是以中慶今日開爐設舖，未審眾中還有不經鍛煉療理者麼？試出來相見。如無，巧匠爐邊多鈍鐵，良醫門首足病人。」

上堂，師云：「說心說性，毒蛇頭上揩癢；舉古舉今，饑鷹爪下奪食。明上座不吐一詞，卻違所請，只得因齋慶讚去也。」以拄杖畫此⊕，召大眾云：「會麼？若也會得，東家牛溲卵，西家馬出鵝，羊擇乾處尿，驢揀溼處屙；其或未然，中和峰頂雲烝飯，佛殿階前狗尿天。」

住開縣鳳皇山栖靈禪寺，三門，云：「門裏出身易，身裏出門難。難易且置，如何是身裏門？門裏身？」以拄杖劃一劃，云：「皂上烏雞深夜繡，暗中一線實難通。」

佛殿，云：「清虛冷澹，寂寞苦空，箇裏薦得，了無異同。新長老不識好惡，且向箇裏展具三拜。」

方丈，云：「維摩室而不窄，摩耶腹而乃寬。今日新栖靈端居方丈，權衡佛祖，號令人天，且道將甚麼施設？一籃栗棘蓬，幾箇金剛圈。」

施主請開堂，師至法座前，以杖指座，云：「大眾見麼？即此座，非他座，三世諸佛從此轉法輪，歷代祖師從此傳心印。明上座又且不然，從此訶佛罵祖去也。何故？鬼怕惡人難展掌，賊憑賊物易成頭。」喝一喝，遂陞座，拈香云：「此一瓣香端為祝嚴今上皇帝聖躬萬歲萬歲萬萬歲，伏願堯風吹一統，舜日照三千。」次拈香云：「此一瓣香奉為本省當道尊官，伏願威鎮三峽，光耀九天。」末拈香云：「此一瓣香名不得、狀不得，第四回拈出，供養天童山密雲老和尚，以酬法乳之恩。」斂衣就座，上首白椎竟，師云：「水投水，澄源湛寂；空合空，恢豁洞然。就中能變化吐風雷者，試出來相見。」

僧問：「昔日瞿曇，今朝和尚，是同？是別？」師打云：「是同？是別？」進云：「即今已登獅子座，單傳意旨是如何？」師亦打。僧舞坐具而退，師乃云：「一法若有，毘盧墮在凡夫；萬法若無，普賢失其境界。縱橫理事，收放主賓，納須彌於芥中，擲大千於方外。繇是大中現小、小中現大，一為無量、無量為一，正恁麼時，福國祐民一句作麼生道？一旦氛埃清四海，垂衣王化自無為。」

復舉：「陸互大夫語南泉云：『肇法師也甚奇怪，解道天地同根，萬物一體。』」泉指庭前牡丹云：『大夫！時人見此一株華，如夢相似。』」師召大眾云：「且道南泉此語是過譽語？是寓譏語？試辯別看。若辯別得出，玉堂金馬登科第，腐艸殘華壯帝都。」

上堂，師卓拄杖一下，云：「大眾聞麼？木上座為汝諸人轉根本法輪去也，塵說、剎說、熾然說無間歇。」復以拄杖擲地，云：「頻呼小玉原無事，只要檀郎認得聲。」

病起，上堂，僧問：「元徹生平不參禪、不學道，祇拾得一柄金剛劍，能截斷天下老和尚舌頭。今日舉向和尚前，未審如何抵敵？」師合掌云：「善哉，善哉。」進云：「不露鋒鋦時如何？」師云：「白鐵漢。」僧喝一喝，師云：「再喝一喝看。」僧擬測，師云：「灼然。」僧禮拜，師乃云：「病僧為病極，說法乖法式，靜地念摩訶，尋聲入福慧。所以道：我本無病，為眾生病；眾生病除，我病亦無。眾中還有病不病者麼？」良久，云：「二十年來經藥餌，不知此疾是膏肓。」

上堂，師云：「如何是諸佛出身處，東山水上行？如何是諸佛出身處，西河火裏坐？如何是諸佛出身處，熏風自南來，殿閣生微涼？咄！字經三寫，烏焉成馬。」

上堂，僧問：「不參禪、不念佛，只學得一箇無心應萬物。」師云：「那裏是汝無心處？」進云：「無心豈有處？」師驀頭一棒，云：「者箇盪？」僧禮拜，云：「謝指示。」師云：「指示箇什麼？」僧擬議，師噓一聲。僧禮拜，師乃云：「者箇事，三賢膽喪，十地魂驚，變大地作黃金、攪長河為酥酪，拈一莖艸作丈六金身、將丈六金身作一莖艸，坐微塵裏轉大法輪。如是，則古人道：有一物，明歷歷、黑漆漆，上拄天、下拄地，常在動用中，動用中收不得。大眾！既在動用中，為什麼收不得？速道速道。」

上堂，師云：「眼若不睡，諸夢自除；心若不異，萬法一如。所以道：我有時見山不是山、見水不是水、見僧不是僧、見俗不是俗、見男不是男、見女不是女，有時見山是山、見水是水、見僧是僧、見俗是俗、見男是男、見女是女。如是，則全明全暗、雙放雙收，一句作麼生道？」卓拄杖，喝一喝，云：「下坡不走快便難逢。」

上堂，師云：「昨日三，今朝四，俄然不覺霜鋪地，朔風凜凜骨毛寒。吹起箇中無孔笛，韻出漫遊雲，疏通前後際，非五音、非六律。問取拄杖子，拄杖子道：『箇直條條，赤灑灑，終日倚牆靠壁。』」參。」

上堂，師云：「默時說驅耕夫之牛，說時默奪饑人之食，就中有舌頭，談而不談，且道是什麼人？」

舉：「世尊一日陞座，默然不語，阿難白佛云：『世尊何故不說法？』佛言：『會中有二比丘犯律儀，故不說法。』阿難以神通力觀是二比丘，立擯出，世尊還復默然。阿難又白佛云：『是二比丘為我擯出，世尊何故不說法？』佛言：『吾誓不為二乘人說法。』便下座。」師云：「據山僧看來，世尊大似壓良為賤。栖靈門下要且不然，若有人白云：『眾中有二比丘犯律儀，為我擯出，請和尚為眾說法。』只向他道：『為汝說法竟。』山僧恁麼告報，不獨辯魔揀異，亦且流通正眼。」以拄杖卓一下，云：「還委悉麼？禍不單行。」

辭眾，上堂，僧問：「寸心不昧時如何？」師云：「天上有星皆拱北，人間無水不朝東。」進云：「善惡不隨時如何？」師云：「腦後見腮。」僧禮拜，師乃云：「擺棹臨江走一頭，絲綸纔展浪橫舟，收來放去如何速？此處無魚別下鉤。」

破山禪師語錄卷第二

（嗣法門人蜀渝州治平寺照衣敬刻 破山和尚語錄第二卷 堆藍弘禮禪人對 秀水謝穎仙書 嘉興倪天章刊）

（康熙庚申歲孟春月，嘉禾楞嚴寺般若坊藏板）

上堂三

住順慶府渠縣祥符禪寺，師在栖靈受請，拈帖示眾云：「三張白紙，便謂千里同風；一箇圓相，欽師卻被馬師惑。栖靈者裏，車不橫推、理無曲斷，請維那剖露。」

山門，云：「昔日聞公遠祖從此出，今朝不肖兒孫從此入。雖然出入不同，要且門庭不別。大眾且道那裏是不別處？」以杖指云：

「十方婆伽梵，一路涅槃門。」

佛殿，云：「堂堂坐斷千差路，密密疏通萬別疑，信手拈來無不是，當陽拋出大家知。雖然如是，也要公驗分明。」展具三拜。

方丈，云：「據此室，行此令，勿問船來、陸來，只要頭正尾正。」喝一喝。

指法座，云：「八萬四千獅子座，此當為第一。縱廣正等八萬四千由旬，此座非大；於中坐者，其身非小。以如是座坐如是人，以如是人坐如是座。大眾還見麼？舉頭天外望，誰是我般人？」遂陞座，拈香云：「此瓣香端為今上皇帝祝嚴聖躬萬歲萬歲萬萬歲，伏願皇風共山川而並扇，法輪同日月以齊推。」次拈香云：「此瓣香奉為文武卿相、闔郡縉紳，伏願借當世而修出世，即凡心以證聖心。」末拈香云：「此瓣香從東過西、從西過東，撞著一箇老布衲，一椎粉碎，此是第五回拈出，供養見住浙江寧波府天童山密雲老和尚，以酬法乳之恩。」斂衣趺坐。上首白椎竟，師云：「古岸灘頭擲釣臺，絲綸初展去還來，清波浮定有無意，負餌金鱗夢眼開。」以杖作釣勢，云：「有麼？有麼？」

時有僧出眾，禮拜起，喝一喝，拂袖而退。師云：「領取鉤頭意，莫認定盤星。」良久復云：「毛吞巨海，萬頃風濤闊括括；芥納須彌，十方世界淨裸裸。以大圓覺為我伽藍，四生六道盡集其中，行住坐臥、屈伸俯仰、迎賓待客、屙屎放尿、拈匙放筯、動靜忙閒，無不承此恩力。所以道：佛子住此地，則是佛受用，常在於其中，經行及坐臥。夫如是會，人人悟證平常，箇箇七穿八穴，不待啐地折曝地斷，如紅爐點雪、冷灰曝豆。正與麼時，祝聖開堂一句作麼生道？鷗弓已挂狼煙息，萬里謳歌賀太平。」

上堂，師云：「**年年**臘月八，黑豆解生芽，水母因無眼，求食須仗蝦。明星射腦蓋，捏目便生華，此道如何會？瞿曇是釋迦。」

上堂，師云：「今日強登曲彖木，圓音一吼震山谷，人非人等驀相逢，彈指頓超煩惱窟。如是，則知顯教圓寂正堂禪師不離煩惱而證解脫、不離生死以般涅槃，來山僧拄杖頭上倒駕慈航，現無邊神變，道兩句苦辭去也。大眾還聞否？且道是那兩句響？耳邊多少閒題目，賺我光陰十萬程。」

上堂，師云：「天地未始，父母未生，渾忘物我，撥擲渠誰？」以拂子畫一畫，復畫此○，云：「自此一畫一圈而分兩儀、四象、八卦、六爻，以至吉凶否泰，交會岐殊，妙辨懸河，無出此一圈一畫之中。」復畫○云：「若也從此薦得，改禾莖為粟柄，易短壽作長齡；其或未然，有限身心時不待，無情寒暑日相催。」

上堂，師云：「今朝臘盡與年窮，處處人燒松火蓬，惟有此間一種別，冷清清地鬧叢叢。」

復舉：「秀才問趙州：『佛滿一切眾生願是否？』州云：『是。』曰：『弟子要和尚手中拄杖，可與否？』州云：『君子不奪人所好。』曰：『我不是君子。』州云：『老僧亦非佛。』」師云：「秀才雖有定亂之謀，且無安邦之計。趙州探竿在手，影艸隨身，不妨奇特中顯奇特、好手中呈好手，將謂本分翻為分外。山僧正眼看來，纔啟口處好與三十棒。何也？祥符門下賞罰分明。」

追嚴，上堂，師云：「元宵正月半，日月燈明現，即此為亡靈，本光破諸暗。盞子撲落地，碟子成七片，露柱撞燈籠，山門騎佛殿。此意是如何？吾道一以貫。」

師誕日，上堂，僧問：「和尚跳出生死圈，如何今日又降誕？」師云：「大好疑著。」僧禮拜，師乃云：「突出難難難辨別，擬之易易易承當，一聲因地盡生死。」下座，云：「諸仁者請續後句。」上堂，僧問：「月未圓時如何？」師云：「合。」進云：「月正圓時如何？」師云：「恰。」進云：「星月不現時如何？」師云：

「筭。」僧禮拜，師乃云：「蓮胎未質，梅蕊不萌，洞空劫之本有，盡今時之自得，人人常光現前，箇箇壁立萬仞，只僥海屋添籌、南山增算，猶是化門邊事。不涉延促一句作麼生道？一谿紅白桃李樹，四野青黃菜麥田。」

上堂，僧問：「是法非思量分別之所能解，為甚麼唯佛與佛乃能知之？」師云：「知音不必頻頻舉，八兩原來是半斤。」僧禮拜，師乃云：「施主強請陞座，多說不如少說，少說不如不說。何以故？是法不可示，言詞相寂滅。」

復舉：「藥山久不陞座，院主白云：『大眾久思和尚示誨。』山曰：『打鐘著。』眾纔集，山便下座歸方丈。主隨後，問曰：『和尚既許為大眾說法，為甚麼一言不措？』山曰：『經有經師，論有論師，爭怪得老僧？』」師召大眾云：「昔日藥山，今朝祥符，且

道是同？是別？」良久復云：「旱地雷聲，晴天霹靂，兩箇古錐都來是賊。」

上堂，師云：「止止，不須說，葛藤遍野不為多；我法妙難思，絆著幾箇便賣弄。諸僧上慢者，冬瓜直隴侗，瓠子曲彎彎。聞必不敬信，只緣無眼、耳、鼻、舌、身、意。山僧恁麼判斷，且道釋迦老子還向什麼處轉身吐氣？只怕眾生不是佛，是佛何愁不解語？」

上堂，值驢鳴，師云：「平地起孤堆，虛空墮地走，撞著瞎驢鳴，將謂獅子吼。」震威喝一喝，下座。

追嚴上堂，師云：「春日晴，黃鶯鳴，聲聲韻出觀音門，有人向此活機括，剎剎塵塵現勝身。如是，則我等持滿公先慈余氏不離當處而遍沙界，不歷僧祇以獲法身，來山僧拄杖頭上現一行三昧去也。」卓拄杖，召大眾云：「還聞麼？若將耳聽終難會，眼底聞聲方始知。」

上堂，僧問：「青天白日，昭昭靈靈，睡著時，主人公在甚麼處？」師云：「向前來與汝道。」僧遂進前一步，師云：「是甚麼？」進云：「不離當處。」師笑云：「大好睡著在。」僧禮拜，師乃云：「雲凝覺春盡，雨過知華殘，了達覺知處，恁忙亦是閒。大眾！忙閒即且置，試道覺知處如何了達？」良久，云：「不遇春風華不開，華開又被風吹落。」

解制，上堂，師云：「今朝三月十，百日禪期畢，衲子問如何，棒頭驀面擲。曼殊前後三，長慶蒲團七，即此罷爐鎚，幾人成大器？」以拄杖擲地，云：「祥符解開布袋，放出出群角虎，不會獅子翻身，箇箇解打口鼓。」以手拍口，云：「嚦嚦。」

住順慶府大竹縣無際禪寺，山門，云：「門庭施設不如破山，入理深談猶較無際百步。」以拄杖卓一卓，便入佛殿，云：「若向者裏禮拜，眼裏撒沙；不向者裏禮拜，佛頭著糞。試問諸仁者：且道禮拜底是？不禮拜底是？」遂展具，云：「不禮，各白稱尊；禮，則互相恭敬。」便拜。

方丈，云：「入門棒，入門喝，痛施惡辣鉗鎚。有時語，有時默，全彰本分艸料。忽遇一箇半箇瞎驢，且作麼生管待？」喝一喝。

指法座，云：「千聖向此證知，一眾從茲開悟，人人立地頂天，箇箇眼橫鼻直，還見有路可上也無？」遂陞座。拈香祝聖畢，末拈香云：「此瓣香三登九上，撥艸瞻風，受盡苦辛，一期印可，第六回拈出，供養天童山密雲老人，以酬法乳之恩。」斂衣敷坐。上首白椎竟，師云：「鳳山挺秀，燕水迢遙，鶴不停機，龍難湊泊，就中有現躍飛騰者麼？」

一僧出眾喝一喝，師云：「跛鱉盲龜亂[跳-兆+孛]跳。」僧無語，師云：「不信道。」

問：「今日結制聚喧喧，心光照透境相還。心光照透即不問，心境雙忘事若何？」師云：「十字街頭親見父。」進云：「心境未忘時如何？」師徵云：「汝喚什麼作境？」僧佇思，師噓一聲。僧禮拜，師乃云：「一機透徹，千途萬轍同歸；一道坦然，十聖三賢齊赴。火不待日而熱，風不待月而涼。鶴脰自長，鳧脰自短。只饒未露已前薦得，猶是半提，且全提正令一句作麼生道？橫按莫邪全正令，太平寰宇斬癡頑。」

上堂，師云：「如何是祖師西來意？庭前柏樹子，覷著則眼瞎。如何是祖師西來意？神前酒臺盤，喫著則口啞。如何是祖師西來意？簷前雨滴聲，聽著則耳聾。大眾會麼？字經三寫，烏焉成馬。」

上堂，師云：「若以問答是禪，禪非問答；若以坐臥是禪，禪非坐臥；若以動靜是禪，禪非動靜；若以取捨是禪，禪非取捨；若以語默是禪，禪非語默。正恁麼時，如何是禪？泥牛耕破波心月，木馬嘶回劫外風。」

復舉：「梁武帝前因為樵夫上山斫柴，次忽值猛雨，投破寺躲，見佛亦被雨灑，即以自戴笠蓋佛，後報為王，是以不迷本因，五里一菴、十里一寺。又感初祖達磨航海而來，迎內供養。一日問曰：

『朕造寺度僧，未審有何功德？』磨云：『實無功德。』武帝自此開悟，悔昔所作盡是有為功用。今日山僧看來，一佛一祖，鼻孔各別。一箇是荷葉團，團團似鏡；一箇是菱角尖，尖尖似錐。」

上堂，師云：「有問有答，踏著秤錘原是鐵；無問無答，鼻孔依然搭上唇。且道問底是？不問底是？」良久，卓拄杖一下，云：

「參。」

浴佛上堂，師云：「**年年**四月八，處處浴悉達，者裏不恁麼，焚香活燒殺。何以故？是法平等，無有高下。」

復舉：「世尊初生，一手指天，一手指地，便道：『天上天下，惟吾獨尊。』後雲門大師道：『我當時若見，一棒打殺與狗子喫，貴圖天下太平。』」師云：「一佛一祖，手眼各別。一箇意在東南，一箇志向西北。無際今日各與三十棒。何故如此？山僧棒頭有眼。」

上堂，師云：「今日陞座無他，為裔宇張居士求嗣，特特舉揚宗教，續佛祖慧命即續人間宗嗣。所以道：不孝有三，無後為大。以生死涅槃也是一大、山川社稷也是一大、田園屋宅也是一大、妻財子祿也是一大，然而大之一字總是無人替得，故曰為大。山僧另有極小小事亦無人替得，試問諸人如何是極小小事？」良久，云：「只有屎尿是箇小事，也要各人自去始得。」

上堂，僧問：「昔日長者金磚布地，今日李居士營齋供眾，其功是同？是別？」師云：「鼻孔原來下頭大。」進云：「何不直截道一

句？」師驀頭一棒。僧禮拜，師乃云：「自我達磨初祖觀東震旦國有大乘根器，特特航海而來，直指人心，見性成佛，以言句露者箇消息，易引人情識，乖戾直指之旨。後出臨濟大師以棒喝接機，杜絕情識，如擊石火、似閃電光直下，令人無回避處。如將梵位直授凡庸，更不如何若何，是謂之知痛癢。近來去聖時遙情竇日鑿，又將棒喝處穿鑿不少，以打處云痛，切審痛底是誰？可憐生，不獨不會吾祖棒喝之旨，且不會鼻祖西來之意也。然而鼻祖以言句定旨，蓋疏通執心執性之謂；後以棒喝定旨，蓋疏通嚼言嚼句之謂，豈是以打處痛處云知痛癢也耶？若如是會，則吾祖者條棒早已拗折了也，西來大意早已抹殺了也，又安繼於今日哉？」復豎拄杖召大眾，云：「還會麼？千鈞之弩不為鼯鼠而發機。」

追嚴，上堂，師云：「苦雨盆傾下，愛河長欲波，魚龍沉巨浸，孤兔隱深坡。竹杖落塵少，芒鞋增價多，亡靈承此力，彼岸忽經過。所以道：處生死流，驪珠獨耀於滄海；踞涅槃岸，桂輪孤朗於碧天。正恁麼時，不涉二途一句作麼生道？隨順世緣無罣礙，涅槃生死等空華。」

上堂，師豎拄杖云：「者箇事，明歷歷、黑漆漆，十聖三賢從此熱瞞、歷代祖師從此悟證、一切眾生從此摸索不著。所以香嚴道：昔年貧未是貧，今年貧始是貧。昔年貧，猶有卓錫之地；今年貧，錫也無。」復卓拄杖，云：「大眾且道如何是無底道理？」喝一喝，下座。

上堂，僧問：「何火無煙而自明？」師云：「解打鼓。」進云：「何水無魚而蛟住？」師云：「解打鼓。」進云：「何鏡非銅而光輝？」師云：「解打鼓。」進云：「頭頭盡是虛靈趣，物物全彰觸處真。」師喝一喝。僧禮拜，師乃云：「學道之人不識真，只為從前認識神，無量劫來生死本，癡人認作本來人。此是古人一首上場詩，山僧今日拈來，人天眾前下箇註腳，殊不知識神與本來人相去不遠，只在就中辨別。若也辨別得出，處處綠楊堪繫馬，家家有路透長安；其或未然，山僧更為諸人曲引旁通去也。」

復舉：「仰山參中邑禪師，問曰：『如何得見性去？』邑云：『譬如一室有六窗，內有一獼猴，外有獼猴。從東邊喚猩猩，獼猴即應。如是，六窗俱喚，六處俱應。』仰云：『和尚譬喻無不明了，只如內獼猴睡著時，外獼猴作麼生相見？』邑下禪床把住山，云：『猩猩！我與汝相見了也。』」師云：「雖是饑逢美食、渴遇甘霖，不無齧嘴黏牙。若是破山門下，又且不然，待開口時，和聲便打。何故聲？殊相劣形同幻質，呼驢喚馬總虛名。」

辭眾，上堂，師云：「漲水蝦蟆日夜催，道人不薦渾忘歸，今朝解了忙閒結，嚴艸谿頭絕是非。如是，則知隨處作主，遇緣即宗，以一機透則無機而不透，以一理明則無理而不明。透、不透之機關行

超佛祖，明、不明之理趣位越人天。」以拄杖畫此[❖]，云：「還透者箇麼？還明者箇麼？若明得者箇、透得者箇，不枉檀信慇懃、山僧銳志。」復呈拄杖云：「會麼？嚴艸谿頭休住腳，五巔山下莫橫身。」下座。

住瀘州江安縣蟠龍禪寺，三門，云：「千聖共游，一眾履歷，進進出出，路頭不識。」以杖卓一卓，喝一喝，召大眾云：「還識麼？棒頭喝下皆消息，帶水拖泥即指歸。」

佛殿，云：「有佛處不可住，無佛處急走過。今日忤逆兒孫，一瓣香禮三拜，行到水盡山窮，只得將錯就錯。」

方丈，云：「佛耶？祖耶？據此證此，我亦如是，別無所指。仁者珍重，莫要龍頭蛇尾。咄！」

眾護法請開爐，師指法座，云：「毒鼓初過，慈航倒駕。渡之者，浪靜風恬；耳之者，魂銷魄散。今日新蟠龍拈一瓣返魂香去也，眾中還有惜取鼻孔者麼？」遂陞座。拈香祝聖畢，維那白椎，云：

「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云：「第一義觀，則落二落三；不觀，則落七落八。釋迦到此計窮力極，謂之如來禪；達磨到此攔腮劈脊，謂之祖師禪。雖然作用不同，要且瓦是泥做。山僧到此，口似磔盤，眼如掣電，拈出幾句，聊酬所請。諸方此日同開爐，惟有蟠龍意致殊，不向此中求鍛煉，冷冰冰地自如如。」喝一喝，下座。

上堂，師云：「閉門打睡，接上上機；顧鑑頻呻，曲為中下。據此看來，山僧有口只好挂在壁上。若以拈椎豎拂為禪，病在持捉；若以裝聾賣啞為禪，病在口耳；若以欬嗽涕唾為禪，病在音韻；若以揚眉瞬目為禪，病在顧視；若以手舞足蹈為禪，病在[跳-兆+字]跳。既然未是，且道如何是禪？冬瓜直儻侗，匏子曲彎彎。」

上堂，僧問：「掬水月在手，未審水乾波盡，月歸何處？」師驀頭一棒。僧喝一喝，師連打兩棒。

問：「金出礦時如何？」師云：「嚇殺人。」進云：「恁麼則橫身踊躍？」師云：「死逼逼地。」

問：「父母未生前，如何是學人面目？」師云：「雨打梨華蛺蝶飛，風吹桺絮毛毬走。」進云：「原來，原來。」師驀頭兩棒。僧禮拜，師乃云：「一點雨，一點溼，居士設齋和尚喫，試問就中意若何？摩訶般若波羅密。」

上堂，僧問：「蝦蟆丘蚓尚解逃禪，跛鱉盲龜卻能知有，為甚靈利衲僧反道不會？」師云：「箍桶漢。」僧喝一喝，師云：「如法

箍。」進云：「只得恩深轉無語，懷抱自分明。」師打云：「閒言語。」

問：「二十年前，葛藤遍地，滿眼生塵。如何是不生塵處？」師云：「趙州道底。」進云：「又是什麼光景？」師云：「薦取下句註腳。」僧禮拜，師乃云：「凜凜朔風吹敝廬，人人凍裂箇皮膚，就中有點天然別，分付梅華樹幾株。如是，則知寒暑迭遷、生死交謝，有物於中流動，未獲天地同根、萬物一體。」卓拄杖，召大眾云：「還委悉麼？」維那云：「委悉則不堪。」師喝一喝，下座。上堂，僧問：「堂前露柱久懷胎，長下嬰兒頗俊哉，為復是神通妙用？法爾如然？」師云：「橫開不在春枝上。」進云：「未解語言先作賦，一操便取狀元來。」師云：「別有風流一段奇。」

問：「若論此事，三賢膽顫，十地魂驚，未審利害在什麼處？」師云：「腳跟下豎去橫來。」

問：「大地山河歸一點，萬派乾坤一竅中。即今一竅在什麼處？」師云：「腦後見腮，不與往來。」僧禮拜，師喝一喝，乃云：「今朝十一月初一，衲子齊來討巴鼻，厲色震威喝一喝，喫驚打怪聾兩耳。昔人擬作觀音門，今又翻為鶩子智，只此告報與諸人，惟要諸人信得及。信得及，無孔鐵錘當面擲，不須擬議更尋思，信去羊腸驀直去。」

上堂，師云：「終日病魔廝結，癩饒三寸綿舌，強登曲木床，一味喝風棒月。」遂喝一喝，卓拄杖，云：「若向者裏會得了，鬼神覷不破之機，超生死不相干之地；其或未然，更聽葛藤。」

復舉：「臨濟行乞，遇一婆子，濟指鉢云：『家常添鉢。』婆子即轉身，掩卻門，云：『太無厭生。』」師云：「臨濟素是當仁不讓於師，尚男不和女鬥。今日山僧者裏也不行乞，施主也不掩門，日日喫齋喫茶，只是當不得太無厭生。」

上堂，僧問：「今日國令更嚴，不許拋沙撒土。」師云：「山大多狐兔，水滿足魚龍。」

問：「水明老蚌懷胎後，雲重蒼龍退骨時。老蚌懷胎即不問，蒼龍退骨時如何？」師云：「也是蠟人向火。」進云：「不是巨靈手，怎敢望華山？」師云：「不薦當陽句，從來念詩章。」進云：「可惜連城壁，從勞獻楚君。」師正色噓一聲。進云：「杜撰宗師，如麻似粟。」師云：「只有你一箇。」

問：「盡大地是沙門一隻眼，未審人人在何處下腳？」師云：「腳跟下好與三十棒。」僧禮拜，師乃云：「石頭瓦塊亂商量，癩狗泥豬罵上堂，翠竹黃華纔側耳，冬瓜瓠子便承當。此四句內，有一句能縱、能奪、能殺、能活，有人簡點得出，一生參學事畢。」

上堂，師云：「雲門一字關，臨濟三玄要，為仰擅門庭，曹洞別堂奧，法眼道不知，觸著便[跳-兆+孛]跳，惟有蟠龍無賸言，饅頭開口呵呵笑。大眾且道：他笑箇甚麼？心生大歡喜，自知當作佛。」

上堂，師云：「一聞千悟，拗折弓箭，放下屠刀；九上三登，拋卻甌箪，典當布單。更有牢籠不住、呼喚不回者，又作麼生指示？」良久，云：「過蟻難尋穴，歸禽易見巢。」

上堂，師云：「日用事無別，踏著秤錘原是鐵。唯吾自偶諧，十字街頭甌磚。頭頭非取捨，雞寒上樹。物物弗張乖，鴨寒下水。朱紫誰為號？一任鑽龜打瓦。丘山絕點埃，惟有者裏瞞不得。神通並妙用，火官頭上風車子，運水與搬柴，貓兒尾上繫研錘。龐居士恁麼道、新蟠龍恁麼拈，非是與古人鬥勝，要且路見不平。眾中有具眼者，試於此中緇素看。」

上堂，僧問：「山高不露頂，雲深不知歸時如何？」師云：「遠岫雲封壁，平谿水結瀾。」進云：「未審意旨如何？」師卓拄杖一下，云：「向者裏薦取。」

問：「冷心不動月澄潭，鴛鴦繡出白雲間。且道鴛鴦繡出時如何？」師云：「不把金鍼度與人。」

問：「靈雲見桃華得悟，因甚玄沙不肯？」師云：「為伊眼華。」

進云：「未審意旨如何？」師云：「瞎漢。」僧禮拜，師乃云：

「山僧今日上堂來，步步泥蹤點法臺，徹夜不妨霜與雪，西園猶放碧桃開。」驀呈拄杖，召大眾云：「見麼？若也向此見得徹去，能銷億劫顛倒想，不歷僧祇獲法身；其或未然，有寒暑兮促君壽，有鬼神兮妒君福。」

歲旦上堂，僧問：「相逢著眼，流水行雲；脫胎神化，嬰兒漸長。流水行雲即不問，嬰兒漸長事如何？」師云：「長長一箇矮子。」

問：「百華競秀，妙德家風；一互晴空，普賢境界。百華競秀即不問，一互晴空事若何？」師云：「燦天燦地。」

問：「金蓮照奕千家樂，玉露回光萬象新。即今合是甚麼人境

界？」師云：「看取腳跟下。」僧禮拜，師乃云：「輕煙薄霧鼓風濤，吹徹梅華白樹梢，珍重諸人惜鼻孔，清香不對野狐飄。」擲拄杖，云：「狼籍不少。」下座。

上堂，眾禮三拜，師云：「者裏倒身三拜，少林分骨分髓。今朝正眼看來，也是搓巴兜鬼。」喝一喝，下座。

再住萬峰，開爐，上堂，師云：「萬峰今年結制，柴米事事不濟，不惟凍殺餓殺，且受冷句熱句，珍重四海高流，薦取衲僧巴鼻。大眾且道：衲僧巴鼻如何薦取？」有僧不出眾鼓掌呵呵，師云：「南山起雲，北山下雨。」

佛成道日上堂，師云：「一^年一度口吧吧，說盡甜瓜併苦瓜，汝等諸人不解薦，毛頭星現眼添沙。」

解制，上堂，師云：「天關纔轉，地軸始回，山川獻天然圖畫，艸木吐本地風光，換卻天下人眼睛，透徹衲僧家巴鼻。活情、無情之真機，頑石尚應加額；忘學、無學之妙術，爛柯且自點胸。所以道：萬象之中獨露身，為人自肯乃方親，昔年謬向途中覓，今日方知火裏水。」復召大眾，云：「今日春寒鄭居士來山，為諸人辦自肯齋，未審眾中還有自肯者麼？」時離指舞坐具出法堂，師云：

「放出萬峰雲五色，甘霖指日灑蠶叢。」

開爐，上堂，師云：「爐開八載，風散四維，焦頭爛額者幾退幾屈，鐵眼銅睛者百煉百輝。等須彌而為炭，不足其燒；變滄海以為田，不足其用。正值年荒世亂，力極計窮，未審眾中有當爐不避火者麼？試出來與山僧相見。如無，從茲打箇驢^年結，動靜忙閒解不開。」

佛成道日，上堂，問：「一句了然超百億，不須門外覓三車。三車即不問，如何是一句？」師云：「鯨吞海水盡，露出珊瑚枝。」僧禮拜，師乃云：「昨夜毛頭星作怪，釋迦老子漆桶快，餘光分胤後兒孫，箇箇頂[寧*頁]沒一塊。」召大眾，云：「各各伸手摸摸看看，是那裏沒一塊？若也摸著，便與釋迦老子同一眼見、同一耳聞、同一受用，當下無生死可怖、無涅槃可證、無男女可形、無凡聖可隔，淨裸裸絕承當、赤灑灑無回互；其或未然，且向三條椽下七尺單前默默披衣自看始得。」

上堂，問：「天下有道則見，無道則隱。隱即不問，如何是有道則見？」師云：「四海五湖王化裏。」進云：「三千禮樂憑師舉，五百英雄盡讓誰？」師卓拄杖一下。進云：「慣從五鳳樓前過，手握金鞭賀太平。」師云：「從來此處念詩章。」

問：「今日掀翻獅子窟，一聲哮吼震山谷，寥寥大地絕遮欄，孰箇當頭把得住？」師云：「香煙堆裏現全身。」僧喝一喝，師打一棒。進云：「也不得放過。」師噓一聲。

問：「騰蛇纏足，露布繞身，未審作麼生解？」師云：「頭上漫漫，足下漫漫。」進云：「水不洗水，金不博金去也。」師云：

「兩重公案。」僧禮拜，師乃云：「即心即佛，拖人落水；非心非佛，落水拖人；不是心、不是佛、不是物，木人把板雲中拍，石女含笙井底吹。此三句內，有一句全暗全明、雙收雙放，若人簡點得出，一生參學事畢。」

破山禪師語錄卷第三

(嗣法門人 蜀北果州真如寺海液 蜀東巴州清涼硯印嵩同刻破山和尚語錄第三卷 堆藍弘禮禪人對 秀水謝穎仙書 嘉興倪天章刊)

(康熙庚申歲孟春月，嘉禾楞嚴寺般若坊藏板)

上堂四

住夔州府開縣大寧禪寺，入院，三門，云：「十方無壁落，四面亦無門，教山僧從何處入？」以拄杖畫此①，云：「從者裏八字打開。」

方丈，云：「即此用、離此用，主賓互換；胡來現、漢來現，妍醜自分。新長老忍俊不禁，一任鑽龜打瓦。」

檀越徐道臣請開堂，至法座，云：「就地登空易，從空放下難，難易齊屏卻，直透上頭關。新大寧直透上頭關去也，大眾還見麼？若有路可上，更高人也可行。」遂陞座，拈香云：「此瓣香聲傳社稷，價重山河，端為祝嚴今上皇帝聖躬萬歲萬歲萬萬歲。伏願堯風鼓鼓，吹內霧邊雲立散；舜日輝輝，照深幽遠暗長明。」復拈香云：

「此瓣香奉為乃文乃武闔國公卿，伏願不忘囑累，恆為佛法之金湯，直下承當，永作人天之眼目。」末拈香云：「此瓣香供養浙江寧波府天童山密雲和尚，用酬法乳之恩，伏願一朝印可承慈蔭，九處拈來始適殷。」斂衣趺坐。上首白椎竟，師云：「森嚴爐鞴、惡辣鉗錘，鍛聖煉賢於剎那際、超生越死於頃刻間，固非神通妙用，本是法爾如然。未審眾中有具銅頭鐵額者麼？試出來與山僧相見。」

一僧出眾，禮拜起，以坐具拂一拂，展兩手，師云：「官潭子向汝道破了也。」僧舞坐具，繞一匝歸位，師云：「掠虛漢。」問：「學人寂寂，請和尚歷歷。」師卓拄杖一下。僧喝一喝，師云：「汝者一喝，濟得甚麼邊事？」進云：「露一絲是陷虎之機，隱一跡則無聲無臭。」師喝云：「閒言語。」僧禮拜，師乃云：

「山棒濟喝點，開三要三玄；河馬洛龜印，破無聲無臭。斷臂而覓安心，覆舟以獲真子，傳傳有據，授授無私，不惟祖道之重拈，且補皇圖之再振。當恁麼時，報國大寧一句作麼生道？兩江風浪交頭合，一洗干戈瘴癘開。」

上堂，僧問：「寶劍拂開天地靜，金刀纔舉斗牛寒。」師云：「禍事，禍事。」進云：「恁麼則磧裏征人三十萬，一時回首月中看？」師豎拄杖，云：「遼天赫奕。」進云：「萬邦有道歸王化，一直無私賀大寧。」師便打。

復舉：「僧問巴陵：『祖意、教意，是同？是別？』陵云：『雞寒上樹，鴨寒下水。』」師云：「雖然如是，雞肚不知鴨肚事，遂為

禪教之分。大寧則不然，若有人問：『祖意、教意，是同？是別？』只向他道：『水向石邊流出冷，風從華裏過來香。』」上堂，師云：「盛山臨水^{年年}在，東土西方豈變遷？即死即生即解脫，非男非女非因緣。舉心蹉過娘生面，動念乖張空劫前，圓具圓修登九品，德池波湧綻金蓮。所以道：無邊剎海，自他不隔於毫端，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如鴈過長空，影還沉水。正恁麼時，且傳夫人獨脫一句作麼生道？生，則決定生；去，則實不去。」

上堂，師云：「十五日已前，說法機不及；十五日已後，說法機太過；正當十五日，說法機如掣電、語似轟雷。試問春鰲李先生會也未？若也會得，便會孔子道：『天何言哉？四時行焉、百物生焉，天何言哉？』」所以道：大音希聲，大巧若拙。無言為至言，無說乃真說。其或未然，更聽一偈：跳出火坑順且疾，臨終正念真端的，西方即在箇中圓，不用徒勞向外覓。」

住大竹縣佛恩禪寺豎大佛殿，眾檀越請上堂，僧問：「如何是佛恩境？」師云：「長長短短千株樹。」進云：「如何是境中人？」師云：「落落零零幾箇僧。」進云：「人境已蒙師指示，如何是臨濟當陽一句？」師豎拂子，云：「會麼？」進云：「恁麼則知恩有地去也？」師震威喝一喝。

問：「古人拈一莖艸建梵剎，竟新佛恩今日又作麼生？」師云：「八方有道歸王化，四海謳歌賀太平。」進云：「石華山畔金聲振，驚起丹林雙鳳兒。」師不理。僧禮拜，師乃云：「佛恩殿上雙獅踞地，大持堂前孤鴻唳天，二水逢源，一山挺翠。高也，明也，悠也，久也，廣不替之宗風；奇哉，俊哉，善哉，偉哉，多非遙之桂月。因如是地產如是人，因如是人行如是事，非但地勝人賢，要且名成實就。大眾且道：新佛恩眉毛還在麼？」卓拄杖，云：「千千龍象從茲止，萬萬獅麟自此歸。」

天童悟和尚忌日，寶曇禪人設供，請上堂，師云：「七月七巧，雲集秋風秋露及秋雨，乍寒乍熱透皮毛，欲脫欲穿徹骨髓。所以道：熱則普天匝地熱，寒則普天匝地寒。熱則熱殺闍黎，寒則寒殺闍黎。若如此會，得寒暑不能遷、生死不能易。正當恁麼時，且獨脫一句作麼生道？勞煩大眾同到先師真前露布者箇消息。」下座，詣真前拈香云：「戒香、定香、慧香、解脫香、解脫知見香，觸碎吾師肉鼻孔，管教遍界不能藏。」

住開縣龍城山紫雲禪寺，解制，上堂，師云：「^{年年}七月十五，處處追宗薦祖，箇裏眾僧自恣，都來足蹈手舞。為復是妙用現前？為復是業風飄鼓？今朝聖制告圓，試為老僧分析看。若分析得出，大

蟲原來是老虎；其或未然，將拄杖一時打散，亦是蒼天中更添冤苦。」

住開縣鴉城山栖鳳禪院，結制，上堂，僧問：「世亂年久，群魔即恢即復，如何是太平消息？」師豎拂，云：「會麼？」進云：「四海總歸王化裏，全提正令亦奚為。」師云：「閒言語。」僧喝一喝，師云：「此喝落在什麼處？」僧擬開口，師震威喝一喝。僧禮拜，師乃云：「七月十五，龍城解制罷座；八月十五，鴉城結制陞座。雖是兩彩一賽，要且不離者箇。」以拂打圓相，云：「佛子住此地則是佛受用，常在於其中經行及坐臥。」

復舉：「馬祖與百丈、西堂、南泉玩月次，祖曰：『正與麼時如何？』丈曰：『正好修行。』堂曰：『正好供養。』泉拂袖便行。祖曰：『經歸藏，禪歸海，惟有普願獨超物外。』」師高聲云：

「馬大師板齒生毛，分星撥兩，恁麼判斷總是第二月。且道如何是第一月？留待夜來江上落，照人無復冷秋秋。」

解制，上堂，一僧出以手掩師口，師打一拂，僧遂走，云：「怪了。」師拽杖打出，乃云：「本明徹闍黎前為老僧送別偈云：『吾師拄杖欲翻雲。』老僧道：『拗折了也。』『鳥道騰騰盡伴行。』老僧道：『一有多種，二無兩般。』『閨閣縱然無一物。』老僧道：『轉秘轉多。』『阿誰擔荷破沙盆？』老僧道：『且喜有箇徹闍黎。』老僧拈也拈了、斷也斷了，不惟我師從互相唱和，且是聖制告圓，亦有兩句壓韻而已。栖鳳今朝散水雲，縱橫逆順任教行，破沙盆是正法眼，莫逐腥羶污卻盆。」震威喝一喝，下座。

住夔州府萬縣太白巖萬福寺，總戎譚任卿生日，請陞座，僧問：

「離相離名接上上根，立機立境曲為中下，置此兩途，還有為人處也無？」師云：「問得老僧口啞。」進云：「燄地火光扶日出，倚天長劍逼人寒。」師震威喝一喝。

問：「收放不停時如何？」師云：「好與汝三十棒。」進云：「過在甚麼處？」師云：「是甚麼所在，許汝覓過？」

問：「祖佛即不問，覲面相呈事如何？」師云：「兩眼對兩眼。」

問：「無生一句，鬼神不知，因甚被諸人覲破？」師云：「汝卻被拄杖子覲破。」僧禮拜，師乃云：「六月一毒熱極，渾身上下汗如雨，各人返手試摸之，看是如何箇道理？今朝是我任卿譚總戎高陞壽域，老僧登曲条木床讚揚不及。欲讚壽比南山，南山尚有崩倒；欲讚福如東海，東海尚有枯竭。正恁麼時，同於金剛不朽一句作麼生道？萬福堂齋萬壑僧，千金石鼓千秋水。」喝一喝，下座。

總戎譚虞卿生日請陞座，師云：「初伏尾，中伏頭，熱得通身冷汗流，惟有中心箇樹子，無分寒暑自悠悠。如是，則知我譚公過去世六月二十五本不生，未來世六月二十五本不滅，現在世六月二十五

本不住。淨裸裸，絕承當；赤灑灑，無回互。所以道：一念普觀無量劫，非去非來亦非住，如是了知三世事，超諸方便成十力。況華封有三多之祝，老僧亦有三際之譚，都盧在者裏，還委悉麼？」良久，云：「八角磨盤空裏走，無鬚鎖子兩頭搖。」

慕義侯士心譚護法起華嚴經，請陞座，師云：「奇哉奇哉更奇哉，一點明星是禍胎，今日拈來光宇宙，眾生夢眼一齊開。若未如是，且聽葛藤說經意畢。」下座。

解制，上堂，僧問：「大地平如掌，長空一色秋，曾無佛子跡，只見水牯牛時如何？」師驀頭一棒。進云：「翻身嫌地窄，舉步憾天低。」師云：「閒言語。」僧禮拜，師乃云：「結制解制，千古常規；長期短期，一朝方便。向舉起處承當，猶是不唧溜漢；不向舉起處承當，含元殿裏覓長安。老僧年邁，要覓箇四稜著地者相繼住持，令老僧偷安兩日，有麼？有麼？」時數僧齊下一喝，西堂云：「任從滄海變，終不與師通。」師云：「既無怒起，木上座一時趕散。」

住夔州府梁山縣金城禪寺，順治九年十一月初一日，聖瑞姚總戎、天錫姚明經暨闔郡眾檀越請開堂，指法座云：「此寶華王座，二十年前也曾七上八下，今日復陞此座，一任百匝千重。大眾！老僧撥轉今昔關頭去也，還見麼？」遂陞座，拈香云：「此瓣香自治而亂、自亂而治，非木石而不能全其體、非水火而莫能發其用，爇向爐中祝嚴今上皇帝聖躬萬歲萬歲萬萬歲。此一瓣香非口所宣、非心所測，從月明簾外得來，荊棘林中拈出，奉為在位宰官、當山請主，伏願始作春秋之關鎖，終為東北之界牆。」末拈香云：「此瓣香三登九上，七穴八穿，觸碎鼻孔歸來，第十三回拈出，供養天童山景德堂上密雲先師，用酬法乳。」

維那白椎，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云：「第一義作麼生觀？若以眼觀，觀處即瞎；若以心緣，緣處即乖。既不以眼見、心緣，試出來與老僧話會看。」時二僧出眾，跳一跳，喝一喝，師云：「還有麼？」二僧無語，師以拄杖卓一卓，云：「木上座與諸人話會去也，委悉麼？杖頭日月光天德，照破山河煙霧開。」

佛成道日上堂，師云：「獨踞金城第一峰，滿天星斗現穹窿，老僧高著青蓮眼，看得眾生與佛同。榮寰趙居士追嚴飯僧，欲與佛同一成道、同一受用。所以道：火不待日而熱、風不待月而涼，鶴脰自長、鳧脰自短，松直棘曲、鵠白烏玄，本自現成，何假修證？大眾！正恁麼時，修證即不無染污，即不得一句作麼生道？一點明星當午現，九蓮華果自芳妍。」

上元日上堂，僧問：「吾有一物，無頭無尾，常在動用中，乞師一接。」師云：「你眼瞎。」僧喝，師便打。

問：「入門便棒，相見便喝，不知有過？無過？」師打云：「是甚麼所在，還來覓過？」

問：「如何是行腳事？」師云：「面面相看口如木。」

問：「正月中旬是上元，請問和尚：如何是缺？如何是圓？」師以拄杖畫此○，云：「且道是缺？是圓？」

問：「如何是學人生處？」師卓杖一下。進云：「如何是死處？」

師亦卓杖一下。進云：「如何是不生不死處？」師復卓杖一下。

問：「如何是金城境？」師云：「城小規模大。」進云：「如何是境中人？」師云：「僧貧世界寬。」進云：「人境與和尚差多少？」

師豎拄杖，云：「拄杖頭上薦取。」僧禮拜，師乃云：「**年年**正月半，處處燈光現，箇裏卻無明，阿誰將眼見？」復以拄杖畫此○，云：「委悉麼？我見燈明佛，本光瑞如此。」

師誕日，明宇彭居士請上堂，師拈拄杖卓一卓，召大眾云：「會麼？者箇與老僧同壽，從無始來正月二十一日、乃至盡未來際正月二十一日，算數譬喻不可說不可思議福德海壽命聚。不獨老僧如是，三世諸佛亦如是，歷代祖師亦如是，天下老和尚亦如是，一切有情、無情亦如是。」復卓拄杖下座。

解制，上堂，師云：「老僧閒坐困眠，不覺過了三月，爾**等**朝參暮請，恍惚又是一期。釋迦老子尚有三七思惟，達磨初祖況乃九**年**面壁，今日侯府西崑譚護法為汝諸人設放參解制齋，且道參作麼生放？制作麼生解？還委悉麼？試看春風吹野綠，應教龍象任縱橫。」

住夔州府梁山縣雙桂福國禪院，順治十七**年**十月十五日，邑侯飛雲彭護法請開堂，師接疏云：「大清定鼎，揚文耀武，於斯時雙桂開爐，鍛聖煉賢。於此日雖是公驗分明，卻請維那宣過。」

陞座，師拈香云：「此一瓣香，非木非香，無聲無臭，爇向爐中端為祝嚴今上皇帝聖躬萬歲萬歲萬萬歲，伏願壽山福海彌高彌深，皇圖帝都至堅至固。」次拈香云：「奉為滿朝百辟、臨筵郡侯，伏願長為王室股肱。」又拈香云：「六六代相傳，四四處經手，供養天童山景德堂上密雲先師，用酬法乳。」斂衣敷座。上首白椎竟，僧問：「如何是十五日已前事？」師云：「前不搆村。」進云：「如何是十五日已後事？」師云：「後不抵店。」進云：「正當十五日時如何？」師云：「退身三步禮拜著。」

問：「天產靈芝為甚麼不抽枝發幹？」師以拂子打圓相，云：「生也，生也。」

問：「紅爐大鞴就裏添炭時如何？」師云：「焦頭爛額，似粟如麻。」僧禮拜，師乃云：「今年雙桂開堂，箇箇腳忙手忙，山上工頭喊號，堂前執事敲梆，芒鞋東穿西脫，索扛論短爭長，務要同心協力，都來直下承當。未審眾中還有承當者麼？」時數僧齊下一喝，師笑云：「未在。既無，老僧因齋慶讚去也。」

復舉：「龐居士將百萬家財傾向湘江去，參石頭遷禪師，問：『不與萬法為侶者是甚麼人？』頭以手掩居士口，士遂悟。據山僧看來：此老雖與彭公同里，其實機用各別。與其傾向湘江，不若我彭公將來飯僧請法，寧不出龐老一頭地也。雖然如是，刁刀相似，魚魯參差，若向此中會得，古今無二道、聖賢無兩心。如擲劍揮空，勿論及之不及，貴承當而不貴推托也。還委悉麼？處處綠楊堪繫馬，家家有路透長安。」下座。

上堂，僧問：「如果日照空時如何？」師云：「若不同床睡，焉知蓆底穿？」進云：「幾回出世、幾建叢林，和尚分中成得什麼邊事？」師云：「直教人腳跟下豎去橫來。」進云：「有一人不落凡聖，和尚如何接他？」師震威喝一喝。僧禮拜，師乃云：「寒盡隴頭梅欲放，穿人鼻孔令人忙，看他無限癡男女，都把光陰喪北邙。時宇黃居士到室中，欲老僧露布者箇消息，然而者箇消息在胎為身、處世為人、在眼曰見、在耳曰聞、在鼻辨香、在口談論、在手執捉、在足運奔，老僧舉此告報諸人，諸人還委悉麼？還鄉盡是兒孫事，祖父從來不出門。」

梁山縣令曾勝幢受菩薩戒，師接疏云：「隔壁告狀，遍地葛藤，覷面相呈，漫天露布。即此用、離此用，賣弄不少；蘇州有、常州有，短販太多。雖是公驗分明，不妨維那宣過。」陞座，云：「數十年來道不同，而今慚愧起家風，相逢沒甚閒言語，一棒當頭絕己躬。」說戒。下座。

梁山姚總戎謝夫人請陞座，師云：「金城砦上牢籠不住，雙桂堂前呼喚不回，本是箇無面目漢，卻來箇裏合水和泥。今鎮府謝夫人得得來山，飯僧請法，更祈福壽康寧，勤王報國。正與麼時，且報國一句作麼生道？雕弓已挂狼煙息，萬里謳歌賀太平。」下座。

檀越請上堂，僧問：「獅子王談吐三千，雙桂堂拈出一句。三千即不問，一句意如何？」師云：「汝眼瞎。」進云：「曉月暫飛千樹裏，秋河隔在數峰西。」師云：「沒交涉。」

問：「日間浩浩裏作得主，夢寐裏作得主，無夢無想時主在何處？」師云：「正好朝打三千，暮打八百。」進云：「太湖三萬六千頃，月在波心說向誰？」師云：「痛癢也不識。」僧禮拜，師乃云：「天王賜與華屋，要因門入。仁者大破慳囊，本為誰將？所以道：實際理地不受一塵，佛事門頭不捨一法。不捨一法，千峰勢到

嶽邊止；不受一塵，萬派聲歸海上消。人人悟證平常，箇箇圓機活潑。」

復舉：「東印土國王飯僧，一眾俱轉經，惟二十七祖般若多羅尊者默然晏坐。王問尊者：『何不轉經？』祖曰：『貧道人息不居陰界，出息不涉眾緣，常轉如是經百千萬億卷。』」師云：「大小尊者也只在葛藤裏輓，今日若有人如是問老僧，惟痛與棒、熱與喝，不惟光揚祖道，要且不致寂寥。大眾且道：尊者與老僧是同？是別？」良久，云：「饒伊講得千經論，總落禪家第二機。」

永熙禪人受戒，上堂，師云：「金城砦上塵埃不到，雙桂堂前泥水甚多，且道老僧純清絕點底是？拖泥帶水底是？若向此中薦得，無戒不持、無生不度；其或未然，更聽葛藤。」說戒。下座。

解制，聖瑞姚護法請上堂，僧問：「聖制告圓，慶賞一句作麼生道？」師云：「各與三十棒。」僧擬進語，師震威喝一喝。僧禮拜，師乃云：「千日禪期今日已，如龍如象如獅子，忽然返擲奮全威，大地烽煙從此止。如是，則我姚將軍一片忠肝義膽，老僧今日因齋慶讚。所以道：施主一粒米，重如須彌山，若然不了道，披毛帶角還。已如是者，日食斗金非分外；未如是者，時餐粒米也難消。」以拄杖卓一卓，云：「知恩者少，負恩者多。」

涪侯劉夫人印貞請陞座，僧問：「三乘教典已成糟粕，五家宗旨亦是筌蹄。宗教即不問，如何是法身向上事？」師云：「腳跟下薦取。」進云：「還有奇特事麼？」師云：「不顧腳跟三尺水，只貪縱步上高岑。」進云：「若不桶底開兩眼，何能大地任縱橫？」師云：「閒言語。」

問：「和尚陞座度盡眾生，即今侯府向甚處去也？」師云：「接饑枝上垂金果，消渴泉中湧碧流。」

一僧向前作揖，又作女人拜云：「恭賀和尚萬福。」手呈白紙，中畫一圓相，云：「學人投書，請和尚目。」師云：「見怪不怪，其怪自壞。」僧禮拜，師乃云：「雙桂三年今復爐，重添柴炭費工夫，鎔成冷脆熱焦鐵，打把虛空掘洞鋤。今日鋤柄在手，大破天荒，重開基業，幸誥命劉夫人男譚天晟來山，飯僧請法，奉薦正一品光祿大夫西崑譚侯府夙具扶正熱腸，精忠血性，滿腔肝膽，萬世聲名一旦狼藉，四海五湖冤深莫雪，老僧忍俊不禁為伊雪卻。所以道：一切智智清淨，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如此，則正心誠意治國齊家，捨生趣死、捨死趣生，無不從此法界流出，究竟還歸此法界，恁麼告報也是路見不平。」以拄杖作鋤勢，云：「掘出中原乾淨土，從新復整舊規模。」

上元上堂，師云：「正月十五日已前為人，不遇春風華不開；十五日已後為人，華開又被風吹落；今日正當十五日，且道開底是？落

底是？」良久，卓拄杖一下，云：「謾道春歸無覓處，誰知轉入此中來？」

薦嚴上堂，師云：「法界網裂，其維不張，擊塗毒鼓，灑甘露漿。飲之者醉、耳之者狂，都盧到老僧拄杖頭上脫體全彰。把住也，黃金失色；放行也，瓦礫生光。正恁麼時，且道把住是？放行是？」

良久，云：「若是不經惡辣手，除非身帶返魂香。」

湛源禪人為師除禪，請上堂，師云：「今朝冬月一，乍雨洗天地，惟有者些兒，不隨晴雨易。如是，則我湛源師承一喝禪師，三周來我山中營齋供眾，強老僧登座對眾舉揚。老僧觀彼久遠猶若今日一生一死，寧能易哉？所以道：有物先天地，無形本寂寥，能為萬象主，不逐四時凋。古德恁麼道，老僧恁麼拈，未審是中還有優劣也無？如無，且道萬象主即今在甚麼處？體取蓮華不染心，法身常住寂光土。」

上堂，師云：「今日是我松雲法孫自戊子年別去，直至而今庚子年歸來，一去一來不覺十有三載，特特來山供老僧新成衣，請老僧登新法堂，說新佛法。若語、若默，俱是舊底，教老僧如何啟口？」

良久，卓拄杖一下，云：「諦聽，諦聽。」下座。

上堂，僧問：「達磨西來所為何事？」師云：「為汝不薦。」進

云：「薦後如何？」師云：「好喫老僧三十棒。」

問：「閉門打睡接上上，機顧鑑噸呻屈為中下，今日陞座有何施設？」師云：「合取狗口。」

問：「古德云：『六人成大器。』因甚只付五人？」師云：「一有多種，二無兩般。」僧禮拜，師乃云：「遠公沽酒延陶潛，佛印燒豬待子瞻，此是一賓一主作用，只是太費力生，要且未徹向上關捩。老僧不用造作安排，隨家豐儉聽其自然。且道與先德還有同異麼？」良久，云：「若達本來非皂白，不妨隨處徹根源。」

解制，上堂，僧問：「前三日一場喧鬧，向甚麼處去也？」師云：「佛法大有，只是咳嗽。」進云：「恁麼則偃息干戈，擺手歸朝去也？」師云：「腳跟下猶好喫棒在。」僧禮拜，師乃云：「從上先德解制有云：『出門、不出門，俱是艸漫漫地。』老僧者裏則不然，出門、不出門，俱是一場懨懨。何以故？舉頭天外看，誰是我般人？」

語嵩法孫同徒嵩目省觀，請陞座，僧問：「學人已到者裏，請老和尚道道。」師豎拂，云：「會麼？」進云：「仍舊道不出。」師云：「刺瞎闍黎眼睛。」僧禮拜，師乃云：「年經六十五，作事多莽鹵，旋爇返魂香，來搥塗毒鼓，聲吞鰲鼻蛇，氣壓藍田虎。」以拂子打圓相，云：「拈出箇胡餅，能超佛與祖。雖然如是，大小雙

桂未諳時勢。何以故？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種艸雖固然，同坑無異土。」

漢中府靜明寺癩石法孫請陞座，僧問：「真心無住，住則成妄。如何是無住根本？」師云：「老老大大還說者箇語話。」進云：「和尚又作麼生？」師震威喝一喝。

問：「穿衣喫飯即不問，屙屎放尿事如何？」師云：「大面原來是畜子。」僧禮拜，師乃云：「古有僧問先德：『如何是諸佛出身處？』」答云：『東山水上行。』又有僧問：『如何是諸佛出身處？』」答云：『西河火裏坐。』又有僧問：『如何是諸佛出身處？』」答云：『熏風自南來，殿閣生微涼。』此三大老答話，未審還有優劣也無？若有優劣，試為老僧指出看；如無，老僧自道：去也、咄也，是三人證龜成鳖。」

昭覺丈雪門人請陞座，僧問：「未離兜率，已降皇宮，意旨如何？」師云：「生也，生也。」進云：「生箇甚麼？」師震威喝一喝。僧禮拜，師乃云：「初出母胎得自由，指天指地賣風流，是非只為多開口，煩惱皆因強出頭。冷逼丹霞燒木佛，饑逢王膳憶金牛，老僧此日無他說，冤報冤來仇報仇。」下座。

密雲悟和尚忌日設供，捧盒至影堂前陡然跌碎，師拈香云：「吾師忌日卻逢巧，處處瞻風併撥艸，殃及兒孫直至今，含冤負屈轉煩惱。且道與阿誰煩惱？」良久，云：「惱恨春歸不再來，忽然撲地驚華鳥。」

薦巖上堂，僧問：「抱璞相投，乞師一決。」師云：「向前來與汝決。」僧遶一匝，師笑云：「且道老僧笑箇甚麼？」僧罔措，師乃云：「年年七月十五，處處追宗薦祖，老僧又且不然，逢人只打口鼓。」以手拍口，云：「會麼？」時有僧喝一喝，師云：「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

上堂，僧問：「虛空百雜碎廓徹，意旨如何？」師云：「合取狗口。」僧喝，師正色叱之。

問：「正令全提即不問，如何是雪點紅爐底人？」師云：「汝不是者箇人。」進云：「隨緣放曠去也。」師喝一喝，僧亦喝一喝，師云：「我也喝，你也喝，未審那箇喝底是？」僧以坐具拂一拂，歸位，師云：「七棒對十三。」

僧問：「一百日畫地為牢，今日被學人蹋破了也。」師云：「墮坑落塹。」進云：「者箇是盡大地牢籠不著底。」師云：「性命也不顧。」僧禮拜，師乃云：「今辰老僧舉神光二祖三拜初祖，云得皮得髓，大眾雲集三拜，且道得箇甚麼？眾齊下一喝，老僧謂合取狗口。然而遠祖恁麼道，老僧恁麼拈，未審還有勝負也無？若有，不

妨對眾舉似；如無，老僧自道去也。」以拄杖卓一卓，云：「還委悉麼？遲機只為分皮髓，賺我雲山千萬重。」

明宇李居士為男發善拖白請上堂，師云：「佛光主照十餘秋，轉重令輕得自繇，今日空門留不住，青雲得路占黿頭。」咄一聲，云：「去。」

現雲龍居士祈嗣請上堂，師云：「適逢雙桂飄香，必得麒麟之子。強欲老僧上堂，上堂道箇識語，龍吟虎嘯之年，畢竟華開碓嘴。」咄一聲，下座。

上堂，師云：「老僧六十六，尚欠人天福，雖有兩菜園，了無箇蘆菔。且道此意是如何？大的扯住小的哭，問你哭甚麼？人心多返復。」

解制，上堂，僧問：「結制已久，埋沒學人，今日出頭，作麼勘驗？」師震威喝一喝。進云：「龍得水時添意氣，虎逢山勢長威寧。」師云：「好與汝三十棒。」僧禮拜，師乃云：「今朝二十有五，放出一群猛虎，不會鷄子翻身，只解氣吞佛祖。敢問大眾以何為據？」良久，云：「子丑寅卯辰巳午，甲乙丙丁莫莽鹵。」擲拄杖，下座。

破山禪師語錄卷第四

（嗣法門人果州印豁 合州龍游山寂壽同刻破山和尚語錄第四卷 堆藍弘禮禪人對 秀水謝穎仙書 嘉興倪天章刊）
（康熙庚申歲孟春月，嘉禾楞嚴寺般若坊識）

上堂五

上堂，僧問：「無影坡前曾相見，今朝特地忘卻面，和尚還記得麼？」師震威喝一喝。

問：「未到雙桂有一話頭，今已忘卻，請師答話。」師云：「鼠口終無象牙。」僧喝一喝，師不理。僧歸眾，師乃云：「剛纔九夏又三冬，衲子齊來叩_己躬，拄地撐天拄杖子，顛拈倒弄活如龍。且道朝打三千、暮打八百，還濟得甚麼邊事？」以拄杖卓一卓，云：

「不獨登山兼打狗，偏能扶弱不扶強。」

三谿魏居士請師上堂說法，師固辭。次蚤上堂，師高聲召云：「魏居士。」士應諾，師云：「老僧為汝上堂了也。」士禮拜，師便下座。

治宇楊居士為子拖白請上堂，師云：「天上月正圓，人間道月半。咬破卻_勿圖，_勿圖成兩片，飯甌兩頭空，吾道一以貫。諸仁者！向此薦得，一生參學事畢；其或未然，請光桂出來拖白去。」桂出眾作禮胡跪，師云：「自從昔日與今朝，光陰漸漸不相饒，與麼趕出三門去，福海深而壽山高。」

追嚴上堂，師云：「兜率皇宮去復來，如如不動實悠哉，阿僧祇口難稱讚，一任凡胎與聖胎。所以道：處生死流，驪珠獨耀於滄海；踞涅槃岸，桂輪孤朗於碧天。未離兜率，已降皇宮；未出母胎，度人已畢。正當恁麼時，且道玉臺張居士夫婦來山營齋供眾，追嚴報本一句作麼生道？父母愛之，喜而不忘；父母惡之，勞而不怨。不怨不忘今頓脫，西方上品綻金蓮。」

施主請上堂，僧問：「有佛處不得住，無佛處急走過，是何人境界？」師云：「好與三十棒。」僧擬測，師噓一聲。

印達問：「氣聚時，主人公當堂；氣散時，主人公向甚麼處安身？」師云：「天晴日頭出，雨落地下溼。」達禮拜，師乃云：

「連連兩日陞堂，箇箇腳忙手忙。田裏秧深上節，山中麥老將黃，工夫覺得無隙，食祿知其有方，但願檀那福壽，與同地久天長。」峨眉山萬_年寺紫芝法孫請陞座，僧問：「香飄雙桂，月朗中天，如何是祖孫相見一句？」師云：「分明月在峨眉上，看到峨眉卻又遲。」進云：「恁麼則團圓在此際，流輝不計秋？」師震威喝一喝。僧禮拜，師乃云：「雙桂堂前雙桂香，蜂喧蝶攘動悲傷，想來熟我餘生夢，飛上峨眉添道光。」擲拄杖，下座。

上堂，師云：「滴水滴凍庭際之人覓心不得，打雨打風杖頭之機忍俊不禁，忘形骸於方外，究性命於箇中，鼓兩片皮、弄三寸舌，千言萬語，無非要人解黏去縛，敲枷打鎖，豈料事無一向？又且不然，今日君如陳公夫人袁氏為男襁關寄名印鳳來山營齋供眾，入如來室，披如來衣，頂如來冠，帶如來鎖，得一身繫縛者，改禾莖而為粟柄，易短壽以作長齡。雖是雙放雙收，猶是半明半暗。正恁麼時，且道解脫底是？繫縛底是？」以拄杖卓一卓，云：「還委悉麼？薦取杖頭聲盡處，印龍印鳳日呈祥。」

開鑪，上堂，師云：「鉗錘爐鞴不如初，十日親來九日疏，將謂胡鬚箇箇赤，誰知更有赤鬚胡？」

復舉：「王常侍謁臨濟大師，攜手至禪堂，問：『眾僧在此看經麼？』濟曰：『不看經。』曰：『參禪麼？』曰：『不參禪。』曰：『既不看經、又不參禪，在此作麼？』曰：『惟要作佛。』王曰：『金屑雖貴，落眼成翳。』濟云：『將謂你是箇俗漢。』」師云：「即如我夔州府經歷司盧檀越特特來山，也不如是葛藤，遇茶喫茶、遇飯喫飯，難道也是箇俗漢？」召大眾，云：「試看：今之俗漢、古之俗漢，是同？是別？若道是同，不應點罰『金屑雖貴，落眼成翳』；若道是別，只見錐頭利，不見鑿頭方。正與麼時，都盧一狀領過，還委悉麼？」

一僧云：「夜深不向蘆華宿。」又一僧云：「不離當處常湛然，覓則知君不可見。」師云：「只是不歸歸便得，五湖煙景有誰爭？」下座。

梁山林縣令請陞座，師云：「天得一以清；地得一以寧；君王得一，天下太平；諸侯得一，海晏河清。老僧今朝得箇初一，且道堪作甚麼？有水皆含月，無山不帶雲。」

復舉：「鼓山赴閩王請雪峰上堂，云：『雪峰門下好矢聖箭，射入九重城裏去也。』太原孚上座云：『也待某甲勘驗過始得。』趕至中途，問曰：『師兄往那裏去？』曰：『九重城裏去。』曰：『忽遇四兵圍繞時如何？』曰：『他家自有通霄路。』曰：『恁麼則離宮失殿去也？』曰：『何處不稱尊？』孚上座拂袖便回，舉似雪峰云：『好矢聖箭中途折卻了也。』峰云：『他有後語在。』曰：

『老凍膿猶有鄉情在。』」師云：「此則公案商量者最多，錯會者不少，都去折箭處卜度，殊不知鼓山折箭則且置，雪峰上堂是甚麼心行？還委悉麼？」時有僧云：「道泰不傳天子令，時清休唱太平歌。」師卓拄杖一下，云：「一箭落雙鵰。」

天童悟和尚忌日，師拈香云：「一瓣香，兩手舉，雙桂堂前經幾幾，萬里鵬程去復來，一天明月照巴水。」

解制，上堂，師云：「千出醜，萬出醜，學冠天人開大口，吐霧吞雲立上風，蘇州有也常州有。大眾會麼？如會得，老僧分半院與汝住；其或未然，一任東奔西走。」

總督四川培之李護法薦慈請就重慶府官衙陞座，師云：「過去事已過去，未來事猶未來，且道即今事又作麼生？兩頭坐斷，中間莫位。若於此會，得淨裸裸絕承當，赤灑灑無回互，便見得今日所薦誥封一品太夫人，齊家治國，純孝精忠，凜凜孤光不遷不變，即穢邦而生淨土，即煩惱以證菩提。其或未然，更聽一偈：訃音正報凱音時，兩處相將不早遲，快我蓮池添上客，全人忠孝令人思。」下座。

浴佛，上堂，師云：「指天指地及周行，臭口初開引禍生，一棒翻加人我病，九龍惡水太無情。敢問大眾：還知此中利害處麼？」有僧喝一喝，師云：「將此身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

上堂，師云：「惡辣鉗錘大鞴爐，純鋼煉就箇頭顱衝，鋒破敵與麼去，四海氛煙盡淨除。如是，則知長春周居士來山飯僧請法，上祈國泰民安，下祈光前裕後，人人悟證平常，箇箇剋期取辦，早遂忠孝之懷，以全自他之益。所以道：求道如鑽火，逢煙未可休，直待金星現，燒然始到頭。老僧如是告報，未審眾中還有得金星現者麼？如無，因齋慶讚去也。」以拂子打圓相，云：「但存方寸修陰鷲，自有麒麟應馬前。」

天童悟和尚忌日，師拈香云：「七月七，吾師涅槃日。老僧一瓣香，觸碎諸人鼻。」遂炷香，復云：「若道是瓣香，入地獄如箭射；若道不是香，入地獄如箭射。正恁麼時，且道還是香底是？不是香底是？請著一語看。」自代云：「禍不入慎家之門。」

辭眾上堂，師云：「初開劫運久開爐，七十年來志不輸，每見隙駒難度尾，嘗聞老蚌易生珠。三餐三道束腰篋，一箇一張護口符，今日功圓并行滿，同瞻佛日與皇圖。」下座。

小參一

小參，師云：「臨濟在黃檗三度問佛法的的大意，三度被打，於中放不過處氣悶殺人，指參大愚輕輕點破，忽地[祝/土]拳揮掌，誰當其鋒？方是知痛癢漢。今兄弟家被我棒頭打著，不根其旨，亂去卜度，言知痛癢，目在打處痛處，單看痛底，是誰可憐生，將我祖者條棒委屈。如是，若以打處言知痛癢者，古德有言：『未跨船舷，早與三十棒了也；未動腳跟，早喫棒了也；未開口前，早與三十棒了也。』且道者箇痛癢又作麼生？知之難道也，好去打處痛處云知痛癢耶？所謂知痛癢者，言識法者懼凡在言語上、機境中識得

根源處謂是知痛癢漢。所以黃檗參馬祖，不料祖遷化，遂參百丈，問曰：『馬大師生前有何言句示人？』丈自舉參馬祖因緣：『我被他一喝，只得耳聾三日。』檗當下吐舌，丈曰：『子莫承嗣馬祖去。』檗云：『今日因師舉，得見馬祖大機之用，我若承嗣伊則喪我兒孫。』丈云：『智與師齊，減師半德；智過於師，方堪傳授。』兄弟！你看者箇榜樣還是從打處痛處參究知痛癢耶？不從打處痛處參究知痛癢耶？還是從喝處耳聾處知痛癢耶？不從喝處耳聾處知痛癢耶？試卜度看。今日不禁口業分疏長短，蓋緣我輩做禿居士，不識好惡，錯會猶甚者下底註腳耳。還有一等不惟不達此意，反生毀謗，此輩難怪其愚。豈不聞真銀不通世用，真人難以應跡，真言不無逆耳？古德云：『我若一向舉揚宗教，法堂前艸深一丈。』良有以也。珍重珍重。」

示眾，云：「古人道三朝一七剋期取證，你們在堂七日矣，曾取證也未？」一眾無語，師云：「八十翁翁入場屋，真誠不是小兒嬉，而今爾輩不得自繇者，其過有三：一者、自恃聰明，法法頭頭一覽便會，及至臨機目瞪口呆，過在依他作解，塞自悟門。二者、硬起起地盡力主張，逢人便逞口頭滑，以為千了百當，及至遇一智人面前卻云『不會。』過在見識不清，意志恍惚。三者、領一話頭當座靠山相似，總不信人長言短語，只以自謂是做工夫者，見別人喧喧鬧鬧，恨不得深藏遠遯，世不面人，及至搬弄數十年來依然是箇村夫俗子，過在執著，取勝易便信受。如是種種說心、說性、說常、說斷、說道理、說玄妙，自契自證者，盡是野狐精見解，須向三千里外盡淨吐，卻方來東塔門下喫痛棒也。」

示眾，云：「言無展事，句不投機，承言者喪，滯句者迷。此是古人板齒生毛，痛為今時分星撥兩下底註腳。山僧曾恁麼分疏一上，始得不承言、不滯句，活鱗鱗地如珠走盤。大眾且道：山僧恰古人處還有商量也無？」眾無語，師顧視左右，云：「赤眼撞著火柴頭。」

示眾，云：「佛佛出世唯為一大事因緣，即開示悟入四種知見，要之一佛知見道故。然而佛知見者即正知見也，此正知見即人人不妄、不邪，不偏、不倚者是也。蓋謂此正知見，雖人人皆具，不無從幼到老習染不正，故吾佛一人與我和你做箇通事舍人，以種種言教無數方便引導眾生，令離諸著而已，其實與聖人何與？而人不根其旨，起惑造業，如物墮地，重處先墜，或作善、或作惡，隨業飄鼓，可作男形、可作女形、可作非男非女形，可作無足、多足形，可作人非人等形，可作牛、羊、象、馬形，可作鱗甲羽毛形，可作情與無情形，如是等無量無邊不可說不可說阿僧祇劫捨身受身，輪迴不息，只因一念錯現，出萬般形也。即物而推，此一香爐本是泥

水合成，良工造出，人欲惜之，千^年萬載遂成寶器，無價可評，舉世貴重；若一旦不惜損之壞之，不但不貴於世，且亦復難歸於泥水也。而人既得人身，迷不知修省，與此器物復何異哉？所以道：一失人身八萬劫，幾時等得出頭來？縱出頭來，生處邊地，下賤、癡、聾、瘡、啞、六根不具，為人奴婢，受他驅役，安得親覲大善知識，得聞正法，策進趣操，悟佛知見、入佛知見也耶？山僧今日對眾葛藤如此，也是棒打石人頭，曝曝論實事。」

小參，師遶禪床一匝，云：「會麼？於此會得，便會釋迦老人初出母胎，周行七步，目顧四方，一手指天，一手指地，云：『天上天下，惟吾獨尊。』我儂今夜又且不然，既是周行一匝，何止七步？似超釋迦老人一頭地也。何則？天上天下箇箇獨尊。所以道：男兒自有衝天志，不向他人行處行。其或未悉，更聽葛藤。」

復云：「者箇消息也不在言端語端說得，華簇簇、錦攢攢，以當了事惟貴。二六時中觸處生疑，有疑不決，千沒奈何、萬沒奈何，便是好處。然而此際或發一問、或示一機，自合搆汝到那不疑之地，始信從前恍恍惚惚、是是非非都盧拋向他鄉外里去也，自然頭頭上現、物物上彰，復何難易而可較哉？寧不聞昔有一僧問巖頭：『起滅不停時如何？』頭咄云：『是誰起滅？』其僧乃悟。而悟處便是不疑，不疑則是千了百當，猶香嚴之擊竹、靈雲之桃華，盡向聲色裏廓徹，如汝諸人眼底耳底，豈無如是聲色？因何不悟觸？若面牆蓋為只要在別人嘴角頭喫些涕唾餬過日子，縱得飽參，智過鶩子，學辯懸河，亦濟得甚邊事？汝看釋迦老人道：『唯佛與佛乃能知之。』且道他知箇甚麼？」眾無對，師以兩手掩面，云：「慚惶，慚惶。莫要夜長夢多。」時有僧不出眾高聲云：「和尚莫瞞人好。」師云：「是你瞞我。」

小參，師云：「者箇活鱗鱗處阿誰不具？那在遣昏敵散、瞋眉努目、起蚤睡晚、長期短限以了平生？所以佛祖無他，只在動靜忙閒、[祝/土]著磕著處發明者箇活鱗路頭。不見三祖信心銘曰：

『至道無難，唯嫌揀擇，但莫憎愛，洞然明白。』你們厭喧求靜、得失取捨、死死生生、凡凡聖聖，總是揀擇。正恁麼時，如何是不揀擇底句？」師良久顧視左右，云：「只待來^年蠶麥熟，羅侯羅兒與一文。」

復舉：「玄沙與保福擇菜次，偶論佛法，不覺失聲一笑，玄沙責云：『汝者一笑，損了許多利益。何也？暫時不在如同死人。』保福自此確志不群，後果聲名千古。我儂者裏又且不然，每見兩堂雲水，終日鼓掌呵呵，也無許多損益，似乎超古人一頭地也。似則也似，是則未是，恁麼說話也是爛泥中有^刺。兄弟家既辦冲霄氣宇，來者裏同甘澹泊，祇欲究明生死，那有閒情作戲，得不太喪天日

乎？其中縱有過量者，亦不可將人品不立，愈有高著愈要小心，豈不聞『如臨深淵，如履薄冰』？聖人尚爾，我安不然？必要尊乎其
事，後勝於前，令人信而不誣也。苟圖活計，假銜雌黃，東去打一
掌、西去築一拳，不惟自屎不覺臭，亦壞自己聲名。我儂非是有意
尊大，來兄弟前作箇狀頭，終日口喃喃告訴，無非只要大家當件事
做。所以玄沙[祝/土]指，香巖擊竹，靈雲見桃華，遇境逢緣，千
了百當，不是造作安排，亦非偶然，特地只是一味胸頭礙膺處廝結
不開，方有見色明心、聞聲悟道之局。不是爾輩今日三、明日四，
說時似有、不說似無，放參止靜，隨境飄流，徒溷日子。我出家行
腳祇三十年，所作所為靡不受盡，雖依金粟老人往返六載，只得一
箇老和尚暗識我敗闕處，其餘盡把我作箇泥豬癩狗看待，終日憎
嫌、終日障礙，耳邊每聞盲龜跛鳖浩浩商量那箇孤硬、那箇柔弱，
再不說起自己長短闊狹。

「兄弟！爾我者裏切莫學者般種草了無結果之日，在我者裏只說者
裏話。雖然兒時做處，老來知羞，定不是泥龍石虎空獲其狀，但凡
不倒斷處必也頻頻請問、數數提撕，當信時不待人，剎那異世。兄
弟肯依我儂結箇驢年道友，何愁碓嘴不生華？」時西堂率眾一齊禮
拜，師走起，合掌云：「道泰不傳天子敕，鋼刀奚取我儂頭。」
對靈，小參，師豎起拄杖，云：「者箇物，上拄天，下拄地，常在
動用中，動用中收不得。既動用中收不得，且道濱源程居士即今在
甚麼處安身立命？」以拄杖卓一卓，云：「濱源居士被山僧拄杖接
引來也，汝等諸人還見麼？若也見得，便見伊安身立命處，便見胎
生、卵生、溼生、化生，有色、無色，有想、無想，非有想非無
想，一切眾生安身立命處；其或未見，更聽山僧與濱源居士收因結
果去也。」復以拄杖卓一下，云：「還委悉麼？擊碎惡魔諸苦趣，
端然證入妙蓮心。」

對靈，小參，師云：「山河大地，明暗塞空，時人不識，強覓西
東。存曾丘公一生一死，恁麼來、恁麼去，還悟也無？悟，則見山
是山、見水是水、見明是明、見暗是暗、見塞是塞、見空是空、見
君是君、見臣是臣、見父是父、見子是子、見兄是兄、見弟是弟、
見男是男、見女是女；倘若未悟，見山不是山、見水不是水、見明
不是明、見暗不是暗、見塞不是塞、見空不是空、見君不是君、見
臣不是臣、見父不是父、見子不是子、見兄不是兄、見弟不是弟、
見男不是男、見女不是女。總之，夢幻空華徒勞把捉。丘公向山僧
拄杖頭上七縱八橫，口喃喃地所供如此，還委悉麼？」以拄杖卓一
卓，云：「即此見聞如幻翳，回觀三界若空華。」

對靈，小參，師云：「雨落地下溼，過蟻難尋穴；天晴日頭出，歸
禽易見巢。正當不晴不雨之際、非難非易之時，且道安任居士令先

室孺人在甚麼處安身立命？」以拄杖卓一卓，云：「還會麼？若於此會得，當下便是恩愛盡，而生死盡、煩惱斷，而佛道成；若於此不會，且向山僧拄杖頭上著隻眼好。諸仁者！只如山僧拄杖頭上作麼生著眼？極樂娑婆都屏卻，棒頭喝下悟無生。」喝一喝，復卓拄杖，下座。

對靈，小參，師云：「臘末春初萬象新，拖金垂柳弄啼鶯，乃聲乃色難遮覆，韻出令人悟本真。如是，則我廣耆孫夫人素所念佛持經，操家訓子，還悟得本真也無？若也悟得，始知今日生死亦如是、苦樂亦如是、男女亦如是、恩愛亦如是、哀樂亦如是，乃至一切榮辱種種亦皆如是。」拈起拄杖，云：「既爾如是，且道即今安身立命一句作麼生道？」復卓拄杖，云：「還委悉麼？超聲越色隨他去，鳥笑華吟自在身。」

對靈，小參，師云：「世、出世法渾無取捨，舉古舉今了無延促，點燈籠而撞露柱、騎佛殿以跨山門者，其誰得歟？昔龐居士家財百萬，志慕大道，盡情傾向湘江，深心內典，學識貫通，曾有偈云：『有男不婚，有女不嫁，大家團圓頭，共說無生話。』不覺報緣逮盡，告其女靈照曰：『視日當午，疾來報我。』靈照應諾，見日當午去哄父曰：『日已過矣。』父出戶，行到簷頭視日，其女坐父座，端然而逝。父回見之曰：『我女敏捷，倒先我一著。』龐老更延七日亦去。其子務農田中，聞之，卓鋤立化。單單只賸得龐婆一人，遂將夫兒骨骸茶毘畢，乃云：『者夥不唧溜漢都做模做樣，令人簡點，我若去時即不然。』以手指石即裂，隱身石中不見。山僧據此看來，龐婆雖有纖塵不立之手段，而無萬法為侶之襟懷，不若我和石孫居士不下龐老之列，曾向妻兒老小翻龐老案云：『有男須婚，有女須嫁，也不團圓頭，無生豈有話？』故令先正黃夫人暗會機宜，符合斯旨，脫灑灑地男也不顧、女也不憐、夫也不辭、孫也不戀，孤迥迥、峭巍巍，高出龐婆一頭地去也。汝等諸人還知去處麼？若也知得，塵塵盡是寶王剎，剎剎無非選佛場；倘未如是，更聽山僧一偈：頓然了卻兒孫債，忽地拋開夫婦情，撒手便行渾不戀，曷同婆去石藏身？」

示眾，云：「即心即佛，頭上安頭；非心非佛，斬頭覓活。所以道：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既總不得，則生死即涅槃，煩惱即解脫。雖然如是，幾片白雲橫谷口，許多歸鳥盡迷巢。」

到嘉善縣大勝寺，眾居士請益念佛參禪法要，師曰：「參禪與念佛、殺人併劫物，善惡總繇之，惟是一心做。世人悟一心，不入二岐路，天堂尚偶然，地獄豈悠固？只因取捨中，生起輪迴處。」豎拄杖，云：「試看山僧拄杖子，本無迷也本無悟。」

金陵觀音菴小參，師云：「觀音菴內打鼓，文殊院裏上堂，塵說、剎說、熾說，無人向此承當。幸我姑蘇葉居士為父鑑韋春秋五十來此營齋供眾，請山僧向人天眾前播兩片皮，露者消息。擬欲說心、說性、說常、說斷，自有三乘十二分教詮註不休，亦是座主露布了也。雖然如是，畢竟山僧說些甚麼？天地玄黃，宇宙洪荒，日月盈昃，辰宿列張。」

小參，師云：「『諸行無常，是生滅法，生滅滅已，寂滅為樂。』此四句是我釋迦老人涅槃時所說，文略義周，包括一代時教也。既謂諸行無常，以何為常？莫是生滅滅已是常耶？寂滅為樂是常耶？若以生滅滅已為常，又同有作有為之諸行，則是頭上安頭也。若以寂滅為樂是常，又同無作無為之定性，則是斬頭覓活也。殊不知即寂滅而不妨熾然生滅、即生滅而不妨靈然寂滅，然寂滅者，一剎那間無生相可得、一剎那間無滅相可得，故曰寂滅。就中轉凡成聖，異世同風無逾於此。所謂三世諸佛之所證，證此也；一切眾生之所迷，迷此也。故寂滅之樂非天上人間之樂可喻。即今祥符本寺圓寂玉菴禪師圓修圓證此箇消息，今夜不妨舉似大眾，貴圖大家知。還知麼？不萌艸解藏香象，無底籃能盛活蛇。」

示眾，云：「山僧連日病倦，不能依時及節為眾打葛藤。今因眾居士乞開示，生死關頭一著子，然而者著子千聖共遊只爭迷悟，迷則為凡、悟則成聖，有何難易而可較哉？昔龐居士捨了百萬家財學出世法，一日對妻云：『難難難，十石油麻樹上攤。』妻云：『易易易，跳下床來腳踏地。』女靈照云：『也不難，也不易，明明百艸頭，明明祖師意。』諸兄弟！汝看此三人出手眼處如鼎三足，缺一不可。渠謂明明百艸頭，非推之使易也；明明祖師意，非推之使難也，無非只在就裏一著上悟徹。

「又如我達磨初祖觀得此土有大乘根器，特特航海而來，遇見梁武帝，帝素所好佛教，嘗對四眾講演，獨談第一義諦以為極則，所以問達磨大師云：『如何是聖諦第一義？』磨云：『廓然無聖。』帝曰：『對朕者誰？』磨云：『不識。』帝不契，吾祖自此折蘆渡江，面壁少室。後慧可大師立雪斷臂，問及安心之旨，謂之教外別傳，直指人心，見性成佛。據可大師問：『某甲心未寧，乞師安心。』祖曰：『將心來與汝安。』大師道：『覓心了不可得。』祖云：『與汝安心竟。』何曾直指箇心來？六祖謂道箇直早已曲了，蓋證人人本具、各各不無者著子耳，非有箇別關頭、別岐路使人分心取捨、分心欣厭。就是佛祖樹此多門，到家是一，念佛念此心也、持咒護此心也、參禪悟此心也、看教辯此心也。此心無始已來習氣薰染，障蔽本明，不得受用，故勞佛祖示一機、一境、一言、一句，要人當下冰釋生死關頭，不入輪迴六道受胎微形，只得與爾

我做箇通事舍人，非是渠有不了之局。」以如意舉起，召大眾云：「只此一物喚作甚麼？喚作如意則觸、不喚作如意則背，不可有語、不可無語，畢竟喚作甚麼？倘眾中有會得者，與山僧通箇消息；如未曾得……」以如意擲地，云：「依舊。」

示眾，云：「打底不是坐，參底不是禪，快活日子不過，遂日思想成顛。所謂離心意識參、絕凡聖路學。爾輩所參不能徹悟者，為是冬瓜禪一味儻侗也。進堂來將近一月，不肯自叩己躬下事，只管東聽西聽、胡思亂想，法法頭頭沒處著落，遂爾和身放下，又成黃秧木，禪死墩墩地也。山僧不忍坐視，舉則古人機緣與諸兄弟作箇啞謎猜猜。昔鼓山赴閩王請雪峰上堂，云：『好一矢聖箭，射入九重城裏去也。』時太原孚上座云：『待某甲勘驗過始得。』趕至中途，問：『師兄往那裏去？』山云：『九重城裏去。』孚云：『忽遇四兵圍繞時如何？』山云：『他家自有通霄路。』孚云：『恁麼則離宮失殿去也？』山云：『何處不稱尊？』孚拂袖而歸，舉似雪峰云：『好矢聖箭，中途折卻了也。』峰云：『他有後語在。』孚云：『老凍儂猶有鄉情在。』」師召大眾云：「且道那裏是鼓山折箭處？試猜猜看，猜得著，到方丈裏通箇消息。」

示眾，云：「凡初做工夫切不可忙舉話頭，念來念去念得疲勞厭倦，便打退鼓，謂是禪道佛法沒靈驗。所以古人道：『休去，歇去，寒灰枯木去，古廟香爐去，一條白練去，然後發大疑情。』此疑情者，或是經教有所未明、公案有所未透，即此不明不透處便是本參話頭，頓在面前微著眼觀，忽地裏覷破素所礙、所疑者，則不倒斷而自倒斷也，曷足著著問人哉？然而雖是為初機說，其久經鍛煉者未必不繇此也。還會麼？不因樵子徑，爭到葛洪家？」

示眾，云：「風也大，雨也大，嚴寒施主請說法，不說如何併若何，人人薦取腳跟下。大眾且道：腳跟下作麼生薦取？平地喫交，石頭路滑。」

破山禪師全錄卷五

(嗣法門人 蜀東渝州華嚴德玉 蜀北州報恩印國 渠州白衣禪院通葦 大林禪院慶曆 蓬溪蓮蓬山八闡禪院海奎同刻破山和尚語錄第五卷 堆藍弘禮禪人對 秀水謝穎仙書 嘉興倪天章刊)

(康熙庚申孟春月吉，嘉禾楞嚴寺般若坊藏板)

小參二

小參，僧問：「弟子初入堂，乞師開示。」師云：「那裏是你初入處？」僧無語，師云：「父母未生已前、一念未舉已前，是你初處。若是會得元初本體，其來成佛舊矣。」

問：「十二時中那裏是學人安身立命處？」師云：「前山後山。」僧頓足云：「在者裏。」師震威喝一喝，僧亦喝，師云：「你也喝，我也喝，還是那箇底是？」僧無語，師乃云：「問荅繇興乃扣機語也，所謂問在荅處、荅在問處，賓則始終賓、主則始終主，有時賓主互換，當面熱瞞。所以石頭遷禪師云：『明中有暗，勿以暗相睹；暗中有明，勿以明相遇。明暗不相差，祇如前後步。』據此以之為問荅、以之為抑揚、以之為縱奪、以之為機鋒，機不活則見理未圓，鋒不利則神悟未徹，水乳相投、箭鋒相拄非偶然事也。」

「昔日南嶽讓禪師初參六祖，祖問：『在甚處來？』曰：『嵩山來。』祖云：『甚麼物？恁麼來？』讓不契，仍歸嵩山八年，一日有箇會處，復來叩六祖，祖云：『甚麼物？恁麼來？』曰：『說似一物即不中。』祖云：『還有修證也無？』曰：『修證即不無，染污即不得。』祖云：『汝既如是，吾亦如是，善自護持。』然此事定不是今日一箇問頭、明日一箇問頭、再一日一箇問頭，徒弄口唇以資談柄，必是工夫做到那極則處，轉不得身、吐不得氣，出一言、發一問，討箇分曉，始適其志。」

「又有一等抱守靜工，未得活潑，將謂千了百當以為自得。卻問雪峰：『古澗寒泉時如何？』峰云：『澄日不見底。』曰：『飲者如何？』峰云：『不從口入。』此僧不悟，更參趙州。州問：『在甚處來？』曰：『雪峰來。』州云：『雪峰有何言句？』僧理前話，州云：『既不從口入，難道從鼻孔裏入？』此僧一釣便上，遂問：

『古澗寒泉時如何？』州云：『苦。』曰：『飲者如何？』州云：『死。』僧後歸雪峰，舉此話，峰焚香，禮趙州為古佛，自此三年不荅話。」師云：「此則公案評量者極多，錯會者不少，都去勝負得失上較人長短，不惟埋沒先聖，抑且辜負己靈。殊不知南院曾禮雪峰為古佛，而雪峰今禮趙州為古佛，亦是貧兒思舊債，就中淆訛，只為雪峰三年不荅話處令人難得著眼。山僧簡點二老初荅話處，一箇是順水推舟、一箇是逆風把舵，其相維持，不外於是。眾

中有具慚愧者，向雪峰三年不答話處著得隻眼，日食斗金非分外；其或未然，時餐粒米也難消。」

示眾，云：「一向倚牆靠壁、承虛接響以當了事，古人不應有言『如無手人行拳，無舌人解語』也。所謂絕後再甦，方始欺君不得，豈非為心意識穿鑿卜度耶？損法財、滅功德，最惡無過心意識。既謂無手人行拳、無舌人解語，且道無手人作麼生行得拳？無舌人作麼生解得語？以是言之，大端教人大死一回，自薦自家境界，非借別人鼻孔出氣。如是，則知教外別傳一派好消息盡從者裏流出，寧假牆壁影響邊熱瞞我也。」

示眾，云：「十五日已前為人，佛所護念；十五日已後為人，魔所攝持。正當十五日，是佛底是？魔底是？試道看。如無，莫將閒學解，埋沒祖師心。」

示眾，云：「參禪無秘訣，只要生死切，生死苟切頭，頭自是平帖。如聞報賊來相似，各各胸次中忽起驚疑怖懼，使之逃、動之竄，畢竟到那千里萬里無殃之地，不自平帖而自平帖矣。是以參禪之法與此不別，急於生死關頭討箇活路，自然出言吐氣定國安邦。」

示眾，云：「三世諸佛說不到處，月似彎弓，少雨多風；歷代祖師行不到處，五里一箇亭，十里一箇舖。明上座者裏總不恁麼，中和峰頂雲漫漫，萬松關下水潺潺。」

示眾，云：「若到親切處，莫將問來問。既莫將問來問，安知親切處？明上座又且不然，若到親切處，須將問來問。何故？從苗辨地，因語識人。」

示眾，云：「結制、解制，固是千古常規，只以百日千日便盡終始也。惟此學道一事，非同一說便休，但初念有所未契處，痛與生死二字切之又切，便是結制。只待將素所疑所礙物豁然冰釋，到那不疑之地，便是解制之日也。豈以長期短限而遂終始耶？然而天下叢林喧喧浩浩，以禮義者習禮義、以道德者習道德、以冤恨者習冤恨，肆口雜談，驅賢養愚，莫之返耳。還委悉結解之意麼？啼得血流無用處，不如緘口過殘春。」

示眾，云：「夜夜抱佛眠，朝朝還共起，大家坐喫茶，幾箇打溼嘴？」復左右顧視，云：「有麼？有麼？」時西堂將茶驀面與師一潑，師走起問訊，云：「大眾謝茶。」便歸方丈。

示眾，云：「淨頭今夜設茶，大似井底推車。會得，如麻似粟；不會，似粟如麻。未審眾中有會得者麼？」時有僧不出眾喝一喝，師云：「再喝一喝看。」僧無語，師卓杖云：「莫道明上座向人天眾前撒土撒沙。」

示眾，云：「居士設茶不是好心，山僧生日不是好生，帶累諸人頭破腦裂，不是少喜便是多嗔。試問眾中還有不喜不嗔者麼？」時象崖西堂取果子，對師一擲，師搖頭，崖仍取果又擲，云：「猶嫌少麼？」師云：「知音不必頻頻舉，達者須教暗裏驚。」

示眾，云：「小盡二十九，大盡有三十，內外諸禪和，齊來討巴鼻，一條短杖藜，打得血滴滴。」

示眾，云：「雲門餅，趙州茶，一番施設一番嘉。有人就裏能如是喫著，通身是爪牙。未審眾中還有恁麼人麼？試出來吞吐看。如無，待山僧自吞吐去也。」舉茶杯，云：「會麼？一杯兩杯不濟渴，七箇八箇卻知飽。」

示眾，云：「施主設茶請法，山僧微笑不答，各人肚裏明白，何用之乎者也？所以道：是法不可示，言詞相寂滅，無言為至言，無說乃真說。雖然不說，不妨熾然而說塵、說刹、說熾然、說無間歇，天地從此位，萬物從此育。會得，途中受用；不會，世諦流布。」顧視左右，云：「若向此中會得，管教生死心息。」

示眾，云：「喫茶說茶話，今古無此例，為道本平常，逢人直教徹。幾能打溼嘴？幾能叫渴煞？都盧到者裏，驀面痛與擣。何以故？破山門下，有賞有罰。」

示眾，云：「初一十五，常住設茶，謂之考功茶。考，謂考其虛偽而得其實落之功也。」時有僧問：「父母未生前本來面目即不問，如何是某甲安身立命處？」師叱云：「何問之顛倒耶？問亦有宗，答亦攸同。古有僧做工夫到純清絕點處，問先德曰：『皓月當空時如何？』先德云：『猶是階下漢。』曰：『請師接上階。』先德云：『月落後來相見，即此為後人榜樣。』而人不達此意，以明白如皓月是究竟處，殊不知猶是階下漢者，正是點罰未濟處。所謂月落後來相見者，以黑月為極則，然而黑白亦是對待邊事，非究竟謂也。即先德有云：『明中有暗，勿以暗相睹；暗中有明，勿以明相遇；明暗不相差，祇如前後步。』此真得就中消息也。爾輩在此一月來也亦如是口吻，不獨上辜先聖、自負己靈，且日用所需出自艱苦，當深思之。」

示眾，云：「咬定牙關捏定拳，非思量處自瀟然，諸人箇裏合如是，誰懼閻羅算飯錢？大眾還有恁麼人麼？」良久，復云：「箇箇腳跟點地，驢前馬後；人人鼻孔遼天，馬後驢前。堂中坐底心冷，門外立底腿酸，參。」

示眾，云：「初做工夫，於行住坐臥四威儀內遇境生疑，逢緣理會處稍知分曉則不必疑，此是先德入門最要緊處。若久做工夫者，似是而非，終是恍惚，惟理障難除，當機有依倚，臨事覺沾滯，總未大徹大悟之過也。然而徹悟處非在方冊子上印證來的、諸方知識口

角頭許可來的，所謂把手牽人行不得，為人自肯乃方親。蓋學道一事如登萬仞之山，且萬仞山猶有形段、猶有程限，必期可到；然而此道無形段，非期月程限而可必者。故古聖云：『佛道長遠，久受勤苦乃可得成。』須立遠大之志，將我日用尋常穿衣喫飯、迎賓待客、屙屎放尿，看是阿誰主張？貼體理會去。老僧前所謂遇境生疑、逢緣理會者是也。靈雲見桃華、香嚴擊竹，人非不見聞，因何不悟？此今人、古人非根器別，在人用工夫切不切耳。若切，剎那頃尚是鈍漢；不切，縱經塵劫猶未夢著在。僧問趙州：『萬法歸一，一歸何處？』趙州荅云：『我在青州來做領布衫，重七斤。』眾兄弟看他問處、荅處是何道理？此是漫天說價，不妨就地還錢，須是當家種草始解翻騰者也。若是裁長補短、較重論輕，雖是新奇亦成滯貨。老僧如是告報，未審諸人還委悉麼？莫教錯過眼前事，無限春光不再來。」

示眾，師入禪堂坐次，維那云：「有問話者出眾問話。」師驀拈鐘槌，舉起云：「者箇棒棒見血。」良久，眾無出，師云：「打退不如嚇退好。」

復舉：「秘魔禪師終日擎一鐵叉，凡有衲子來參便一叉叉住，云：『道得也叉下死，道不得也叉下死，速道速道。』如此數年，罕有契其機者。後一衲子先去將叉藏過，詣前作禮，秘拈叉不見，其僧呵呵云：『原來見解只如此。』據我儂判斷，秘魔原只在叉上作活計，者箇衲僧也善班門弄斧。今日我儂手中鐘槌亦是借底，倘有討去時，豈不是獼猴入布袋？雖然如是。」驀豎拳，云：「還有者箇不從人借。若論者箇，人人本有，各各不無，只緣一向被生言熟語縛定，不得自繇，甚是恍惚。欲做做他不上、欲放放他不下，遇喜被喜縛、遇怒被怒縛、遇哀被哀縛、遇樂被樂縛、遇聖被聖縛、遇凡被凡縛、遇生死被生死縛、遇涅槃被涅槃縛，總之聖解凡情一向認為實法。殊不知聖解凡情本一靈妙，活鱗鱗地不見有生、有死，有凡、有聖；死逼逼地亦不見有生、有死，有凡、有聖。者點靈妙所在，向汝諸人說來總是無用，須是各人二六時中自去看破始得。所謂從緣悟入，永不退失。我儂此說亦是隨宜方便。何謂也？有一向用心苦苦切切無計奈何者，忽間便覺安穩。如人負擔上山，到了十里、二十里，亦復不知還有多少里數到家，忽遇一人向伊道：

『好了，好了，祇有一里半里便是家了。』其人雖未到家，便覺胸頭肩上輕了一輕。

「我在學地時甚是快活、甚是自在，不料做了今世後世人之師範亦如做學者時愈難。願眾兄弟各各發大心、奮大志，盡此一期將胸中者點恍惚處冰消瓦解，遍界光揚祖道，得不慶快平生者哉？」

「是則雖是，還有一種疑處，一發向汝諸人說破。自古聖人悟道者甚多，出世利生者間有幾人而已？定不是必要開堂說法方為了事。豈不聞古人道：『群華若有霑春日，根在深巖也著開。』然開堂說法，一要福緣偶湊，夙生願力不期然而然者，永無他患。我儂雖在者裏，無奈一眾所推亦是牽強，所以是是非非、煩煩惱惱，幾欲尋把茅蓋頭以作逸老完事。蓋緣金粟老人之囑猶然未了，只得在此鼓兩片皮，遭人簡點，欲棄眾則棄諸佛也。雖然一番絡索，也是棒打石人頭，曝曝論實事。珍重，珍重。」

示眾，師入禪堂，僧問：「子啐母啄時如何？」師云：「哩羅哩羅。」僧禮拜，師乃云：「打起精神莫放寬，一錐錐定只教穿，若無疋馬單刀力，一月工夫又枉然。」問：「如何是疋馬單刀句？」師驀面一掌，便歸方丈。

示眾，云：「老僧欲睡，侍者舉今日為大眾入室因緣，老僧復為大眾頌出：兩堂雲水求入室，一碗殘茶當面擲，逐塊韓盧腳底忙，尿床鬼子胸頭急。對賓不涉有無機，覲面相呈殺活句，非但山僧獨恁麼，大都佛祖亦如是。」

示眾，云：「者箇事相從者百，不如信向者一二；信向者百，不如徹證者一二；徹證者百，不如當此惡世行道者一二。然而行道者雖得一二，及乎究竟諦當處尚未及古人履歷。近代且無上古叢林、上古師法、上古機會，吾儕入蜀經今十載，雖叢林禮法不如上古，風俗漸移，稍通一線與人信、與人行，但久近之間不恒篤信此道，大約自辜本心，立志不善，往往詐明頭我是參禪者、我是學道者，把句古人語蘊在胸中，謂是**本**參話頭，及至登門歷戶，有語無語盡逐落華流水，拋擲腦後。故終身而無成者，其病在心志之不善，非禪道之不靈也。若是一定有話頭與人參、有實法與人會，則達磨初祖不知擔幾許話頭來，迄今也是有盡。山僧每對學人言遇境生疑、逢緣理會，甚是捷當、甚是至要，胡不聞酒樓和尚聞客人唱曲，云：

『你若無心我便休。』忽然大悟？遠公社十八高賢內有一高賢棄妻出家，夜夢與原妻行不淨行，自揣彼又不曾來、我又不曾去，因何而有此事？致疑，不待天明忽然大悟。此從上先德如此悟證，難道定是參話頭、做工夫得耶？凡是遇境逢緣處即是觸發，忽一觸發便是大疑，有大疑必有大悟。疑乃悟之因也，不疑則不悟。既是眾中信根稍具，即此不可蹉過。珍重。」

小參，若也禪人請師示真實義，師驀豎拂子，云：「若論真實義，向此會去。即我釋迦老子初出母胎時，一手指天，一手指地，周行七步，目顧四方，『天上天下，唯吾獨尊。』乃至成道後說法四十九年，露布一代時教亦此註腳。所以道：『唯我一人而能救護，我為法王，於法自在，如我所得法，微妙最第一。』然而者一『我』

字的體露頭露面了也，切莫推在聖賢分上，即人人動止施為非我而誰？」復揮拂一下，云：「珍重，珍重。」

小參，僧問：「大道只在目前，要且目前難睹。既在目前，為甚麼難睹？」師舉起念珠，云：「是甚麼？」進云：「念珠。」師云：「未夢見在。」進云：「和尚作麼生？」師云：「你眼瞎。」僧禮拜，師乃云：「者件事如金屎法相似，不會如金，會者如屎。所以當時有一僧問古德：『如何是佛？』德云：『我欲向汝道，只恐汝不信。』僧云：『和尚誠言，安敢不信？』德云：『即汝便是。』其僧悟去。如高峰大師在學地時，盡平生伎倆一一搬弄話頭換了多少，初淨寺掩關、立死限學禪、排昏擯散無不經驗過來，只是胸中沒箇灑落處。後因夢寐之際忽然舉起『萬法歸一，一歸何處？』似有疑情結搆，偶於壁間見五祖演真贊曰：『百年三萬六千朝，反覆元來是者漢。』便有少分相應，就去與人機鋒轉語，卻被雪巖欽問著：『汝日間浩浩裏作得主麼？』曰：『作得主。』『夢寐中作得主麼？』曰：『作得主。』『正睡著無夢時，主在甚麼處？』峰無對，欽曰：『我也不要你參禪、不要你學道，但只饑來喫飯、困來打眠，畢竟要曉得者著子方休。』峰自此仍是五年，一日推枕头墮地，豁然大悟，方曉前非。而今兄弟家豈不如古人耶？斯時也有利者、也有鈍者，適纔者一隊即當漢齊來問話，一箇豎拳、一箇彈指，似古人乎？不似古人乎？似則也是、是則未似，一箇是冬瓜直儼侗、一箇似瓠子曲彎彎，雖道目前無法，意在目前，只如我與眾同處一堂，同一眼見、同一耳聞、同一寂靜，只是各人肚裏明白。所謂如人飲水，冷暖自知，就是三世諸佛、歷代祖師、天下老和尚遞相出興千方百計，無非只要各人曉得。如《法華經》云：『若人曉了此，諸佛世之師。』」

追嚴小參，師云：「『百千三昧、無量妙義，盡向一毫頭識得根源』，此是從上先德開門見山之語也，山僧今日舉似，鄒方晉奉薦先嚴鈞衡老居士還識也未？若也識得，回觀三際浩然大均，變西方而為東土、易東土以作西方，鼻孔摩觸家風，觸體橫干宇宙，三世諸佛得之如水投水，歷代祖師悟處似空合空。所以先聖道：『在眼曰見，在耳曰聞。』」驀豎拂，云：「見麼？」喝一喝，云：「聞麼？若於見聞處薦，認賊為子；不於見聞處薦，將子作賊。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且道如何即得？」復豎拂子，喝一喝，云：「即此見聞非見聞，休將子賊較疏親，耳邊多少閒題目，賺我光陰十萬程。」

示眾，云：「箇箇眼橫鼻直，人人鼻直眼橫，若還取我求實，依舊可憐一生。所以道：百姓日用而不知，良可悲。夫佛祖方便固多，要之不出兩種，則禪、佛是也。信得參禪，及立志參禪；信得念

佛，及立志念佛。雖頓漸不同，出生死心一也。苟生死心破，何容眼上更添眉、矢上更加尖矣？時寒勿勞久立，珍重。」

小參，僧問：「如何是悟中迷？」師云：「錢串井繩。」進云：

「如何是迷中悟？」師云：「筇籬木杓。」僧禮拜，師乃云：「錢串井繩、筇籬木杓，迷悟兩關，聖凡一著。」驀呈拄杖，云：「莫是者一著麼？不遇春風華不開，華開又被風吹落。」

示眾，云：「藥山久不陞座，陞座一場懣懣；老僧久不落堂，落堂一場敗闕。且道敗闕的是？懣懣的是？若向此處會得，大家敗闕、大家懣懣；其或未然，老僧為汝諸人下箇註腳去也。」以拂子打圓相，云：「是法不可示，言詞相寂滅。」

對靈小參，師云：「宋門陳氏薦夫主，強欲山僧打口鼓。見者、聞者罪性空，西方、東土何須數。數不數？甜者甜兮苦者苦。宋居士還會否？不因誤殺李將軍，誰解藍田射石虎？」

示眾，云：「學道勿論久近，參方不參方、見人不見人，只要識法者懼，不在快口嗔資談柄鬥百艸機多一句為勝也。上古雖有施設，應病與藥也，近日執藥而成病也，總不是本分家作用。若是箇漢徹法源底，在言句，言句中痛快；在棒喝，棒喝中痛快。本一活物，何拘彼此？為我濟北老古錐，見人在言句中不根其旨，獨以棒喝接機，無容湊泊，如擊石火、似閃電光，當下要人瞥地。」說及此，大休法師至，師起身云：「道也好箇消息。何也？葛藤有話無人說，付與隔林幽鳥啼。」

除夕示眾，師云：「年盡月盡日盡時盡，滿盤果子喫盡，禪和肚內屎腸子都抖盡，只有明上座一句『茶令未盡』試舉與大眾，切不可道著除歲，道著者喫茶。春宵一刻值千金，寸金難買寸光陰，暫時不在如同死人。」各人照顧話頭時，一眾不契，西堂含璞出眾，向前展兩手，云：「既一切都盡，更要某甲道箇甚麼？」師云：「卻被闍黎勘破。」

示眾，師云：「斬新條，行新令，萬峰佛法無少賸，拈來放去絕遮攔，向背卷舒無底蘊，引得天下衲僧來乞命。今夜是明上座拄杖子一捺捺定大眾，還有爬得起來的麼？試出來，轉身吐氣看。」

示眾，師云：「今夜永覺上座設茶，欲病僧茶話也，是將蝦釣蟹，益人人己躬下一段大事。是我先佛說起與我輩做箇通事舍人一般，亦是大家瞌睡相似，畢竟有箇先醒者。然先醒者非獨自醒，逐箇教之令醒。所以經云：『舍利弗當知，我本立誓願，欲令一切眾如我等無異。』極容易事而翻為難事，又不得不從難處做去。若是有形段事則可易做，唯此事大而無外、細而無內，沒撈摸、沒巴鼻，欲下手則無處下手、欲用心則無處用心，到此惟證乃知。不爾，疑

生、疑死、疑佛、疑祖，者些恍惚處，實為命根不斷。還委悉麼？不愁劍戟如星下，唯恐藕絲絆殺人。」

示眾，師云：「自當年一華五葉，二株嫩桂昌昌已來，竟無餘華鬥麗，今夜明上座不忍杜口去也，亦說兩句聊為點景。且道是那兩句響？荷盡了無擎雨蓋，菊殘猶有傲霜枝。」

壽山上座為薦師弟請小參，師云：「默然，默然。今日周年，爾我口業，改綻金蓮，銜冤一世，抱恨九泉，我為汝正、汝為我圓，彼此相雪，孰聖？孰賢？」舉拂子，云：「今日向山僧拂子頭上薦取，人人腳跟點地，箇箇鼻孔遼天，只為聞香逐臭，沒卻半邊。大眾且道：那半邊在甚麼處？」以拂子打圓相云：「還委悉麼？猿抱子歸青嶂裏，鳥銜華落碧巖前。」

為允愚馮詮曹對靈小參，師云：「癸酉年萬峰山頭別去，乙巳年金城寨上歸來，風塵不覺幾經灰，夢眼從茲大打開。仰勞大眾念《彌陀經》一卷，以資冥福。」

拙之禪人歸山，請小參，師云：「出蜀江南經五秋，忘身為法便回頭，而今幸落老僧手，點破癡心得自由。天鏡、拙之二禪人自辛丑年去，乙巳年歸，存亡固別，道念本同，此真良朋善友也。」

復舉：「法眼與修山主結伴參方，行腳途中值雨，投地藏宿。時地藏問曰：『眾禪客從何方來？』法眼曰：『南方來。』曰：『南方近日佛法如何？』曰：『商量浩浩地。』曰：『何如我者裏種田博飯喫？』曰：『爭奈三界何？』曰：『喚甚麼作三界？』法眼無語。次早辭行，藏曰：『明教有云：「三界唯心，萬法唯識。」』

乃指庭前一片石，云：『且道者片石在汝心內？在汝心外？』法眼曰：『在我心內。』藏曰：『行腳人著甚來由安片石在心中走？』法眼至中途有疑，轉歸地藏住，求決此事。今拙之攜天鏡靈骨歸，請老僧撥轉埋卻，不亦與古人較之天淵也耶？試問：古今雖異，行腳是同。且道如何是同處？仰煩大眾同送涅槃山上與伊據款結案。」遂拽杖行，至山安厝畢，復云：「不致鴉腸狗腹，今乃塞壑填溝，時有松風皓月，常來作伴為儔。」

翠竹山端、常二禪人薦師祖請小參，僧問：「如何是超宗薦祖事？」師豎拂子云：「會麼？」僧云：「枝上生枝。」師云：「眼華作麼？」僧禮拜，師乃云：「青山崔嵬，綠水徘徊，雖有出沒，本無去來。今日智端、智常為師祖普天除禪，強老僧登曲条木，弄鬼眼睛，說常、無常法。」遂喝一喝，召大眾，云：「聞麼？若聞此喝是有，即常義。」良久，云：「大眾還聞麼？喝久聲消，此是無聞，即無常義。所謂諸行無常，是生滅法，生滅滅已，寂滅為樂。若於此薦得，滿盤餚饌、百味珍饈他亦不受，況水月道場、空

華佛事耶？正恁麼時，且道他不受處作麼生委悉？不離當處常湛然，覓則知君不可見。」下座。

慕義侯士心譚護法追慈，請對靈小參，師云：「山水年年在，人煙歲歲更，應知更改處，便是不改人。如是，則譚護法奉薦先慈龔夫人盡未來際不曾生、盡未來際不曾滅，一道常光現前，古今三世不別。試問諸仁者：且道不別處如何委悉？」良久，云：「但觀來去無來去，永證金剛堅密身。」

中秋示眾，云：「時臨冷澹中秋節，四海禪和心未歇，雲集齊來覓指歸，一人一餅一輪月，有時暗中有明，有時明中有暗，且道作麼生吞吐？」

除夕示眾，師云：「雙桂今年除夕，人天濟濟密密，別無禪道可將，箇箇眼橫鼻直。」

師入堂坐次，時維那指一僧詣前作禮乞開示，師驀頭一蹋，云：「為汝諸人開示了也。」便出，歸方丈。

師入堂，僧問「色不異空，空不異色」之旨，師云：「此空即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密多時照見五蘊皆空之空也，色即五蘊之色也。言不異者，即色即空、即空即色，則法法頭頭誠莫二之真空真色也，非同二乘執空偏空之空。凡夫認色、實色之色，此二者有執，認之人存偏實之法，的非豁然時深達五蘊本來自空之空為則也。所謂空中無色，無受、想、行、識，無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觸、法，則無十八界能執認之人也。無無明亦無無明盡，乃至無老死亦無老死盡，無苦、集、滅、道，則無四諦十二因緣所偏實之法也。無智亦無得，則無修證階級之位次也。以無所得故，總釋豁然時當體全空處，非但菩薩唯然，即三世諸佛亦同此也。還委悉色空之旨麼？」眾禮拜，師復云：「有智主人，二俱不取。」

覃總府牟夫人請開示，師云：「者箇事人人本具，不可以男女相拘、聖凡見隔，淨裸裸、赤灑灑，無可把，渾無一物當情。如過獨木橋相似，一直向前，不可左顧右盼。若作一念，萬念遂生，不惟到彼岸不得，要且初舉步尚生無限怯弱也。然而佛祖種種法門不出頓、漸兩途，亦是當機信、不信故。若是信得及、把得住，漸亦頓也，即日用茶裏、飯裏事物當情處一看看破是箇甚麼道理，一不作道理解、一不作玄妙會，如人飲水，冷暖自知。工夫如此做去，久久自覺從前得力、不得力，別有一段光景，向人吐露不得。當此之際，正是名字不足以載、言論不足以辯，惟證者方知也。」

破山禪師語錄卷第六

（嗣法門人蜀東渝州印萬 鐵鳳山印純同刻破山和尚語錄第六卷 堆藍弘禮禪人對 秀水謝文英書 嘉興倪天章刊）

(康熙庚申歲孟春月，嘉郡楞嚴般若坊藏板)

問答機緣

僧問：「佛未出世、祖未西來，未審者箇在甚麼處？」師拈拄杖歸方丈。

僧問：「承聞和尚有言：『佛耶？祖耶？據此證此。』且道據箇甚麼？證箇甚麼？」師驀拈拄杖，打云：「會麼？」僧佇思，師連棒打出。

僧問：「不可無心得、不可有心求，不可言語造、不可寂默通，正恁麼時如何？」師云：「你在那裏得者消息來？」僧擬測，師噓一聲。僧禮拜，師驀頭一踢。

僧問：「三世諸佛不知有狸奴，白牯卻知有，未審有何差別？」師云：「飯袋子，你知箇甚麼？」進云：「不知。」師云：「不知，位同諸佛。」

僧問：「有無即不問，如何是狗子佛性？」師劈面一掌，云：「是甚麼？」進云：「學人不會。」師云：「一掌一握血。」

僧問：「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畢竟喚作甚麼？」師驀口一拳，云：「還作觸、背得麼？」

僧問：「臨濟叱三聖瞎驢是甚麼意？」師便掌，僧亦掌，師云：「我掌自有意，你掌是甚麼意？」僧復掌，師連掌打出門外，云：「與你相打耶？」僧禮拜，師驀頭一踢。僧起，擬開口，師咄云：「何方瞎驢來者裏討艸料喫？」

僧問：「作家相見事如何？」師連咳嗽兩聲。進云：「猶未在。」師打云：「大好作家相見。」

僧問：「萬峰堂內有僧否？」師拈杖，云：「向前來與汝道。」進云：「執杖者誰？」師驀頭打一棒，僧無語，師連棒打出。

僧問：「魯論云：『不患人之不己知，患不知人也。』如何是患不知人處？」師云：「你知我是凡？是聖？」僧無語，師云：「患不知人也。」

僧問：「『登山涉水，不涉程途』一句作麼生道？」師云：「腳跟下好與三十棒。」進云：「學人有甚麼過？」師云：「者是甚麼所在，說有過、無過？」僧喝一喝，師云：「猶嫌少在。」

僧問：「靈樹封盒子意如何？」師云：「且道裏許是甚麼？」進云：「不封盒子意如何？」師云：「任從滄海變，終不與君通。」

僧問：「門裏出身易，門外轉身難。難易即不問，如何是轉身句？」師云：「六月炎天冰似火。」進云：「不會。」師云：「冷熱也不知。」進云：「知箇甚麼？」師驀頭打一棒。

僧問：「和尚未生時如何？」師云：「冰糖出在福建。」進云：「已生後如何？」師云：「地頭貨也不識。」

僧問：「世尊為一切眾生開方便門、設一代時教，如何向和尚者裏半字用不著？」師云：「你說底是甚麼？」

僧問：「還丹一粒，點鐵成金；至理一言，轉凡成聖。至理不言，可成聖否？」師云：「你喚甚麼作至理？」僧轉身繞一匝，師云：「掠虛漢。」

僧問：「此事如一箇鐵丸子，吞也吞不下、吐也吐不出，吞吐不得，又作麼生？」師打一棒，云：「者是吞？是吐？」僧無語，師又打一棒。

僧問：「四大之中如何作主？」師作聽不清勢，僧復舉前問，師驀而一掌，云：「你欠靈利。」

僧問：「迷者迷、醒者醒，如何是獨脫一句？」師云：「八角磨盤空裏走。」進云：「不會。」師云：「不會則參。」進云：「參箇甚麼？」師云：「八角磨盤空裏走。」

僧問：「學人終日喫飯不曾咬著一粒米時如何？」師云：「一箇斑鳩九隻鳥。」

僧問：「有苦有樂，途路中事；無苦無樂，亦是途路中事。如何是到家消息？」師驀口一拳。僧禮拜，師與一踢。僧歸位，師云：「適纔苦樂到那裏去了？」僧便喝，師休去。

僧問：「如何是鼓山折箭處？」師便打一棒，僧禮拜，師云：「見箇甚麼道理？」進云：「不會。」師云：「棒頭有眼明如日。」

僧問：「盡大地是法身，和尚在何處安身立命？」師云：「金剛與泥神揩背。」僧禮拜，師云：「見箇甚麼？」僧鳴指一下，師噓一聲。

僧問：「和尚起期，還是為人？為己？」師云：「一箇瓜子兩瓣殼。」進云：「沒滋味。」師噓一聲。

僧問：「達磨西來，為甚麼又隻履西去？」師云：「長安雖樂，不是久居。」

僧問：「一雨普潤，未審還有潤不到處麼？」師云：「有。」進云：「如何是潤不到處？」師云：「就是你者箇焦芽敗種。」

僧問：「盡大地是沙門一隻眼。」師云：「看腳下。」進云：「意旨如何？」師云：「瞎。」

僧問：「黑白未分時如何？」師云：「汝禮拜的是甚麼？」僧又別問，師叱云：「兩重公案。」僧又問：「進前逢短岸，退後值深

坑，如何是轉身處？」師拈拄杖向腳跟直打出。

僧問：「十年瞻仰，日應萬機，是何人境界？」師云：「非公境界。」進云：「一口吸盡西海浪，翻身高出蜀峰頭。」師驀頭一棒，進云：「謝師證盟。」師復打，僧喝一喝便出，師休去。

鄮林耆宿號碧海問：「佛佛出世為一大事因緣，如何是某甲一大事？」師曰：「請坐。」碧惟立不坐，師曰：「且小事尚不堪，說甚麼大事？」碧罔措，師曰：「好與三十棒。」碧便禮拜，師曰：「是會禮拜？不會禮拜？」碧復禮拜，云：「謝師證盟。」師笑曰：「證盟箇甚麼？」碧擬開口，師曰：「你不會我意，要摘葉尋枝我不能也，你且將『唯佛與佛乃能知之』看他知箇甚麼。」

僧問：「若能轉物，即同如來。學人轉物，同箇甚麼？」師驀頭打一棒，僧喝，師連打兩棒。

僧問：「如何是空劫已前消息？」師云：「描不成，畫不就。」僧禮拜，云：「謝師指示。」師云：「指示箇甚麼？」僧撫掌一下，師震威喝一喝。僧擬議，師直棒打出。

居士問：「道本無言，因言顯道。且道言底是？默底是？」師驀頭打一棒，云：「是言？是默？」士無語，師連打兩棒。士出，少頃復向師前立，師云：「且將你家茶飯問你，百姓日用而不知，不知箇甚麼？」士擬開口，師復打一棒。

居士問：「父母未生前根塵不染時如何？」師云：「既是父母未生前，還有甚麼根塵對待？」士云：「到此則千聖也不識。」師云：「既不識，何以名聖？」士禮拜云：「謝指示。」師云：「假雞聲韻難謾我，未可模糊放過關。」

萬居士問：「弟子姓萬，未審父母未生前姓甚麼？」師云：「我向者裏道不出。」士禮拜，師云：「汝且道：我荅你也未？」士云：「不會。」師云：「不會還姓萬？」

居士問：「不是心、不是佛、不是物，畢竟是箇甚麼？」師云：「百華叢裏過，片葉不沾身。」士擬測，師驀面打一掌。士云：「痛。」師復打兩掌，士云：「痛痛。」師云：「稍知痛癢。」士禮拜，師驀頭一踢。

居士問：「和尚是活佛，如何拜死佛？」師拈拄杖，云：「且道者箇是死？是活？」士佇思，師云：「擬議思量，白雲萬里。」

朱婆子問：「弟子念佛的是誰？乞師指箇落處。」師云：「你者一問從甚麼處來？」進云：「朝夕不離。」師云：「不離箇甚麼？」婆轉身繞一匝，云：「不離者箇。」師云：「也是赤土塗牛奶。」

伯玄徐居士問：「如何是佛祖向上事？」師云：「腳跟下薦取。」進云：「此是向下，如何是向上事？」師云：「不顧腳跟三尺水，只貪縱步上高岑。」士大悅。

朱婆子問：「弟子現是女身，未知父母未生前是男？是女？」師卓拄杖，云：「還識者箇麼？」進云：「無去無來。」師云：「是甚麼所在，說來、說去，說男、說女？」進云：「即今如何抵敵？」師云：「好與三十棒。」

徐居士問：「聞金粟老和尚耑人送法衣與老師是否？」師云：「是。」進云：「老師可付與弟子得麼？」師云：「得即得，只是要會衣線下事，汝可會麼？」士云：「不會。」師云：「不得，不得。」士禮拜，師云：「汝見箇甚麼道理便禮拜？」士罔措，師劈面一唾，歸方丈。

僧問：「承師有言：『獅子哮吼，百獸爪牙蘇。』若是獅子兒聞得，又作麼生？」師云：「同類是同類。」僧禮拜，師云：「切莫逐塊。」僧便出。

吳居士問：「如何方契本來人？」師云：「待烏石峰點頭，即向你道。」進云：「烏石峰點頭也，請師向我道。」師云：「道即不無，你喚甚麼作烏石峰？」

僧問：「如何是臨濟下事？」師震威喝一喝，僧亦喝一喝，師云：「你也喝，我也喝，是甚麼意旨？」僧云：「得人一牛，還人一馬。」師笑云：「你得恁麼饒舌。」翌日，僧上方丈作禮，云：「昨日臨濟大師到法堂上來，是某甲一頓痛棒打出三門外去也。」師云：「你昨日喝的是甚麼？」僧復喝一喝，師云：「你只有者一喝。」僧拂袖而出，師隨後打一棒。

僧問：「千七百則公案即不問，如何是學人底真消息？」師拈起棒，云：「汝道老僧者是那一則？」僧便喝一喝，師亦喝一喝。僧又喝，師打一棒。

僧問：「覲面相呈，請師答話。」師作聽不清勢，僧云：「謝師答話。」師云：「你道我答你是甚麼話？」僧便拜。師指椅云：「坐。」僧云：「放過即不可。」又拜一拜而出，師呵呵一笑。

僧問：「一口吸盡西江水時如何？」師云：「近前來向汝道。」僧佇思，師云：「立地死漢。」進云：「相隨來也。」師云：「甚麼物？恁麼來？」僧無語，師正色訶之，連棒打出。

僧問：「如何是父母未生前消息？」師云：「金剛與泥神揩背。」進云：「如何是已生後消息？」師云：「烏龜撞著石點頭。」進云：「未生已生即且置，一口氣不來，向甚麼處安身立命？」師云：「主山前，案山後。」

僧問：「博山和尚誕日，有僧問：『和尚壽年多少？』山云：『平天華甲子，數到劫雲初。』如何是劫雲初？」師良久云：「會麼？」進云：「不會。」師云：「數不完，記不盡。」

僧參便云：「有一事相借問得否？」師云：「只怕鼠口無象牙。」僧擬測，師驀拈拄杖，僧以頭就之，師云：「我偏不打你。」僧云：「棒頭有眼。」師云：「且道眼在甚麼處？」僧豎起拳，師劈拳打，云：「還有麼？」僧云：「撲破泥團子，透出青山外。」師徵云：「如何是你透底道理？」僧擬議，師驀頭打一棒。僧云：「好。」師連打，云：「是甚麼所在，說好、不好？」直打出。禪石戒子問：「本來清淨時如何？」師云：「如何是你清淨處？」進云：「碧潭明月現。」師云：「拿糞箕筴帚來。」石作禮，師云：「爾輩行住坐臥切不可稍放此箇關頭，畢竟我何處不清淨？若清淨，不應更拿箕帚來參。」

僧參，不作禮便云：「作禮底是？不作禮底是？」師喝云：「者野狐精在那裏中毒來？」僧無語，傍僧云：「在昭覺來。」師云：「且道老僧答你底是？不答你底是？」僧罔測，師痛訶一上，僧禮謝而出。

居士問：「水窮山盡，如何是轉身處？」師云：「布袋裏老鴉。」士禮拜，師云：「會得禮拜？不會禮拜？」士擬測，師云：「去。」

居士問：「三界唯心，萬法唯識，如何是心？如何是識？」師舉數珠，云：「且道者箇是甚麼？」士應諾，師云：「胡答應。」

僧問：「有句無句，如藤倚樹。樹倒藤枯，句歸何處？」師云：「待樹倒時向你道。」僧佇立，師云：「葉森森地何嘗倒？」僧出。次日，僧復問：「樹倒藤枯時如何？」師云：「好一堆柴。」進云：「恁麼則三冬燒不盡？」師云：「始終是一堆笨柴。」僧喝一喝，師云：「冷灰爆豆。」復示偈云：「藤枯樹倒一堆柴，槁木死灰何道哉？幸有絕甦能爆豆，當陽一喝吼如雷。」

勘辯機緣

清谿首座告辭，師云：「鐵蛇橫古路，汝向甚麼處去？」谿拂袖而出，復呈偈云：「鐵蛇橫古路，縮尾藏頭遭屈負；十萬八千程，奔南走北太勞生。嚴正令，截葛藤，猶然錯認定盤星，眉底雙開寒碧眼，無私一互賀昇平。」師云：「且喜不負中他毒氣。」

萬竹禪人告辭，師豎起拳云：「道是拳，放開又是掌；道是掌，捏聚又是拳。且道掌是？拳是？速道，速道。」竹喝一喝，師云：「三喝四喝後又作麼生？」竹無語，師示偈云：「拳頭巴掌活當機，活得當機指日歸，縱奪抑揚關不住，無毛鷄子拍天飛。竹去，志自止。」

僧辭行，師云：「一言相契則住、一言不契則行，且道是那一言？」僧進語：「不恰。」師訶云：「深痛汝輩下語。」云：「某去也，某去也，何故爭之不足，讓之有餘？」師又曰：「心印從來訶瞎驢，深錐痛筍自如如，雖云去也沒交涉，爭不足兮讓有餘。」僧告辭，師云：「鐵蛇橫古路，你向那裏去？」進云：「橫行豎去。」師云：「喪身失命了也。」僧無語，遂不去。

無著上座參，禮拜起云：「久聞和尚道風，拈棒此方打人，只是人都不知痛癢。」師云：「今日卻遇一箇，只是皮下無血。」著云：「三千里外已知痛癢了。」師徵云：「那裏是上座知痛癢處？」著將扇子置桌上，師云：「艸賊大敗。」

座主參，師即客司相見，主復至方丈作禮，師云：「已相見了。」主云：「先是人情，此是佛禮。」師云：「人情、佛禮，是同？是別？」主云：「是同。」師云：「既同，何必多此起倒？」主無語，師云：「平日所習何業？」主云：「只解牧牛。」師云：「牛在甚麼處？」主云：「牛在山中。」師云：「還我牛來。」主喝一喝，師云：「恁麼卻犯苗稼也？」主強辯，師叱云：「一等是箇[仁-二+(強-厶+口)]牛。」

僧忍微參，合掌云：「不遠千里而來，單單只有者箇便拜。」師云：「且道者箇是甚麼？」僧罔測，師震威喝一喝。僧復拜，云：「者箇是甚麼？」師驀頭一踢。傍僧云：「是和尚鄉里。」師云：「早知是老僧鄉里，何不踢他兩踢？不然還道老僧有鄉情在。」僧參禮拜畢，以手自點胸，師云：「是甚麼？」僧拂袖便出，師噓一聲。

僧到室中呈偈，師拈拄杖，云：「將老僧者箇說一偈看。」僧擬議，師便打出。

無漏禪人再參，呈偈云：「越國曾遭一踢來，幾年忍痛口難開，而今覲體酬三拜，笑殺當時滿面哀。」師惟默顧，漏作禮云：「自離和尚，於本分上未嘗懈怠，看百丈扭鼻因緣稍有會處。」師徵云：「還從扭鼻處會？野鴨飛處會？」漏即作鴨聲、痛聲，師頷之，乃示以偈曰：「萬峰冷眼覷離微，黑白分岐誰解歸？珍重鴨兒飛過去，痛聲猶落箭鋒機。」

覺城禪人參，夜來一宿，翌日進方丈作禮，傍僧曰：「昨夜有臭蟲否？」覺云：「睡著了，總不知道。」師曰：「還是臭蟲嘴不利？」覺云：「縱咬亦不打理。」師云：「是睡著了不打理？是醒在不打理？」覺云：「總不打理。」師奉餅於前，覺不暇顧，師云：「果睡著了在。」覺云：「乞和尚覺醒。」師云：「若要我覺醒，亦是節外生枝。」覺遂服膺，敘沿途之艱，師問：「瓦礫荊棘曾向汝說甚麼來？」覺云：「若有說，亦是節外生枝。」師笑云：

「教得孩兒解罵爺。」復示偈云：「癩肉頑皮總不知，任隨蟲嘴利如錐，惟留一處堪分曉，茶餅誘人笑虎谿。」

覺城禪人臨行時呈素所參狗子無佛性話，師云：「還是以有無見趙州？不以有無見趙州？」覺云：「不以有無見趙州。」師云：「作麼生見？」覺云：「乞和尚指示。」師驀口一拳，覺鳴指一下，師云：「還嫌少麼？」覺禮拜，師驀頭一踢，覺佇思，師云：「漆桶不快。」遂歸方丈。

師同二三子坐至午夜，一眾猶不退，師云：「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且道一如何舉？」時覺城上座荅云：「錯。」師云：「錯，錯。天下知音能幾箇？」

僧侍立次，師曰：「唯佛與佛乃能知之，且道知箇甚麼？」僧向桌上三拳，師云：「因甚如此？」僧云：「冤對兩相逢，全身秘不住。」師便掌，僧禮拜，師劈頭一踢。

元霄，師翹足向火，僧耶湘作禮，云：「請和尚觀燈。」師云：「莫眼華。」湘拍開師腳，云：「看腳下。」師云：「者是老僧底，如何是你底？」湘拂袖歸堂，師云：「若得再來更好。」傍僧人堂石湘，湘不至，僧再召，湘復至，師便連棒打。湘佇立，師云：「何不攜柄鋤頭掘去腳下？」湘拂袖而出。

居士問：「雞卜卵二十日，鵝卜卵四十日，此理如何？」師云：「此是殼內語？殼外語？」士云：「我也是聽來底，乞師指示。」師云：「待汝向者類來即與汝道。」士無語，師云：「陸互大夫問南泉：『我家餅內養一隻鵝，鵝長滿餅，欲出鵝，不可損我餅、壞我鵝，如何得出？』泉即呼大夫，大夫應諾，泉云：『鵝出餅矣。』大夫從此開悟。適纔居士所問正類於此，如工夫到此，則知貧道語話也。」

師室中請兩序茶，前席無人敢坐，有客僧水月云：「我不是數內。」便坐。傍有士云：「坐即數內也。」師云：「初生犢兒不怕虎。」僧遂顧外，云：「簷上有塊瓦要落。」師云：「為甚被物轉？」僧云：「是我轉物？是物轉我？」師云：「試分析看。」僧無語，師云：「有先鋒，無殿後。」

師過金陵濟生菴，時有月潭座主問：「如人靜坐不用工，何年及第悟心空？請問和尚：畢竟用甚麼工？」師豎拳，云：「只要悟得者箇。」主云：「者箇各人都有。」師云：「你有，何不伸出？」主云：「伸出則成兩箇。」師云：「那裏是你一箇？」主豎起拳，師云：「卻成兩箇。」主云：「莫眼華。」師云：「是你眼華。」主云：「原無一箇、兩箇。」師云：「一等是箇座主見解。」

善長馮公問：「『近日多執坐』者是甚麼意？」師云：「顏子三月不違仁，且道如何是不違處？」公擬測，師云：「四威儀中以坐為

上，非執死坐為究竟。六祖所謂：不貴你禪定解脫，單單只要你當下見性。然見性之說非執于坐、非執于不坐，不坐則不能深入至理、執坐亦不能通達至道。蓋坐參之法非顏子不善其伎倆，渠謂『仰之彌高，鑽之彌堅，瞻之在前，忽焉在後』者，其用心若是，非以三月定限，而愚同土木也。」士乃點首。

雲集，眾作禮三拜，師云：「神光二祖倒身三拜，初祖云：『得髓。』今朝一眾倒身三拜，且道得箇甚麼？」時數僧齊下一喝，師云：「只是不歸歸便得，五湖煙景有誰爭？」

師患腹瀉，秋水西堂問：「和尚安否？」師云：「日裏三餐粥，夜間一覺眠。」堂云：「如此則大安也。」師云：「汝既如是，何必來問？」堂云：「也須問過始得。」師云：「情知汝者箇見解，何為老僧擔慮？」堂云：「和尚為天下人擔慮。」師云：「莫謗老僧好。」堂佇思，時久，師云：「老僧抖盡屎腸子為汝道，汝不去，又替老僧不得。」堂禮拜，師云：「見神？見鬼？」堂仍佇思，師叱云：「死漢去。」

師不安，維那問云：「和尚尊候如何？」師云：「七七八八。」那便出，傍僧問云：「七七八八還是好耶？不好耶？」師云：「一任你卜度。」

玉川胡居士參，師云：「爾輩只好服平胃散，狼虎藥未敢下口在。」士云：「莫道狼虎藥，鐵饅頭一任拈出。」師舉拳云：「試吞吐看。」士向桌上一掌，師云：「只算半箇居士。」

德宇羅居士參，師一把搗住鬚，云：「速道，速道。」士佇思，師拓開，云：「向者裏薦得無生、無死，無佛、無祖，浩然大均，千聖無可奈何，纖細莫能為則。」士又聞師開示禪者參「誰」字話，復到榻前問：「知痛癢者是誰弟子？問和尚者復誰？未審是誰識誰？乞和尚端的處道一句。」師云：「兩頭三面漢。」士無語，師云：「我教單看『誰』字者，令遇境逢緣勿使間斷故也。如靈雲見桃華而省、香嚴擊竹而悟者，盡是平常用心綿密，向聲色中千了百當，苟有間斷、稍不綿密，則逐色隨聲，渾無決處。所貴者在疑，此疑便是日用喜怒上逼迫不過處、逆順中打攪不開時，卻是好消息也。到此，人都忽略，再望鬼逼、酒樓之類愈不可及耳。」

和石孫居士問：「那吒太子析骨還父、割肉還母，又為父母說法，未審如何說得？」師召居士，士應諾，師云：「會麼？」士佇思，師云：「黏皮帶骨漢。」士歸。次日，呈頌：「骨肉是何法？因析名為說，剖斷生死根，父母立解脫。身相既不存，誰為說法者？通體悉皆真，不假廣長舌。」師看畢，書頌復之云：「叫一聲，應一聲，忿怒那吒覲面呈，逐色隨聲情未瞥，黏皮帶骨句來親。句來親，落藤華鳥不知春。」師又舉大梅與龐居士語詰之，士呈頌云：

「是、非，心、佛原無二，梅子熟時味自賒，百雜碎來還吐核，江南五月發梅華。」師接來，擲地，復索云：「還有麼？」士擬議，師云：「總是閒言語。」

石帆岳司馬問：「法臘多少？」師豎一拳，岳頓然赤色，曰：「我東南水窟地方，人民老實，莫在者裏惑亂人。」師曰：「貧道行腳十五年，今日惑亂著一箇。」岳曰：「惑亂我則可，只恐惑亂愚人。」師曰：「阿誰是愚人？」岳瞪目視之，曰：「我也是路見不平，見你年幼，未是你做底時節。」師曰：「釋迦老子初生便言：

『天上天下，惟吾獨尊。』難道也是年幼未是時節麼？」岳曰：

「所以雲門要一棒打殺？我今日一棒打殺你，且作麼生？」師作怕勢曰：「貧道性命幾乎喪在門下。」岳躍然拜別。

棘生白居易問：「如何是我父母未生前本來面目？」師云：「名不得，狀不得。」士擬開口，師震威喝一喝。士云：「者一喝喝那箇？」師又喝一喝。士云：「弟子曾問天童密雲老人：『父母未生前本來面目？』老人便打一棒。又問：『父母已生後如何？』老人又打一棒。又問：『生與未生時相去多少？』老人以拄杖劃一劃，云：『祇隔一條線。』」師云：「者老漢龍頭蛇尾，當斷不斷，反招其亂。何不更與一棒，截斷腳頭，免到東塔門下索取路債？雖然如是，且道者一棒是賞伊？罰伊？」士亦無語。良久又問：「古人道：『有時打一棒，有時打三棒。』一棒且置，三棒意旨如何？」師云：「為汝皮下無血。」

又，喫餅，次師云：「居士喫飽些，免到第二家又喫。」士云：

「弟子要在者裏住幾日。」師云：「住幾日，還了我餅錢去。」士云：「不知餅作麼價？」師笑云：「喫多少？」士豎一指，師將茶蘸面一潑，士面作色，師云：「汝見諸方老宿則易，要見笑面虎尤難。」

爾赤馮居士舉子湖狗子話乞開示，師云：「子細。」士有省，頌曰：「子湖隻狗恁鏗厲，開口咬人莫回避，取卻兩頭并中間，沒頭沒尾殊怪異。須子細，直饒驚出汗渾身，那時來契棒頭意。」呈師看，師對虛舟姚居士云：「昨夜馮居士被子湖狗子咬一口了。」

師避秦，石柱司東川呂相國督師到司，馳書請師就署中相見，師至呂出，師云：「你是呂相公麼？」呂曰：「不敢。」師云：「父母未生前還姓甚麼？」呂擬議，師便打一棒。呂怒色，師復打一棒。呂趨進，師呵呵大笑，云：「將謂將謂，原來原來。」司主馬公問其故，師曰：「父母未生前句子，等閒棒著發無明，猛然省得非他物，十八女兒不繫裙。」呂復請師至，掩門大張威令相勘，師又說偈曰：「無端平地起孤堆，駭得虛空顛倒走，痛打金毛人不識，幾乎翻作跳牆狗。」呂送歸三教寺，眾請問何故，師曰：「五年未剖

荊山玉，忽得渠來秘不住，拄杖麻繩密密通，雷門布鼓明明露。泥豬癩狗打驚悵，跛鰲盲龜生恐怖，獻與楚王人不識，只當一箇大蘆菹。」後呂有省，呈偈通弟子書，師乃付偈并拂子一枚。

師與元陽張道人坐次，話及病中有不死底，師徵云：「有箇不死底在甚麼處？」張云：「遠則咫尺，近則千里。」師呵呵一笑。

夔州府尹拙谿熊公過梁山，請師署中相見，以酒延師，師豎起拳云：「者是箇拳頭。」放開云：「卻是巴掌。且道巴掌是？拳頭是？向此處道得一句，老僧即喫。」熊曰：「二俱不是。」師云：「又落斷見外道了也。」熊復下數語，師云：「待老僧豎搖頭則可，橫搖頭未在。」熊取扇乞偈，師書云：「食祿由來各有方，老僧雙桂君瞿塘，相逢沒甚好消息，巴掌拳頭慎勿忘。」熊亦書扇復之曰：「不向金城問上方，期瞻飛錫下瞿塘，慚依木槿榮朝色，試傍蓮華覓晚香。天籟靜聞聲有住，清機醒發戲逢場，從師直指山窮路，登彼岸時舟已忘。」次期請師同下夔建叢林，師意待秋涼，熊索竹杖為憑，師與之。

石年曹居士問：「動、靜二相了然不生，是我安身立命處否？」師云：「汝後面是甚麼？」士纔後顧，師云：「是動？是靜？」士復擬議，師云：「舉心則錯，動念即乖也。」士恍悟其旨。

士看大慧語錄，見「三腳驢子弄蹄行」之句有疑，復入室中請益，師頌云：「三腳驢子弄蹄行，格外提持達本真，就裏若隨名相轉，菩薩依舊是聲聞。」士遂躍然，云：「真三腳驢子也。有時放之則彌六合，卷之則退藏於密。」至夜，偶談及心經，問：「如何是深般若？」師云：「深對淺言，知淺則深意明矣。如凡夫認色為實色、二乘執空為偏空，俱是淺意。且就淺而推之，色因空有，空由色生，則色、空不二，是為深般若矣。後文總是此中註解耳。」士禮謝而退。

破山禪師語錄卷第七

（嗣法門人 蜀北果州東寺性定 蜀東古梁州水月禪院性毓 蜀北閬州南部當陽寺惟朗 閬州寶峰洪慧 射洪金鰲山清果禪院通法同刻破山和尚語錄第七卷 堆藍弘禮禪人對 秀水謝文英書 嘉興倪天章刊）

（康熙庚申孟春月吉旦，嘉禾楞嚴寺般若坊藏板）

法語一

示象崖西堂

金風遍野之時，萬木凋零之際，破道人閒坐林中，正起歸鄉之念，忽值象崖長老稽首於前，曰：「歸闕掩關索法語。」時破道人曰：「以虛空為關，行住坐臥也在裏許、著衣喫飯也在裏許、屙屎放尿也在裏許、迎賓待客也在裏許。只到千日事畢，獼猴伎倆、鬼家活計都盧拋向威音那邊，又那邊方買艸鞋，尋山問水覓著破道人，了汝後頭一段公案。」

示問津禪人

行腳衲子，杖挑日月，蹋遍雲山，到一處，見一人，問一機，轉一語，看人動靜、識人好惡。放下蒲團，拗折拄杖，三十年、二十年具，如王氣宇，口吞乾坤，方去孤峰頂上盤結艸菴，呵佛罵祖也。

示萍止禪人

歇狂子參方行腳，眼高四海氣壓諸方，與祖佛結死生冤家，與人天分邪正眼目，惟萍止禪人在破山拄杖頭邊薦取「誰縛汝」三字，則一生參學事畢矣。

示空外禪人

天地間為人，到出家地步極是快活，無榮可與、無辱可與，天子不臣、諸侯不友，虎鹿為鄰、松竹為伴，眼界自清，不同俗塵，通身徹底，惟一天真。天真之趣，華笑鳥鳴，不須別覓，動靜中存。雖然如是，只有崖前石虎未肯點頭在。

示淑雲禪人

淑雲子曾向三峰觸背關頭橫行直撞，挨拶些子氣息吐向福城棒頭喝下，自謂千了百當，一日告辭病叟，合掌受渠三拜，待渠遍參諸

方，再來痛與瞎禿光兒一頓好罵也。

示息知禪人

知之一字，眾禍之門；知之一字，眾妙之門。此「知」字是一粒巴豆丸，是佛也他一下、是魔也○他一下。若於此處見得徹，則良知自現前矣，烏用推之使息？故所以《法華》道：「諸佛智慧甚深無量，其智慧門難解難入，一切聲聞、辟支佛所不能知者是也。」蓋上人猶未知之，安以息而息之者耶？若以息知為無，知是一死知，則同聲聞輩，不復更有眾妙之門，而入眾禍之門也，莫把者一「知」字隻眼定奪。越生死、超凡聖，只在一「知」字上千了百當。所謂唯佛與佛乃能知之，試問上人：且道他知箇甚麼？參。

示方知禪人

邇來參學之士自不辨箇端正鼻孔，直管向那香臭邊噉些氣味便休，殊不知香臭邊最是利害，所謂己眼本正，因師故邪是也。即云住山者，其益有二：一者、為大事不明，以山中靜僻宜可易辦；二者、為大事已明，自揣力薄，不能接物利生，只好誅茅蓋頭，獨善其身耳。若是破山門下恁麼說話，好與三十拄杖，還須領到三門外自打始得。

示清白禪人

參學漢，須了辦，不可沉吟將日算。剔起眉毛著力看看，渠定不隨方便。渠是誰兮？真恁麼，有時位坐空王殿，勉強。

示破浪禪人

學道人心須專，志須固，不被境風所動，以一念萬年、萬年一念消之也。任是魔來、佛來，逆來、順來，亦直就中分曉，當下便是平沉。自此捨一具骨，負舂汲水三十年、二十年，肩頭腳底苦拼重生，方到破山門下喫棒也。勉強，勉強。

示翠融禪人

腳跟下七縱八橫，頂門上兩頭三處，無非只要箇中分析得來，頭頭皆我捨身命處也。且道融禪人曾恁麼一回也未？若恁麼，艸鞋蹋

破，穩坐長安；苟未如是，含元殿裏切莫迷頭認影。

示琢璞禪人

者箇事須真參實悟，法法頭頭無一絲毫不從本地風光上廓徹，方作人中之龍象也。然以琢璞號之，以石中有玉，玉必琢而成器焉。成器，則知人中龍象、石中之玉不相異耳。

示雲影禪人

雲影禪人欲索法語，隨身舉動頂戴，予曰：「既謂舉動，又如何頂戴？」雲影云：「頂戴不礙舉動，舉動不礙頂戴。」予曰：「如何是汝不礙處？」雲佇思，予曰：「試將此處從日用尋常中討得箇分曉，到山野處喫痛棒也。」

示知止禪人

參、學二門志在恒遠，將敵生死話頭貼在額上，行也如是參、坐也如是參，茶裏飯裏，一動一靜，參不透便學，學不圓便參，畢竟有箇倒斷也。

示遍拙禪人

樹下墳間，一食一宿，味盡甜辛酸苦，到處播弄唇皮，與佛祖拈拾餘機，是我法門中龍象事也。

示慈援禪人

慈援上人請法於予，予不禁口業，與上人惡言惡語說一絡索，惟要上人會取父母未生前本來面目，直下提撕，壁立千仞，烈烈轟轟，單刀直入，不見有死、有生，有凡、有聖，有俗、有僧，一道常光現前，古今三世不別。真到恁麼田地、真獲如是威光，快買艸鞋遍參知識，向他門頭戶底保養聖胎，聽緣行道，方不辜負生平志也。勉之。

示恆範禪人

禪和子樹精進幢、披忍辱鎧，無論凡之與聖、智之與愚、勞之與逸、生之與死，單單貴稟此心此志，將者些子恍惚處要明白、要究竟，決了終身之志，豈可浩浩來天地間，辜人負己，作一場虛生浪死人哉？若如此，則銅枷鐵鎖、鋒刀劍戟，無時不在、無時不臨，欲逃無地、欲竄無門，正所謂毫釐繫念三塗業因，瞥爾情生萬劫羈鎖。果是箇漢，向未舉念之先一覷破去，再來東塔門下索取艸鞋錢亦未遲在。

示參白禪人

禪和子志於行腳，涉水登山，瞻風撥艸，飲餽茶、喫臭飯，栖雲堂、臥霜榻，受種種苦辛，只為各人衣線下一點恍惚處。然而者點恍惚，欲從自決，則頭上安頭；欲從人決，則斬頭覓活。如是二邊互起互倒，渾無決者，故曰恍惚。所以為山問仰山云：「子之所得，還是自性得？從人得？」仰云：「雖是自性宗通，亦假稟受師承。」吾觀二老酬酢良有深意，定不是從自己乾爆爆地不假他人，亦不是向他人水漉漉地不假自己，鍼芥相投，水乳相合，啐啄同時，師資緣合、的非一日而契之者也。偶一僧問：「和尚眉毛還在麼？」予便打一掌，云：「山僧因病筆，許多葛藤、爾更躊躇，漆桶子依然不快。」

示隱輝侍者

佛祖以心印心之法，無論智之與愚、凡之與聖、僧之與俗、男之與女，貴在知有箇事，畢竟不從人得。須是猛著精彩，壁立萬仞，契取不疑之處，方買艸鞋遍參知識，遭人唾罵也。

示默融禪人

禪和子為生死行腳，切忌石頭路滑，轉盼則蹉過腳跟，直前則撞斷眉目，畢竟作麼生？看腳下。咄！

示應如禪人

參禪打坐透露鼻祖家風，勿論根器利鈍，都盧將「生死」二字貼在額頭上，行也如是參、坐也如是參，參來參去，參到心識不行、言思路絕處，把「生死」二字向早晨淨面時一摸摸掉，永不疑生、疑死、疑聖、疑凡，橫身天外，舉步大方，奮獅子威，潛行密用，鼓

老婆舌，開道群迷，庶不枉他方行腳，蹋遍雲山，處處欠艸鞋帳也。

示妙旨禪人

近日一夥禿居士走入空門，東去聽兩句、西去聽兩句陳爛葛藤，便去張家村、李家巷賣口頭饒婆舌，魔魅人家男女。逢一智人面前，口如扁擔、眼似流星，者等種艸不但將金博寶，連自本恐難便宜。豈如我妙旨禪人，初遊講肆便知者鼓笛總不恁麼打？披枷帶鎖走到萬峰門下，纔開臭口問及常住真心，萬峰信口道箇：「今夜有客，不能為汝說。」臨行辭去住山，聊書影響以嘉其志，待伊異日漆桶子破，蹋著秤錘，不可謂是鵝卵石也。勉旃，勉旃。

示圓融禪人

蹋荊棘，破風塵，畢竟以生死為急務。若或不爾，縱是一副鐵心肝，只恐三日風、四日雨，終不免要生鏽也。

示聞修禪人

割愛辭親，負衝天意氣，把將「生死」二字貼在額頭上，行也如是參、坐也如是參，參來參去，參到心識不行處、如槁木寒灰之際，只有一念，怖生死之心靈靈蠢蠢、欲了未了、恍恍惚惚、當斷不斷，凝然似有物礙，此是聖解凡情縛脫兩橛之所使然也，就中急討巴鼻，始有少分相應；卜度長短，則雲月是同谿山各異耳。

示巔石禪人

孤峰絕頂，結箇團標，坐視雲漢。雖然其力未充氣吞海宇，有時拈華弄月，笑傲山林，何拘金剛圈跳不得、栗棘蓬吞不得，復來中慶門下討甚麼碗？咄！

示字水禪人

字水拙公同吾川北人也，正所謂同條生不同條死。渠往南遊歷諸講肆，而滑口頭露布有年，聞吾儕豎剎竿江南福城，而又歸蜀萬峰，則兩慕之心始適於是，躍然頂笠而來，泛識門牆，無非聚一夥禿居士相習打鬧其志，疑信半著，又經一載，自去黑山鬼窟搬弄幾番，

稍通口氣，聆予遷中慶而特特破家散宅來入者箇保社，著予腳手大放憨睡。饑餐渴飲盡是本地風光，咳唾掉臂全彰殺活機柄。迴視，十年前殘羹餽飯、糞袋糟囊，悔何可及？予以憫念未息，走北奔南，鉢袋子無著落處，拙公亦可代擔。第慮力猶未充，且付法語佳志，異日撞頭磕額，兩手分付，一任東賣西弄，出吾儕醜也。勉旃，勉旃。

示百拙禪人

禪和子擔囊負鉢，入一叢林、進一保社，只以此事為懷，更無別般伎倆，方是人中之龍、獸中之獅也，故以龍象獅子稱之。然而龍象、獅子形威不同，爪牙皆一也。只此一處同，則知佛祖大機大用通身是、遍身是，豈虛語哉？

示離指禪人

法道秋晚，祖風正替，望爾輩如急水灘頭撐篙，只得拌命著力，安云住山取適偷安為志？臨行，欲吾儕惠艸鞋錢，只得信筆記箇帳在壁頭上也，待異日共爾打算，呵呵。

示汝水禪人

長連床上一句話頭，鐵壁銀山直教粉碎。毋問魔來？佛來？天來？龍來？神來？鬼來？即此一覷覷破。

示重雅禪人

重雅禪人入室請益，余微笑不語，伊佇立，疑情不釋，予遂造口業，大訶曰：「你是那處欠少？還嫌些甚麼？試說看。」伊仍不釋，予曰：「穿衣喫飯處、迎賓待客處、屙屎放尿處，一切時、一切處，看是阿誰分上欠少？惡禿不薦，待到何時？余在他方老宿處，如蚊子上鐵牛也。」

示掌如禪人

為僧一番，畢竟坐一所在，聽講幾句經文，坐幾日枯禪，若行、若坐，自是有一段光景、一分下落。買艸鞋行腳，窮山涉水，登人門

戶，喫人茶飯，辯是論非，從前知非，是我錯過好光景、好時節，始信東瓜直儻侗，瓠子曲彎彎。

示華仲李孝廉父太初老居士

人子之心誰箇不有？惟華仲公向我天童老和尚拳頭巴掌邊深知痛癢，欲作大法船，載三宗九族高登彼岸，先為七十老父太初老大人請法語。山僧遙空合掌，試問大人：耄耋時所見與孩孺時所見為同？為異？如不異，即知變滅中原不變滅，即知大人悟取金剛不壞身也。

示月江藏主

昔有一婆子請古德轉藏經，德邊禪床一匝，云：「與汝轉經竟。」婆云：「比來請轉全藏，如何只轉半藏？」試將此則公案參取看，如何是一藏？如何是半藏？

示丈雪禪人

辭親割愛，浪跡江湖，披一絲、挂一綯，赤條條地，眼空諸方，將謂有幾箇面目露遼天鼻孔？及至行腳遍來親見佛恩，仍是痛罵痛打，連者一點氣息尚容不得，雲瓢雪笠、霜飯冰茶，復吞復吐，只令冷心腸一副賣弄與人，豬嫌狗不欲，始到佛恩門下抱贓叫屈。

示梵埜行者

橫寫順寫，無一箇元字腳寫得著；長篇短篇，無一言盡者張紙。只有者寫說不到處是箇甚麼？咄！也是烏龜向火。

示素微禪人

擔囊負鉢入一叢林、進一保社，必以生死為急務，看生從何來？死從何去？勿論歲月，以徹為期，忽地裏撞著箇漢，問渠行腳事如何，面面相看口如木。

示法空戒子

乘急戒緩、戒急乘緩，無出一信得及、把得住，以歲月期，料不得盡形命而已。非但以戒執身、以乘運心，務要在緩急處著力，忽地裏覷破，始知廣額屠兒放下屠刀頓然成佛，猶是不唧溜漢。勉之。

示含光禪人

懸崖撒手，未敢承當，絕後再甦，欺君不得，此乃啟迪後昆不可得少為足之謂。畢竟要透頂透底、大休大歇一番，永無退轉，非是以口耳之學百機百巧攢華簇錦便謂是向上關捩也。

示大石徐居士

但凡有事直頭虛應，空閒時，或坐、或行，痛念此身終歸敗壞，惟有怖生死心昭然如此，只是不知下落何處，即將此心默默提持。不是心、不是佛、不是物，畢竟是箇什麼？參來參去，自合有箇倒斷處也。

示景山趙居士

參禪、念佛二門，究竟生死為極。了知生死，別無禪參、別無佛念。有佛念，則是生死中佛；有禪參，則是生死中禪。於是二中間未夢見生死在。還知麼？生從何來，死從何去？參。

示唯心禪人

法法頭頭，不離當處，舉念即覺便是放身捨命之時節也。而人不悟，強去節外生枝，數番顛倒，及至臨頭一場無益，蓋是自生分別，非怨聖賢有所未說也。

示玉寰向居士

學道無論智愚，祇貴信得及、把得住。萬年一念、一念萬年，只將怖生死心孜孜切切，看箇無夢時主人公在甚麼處？忽地裏築著、磕著、薦取者，一著子明白成佛、成仙亦同是夢，始知朝聞夕死之道也。

示紹儀何居士

做工夫如急水灘頭撐篙相似，撐得一篙，退卻十篙，拼命捨死撐去，撐得無可用力處，撥轉船頭，處處皆岸也。勉之。

示獻南張居士

終日向文不加點處卒難下手一畫未有時，真宗默契始於無說無形之際，則河馬負圖、洛龜呈書，稍露一著子，是我獻南張公一刀兩段也。呵呵！

示渭陽金居士

六道中已知是人，堂堂相貌、堂堂體裁、堂堂作事，無一法不周、無一法不具，如是具足而不會是法者，乃人中之土木也。汝所云：「即此不會他，離此不會他。」之二語，貧道詰之曰：「離即且置，試道他是何物？」不覺汝真獅子兒，便解哮吼了也。咄咄！勉之。

示佛掌侯居士

人迷生死中，不識生死之苦，若鳥不識空、魚不識水。然猛出是者，即在當念觸一事、遇一境、生一計，便是好消息、好時節、好意思。人多於此忽略、於此蹉過、於此自棄，如鳥、空，魚、水不相別也。是以病僧見是輩痛與棒、熱與喝、佛與掌，令人頓出生死窠臼，不留一元字腳，教人如何若何招萬劫繫驢橛之禍。故號佛掌。

示耀泉丁居士

者箇事，如雲長刀、方天戟，非大力量者安能荷之？我耀泉居士身雖在家而秉是刀，不怕不勝生死魔軍、勦滅聖凡窠臼也。

示念中程居士

在家學出世法，若火中生蓮、驢中生驥，最難行而行之、最難斷而斷之、最難忍而忍之、最難棄而棄之，非純鋼肩頭、生鐵肝膽必不能擔荷。既荷是法，做買、做賣，識貴、識賤，遇喜、遇怒，動聲、動色，豈是法外別有主宰乎？主宰是法外物乎？但不曾二六時中融會得來，竟認為兩橛耳。若是皮下有血漢子一聞千悟，直下頓

了，在買賣而買賣、在貴賤而貴賤、在喜怒而喜怒、在聲色而聲色，烏用欣厭而二其心哉？所以即生死而般涅槃、即塵勞而作佛事，良有以也。既無如是氣岸、無如是威光、無如是受用，且將本參話頭密密舉起，諦審諦思：如何是我本來面目？背脊直豎，兩眼微開，頻頻參究，痛錐痛筍，歲久歲深自合有箇倒斷處也。勉之。

示荊獻羅居士

居士參禪貴圖契悟佛祖機關、徹透今時露布，與衲僧家同，長連床上行住坐臥了此餘生。畢竟巴鼻處，請著眼看，是箇甚麼？參。

示起予曹居士

盡生平伎倆，搬弄種種法門，無逾參究一門，甚是捷當。以念佛底是誰畢竟薦取「誰」字下落，則種種門、種種法皆我一道也。勉旃，勉旃。

示楫吾楊居士

學道人須具頂天立地底風骨，則現形應物自合與理符契，然後靜慮身心，日益日損畢竟，逐一事、執一法，參透生死關頭，同千聖一箇鼻孔出氣，始不負共山野聚頭打口鼓子也。勉之。

示近宸張居士

第一、纔上蒲團，眼當平視，休去、歇去、一條白練去、古廟香爐去，則身安道隆也，即佛曰初善。第二、行住坐臥惟一話頭，頓在面前，如澄潭秋月觸波瀾而不散，然後發大疑情也，即佛曰中善。第三、從舉起處承當，言句下頓了，如擲劍揮空，勿論及之不及，貴承當，不貴推托也，即佛曰後善。

示仁伯馬居士

參禪、學道貴在生死心切，二六時中不可間斷，行時且道行的是誰？住時且道住的是誰？坐時且道坐的是誰？臥時且道臥的是誰？畢竟誰作主宰？忽地裏覷破者著，八字打開，縱橫無礙，始知張拙秀才道：隨順世緣無罣礙，涅槃生死等空華。

示從之馬居士

人生天地間，赤條條無可把，尚不沾滯，竟無一法當情，只體取正睡著時主人公在甚麼處？但凡有事直頭虛應，正應物時亦不是別物。如此參去，勿論歲月，以徹為期，終不得甕中走出鱉也。

示道標呂居士

學道人志須遠大，一切時中只將怖生死底心刻刻在念，看箇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箇甚麼？不拘歲月，以徹為度。然所徹者，不是別有箇物，只在不疑生、不疑死，則法法頭頭無不是子放身捨命處也。

示文靖馬居士

學道貴乎明心見性，則為究竟處也。然而做工夫必須先發三種心：一者、信心，信自心是佛故；二者、精進心，遇境不退故；三者、發遠大堅固心，畢竟克果故。如是具此三心，期生死不相干之地、了鬼神覷不破之機，必此而得也。就中素所信、所疑，或念佛、或誦經，日有定課，此是漸入之門，及以念佛至一心不亂，淨念相繼為則也。參誦，有經義不明、語關未透處，是話頭、是巴鼻，不可終日因循，即在行住坐臥、茶裏飯裏無容間斷，把作一件最要緊事做，以恆心為主，不出一動一靜，忽地裏觸發，如貧得寶、如暗得燈、如饑得食，始信佛祖不欺人也。

示恆初禪人

修行戒為本，參禪悟為極，惟此二門，餘則方便多門也。畢竟如何得入？驢揀乾處尿，羊擇溼處屙。

示蓮月禪人

雪笠雲瓢，登山涉水，凝然一片行腳苦志，始可得到故鄉田地。然而故鄉田地，古德曾疑，忽一日觸發乃云：「山前一片閒田地，叉手叮嚀問主翁，幾度賣來還自買？為憐松竹引清風。」老僧無別指示，即此書為爾等薦取閒田地一著。勉之。

示靈隱禪人

參話頭、做工夫，只要信得及、把得住，莫被境風所鼓、腳跟不定，自此從迷入迷，甘赴死門者何限？況爾等英資出類，如何因循終日？難道禪有揀擇、道有嫌疑？可惜不在日用裏體取。試問：如何是日用事無別，惟吾自偶諧？此處著隻眼好。

示雲幻禪人

老僧年來不打者鼓笛久矣，終日對幾箇俗漢子，和其光，同其塵，以了此事，豈知爾等頂笠腰包，始事象崖？吾徒因棄世得得到老僧處，究竟此段因緣，老僧只得向一毫頭上與子徹去。試問者一毫頭上如何徹耶？咄！子的自家寶藏不守，沿門乞食作麼？

示繡石禪人

打口鼓子，說禪、說道都是我衲僧家習氣，未是本分作家。若是本分作家，如愚、如訥，隱隱地自是與人不同。又不可不識一丁，裝作如是，愈加不本分，所謂本色住山人，亦無刀斧痕。

破山禪師語錄卷第八

(嗣法門人 蜀龍安府獅子院性道 古果州盛山佛巖印顯甲同刻破山和尚語錄第八卷 堆藍弘禮禪人對 秀水謝文英書 倪君亮子天章刊)
(康熙庚申年孟春月，禾郡楞嚴寺般若坊附疏)

法語二

示雲嶠禪人

禪和子有志行腳，痛以生死為念。到一善知識處，或請益、或發一問，正要體取話頭來歷。忽然會得此箇話頭，即知生從何來、死從何去，明得生處，死處亦然。那時節因地一聲，始信茶條拄杖新行腳，葛葉蒲團舊話頭。

示指元禪人

割愛辭親，遠塵離俗，入一叢林，進一保社，必要具參方眼，識人好惡，一動、一靜，一喜、一怒，看是甚麼道理？若識得，自是與尋常人不同，雖然不是舊時人，直改舊時行履處。

示覺幻禪人

覺幻禪人來老僧拄杖頭邊，尚未知其下落，一旦乞法語，老僧試問：「前向汝腳跟下直打出，是撥轉汝耶？是要汝轉身吐氣耶？汝若向此知落處，則不被短岸深坑之所陷，可以淨裸裸絕承當，赤灑灑無回互；其或未然，莫將閒學解埋沒祖師心。」

示太平禪人

出家人堂堂僧相，不行一事、不奉佛敕、不受師教，乃形同沙門未得法同沙門也。上人奉受三事，心體力任，而又到老僧處，且形同、法同，只有一事不同，試問是那一事？

示佛生禪人

禪道、佛道不是細事，惟在人人任之耳。如擲劍揮空，勿論及之不及，貴承當，不貴推托。此承當非承當佛祖也，正在不疑佛、不疑祖。佛有一代時教、祖有千百則公案，每每試將一經一教全提半提看，到那不疑之地，始可喫老僧痛棒，與老僧說禪。

示徹空戒子

聖賢設化種種法門皆治心之法，參禪不過參此心也、念佛不過念此心也、持戒不過護此心也，此心若寂，更有何處起惑作業？但有念起即覺，然而覺處忽猛省得來，因！只恐眾生不是佛，是佛何愁不解語？

示上提戒子

無上菩提心地戒，只在當人一念未生已前，看者念從何處起來，忽看得三際頓空、諸惡無跡，正是戒之本體。因！只恐眾生不是佛，是佛何愁不解語？

示湛林禪人

世變之後，祖燈秋晚，老僧隨遇安身，忽湛林禪人從梁山來，欲老僧歸。索法語，老僧無別指示，只向渠道箇：「不是心、不是佛、不是物，老僧不是善知識，汝亦不是學人。」若諦當不出，看取從前註腳。

示慧心禪人

慧心禪人久依吾住，欲求法語隨處受持，吾儕每見諸方只欲人納降款，深可痛惜。吾儕應病與藥，直教遇境生疑、逢緣理會，無處不是話頭也。勉之。

示水月禪人

只因一句隨他語，萬里千山走衲僧。爾輩若會此一句，未曾舉步，大地盡周其；或未然，且將千里遠行始于初步分曉得，到老僧處喫棒。

示昇所冉居士

參禪、念佛本是一箇道理，念佛念此心也、參禪參此心也。心外無法、法外無心，只此一心，別無岐路。一心不生，萬法無咎，試問如何是汝一心？默默自知田地穩，騰騰誰調肚皮憨？

士作禮問：「參禪與念佛，是同？是別？」師云：「同則總同，別則總別。」士禮謝，師偈云：「參禪與念佛，頓、漸兩條路，勿問

別與同，到家驀直去。」

示問一禪者

問一得一，倚牆靠壁，牆崩壁倒，一歸何處？老僧試問一之道理，
荅則是、不荅亦是。一縱一奪，龜哥眼赤。

示戒如禪人

求道不求字，終須成大器；求字不求道，投其所好，此非學道人，
莫令諸方笑。

示秀玄禪者

寫字便成勞，不知為甚的，學人不努力，空費者張紙。教學如何努力
薦取？屋北鹿獨宿，谿西雞齊啼。

示六聰禪者

橫寫豎寫，尚莫能盡者張紙；多說少說，且安排者管筆。然而筆舌
不得處，與老僧道將一句來。

示六一禪人

鏡華水月，泄漏天機；艸木文章，全彰意氣。露不盡鋒鋸，只向空
中一點；參無學妙旨，且從靜地理會。若理會得，不枉過雙桂堂，
坐臥經行，拾些粥飯氣息。

示寄凡禪人

做箇禪和子，到一處、出一言、吐一語稍有衲僧氣息，善知識痛下
鍼錐，必要究竟實處討教分曉，不負出家行腳之苦志也。試問：未
舉念前，且道是箇甚麼道理？還委悉麼？艸鞋忽地破，露出腳跟
來。

示習儀火頭

變生作熟，非水、火莫能致。然而水、火正在生剋，以既濟、未濟而別之也。即人之一身外，則器界所共一氣分。如何是一氣分？天地與我同根，萬物與我一體。

示禪源禪人

出家志在參學，參不透必學、學不圓必參，此兩者亦不可偏廢。若獨學而不參，祇益見聞；若獨參而不學，愈益我慢。正在不偏廢處，頭頭要了、法法要明，則不負出家之志也。

示知我戒子

數聞知我禪客久於此道稍有符合，隨處豎一剎竿，與諸仁者一食一宿，結佛祖冤家，只須覓箇還飯錢者。勉之。

示深省戒子

戒品初登務要穩密，誠恐日就月將情念濃厚，只去圖口體、攻章句，錯過當頭一著，窮究到底不清。老僧非是成閒管，亦是憐兒不覺醜，向爾等道箇秦時[車*度]轆轤，試參看。

示燕石戒子

佛說波羅提木叉是名十重四十八輕，此戒差等，大小乘是也。若論本，總歸一心。一心不生，萬法無咎。無戒不持、無心不一，此乃真圓大戒總持也。

示慧白靜主

苦行頭陀，破衣破衲，行一行、作一務，志要與生死為念。試將生從何來、死從何去處著隻眼，看是甚麼道理。忽地裏覷破，因地一聲，甕中何嘗走卻鱉？

示象含禪人

老僧歸打者鼓笛，正欲人知音接拍，唯我象含禪人稍知影響。老僧安居補後堂，看老病憫而療生，則慈心無盡。老僧試問汝：以慈憫心為慈心耶？以殺人心為慈心耶？且參看。

示蒼然禪人

出家行腳志在雄猛，要一念萬年、萬年一念，只將生死為急務，一切動靜看是阿誰主張？忽省得來，只在者裏。且道者裏是甚麼所在？參。

示非一禪人

明一非一，此一尚非形於口吻，何為一耶？何為非耶？所非何物？所一何物？殊不知欲、非欲一者，又復何物？試定奪看。

示白崖禪者

老僧年邁，歸高梁，居田里，種田博飯，只知有溫飽，尚莫知禪何物、道何物。此子係吾徒僧，可之剃染，欲老僧法語，則老僧呵呵大笑云：「大蟲畏紙帽。」

示參之傳秘禪者

傳秘禪者，乃吾徒默石之孫也。自小而大尚具一段英資，幸師猶存，值大變後攜來見老僧，且老僧憫祖脈之衰替，若以一言策之、勵之，恐機之所莫堪，稍將一○○○○○。此處薦得，到破山門下喫棒有日也。

示唯然禪人

為學日增、為道日損，即如切如磋、如琢如磨之謂。此是聖訓，老僧則不然也。此道非物也，就物比擬是人本分事，然而日用中遇境生疑、逢緣理會，忽然猛省，罵老僧有日在。

示機樞黃成衣

打不得坐，坐不得禪，禪非坐臥，坐臥即禪。此老僧素分為汝輩畫蛇添足，正恐汝輩打在無事甲裏，意欲直下薦取鍼鋒上消息。會麼？

示相宇曾居士

相字曾居士索法語，老僧信筆書數語以佳其志，盡謂生死事大，無常迅速。此大謂生不知來處、死不知去處，況無人代得。此速謂入息雖存，出息難保，尚莫能知。若悟此語，忙也忙不著、閒也閒不著，始識老僧，亦識自己。

示曇郁禪人

老僧寫字覺倦，又有發青來叩法語，老僧欲罵莫能、欲讚莫能，只得向伊道箇米裏有蟲。

示若無禪人

參禪打坐是我衲僧家本分事也，豈假以文章學問巧妙尖新，說鐸鐸句、弄套套語？誇會誇能，以資談柄；揚眉瞬目，以當機鋒？若爾，誠然是韓盧逐塊。若真獅子兒，只要喫人。然喫人者，正是直截根源，不同逐塊。近來多見禪者初不務此，先去學滿一肚皮，然後去學禪。殊不知禪何意也？本要離名字相、離心緣相、離四句絕百非，豈是隨邪逐惡，不根其旨，妄將魚目作明珠、磁石為至寶，到處去逞驢唇馬嘴，棒風喝雲以為極？則此箇葛藤為點禪病，倘禪若無病，何用參為？即汝便是，尚涉廉纖。如將梵位直授凡庸，亦如擲劍揮空，勿論及之不及，只貴承當也。

示空如戒子

持戒但束身，非身無所束，正是衲戒消息；而人不會，都在者三頂衣、一口鉢上名之為戒。若此，不獨上辜諸聖，抑且下負己靈。試問：如何纔是手把豬頭持淨戒，衣包狗骨入姪房？

示松谿禪人

松溪呈紙一幅乞開示，老僧曰：「如許之年還在問路，然而路頭不在別處，只在自己腳跟下。此腳跟下且荊棘、且石頭，橫來豎去，築著磕著，是阿誰主張？若此處覷得破，舉足無非是道場。」

示冰白主人

此道言論不足以辯、名字不足以載，唯在人體認之耳。如擲劍揮空，勿論及之不及。若達此，可以位天地、生萬物、感鬼神、知禍

福。畢竟以何為鑑？夢裏明明有六趣，覺後空空無大千。

示若愚戒子

戒為菩提種子，逢雨露而茂盛，植高遠而縹緲，故以戒生定，以定發慧，圓此三無漏學，不辜負出家一事。所謂：「唯此一事實，餘二則非真」，試問如何是實的一事？速道速道。

示灰一行者

無口人解罵、無手人解打，俱是一般作用。若悟此，有手、有口者多所不及。何謂？豈不聞無用為大用？理則然也。

示語莊禪人

行腳衲僧須具行腳眼，到一處腰包不解，討教箇眼腦或正、或不正，始歇下蒲團，萬年一念、一念萬年，始終如一，把就中大事精確明悉，則不辜負買艸鞋一番行腳也。

示佛冤法孫

做箇禪和子最要苦得喫不得，然後可談就中事。若是只圖粉飾箇模樣，內外不相應，乃形同沙門，未得法同沙門也。然而苦非是以擔山填海勞其筋骨、餓其體膚，不過是二六時中；此生死之心未覷破，終是為礙。如何是怖生死心因？是誰縛汝？

示碧浪禪者

擔囊負鉢入一叢林、進一保社，聽人處分，究竟自不知肩頭腳底早已不唧溜，肯從自己分中體取肩頭上輕重、腳底下高低，撞著磕著處會得來。嘻！此事不在別處，只在者裏。

示寒瀑禪人

流離苦世，將謂老僧殘羹餽飯盡傾無贖，豈料忍饑廝渴輩東尋西覓，稍得全半法語？災木出老僧醜也，則老僧又悲又喜，幸老僧愚徒雪公收為弟子，刊老僧全錄善書，手筆點畫頗精，然而老僧布施

一金又不如布施一言以佳其志俟。異日相撞時，奉上三十棒。且道是賞伊？罰伊？

示佛語禪人

禪道佛法，非是前人不了殃及後人，即當喜怒哀樂處、行住坐臥時，看是阿誰主宰，忽地裏覷破，伸手原在縮手裏。

示徹骨禪人

雪笠雲瓢，放身天地，東語西話，朝參暮請，是我衲僧本分事。然雖如是，要且不是祖師西來意。

示谷音禪人

立雪斷臂，不知有寒；衝風破暑，不知有熱。此正是為道忘軀，非木石謂也。有谷音禪人欲老僧法語，只向伊道：「莫妄想。」

示月宗禪人

打口鼓子說禪說道，播弄腥羶快，驢唇馬觜道短論長者，是無意話，總沒交涉。只在日用尋常一動一靜看是阿誰主張，即此看破因，原來是箇謝三孃。

示本空禪人

做箇出格禪者，先須立志不群，將生死為急務，但有言句，畢竟猛著精彩，看是甚麼道理。

示大參禪者

者箇事無影響、無形段，惟要信得及。然而要大，大而無外；要細，細而無內。既無內外邊表，何處可容得者一「參」字？試諦當看。

示心目禪人

蹋遍雲山，只欠腳頭債；吸盡西江，尚塞咽喉孔。千般伎倆，無奈胸中一點疑何。

示返聞禪人

「性」之一字何加聞耶？然而聞者何物？性者何物？此二者一而已矣。如何是一的道理？參。

示均鬱禪人

參禪學道固是本分事，且道禪作麼生參？道作麼生？學禪非耳目口鼻做模做樣，道非手舞足蹈左之右之，畢竟作麼生？喝一喝，截斷葛藤。

示蔡夫人

參禪本要了生死，生死了時卻放參，欲了須知下手處，揚眉瞬目剎那間。不隨喜怒哀樂轉、不被貪瞋癡愛瞞，不著聖凡情見解、不忘行住坐臥，看眼耳鼻舌身意識，六門六賊緊牢關，即此便是真精進、即此便是脫危安。如是了知法界性，水是兮水山是山。

示燈鯨王善人

有福人作福只嫌福少，作業人作業只嫌業少，然而罪福由人唯在一心，一心不生，萬法無咎。且道如何是一心不生道理？試參看，若參得出，即往無垢世界頓然成佛。勉之。

示發輝蔡善人

念佛、參禪，頓漸有異，到家一也。然而初用心處，志在行住坐臥無絲毫間斷，孜孜切切將怖生死心體取念佛的是誰，單在「誰」字上著力，歲久月深，築著磕著，此箇道理，始知念佛一聲，漱口三日。

示越凡禪人

學出世法、做出格人，先要立志遠大，自有日新日益工夫，百尺竿頭不愁進步。且道如何是百尺竿頭消息？屋北鹿獨宿，谿西雞齊

啼。

示仁燭禪人

暑氣逼人，夾背汗出，意推「寒則寒殺闍黎、熱則熱殺闍黎」。者箇關頭若覷得破，不獨敵生死，任是八寒八熱地獄亦化為八德蓮池也。老僧試問：寒熱不到處，與我道將一句來。

示四一禪人

學道人勢必學到那無抵止處方可，是學人放身捨命的消息，且道無抵止處作麼生話會？

示書雲法孫

人人盡道成佛成祖最難履歷。老僧不愁履歷，只愁人心不恆。若恆，可以成禪不遠矣。

示繼祿禪人

自到老僧雙桂堂，二六時中，行亦如是、住亦如是、坐亦如是、臥亦如是，忽地裏築著、磕著，看是阿誰？若從此徹去東西、不管南北，不收橫行直撞、咳唾掉臂，無不是西來大意，庭前柏樹子、麻三斤、乾屎橛、青州布衫重七斤總成贅語也。勉之。

示允一禪人

行腳住世先要立定腳跟，不被八風所鼓。**任**是佛來、魔來，逆來順受，始是當家種草，住箇院子，作得些福、利得些人，卻來喫棒有分。

示聞思禪人

住靜者，所靜何事？然避喧求靜豈是靜？山中水流風動、鵲噪鴉鳴非聲而何？山華埜艸、谿澗溝壑非色而何？然而聲色前不物。若理會得，真住靜者；苟圖其安，則不靜也。

示體然禪人

禪和子到老僧處，且不禪、且不道，獨要幾箇字、幾句話。然逐塊之流，老僧只得與伊書箇護身符子，隨帶行腳，俟異日漆桶子快，始還飯錢也。

示古拙禪人

自歷祖已來，婆心不歇，東征西遊，所為何事？只為人人腳跟下一段不了底事，要假兒孫腳下行。古拙禪人行腳苦志歷有年矣，來參老僧，尚未住腳，但不知腳跟下艸鞋錢可還否？欲老僧法語，老僧只得書兩句以嘉其志：肯將肩上蒲團放，誰怕路中滑石頭？

示映夔禪者

行腳到老僧處，問禪問道、說古說今，都盧是一番戲具，只有一句不戲，且道是那一句？八角磨盤空裏走。

示伯符法孫

伯符長老行住坐臥只以口頭三昧說長道短，終日賣弄自家寶藏，幸喜遇著箇漢，收拾在囊橐中，氣也出不得，只待龍天推出，蓋天蓋地，與一切生靈濟饑濟渴也。勉之。

示秀峰禪人

學道如饑渴思飲食，極則美，足則厭。若是半饑半飽，不惟不就食，要且酥酪醍醐翻成毒藥也。

示水心法孫

水心長老乃吾曾孫，喫痛棒有年，竟不知藏處何地。一日忽來萬松峰頭見吾一面，雖不吐一辭，痛棒痕又在癢也。

示道雅典座

堂內坐禪，堂外禪坐，雪峰飯頭，為山典座。此語是古人垂訓爾。若依之行之，無戒不持、無生不度，不修萬行而萬行備足，何復言歟？何復言歟？

示非外禪人

行腳二十二年，艸鞋猶未蹋破，幾乎露出腳跟，且欲歸家穩坐，為求老僧法語，不覺寫一絡索。試問渠兮若何？漫言一番參學。

示百城禪人

長慶七破蒲團，疏山一錢壽塔，雙桂從來不識，無問周由者也。且道箇裏還有佛法也無？窗明山吐月，榻冷室眠雲。

示易菴禪人

易菴禪人雪笠雲瓢，棄儒就釋，從荊棘叢中走出，來我雙桂堂中今將一載矣，老僧因公出萬邑，寓太白崖，休夏共打口鼓子，說冬瓜禪，遍地皆是，只恐作僮侗會也。一日呈紙一幅乞法語，老僧不得不從僮侗中露箇消息。酸齏甕裏多蚊蚋，破驢脊上足蒼蠅。

示印觀江夫人

世、出世法總是一法，此生、彼生盡是一生。此生不悟，何方求度？若悟此生，佛祖正因以觀，觀者是名正觀。觀世無生，熾然生生，生生不已，誰復生死？如是者三，其樂也安。

示去玷禪者

達法如是，法法如是。所以道：我為法王，於法自在，唯我一人而能救護。此所謂法如是故。然而此法亦非青黃紫綠，亦無形影、亦無抵止，只在當人一念未生已前一覷覷破，因地一聲，始知飯是米做、瓦是泥燒。

示波雲禪者

為僧有為僧之事、為俗有為俗之事，如是僧、俗雖殊，其道一也。然而「道」之一字卒難體認，在俗有俗之體認、在僧有僧之體認，各各體認分曉，看是箇甚麼道理？若僧、若俗不二，一句作麼生委悉？糞多茄子大，地壯菜根羶。

示玄白禪人

行腳住山，其用心是一，欲究其一則無不一也。然法法頭頭固是多種，則方便亦多門也。總之，一有多種，二無兩般。試問爾輩：如何是一？

示紫芝禪者

出家一段氣岸，天子不臣、諸侯不友，是一尊貴，法須要尊貴人，如獅子乳玻璃盞盛者是也。雖然如是，要且不是祖師西來意，且道如何是祖師西來意？一棒一條痕，一掌一握血。

示陳善人

人生大夢中，大夢誰先覺？夢覺亦是幻，誰縛欲誰脫？但於二六時諦審誰一著，忽地覷破，渠渠誰無兩箇？若要執取一，依然當面錯錯。咄！

破山禪師語錄卷第九

（三世法孫 楚武攸 金城山合梅 雪濟峰合敏同刻破山和尚語錄第九卷 堆藍弘禮禪人對 秀水謝文英書 倪君亮子天章刊）

（康熙庚申年孟春月，嘉禾楞嚴寺般若坊附藏）

法語三

示秋水西堂

老僧過忠南相值之後，經今數年又來高梁，雙桂相從，共守寂寥。一日呈卷，欲老僧法語，老僧只得向義虎弄爪牙，話墻壁邊影響耳。試問：「十方無壁落，四面亦無門」，且道何為墻壁？何為影響？若向者裏道得，早在堂奧中打坐打眠，橫行直撞了。呵呵。

示惺月禪者

出家行腳遍參知識聽人處分，要先定自己腳跟，後得一言半句，蘊在八識田中永為道種，看是甚麼道理。若一句透，千句萬句一時透，亦不在語句中以心意識卜度，恐落偏計，妄想魔攝，不自主張，誤用此心。畢竟要透生死不疑之地，方到老僧處喫痛棒也。

示電影禪者

參禪打坐是我衲僧本分，殊不知翻為分外也。何故？不是先聖不了，以及後人不問如何若何以資談柄。且道畢竟如何？即汝便是。

示曇華禪人

老僧暫止太白巖，適逢諸開士相席打令，欲老僧鼓兩片皮、弄三寸舌，說禪說道。此是爾輩習氣不忘，致令吾儕亦習氣也，卻對諸開士道兩句語，一任作禪會也可、作道會也可。且道是那兩句響？猿抱子歸青嶂裏，鳥銜華落碧巖前。

示心玄禪者

初辦行腳，先要立志不群。若與人行，必有為我師者，可同志同行，終有出格氣岸。

示伴石禪者

若人識得心，大地無寸土。若人識得心，未為究竟處。此二者孰是？孰非？試定當看。

示同初禪人

老僧靜坐室中，忽有箇漢白老僧曰：「昨夜聽得巡照者謂雞對阿誰語，似有入處。」老僧曰：「如何是汝入處？」伊作雞叫一聲，老僧謂：「人道不做，又入扁毛之類也。」即書以示之。

示祥微茶頭

雙桂茶、趙州茶，相去幾許？雖然久近不同，要且茶味不別，噫瞞老僧不得。

示源遠行者

六度萬行，苦行第一，不憚勤勞、不思榮辱，一直向前，莫推乾滑，一動一靜處審是阿誰？行亦如是、住亦如是、坐亦如是、臥亦如是，忽地覷破，始知八萬行門一時滿足也。勉之。

示明重程居士

老僧隱太白巖將半載，忽居士稽首于前乞法語，老僧信筆書兩句塞責。何也？亦是擔枷過狀，把髻投衙。

示靜修禪人

老老大大，何不覓箇住處？試問如何是住處？山前一片閒田地，叉手叮嚀問主公。

示光慧行者

六度萬行，苦行一也。然而出家固是天子不臣、諸侯不友，是貴重之人行貴重之法，則形同法同也。試問爾：日逐上山，見華開華落，生滅宛然，洞知我有限身心同於生滅，急早知我生滅中有箇不生滅者，且道是誰？忽地裏覷破，始知冒雨衝風去，披星戴月歸，不知身有苦，惟慮行門虧。

示南之行者

任一節事，行一種行，要實心實意，從頭至尾始終如一，方不負出家一番。雖然，也要肩頭腳底知箇落處。

示牟廣文

靈光獨耀，迴脫根塵，遠離妄緣，即如如佛。如是，則知居士久在法門，只是未得，暴地一下、大笑一聲。徹頭徹尾處著隻眼好。

示虞卿譚總戎

酷暑臨行，毒熱之甚，一言一句盡出枯腸，露布如許葛藤，只要人人徹頭徹尾，箇箇撐天拄地，做箇忠臣義士，不負世上走來一回。虞卿譚公具如是氣岸、行如是威猛，非將士之能，安可育吾蜀東風化？古德道：「見義不為非勇士，臨危不變始驚群」，此之謂也。

示若愚禪人

壁山巔上獨步大方，如是雄猛，巍峨低昂，是我若愚禪人得大自在處也。然雖如是，要且不是祖師西來大意。正恁麼時，且道如何即是萬仞峰頭獨足立？

示耶湘禪人

衲僧家具一段氣岸，莫貪溫飽，將就人處分便吐出許多習氣來。說禪說道，鼓掌轟拳，濫膺人恭敬，此是最惡俗、最不濟頭底漢，縱有行過佛祖、學冠天人，疑而不信。若是真正道流，逢人遇物，如愚、如訥，只要胸中平帖，莫管人信我、疑我有時，不負我苦志，老僧自合與你打算火帳也。勉之。

示古城禪人

古城山中偷懶三十年，忽到老僧雙桂堂相席打令，一日動機欲歸里，呈卷乞老僧法語，老僧謂行腳一番須具參方眼，始得不被石頭路滑、荊棘刺礙，一任橫行直撞，到處開大口、說大話，吞佛祖氣宇，亦不辜負與老僧相晤。然雖如是，要且不是祖師西來意。試

問：古城子腳跟下穩當否？日用處嚴密否？若果到恁麼時，再來老僧處喫痛棒也。

示大用禪者

出家近賢良，如倚松之葛勢聳千尋。若只是自住箇所在，即同俗人，癡癡終日有甚麼用處？不若二六時中莫打在無事甲裏，把將話頭蘊在胸中，行住坐臥處看是阿誰。若識得，不枉行腳一番苦志也。

示大徹禪者

玄沙不過嶺，保福不渡江，知是者般事便休。今大徹歸來穩坐，真是徹也。此是老僧未面過譽如是，未知果向此承當否？異日再勘驗過始得。

示心見禪者

心與見二物也，心是見乎？見是心乎？心不可為見，見不可為心，況三際求心尚不可得，何處更容見耶？若達心見不二，則頭頭上現、物物上彰，此即心見也。試問：如何是不二？參。

示貫生禪者

貫生者，吾道一以貫之之義也。若達一，無所不一；若達道，精粗無不道，亦是貫之之義也。爾可達否？爾可貫否？試為老僧分析看。

示雲影禪人

老僧鼓笛久未動著，終日顛三倒四，不知有禪參、有道學，忽地撞著箇漢，來老僧者裏覓禪、覓道，老僧當面一咄，云：「此禪耶？道耶？試為老僧分析看。若分析得出，始信雞寒上樹、鴨寒下水。」勉之。

示參微禪人

學道參禪務要心直口快，以一事實，處處皆實；以一事明，處處皆明。安得以「生死」二字不明于其間耶？試問賢徒：還明生死事否？且生死事作麼生明？咄！

示明哲禪者

出家人志要堅、心要猛，將平素所疑所礙之語頓在面前看是甚麼道理，忽地裏得箇休歇處，正好向人天眾中埋著頭行一行，俟功圓行滿時，自是出人一頭地也。

示拙之禪者

曾有張拙秀才參真歇了禪師，真問：「姓甚名誰？」才曰：「姓張名拙。」歇云：「巧尚不可得，拙自何來？」才便悟旨。試將此語看看是何道理可稱拙之之謂也？

示徹也行者

既到出家田地，千自由、百自由，一心辨道千古聲名。處於眾中，先要去高、去慢低心，于一切學得箇好人，把此事做到徹頭處，亦不辜負出家受師教育也。

示明暉禪人

數千里來，未審沿途石頭瓦塊向汝說法否？若說，且道說箇甚麼？若未曾說，即同石頭瓦塊。試定當看。

示雲石禪者

「自從胡亂後三十^年不少鹽醬」，此話出自馬祖之口，又出自老僧之手，且道口說底是？手寫底是？試道看。

示唯唯沙彌

參禪打坐非是死坐，當須要參。且參畢竟參箇甚麼？二六時中默默體取未動念^已前看是何道理？參到情忘念絕處，築著、磕著，不是你，是阿誰？

示九彥禪人

人之利鈍，教之半滿，總之機教不相扣也。若真有不群之志，勿論歲月，以徹為期，已上九仞之山，只欠一簣土耳。

示惺幻禪宿

臨江山水秀麗，產人多奇，有志攻章句，大覺一笑亭，尚遺一笑艸也。牛首惺幻公志在行腳，曾參博山、雲門、南海諸處，叩及人人生死際頭一段極要緊，不從人得一著子，只在日用茶裏飯裏忽地覷破，因地一聲，原來喫瓔珞粥的不是你，呵呵。

示凌虛禪人

古之學者行解相應，行事實，出言吐語無不實也；今之學者行說不一，行在一邊，說在一邊。故于此道隔絕，如山與水不相交涉，水勝山崩、山勝水洩。人用工夫亦猶是耳，但看何者功勝，餘盡隨之勝也。勉之。

示印璽戒子

持戒但束身，非身無所束正是戒體，然而六度萬行無不從此而修、從此而證，故曰修證即不無、染污即不得也。試問不染污者復是何物？參看。

示頃仁禪人

印良吾徒，其志如龍，其勢如虎，人莫知其為何如哉。且老僧不敢張其勢、動其威，只得向他道：「佛也如何？魔也如何？」

示若鏡禪人

山之高者，無出我蜀峨峰，天下第一也。且山中居者，不析言之。若鏡禪人來參，老僧得一休歇，不獨若鏡為喻，且光照無私，但不知果。若是乎，老僧書以佳志俟，異日來痛喫吾棒也。

示爾寧禪人

雲遊萬里，影落長空，飄飄落落，若蓬萊之僊、似靈峰之佛，與世味全淡、與人情甚疏，正是道人行履處。老僧漫書如此，吾徒寶之。

示太和禪人

參禪人無巧拙，一句話頭如鐵橛，瞪起眉毛捏定拳，牙關咬著只教徹，但莫尋思務別緣，驢年難悟真妙訣。如此猛力，只與麼管教，佛祖也難惑。

示慈雲禪人

住世操家雖是小還俗，況學道人無分彼此，即世法、即出世法。所以道：治世語言、資生業等皆與實相不相違背。試問爾等：且道世法與出世法作麼生是不相違底道理？參取看。

示先開上人

人人欲老僧法語，殊不知法語非浪言，實實落落，要當件事做，但看言中有響、意裏無隙處參取是箇甚麼道理，亦不枉老僧舉筆露布如許葛藤。咦！看腳下。

示省一禪者

上古行一羴行即有契悟，近日每每萬行中種種之苦一無契會者，誰之過歟？總為不在道心上著腳。若肯在此中著腳，何愁碓嘴不生華也？

示心安禪者

出家人志須堅、念須猛，行一步有一步境界，莫圖口體難過日子便生退屈，以一念萬年、萬年一念，只要漆桶子快。

示冰若禪者

住山行腳自有來由，本不為別事，總是就中生死不明，向那不明處體究生之來處、死之去處。若明得，即是腳跟不動已遍大千，蒲團不坐已圓聖智也。

示一默禪者

參禪學道固是一番事業，務要立定腳跟，然後日有所進，則不枉辦行腳。見人印可是與非，自是不著著問人也。勉之。

示知圓禪人

打坐參禪貴要腳跟立定，莫被境風所鼓，東去西去，溷過光陰；左之右之，徒勞氣力。只在動靜忙閒處著得隻眼，始知和尚元是人做。

示世美冉居士

世美冉居士兩度來參老僧，意欲老僧法語。欲淺說，恐落世諦；欲深說，恐汝不信。試問居士何如？士只研墨不語，老僧只得露布葛藤一上。吾道雖不文字亦文字。如人迷路，東西莫辨、南北不分處，腳下遲疑，不敢舉步，忽得箇滑石子喫一交，呵呵一笑而已。

示印廣張居士

印廣印達夫婦呈諸色珍物，請老僧露布葛藤。想先代垂示不可枚舉，曾有一外道見須菩提，問曰：「尊者解空第一是否？」者曰：「是。」外道云：「既如是，將爾眼睛珠布施與我。」尊者曰：「來取去。」外道云：「你底物只可你與我取來。」時尊者自取一珠送與外道，外道遂接之，遠遠一擲。尊者見其外道將眼珠擲于無用之地，大聲嘆曰：「我難捨中能捨與你，你如何將我不值灰土？」外道怡然曰：「我將謂你得大解脫，你捨心猶未忘在。」據老僧看來，我張居士想覷破此關則不來也，不獨捨心頓忘，且忘往來之形跡也。

示印常郭居士

大道體寬忙甚麼？大道體寬閒甚麼？如是，則知忙閒皆道務，要二六時中理會以何為道。然而此道非名言可到，一直信到底、悟到底，忽得徹法源底，不倒斷處自是倒斷也。勉之。

示印樂善人

既是坤道，當要盡禮，事夫君之禮、教兒女之禮、敬賓客之禮，法頭頭無不是道。如此固然，但未識日用尋常作主是何物？試參看。

示印我徐居士

元亨利貞，乾之德也；常樂我淨，佛之德也。專一氣而致柔，悟一心而成道，老僧起名「印常」、「印樂」、「印我」、「印淨」者此也。欲老僧名，先要名稱其實，二六時中看是何道理。若一覷覷破，始信世、出世法不是兩箇道理。

示印淨善人

道不屬知、又不屬不知，知之一字眾妙之門、又知之一字眾禍之門。若達此不二，即成佛作祖亦不貴。何也？智眼中容不得一物。勉之。

示印直王居士

吾祖出世，以直心直道為人，老僧故以「印直」名之者，意在是也。然雖如是，要且莫將冬瓜印子印卻。且道如何是印底道理？直底道理？試辨別看。辨別得，擲箇消息來。

示印香王善人

大道不分男女，祇緣不別乎道，然而「道」之一字乃強名耳，只在動靜中識者箇是誰，在動靜不著動靜、在喜怒不著喜怒，此真解脫香，則不負老僧命名也。

示印通張居士

百千法門，無量妙義，只向一毫頭上識得根源也，故名之曰「印通」。此通非只圖妙義種種法門，即自身五眼六通毫無留礙，如耳根圓通亦如是也。

示印仙魏善人

三教聖賢勿分彼此，佛何如、儒何如、仙何如，但以仙名之，即儒、佛亦在其中矣。雖然如是，要且不是各人了生死極則處。且如何是汝了處？汝若了得，不須著著問人也。

示印志居士

為人向性命中從事者，一切世務千了百當，心不與境對，此是沒巴鼻，但到者箇境界，連佛也不要做。

示印桂劉居士

學道勿論在家、出家，貴要信得及、把得住，看我從無始已來者箇本來面目是何形段，忽地裏覷破，因地一聲，只落得呵呵一笑。

示印善涂居士

人人本具，箇箇不無，只是迷背日深，無明煩惱作障，不能復其本明，不得真實受用。如磨鏡法相似，去了一層又有一層，麤中有細、細中有微、微中有密，直待垢盡明現，到那無下手處，一段光明埋沒不得，此是真受用、真快活。試問居士：曾恁麼一回也未？如果恁麼，亦不枉在雙桂門下喫幾日淡飯也。勉之。

示印春牛居士

明了其家所歸道路，當知家在何處，即一動一靜是家，而何非家？而何若諦當？得出腳下的是何物也？

示印見陳梅菴居士

人生天地間，富與貴人之所欲、貧與賤人之所惡，然而富貴不能淫、貧賤不能移，始是出格大丈夫。如我釋迦老子富有四海、榮啟萬乘，一旦棄之，入雪山六年苦行，睹明星悟道，為人天師，豈非從富貴中出世度人耶？今我陳居士夫婦發大乘心，請禮老僧指點出世之路，只得向伊道：不是心、不是佛、不是物，且道是箇甚麼？於二六時中參取看。若會得時，擲箇消息老僧拄杖頭也。

示寂高沙彌

小小沙彌當立志，朝參暮請求深慧，休將頑戲溷時光，漫把工夫稍小易。動靜忙閒莫放過，焚香掃地休擬議，如常學到我之年，畢竟佛門成大器。

示發力劉居士

既能喫齋，已行佛事。欲老僧法名，立大丈夫志。老僧慮其力所未堪，漫莫與人同鼻孔出氣。

示發機陳道者

老僧預世安貧自守，今日不作來日計，以本分事為人，痛與棒、熱與喝，直下頓了生死，勿論貴賤賢愚，但有是心者亦復如是。欲老僧起名斷除煩惱，只得向筆尖頭上說法也。

示鳳臺毛居士

學道參禪不在別處，只在吾人方寸中默默理會，看見聞覺知者是阿誰主張，忽地裏覷破，因地一聲，原來伸手就在縮手裏。勉之。

示去慵上人

平山勝概，巴水豐隆，其實地靈人傑也。雖生亂世，始終無患，復啟此山，如龍得水。試問營營終日還識得此忙閒否？

示禪源戒子

老僧取號「禪源」者，深有意焉。此禪出自何來？為我鼻祖西來示一大意，外息諸緣，內心無喘，身如墻壁，可以入道。今得吾戒、習吾訓，若依此參，終成大器。

示心空禪人

既為佛子，當報佛恩，所行佛行。然而佛行者何？只在閒忙動靜處著隻眼，看是甚麼。

示真空戒子

受戒之後務要堅遠大志，以生死為極，則二六時中看生從何來、死從何去。若會得生之來處，死處亦明，忽然情忘見絕，即是真持戒、真了生死人也。勉之。

示明睿禪人

竹陽葉氏之子，與吾同鄉，從亂而治，出家固善，務要學出世法，死心蹋地看箇話頭，始不負出家之志也。且道阿誰拖你者死屍來？

示明宗沙彌

小沙彌須勤學，莫圖受用生懶惰，早晚佛前植正因，師承喚處要斟酌，忽然知得此中意，便是一生真快活。

示恆圓禪人

只因一句隨他語，萬里千山走衲僧。且道者一句作麼生會？若是會得者一語，便歇下腳頭，歸家穩坐；若會不得，且向二六時中猛著精彩，看是阿誰主張？忽地裏會得，因地一聲，其來成佛舊矣。勉之。

示天峰禪者

既為佛子，當報佛恩，然而報恩之事卒難言之。若體取得如何是佛，報恩在其中矣。

示石林沙彌

既是當家種艸，二六時中切莫偷安學懶，打起精神，看我早晚事奉師承，但憑誰力？參之。

示六也沙彌

妙年英姿，切不可學懶貪睡，溷過日子，只須向忙裏偷閑，以日繼夜、以月繼年，或學、或參，執此兩事，學不圓參，參不透不可以志退屈，畢竟此事為賢？為聖？非虛語也。教中所說句句實語，亦非狂誑虛謬之談，來哄世間眾生者，但二六時中四威儀裏看是阿誰主張，忽地裏覷破，一生參學事畢。

示海玉李居士

為人在世，賢愚雖是一定之理，然賢者未必全賢，愚者未必全愚，在一念回光返省，頓然成佛無疑矣。

示太宇蕭居士

學道如登萬仞山，一步是一步工夫，及至登極頂而小天下，始信不離腳跟下。若向此理會得，一念不生全體現，十方無處不毘盧。

示亨我王居士

老僧不善書，忽得山人王居士苦索其書，只得書一絡索，曰：「猴愁搜搜頭，狗走抖擻口。」試參之。

示東也侍者

禪和子漫沉吟，行腳終須到碧岑，行到碧岑轉身處，左之右之無回互，遠望天涯星月孤，蒲團坐上嘴盧都，我此攜瓢化飯喫，人人道我不爭氣，喫飽齁齏一覺眠，何愁佛祖開因緣？只此了然無一物，千聖出頭只咄咄，老僧不問若如何，與子一篇長露布。

破山禪師語錄卷第十

（襄州洞山三世孫發海 辰州黔陽廣福山三世孫發傳同刻破山和尚語錄第十卷
堆藍弘禮禪人對 秀水謝文英書 嘉興倪天章刊）
（康熙庚申年孟春月吉旦，禾郡楞嚴寺般若坊藏板）

法語四

示本一禪人

數年來不欲與人書法語，其法語猶多，世人竟不知是策進語，急欲要人更進步，到那無抵止處自解轉身。喫老僧棒、受老僧喝，則不被諸方熱瞞，始知老僧棒喝落處也。

示遍慈飯頭

無上妙道，在人久受勤苦乃可得成。然雖如是，先要在變生作熟處具得隻眼，始知飯是米做。

示瀛洲禪者

天地間且莫成佛作祖，但得本分為人即超佛祖也。然雖如此，誠恐日就月將，如何保任？

示雲拙禪人

參禪行腳是我衲僧家本分事，雖然如是，要且不識西來大意作何話會。試問爾輩可會否？若會得，一種是英靈者；若不會，向二六時中將箇話頭蘊在眉毛睫上看是箇甚麼道理，忽地裏覷破時，正好到老僧處喫一頓痛棒也。勉之。

示正一禪者

參方行腳先要具參方眼，見人好惡、知人動靜，始稱為英俊衲子，知是者般事便休；若或未然，二六時中不可虛度歲月，或在一機一境要知箇落處始得。

示靈碧禪者

發足參方，遠塵離俗，所圖何事？惟要痛念生死，看生從何來、死從何去。若識生之來處，死處亦會，則不枉千山萬水艸鞋行腳，步步蹋實地，不疑佛、不疑祖、自己亦不疑，此真上根利智人行履也。

示驀直禪人

參禪學道，先要有出群之志，生死心既切，一日自是與一日不同。正如日新之益，愈切愈有親切。然所切之念，只看日用動靜是誰著力，參。

示六吉禪者

觀山翫水，負鉢擔囊，以為行腳則非也。必須痛念生死，求一決擇，覓訪一方一境明眼知識叩其關頭，得轉身吐氣時始稱行腳矣。

示些些行者

割愛辭親，志立遠大，究竟成佛作祖，畢竟以怖生死心重，所作所為自是如願如志，不著著問人也。且道如何是怖生死心？試參看。

示伴雲禪人

昔佛降生王宮，來此娑婆世界八千返尚莫能盡眾生界，而諸弟子受佛敕轉化無窮亦不能盡者，其說有二：一者、行無緣慈，二者、行平等慈。故二不能盡。惟始初一念未起時，看是一？是二？參。

示湛旋禪者

參禪打坐貴要明心見性，不徒死坐以為究竟。四威儀中以坐為上，然坐裏默默體究，看我者一念從何處起？忽地裏覷破，始知就地登高易，從空放下難。

示寂光禪人

萬竹山中已是三載，學得一箇癡獃，有時[跳-兆+孛]跳出去，跨鶴乘雲自來，欲待老僧懸識，頻看碓嘴華開。

示卓爾禪人

為法昔有神光，為人不若船子，人法況有所長，今昔豈無至理？若如是會，卻較些子；其或不然，腳跟下薦取。

示聖意禪人

老僧行徑只令人疑，不令人信。信，一時也；疑，永劫不忘也。然而信乃入道之漸，疑乃悟道之因，不疑則不悟。試問：以何為道？以何為悟？以何為疑？急參去。

示引之禪者

水中有乳，人莫之見，在鵝王擇之矣。如爾之見地，阿誰知之？在人教之始成大器，亦猶擇乳鵝王也。

示西來禪宿

學道人立地處要穩密，不被境風鼓動亂卻道心。試問：如何是道心？不是心、不是佛、不是物，即此真道心。若會得來，與老僧通箇消息。

示雲南法空上人

雞足之下帶一粒粟撒遍大千，亦能殺人、亦能活人，當暴日而愈毒、著疏雨而愈芳，德澤恩輝付千鍾而無盡、忠肝義膽盈萬斛而有餘。可以語大，而大也盡涯涘而莫見乎邊表；可以語細，而細也控微密而莫審乎中藏。變生作熟，足饑人之飽餐；點鐵成金，稅窮子之價值。感其夢也，惟豎一指，復其問也，驀口一築，孰能疑之？悟之？雲南子！參之，則不負大迦葉發一微笑也。

示叵得印安禪人

世稱之為跛鰲，此何說耶？是人之難能處爾能之，即無用為大用也。數年來固識之，欲老僧更法名者，養子之緣熟矣。勉之。

示厥中戒子

持戒、犯戒兩種，猶來鏡上塵。若得垢淨光生，始知執手抱身心月淨，吻唇啞舌戒珠圓。

示雲倚行者

肩頭腳底知輕識重者、拈匙放筯提起放倒者、屙屎撒尿撩裙縛褲者，如是種種不勝枚舉，且道是誰？參。

示繼竹禪人

偶坐間，忽繼竹呈卷索法語，老僧非吝慈，從上老古錐出一言、吐一語，急欲要人務本分事。我衲僧本分一著貴脫生死，每每禪家流都去尋章摘句，華簇簇、錦簇簇，以當生平，並不說起生之來處、死之去處，是何道理？倘若會得，伸手原在縮手裏。

示自若禪人

吾鄉有僧號自若，從亂而治，幸免此大劫運。來參老僧，蒲團幾破，未知與此道何若？如果有相應處，試為老僧道將一句來。

示獨吼禪人

如來一音說法，眾生隨類得解。法無定旨，機無前後，總在就裏諦當，法法頭頭無不從此一音演出。若會一音，萬籟俱靜。此音不在別處，即在昭昭然心目之間、晃晃然色塵之內，若體取得，一生參學事畢。

示語之禪人

既為佛子，當報佛恩。然佛恩者何？先佛捨萬乘之榮所為何事？諦審此事，不在別處，只在日用尋常見聞覺知處討箇分曉，佛恩、師恩、親恩，一時報畢。

示策眉禪人

學道無分老少，只要信得及。此信非從外來，即是日用穿衣喫飯、迎賓待客、屙屎放尿、一動一靜處看是阿誰主張，所謂「尋牛須訪跡，學道貴無心」是也。

示悟一禪者

學道如登萬仞山，行一步是一步境界，畢竟要亡身捨命，一直到頂。萬萬不得至時，莫生恐怖退屈，自有到頂時也。

示我非禪者

既到出家地步，無榮無辱，穿現成、喫現成，百事不干懷，行住坐臥莫放過話頭，或參念佛是誰，只看「誰」字下落，忽地覷破，一生參學事畢。

示寅水行者

同善知識住，行善知識事，日久歲深，漸以成褫不遠矣。若只是計溫飽圖過日子，豈能搆得佛祖地位？祇做箇光頭百姓耳。

示惺若禪者

老僧病得，此子治藥，臨行乞法語，只得書幾字佳志。試問：未動念、未舉筆前是甚麼消息？速道速道。

示深居禪人

人有南北，佛性本同，只要腳跟穩當，不被境風所鼓，日益日損，漸有成器。恐念頭不真，隨邪逐惡，朝三暮四，唐喪光陰，虛溷日子，縱有行如普賢、功超彌勒，終是忘家浪子。

示圓虛禪人

既到為僧田地，千自由、百自由，若住、若行，何人關礙？只是就中穿衣喫飯、迎賓待客處分曉得，不疑佛、不疑祖，便是放身捨命之時也。

示吳孝廉

做工夫、參話頭，雖是先德權巧方便，多令人鈍置，終其身尚莫能頓了、直下無疑也。試問二六時中作主宰者是誰？參之。

示印道黃居士

世、出世法，一法所印。凡心、聖心，總歸一心。若得一心不生，萬法無咎。且道如何是一底道理？參。

示宜城伯龍淵王居士

大手段人從戎馬中走出，是真豪傑、真為生死人，但未知平素入道機緣何處得來？從人得？自性得？雖是自性宗通，亦假稟受師承。爾師三際已過世矣，今來欲老僧法語，只得露布一上，試問還殺人否？

示石砮司官馬嵩山

處豪貴家，視名利如浮雲。淡酒色如猛虎，遠之又遠、棄之又棄，浩浩蕩蕩，飄然物外，氣宇如王，得法法頭頭適心適意，自然出古聖先賢一頭地也。

示玄旨禪者

道屬修，不可不修；禪須悟，不可不悟。則知禪道要人修悟也。且道如何下手？正在疑處即是悟處。

示山明禪者

既出家為佛子，當報佛恩，萬魔不能入、千聖不能留。且道魔的是？佛的是？若于此會得，亦不負出家，千了百當，潔白漢子也。勉之。

示塔坡禪者

老僧曾住此山，經今不覺十有四載，忽過平山，雖聞賢孫宦門子弟，而一旦出塵，忝為吾門覺城之高足。寄紙一幅欲老僧法語，老僧合掌向渠道：「誰縛汝」三字參之可也。

示再三禪人

三思而行，再思可矣，此是聖訓，仁者號之，有意存焉。然我釋迦老子道：「惟此一事實，餘二則非真。」尚有一在。僧問趙州：「萬法歸一，一歸何處？」州云：「我在青州做領布衫，重七斤。」一佛、一祖，且道意在何處？試參看。

示紫蓮禪者

學不言之道，非筆舌盡之也；悟無影之禪；非手足蹈之也。然而學悟雖殊，究竟到家一也。且如何是到家的消息？道道。

示發盛行者

自出家來，重行輕務無所不到，福雖有而欠慧。若明福慧兩全，急須猛著，精彩透露者一著子。

示萬仞禪者

茂年英資正好努力，四威儀內看是阿誰主張。若向此會得，還鄉盡是兒孫事，祖父從來不出門。

示如岳禪人

老僧曾避亂於石砮三教寺，得聚首有年，不意出忠南，過高梁，復建雙桂堂居之。一日忽見如岳禪人來參，老僧遂同居一載，每每叩其所以，深有得者，老僧命主書記。一日持卷欲老僧書法語，只得向伊道：「也是蠟人向火。」勉之。

示可度禪人

老僧種田博飯喫，一日可度禪人來參，問老僧曰：「如何是雙桂堂前舊主人？」老僧云：「還不識麼？」可禮拜云：「也須問過始得。」老僧驀頭一蹋。若識老僧一蹋，不惟舊主人，況無始無明，頓然了悟。

示玉林上人

數年來者鼓笛久未打，忽到天城，小行腳過磬城，值玉林上人欲老僧書數語嘉志，老僧只對伊道：「過蟻難尋穴，歸禽易見巢。」

示恒玄戒子

受菩薩大戒，所行菩薩事即入諸佛位矣。既爾如是，且道何為菩薩事耶？但有利益，無不興崇。試問爾輩：說得行得否？其或未然，待獅子峰點頭即向汝道。

示脩柴頭

萬行中，苦行是第一行也。然而諸行是無常法，何足要為？老僧只對伊道：不願柴開，只願斧脫也。

示印宗禪人

春光明媚之際，正好伸腳打眠。忽到來新衲僧，說其故曾中甚麼人毒來，遂參萬法歸一，未審一歸何處。老僧徵曰：「且道何為萬？何為一？」試辨別看。

示知微禪人

橫寫豎寫，只用一張紙；千說萬說，不用一箇舌。且道寫、說不到處是甚麼一段光景？試道看。

示已純戒子

得授諸佛戒，即入諸佛位，既是諸佛子，利益諸眾生。然而自利、利他之謂，從五戒至菩薩戒一一俱要皎如冰霜，無絲毫過犯始可入此沙門，得近大僧，參生從何來、死從何去，忽地裏漆桶子快，付一笑而已。

示朴存禪人

以老朴實，故曰朴存。在平都山上曾與吾共住，尚未語一言。老僧到雙桂堂，又來共住。一往一來，且道沿途荊棘對汝說箇甚麼？若知，則不負老僧寫法語；若不知，只待蹋破艸鞋，劃開腳指，鼓掌呵呵，笑到日輪當午亦未休歇。

示又甦禪者

為人到那死心蹋地尚不能惺悟，肯就中分曉極省力、極易得理會體取者，不動、不靜，不增、不減，平平常常似有物在，者物不必別覓，只在見聞覺知一切處識得便休。何以故？尋牛須訪跡，學道貴無心。

示旨一禪者

參禪、學教，二法門有深、有淺，然深者禪、淺者教，但形言語即麤相分皆教也。若達教之了義，即禪亦是如來禪，非祖師禪也。古香嚴所謂「昔年貧未是貧，今日貧始是貧。昔年猶有卓錫地，今日錫也無。」仰山曰：「如來禪許師弟會，祖師禪未夢見在。」嚴復曰：「吾有一機，瞬目視伊，若人不會，別喚沙彌。」仰山曰：「且喜師弟會祖師禪也。」如來禪、祖師禪自此分也。若會得此，禪道亦在其中，不須著著問人，自是有倒斷處耳。

示印真劉夫人

天地間人只欲貴而不欲賤，殊不知貴亦如是，蓋生死貴賤如夢、如幻、如影也，直是就中隱隱濃濃一點靈光不昧，與生死際頭一點用不著，者要分曉得明白。且道者著子分曉處作麼話會？試參看。

示含章張夫人

此事只要信得及、把得住，二六時中，茶裏、飯裏，一切處看是阿誰主張。此處看得破，當下無生死可怖，直到那不疑之地，亦無男女相拘、亦無聖凡見隔，淨盡無餘，正好作福以作資糧，漫道老僧又在打妄想也。

示尼發聞

道本無言，因言論道。然而「道」之一字猶是強立，且所學非朝夕，志在恒遠，則不期然而然，自是與道符合，契取本來面目也。

示尼佛然

此佛然者，乃吾鄉人也，幸出俗為尼，有志於道，來老僧處受具足戒，臨行欲老僧法語，非老僧吝慈，誠恐道力未堅，況有夫君兒子

為累。若必欲老僧一言嘉志，老僧何敢辭之？只有兩句現成公案。何也？三醉岳陽人不識，一朝迴出萬人頭。

示尼性空

出家為尼，務要形端影直，既是千不能、萬不能，正好靜地裏討箇分曉，看是阿誰。行住坐臥中畢竟是誰主張？忽地看破，始信師姑原是女人做。

示尼惺惺

人生天地間，若賢、若愚，所貴忠孝有節，即是聖賢不墜之命脈也。試問：二六時中存心向道，覷破此箇關頭，佛也不要做，何況賢良節乎！勉之。

示尼若蓮

百華中惟蓮華為最，所喻大道坦平，令一切人行履得若蓮華出自污泥而不染者是也，即成佛克果不二也。勉之。

示尼見微戒子

持戒之人不上天堂，犯戒之人不落地獄。若向此處理會得，無戒不持、無生不度，即此是真持戒者。勉之。

示尼聞修

從聞思修入三摩地，初於聞中入流忘所，所入既寂，動、靜二相了然不生。且道如何是不生處？

示光著禪人

者髡禿兒子不識好惡，到老僧處且不求道、且不問禪，只要求字。殊不知一字一句深錐痛箭，要人解、要人悟；人多以字作障，竟不以字作解。只看老僧未舉筆前是甚麼字？若悟此，始信西來大意何關文字。

示禹若禪者

欲老僧法語佳志，恐當機直下，卒難承當。試問：爾志為何？若為生死，且生不知來處、死不知去處，為老僧道將一句來。

示澄月禪人

人生天地間，一切好惡靡所不見，然而見之有餘，只在目前一機一境端確其念，如澄潭秋月，觸波瀾不散者，即澄月吾徒得之矣。

示祥雲行者

六度萬行，隨行一行，不枉空門中走一回。凡有輕重雜務不可躲，乾巧妙奇言不可易信，只知自己有箇無窮寶藏，若不自守，沿門乞食告窮，此是自暴自棄也。試問如何是汝無窮寶藏？咄！參。

示智初禪人

為僧一番，不行腳幾日、不識人好惡、不知人賢愚，空過一生，甘付死門，歷恒沙劫不得出頭，真可憐憫者。必須親近一善知識，究明大事，方得出離生死也。

示光徹行者

碓觜開華，磨盤開口，說向人知，轉不唧溜。咄！若是箇人，莫落人後。

示脫塵禪人

神光二祖初見達磨大師，某心未寧，乞師安心，大師云：「將心來與汝安。」「覓心了不可得。」「與汝安心竟。」試問爾等：曾恁麼一回也未？若恁麼，何用取我求實？

示等持禪人

具足住山氣岸，痛與「生死」二字如遠蛇虎，畢竟步步蹋在潔白地上，左窺右盼，并無舉心動念生恐怖處，即此定當到家消息，一棒打折驢腰，莫言不道。

示瞿止禪者

北道來者禪不參、道不學，只要老僧寫篇語句、寫幾箇字以當生平，誠然是邯鄲學步，自醜不知。老僧萬不得已，厚著面皮說兩句以了來意：棒打石人頭，曝曝論實事。

示含明禪人

儒宗尚要十年窗下九載熬油，況我釋門亦要六度萬行，始可不負為人來天地間走一回，作箇出格漢子。若然如是，一般苦志徹頭徹尾，自有一段氣岸也。試問：此徹頭徹尾在甚麼處下手？即二六時中一切見聞覺知處看是何物？參看。

示發秀沙彌

小小沙彌立大志，其中深染聖賢習，有時吐霧復吞雲，獨出群峰愈壁立。愈壁立，哮吼一聲天地寂。

破山禪師語錄卷第十一

(三世孫楚鼎州中邑發微 武攸蟠龍合選 蜀芙蓉草堂滄水 夔州開元印尚 內江發通同刻破山和尚語錄第十一卷 堆藍弘禮禪人對 秀水謝文英書 倪君亮子倪天章刊)

(康熙庚申歲仲春月吉旦，禾郡楞嚴般若坊藏板)

書問

與雪灘陳太史

壬申冬，初寓白下極，談「向上一著，如空合空，似水投水」，甚適貧道披百結衣、喫瓔珞粥之苦心意，欲與閣下再打者鼓笛，方辦故園行腳，不期機緣，偶就俶裝。即行後，靜菴拈出閣下所惠扇頭，上布施佳詠兼承秘集並盛貺，未伸致謝為歉。然靜菴歸院機緣不果，總之，靜菴有要建吾祖之棒喝，而無緣費荊南之水土。貧道有費荊南之水土，而無意施吾祖之棒喝。是二者欠福，非閣下嬰重之心不悉也。貧道癸酉春抵川東梁邑，結茅於萬峰，承馮善長、朱維豐二孝廉就此構數椽千指，遂成叢席。舊額太平禪寺，經今無跡，請閣下筆尖頭題幾字，作東川最上乘法施。何如？

復華仲李孝廉

來諭，欲病僧與門下通嗣書上天童者。不覺動病僧悲喜一番也。何則？吾佛為法降生皇宮，亦未見有行染度人者。《傳燈》所載宰官達士，亦未見有遞代相承者。據此則動病僧一番悲也。邇來法門寥落，多見道俗力行此事未能盡善，但是口口談空、步步著有、少見一箇半箇具些血性者，據此則動病僧一番喜也。然而悲喜的荷大法之職任，非同小事之勉強，門下與我老和尚築拳轟掌，痛快數番處，非從法印，安有自肯耶？既自肯處便是休歇處，如別有法印、別有肯路，則病僧鼻孔不代門下出氣。此復。

復伯井馮銓部

憶昔龐居士云：「十方同聚會，箇箇學無為，此是選佛場，心空及第歸。」此語正合門下未動腳跟選佛場中，先有及第之兆，若任萬峰法社同貧道打者鼓笛，將見楊大年、張無盡輩又起於今日也，且喜且幸。大約彼何人也？我何人也？貧道未若昔時之宗匠，門下望風趨遠，腳跟下未獲倒斷，是貧道咎。然今人易說而不易行，昔人易行而不易說，最難在如說而行也。為來諭言：「何以教之？」只得狐涎直吐，莫被沿途瓦礫荊棘重為門下註腳耳。

谿山雖異，雲月是同，門下可就中分曉。如擲劍揮空，勿論及之不及，貴承當而不貴推托也。如是，則世、出世事泮然無疑、不疑，曷容了當、不了當而二其說哉？來諭云：「及身履其地，日夕百冗，那得半刻閒功？」者是必不本而說焉，莫是為不本者說也。論忙，莫忙於醉名醉利之輩，尚經塵劫而易可挽；閒，莫閒於耽空耽寂者流，稍歷片刻而莫可化。誠哉，所見未嘗異，而所造未嘗同耳。龐居士道：「但願空諸所有，慎勿實諸所無。」亦灸此病，諒門下患是病，待貧道誤加艾丸也。

舊歲新春，曾奉艸東二次，不知可到否？緬想門下德體清寧，化風舒泰，語道日有益也，是以覺民惺世不亦確細哉。今年家得一快事，不以自私攀貧道，荷昔囑咐耑候門下拂袖歸來，究竟末後一著，不識以為何如？因鴻便附幾字上聞，未有逼生蛇化龍耳，須仗雲片片、雨霏霏，助新中慶現躍飛騰一上，何如？

復訥夫程居士

病僧終日沉痾，但不知塵勞中有如是猛士，肯於忙閒裏、生死上著得隻眼，窺天鑑地、識人好惡者，想居士夙熟此機，方具如是氣岸也。幸甚，幸甚！來扎起起倒倒，似乎未經大作者在，不無在方冊上左穿右鑿覺些影響的，未到大歇大休與古人同一鼻孔。只如所拈「狗子無佛性」話，於「看」字作敵迫，到身心無躲避處，一息一是外物者，正未見古人下落處也。何則？因僧問趙州「狗子佛性有無」話，趙州亦向有無處出身吐氣，活鱗鱗地露盡本地風光，無絲毫關攔阻滯，正我臨濟下行棒行喝亦爾，那有許多動動靜靜、惺惺寂寂而二其間哉？如是領略、如是究竟，必不作鬼窟裏活計，亦不慮無出頭日子，自然頭頭合道、事事如理，則會有異路語、會無異路語，及至千七百則淆訛更淆訛處，更不疑佛、疑祖、疑生、疑死，至矣盡矣，無以加矣。遂喝一喝，云：「更見葛藤遍野。」

復開縣諸檀越

病臥雲窩，莫知天外更有奇人物也，切為生死輩善能內秘外現，共貧道搗塗毒鼓聲徹遐邇不？亦靈山一會，儼來盛山臨水間也。諸君子！掩耳知音不下昔人一箇、半箇。大約今冬未得如命，稍待薄雪驚梅、輕煙弄柳，走諸君子前飮領咳唾也。

復新寧眾檀越

虎口橫身，佛頭著糞，乃沒性命人行履。承眾檀越遠念山緇一場，特地敢以顧性命而後為乎！只得將牛山句子勉強道出，向來與未來、似而不似處好與三十棒。何以故？山僧本分艸料不可放過，呵呵。

復猗蘭李文學

來翰總為開眼尿床、夢中說夢，若是真徹證者，安有比擬引據而著其間哉？只如門下眼中更容何物？金屑雖貴，落眼成翳，況生死心未破？且不擬未破之心何狀，反去爭空華之濃淡、較兔角之短長，可謂不曾實落一番耳。既向教中見「不應取法、不應取非法」者，即此豁然，不可謂頭頭物物上之不能也，而門下終不出山野開眼尿床之句點著，餘不多布。

復宕渠流長蘇縉紳

山野別無他緣所緣者，人人之有所正者、不正者，然正者載道之器也，不正者禍道之根也，且不惟自禍而禍人，終不如初未見未聞時全然不染者，始有學道分。胡不聞己眼本正，因師故邪？向為門下志存格外，故施腦後一槌，莫罪。

復樵李眾縉紳

病質庸才，寧得赴緣趨世，焦芽敗種，止可塞壑填溝，是山緇素分，豈強言哉？恭惟諸檀越，不忘靈山付囑，遠念山緇欲振像季之頽綱，克紹古時之正體。玉帶鎮山門機隨時變，衣鉢傳俗士事在人為，豈謂天地有古今、法道有僧俗耶？承教有言「美酒不妨深巷，唱歌本在帝鄉」者，誠然與山緇一劑清涼散也。大約此舉自合有主、興廢自合有時，山緇才力曷堪任此？因竺微禪人回聊寄寸楮，奉復不宣。

上天童密雲老和尚

時荒世亂，津路難通，物顯貨名，人心易變，是以寸敬無伸，一來有愧也。恭惟老和尚婆心不歇，作將來眼，駁辯若懸河，闢妄如瓶瀉，邪謬之風既盡，公直之旨重揮，致令野狐涎三千里外吐亦沒交涉，獅子乳震旦國內滴亦盡承當。不肖海明，劣志丘壑、病骨弱倫，逢吞雲吐霧之士匪可加額點胸、遇捕風捉影之流寧教放身捨

命，以此之益用報深恩，恐罪戾於法門，陳情悃於座右，乞師寬涵，不勝惶悚之至。

復海鹽子穀蔡居士

世治、世亂，則名利皆禍根也。喜門下不以名利為活計，清貧自守、安逸自居、道德自盡，真可謂吾不如老農老圃也。門下竟不謂山野作如是觀，反欲山野入廬、出廬，得非名利而禍根哉？且江南法匠莫可枚數，豈少我者腐物？尚容秋間往天童省覲，面悉謝謝。得見舊知手教，如隔世忽甦，味金章扇頭，真肝膽不相離也。令郎高中，榮任江西，喜甚喜甚。然老僧江西曾建一叢林百福寺，幸有賴矣，想大劫運後，爾我音信相聞，萬福萬幸。只緣不得縮地術，一時難面，俟五丁再臨三峽，始復團話，未可料也。

復嘉興眾孝廉

接手教知諸公以鄉情話拔我、以文字禪益我、以師資禮盡我，誠然是靈山佛口所生之子也，我何敢辭？自媿一腐物，正不堪與諸公把臂，而諸公尚不屑此腐物擲向何地，則彼此懸念，幾欲速就，恨萬峰造工未畢，俟秋買舟往天童省覲，過訪再商。

復昭覺惟一上人

吾儕忝圓悟老人後裔，而老人道場聞兵燹廢，致令不勝淒楚，幾欲走訪遺標，竟不晤昭覺一人。忽扎教遠頒，兼辱珠璣種種，始知價重連城，而諸家自減寶色也。大約近代學人鼻孔少正，逐臭聞香蹉過香臭來處，宛如瞎驢趁隊亂隨其影響耳。若是真正道流，必審其源、正其鼻，則源遠不替，安有隨影響逐香臭為哉？且足下固非此中種草，第恐日深日厚，亦偶從之，不得不直言說破，諒足下非不具者隻眼也。

與雙峰寶座上人

枉駕萬峰，慢慢山野雖未向座下吐超佛越祖之談，畢竟沿途瓦礫荊棘也放不過。第不知曾覺悟否？如是悟，則迫智而自亦智也；其或未然，不可終日癡癡蹉過，觸著絆著好消息耳。

復字水上座

客歲承汝書來，因清虛與石蒲取衣鉢故，附幾字奉復，亦非吾儕多事，好逞詞鋒與人敵勝負也。雖名汝到萬峰捨取鼻孔之句，是憐兒不覺醜也，孰料反引汝之如許議論，誠然吾之罪過，反令汝未夢見此鼻孔也。何則？吾之鼻孔固是人人有之，怎奈塵埋習染，若不到過來人前拾取，終落天然外道。而過來人者，則佛祖、天下老和尚也，若不有此人，安有此法悟？此法則同此人，同此人則同此鼻孔也，寧是以有無來見此鼻孔哉？以汝有無來測此鼻孔是肉鼻孔，且謾遼天也。若是多鼻孔而成多人，尚莫笑吾，只可自笑。不見馬祖座下出一百八十餘員善知識，得非多鼻孔人耶？亮座主隱遯西山竟不出世，得非沒鼻孔漢耶？汝之議論好笑，吾悉知之，一任將大地作紙寫來，亦只不理也。

復破雪關主

接紙目過，中有數言一味自作主張，更不從人求解會，似則也是，是則未似。何也？先代雖有一二做自了漢者，殊非以隻目視天下，或時語、或時默、或時歌、或時舞，綽綽然有吞雲吐霧之氣，豈如汝之乎者也如是溷用？謂之是，自釋其根方纔不解而自解也；謂之是，若有所作則禍事生也；謂之是，饑則餐兮困則眠也；謂之是，倦則行兮樂則吟也；謂之是，鼻孔浮面上，更不用躊躇之驚人句也。羞哉，誠恐是邯鄲學唐步，癡人效浮水。然而唐步、浮水固非朝夕之志，務先久而久之，慣而靈、熟而妙，步舞於畫堂之下、游躍於滄溟之中，則不受辱溺之患也。而邯鄲癡人見唐步、浮水之善，亦起學效之勢，欺言我且更善，忙於走、急於游，卻喪命於滄溟之中，出醜於畫堂之下，得不是自欺自詐者乎？汝之病根深結甘草、人參之毒，烏可更用人參、甘草解耶？復云非人解也、非藥解也，要在自釋其根。試問汝：根作何自釋？若以自主張處是自釋，又同人藥解耳。何則？自釋者誰？根復何物？以自釋根翻成對治，非人藥而何？思之。

與瀑崖高居士(諱射斗)

白兔亭邊一別，耳耳時布德音，蟠龍洞口雙趺，念念日拈宗旨。矧夫佛日西沉、祖燈夜寂，伏希大檀越傲出煙郊雪野，忽地七華八裂，驚開老樹新枝，瞥爾千紅萬紫，則此日穿天下人鼻孔，其誰也歟？山緇仰慕，為起已墜之光，再燄西沉之日，重東天魔、地魔拱擾，王道、佛道並行耳。

復大石長老

來諭云「性雖不二而相不容泯」者，致令山野可發一笑。何也？人人本具之性要之不出兩種，則善性、惡性是也。廣之，則有無量，難可具說。然「性」之一字猶是強名耳，何謂之不二，獨存乎一耶？既堅之是一，而相復何相？是性外之相耶？是相外之性耶？若是相外之性，則相存性亦存矣；若是性外之相，則性空相亦空矣。夫二者互存互沒，本自活物，烏用捺之？不二不容泯者，誠恐是葛藤窩裏藏頭縮尾漢，卻中六祖道「亦是知解宗徒」耳。故山野不得不直速拈出，倘異日面座下仍此不悛，一棒打折驢腰，莫言不道。

復觀止法師

不慧數年內痛慨吾蜀儘有英靈輩，卻不逢時走入毒海，自謂便宜，以毒毒人而不覺害之甚、甘赴死門者，難以枚舉。如公之一面便肯快意鉤頭，則亦入毒海之未深也，且喜且幸。及讀和偈，稍可相信不遠，第其中意句聯絡還再斟酌，急莫與人露面。近來人聰慧者多而泛識，不取意而取文取句，殊非合局，則是以言廢人。古之所謂「語不驚人，誓莫開口」良有以也。公苦欲不慧作碑文，恨未博學，欲辭之，恐煩復索，只得寄數語塞責，祈目遇擲之以焚，則他日別，不謂亦是毒海中的一滴耳。

復竹陽太乙王兵馬(諱錫燦)

貧道垂髫時視鄉黨中人多脂粉氣，今幸門下高出一頭地者，想是鵝王擇乳素非鴨類耳。承念，謝謝。

復竹陽鳳山李居士

廿三日回山，開手教讀之，恨不鼓翅到剎竿頭，奈住持事繁，則錯過莫大因緣也，憾甚。然吾邑中多沙門、廣精舍，只以溫飽為活計，但提此事怖為毒害，寧喜山野向佛頭著糞哉？承居士雅愛，痛法門落魄，欲山野唱還鄉曲，待秋後再商可也。此復。

復林文學送字畫

驀筍相逢，傾湫倒嶽，居士夜明珠錯撒紫羅帳裏，令貧道不識好惡，向文不加點處走漏消息也。呵呵。

復湛清俗諱黃至道

初入蜀時，聞汝名喧宇宙，第不知伎倆何若？未幾落塵，亦未窺汝是真俗漢子也。昨因華扎吹來，欲吾儕分星，撥兩板齒生毛下一轉語，卻致吾儕呵呵大笑，始知是真俗漢子，莫道吾儕未向汝荅轉語也。

復歐道人

山野問汝本字何說，正欲要就中分曉，勿使染淨不本。汝謂「孩心無物染則是有物染」則非，大都祇認一邊是本，殊非染淨一致也。何則？且孩心時所見所聞與老大時見聞何異？所異是習，不異是本。達本，則法法頭頭皆本也，烏認性初為本哉。又謂荅「我只覺天高，何有雲高」者，致令山野發一笑。何也？胡不聞前代有詩云：「廬山高萬丈，如何不接天？一朝雲霧起，天與地相連據。」此天亦非高、雲亦非低，而揚天高、抑雲低，且覺也未圓，則知水、知月、知字，與覺字不待辯而明矣。又謂「若還和尚本然高，請君吸盡天河水」者，敢保十二等老先生曾占三科榜首者淹得沒著落處。何也？山野卻占地步天，河水是山野吸盡，有時把住則渴殺魚龍，有時放行則淹殺狐兔。試問足下：還是把住好？放行好？速道，速道。

與東川呂相國

向慕不凡器骨，未獲覲面，幸彈丸地上相逢，此奇緣也。勢不可不斗膽以符素心，令漆桶子快，不然老僧與閣下咫尺天涯矣。承命敝檀張公堅留三教寺，再話兔角杖挑潭底月、龜毛繩縛樹頭風。因山中人接欲歸，聊具偈拂以悉鄙衷。

復侍佇黃居士

覲面歸來讀佳章，知為破山泥水不少也。若將我破山如是而見，足徵平日用工多因依倚作解，自障悟門，終不是到家消息耳。閒言且置，但將山野對居士唾地云：「試道看。」則居士佇思進語，尚未恰此，其數所看破皆虛語，然而一涕唾忙無所知，則三藏五宗先人涕唾，誠恐脹破居士肚皮也。

與石砮司素真秦總戎

傳聞道況殊佳，寒暑乘隙，覺主宰不勝於平日矣？人謂之苦，我謂之樂。何也？百骸調，適靡所不為，恨不如佛、如仙，飛身拔宅，正眼看來猶是眼中金屑。胡不聞病為良導？上古聖賢三日無病，祈禱求病，無非要人覺此有限身心，不作千年計耳。身世尚幻，況其他為？此是老僧淺識，諒賢臺過量處定不如是見也。

復秉素牟銓部

金僊氏有言：「一切有為法，如夢幻泡影，如露亦如電，應作如是觀。」此箇關頭人多忽略，始知今日又當何如？來諭云「陳蒲鞋靈隱輩皆以伎倆卻賊，使不入境」者，間或偶取一時，非實有此伎倆也。若可以卻，烏用操戈演武耶？此實是人之迷甚，癡心作業使然，的非天地有災禍人者。山緇數數經此，祇負其物，不負其命。幸竄石砮得諷教愛，真如隔世忽甦，無奈杖履甚艱，卒難如命，儻雞足緣熟，自有團話時也不盡。

復培之李總制

傳聞大金湯遙舒一臂來攜朽人之手，而朽人尚未識面，恐觸覺亦非也。忽轉盼間，得譚首四書，稍知影響，未敢諦信其確，欲書隻字片言冒驚臺側，不獨觸覺是妄，則無因亦妄也。今貴差官至，道及諄諄，只得附幾句俚語書之扇頭，一則賀千秋、一則以雪前咎，非敘寒溫故套也。乞叱留俟異日團話何地？此則一重公案耳。雀舌將開，龍牙欲出，懽頌趙州新句子，解渴止消七碗，正堪峨岫舊家風，得飽還須一片。恭惟大金湯綸屬川陝，百萬妖氛退于黑山鬼窟，勇健東南八千子弟收于虎帳龍旗，指日凱旋，共朽人話沙裏米、米裏沙，肉邊菜、菜邊肉也。便鴻附候，不勝翹企。

復士心譚慕義侯

久不晤，宛如食頃，覺檀越政事之暇尚不屑溝壑，抱病山緇誠然是恩被泉石也。來諭云「令即挂法名山緇處」，山緇卻謂不然。何則？來生豪貴家者，非淺淺根器，乃久植德本福分所致，自是壽長，加以佛門保佑，是山緇輩權設故套，烏辱智人之耳耶？又不得不如所命，從故套中與老檀越露箇消息也。呵呵。

與西崑譚涪侯

老僧曾聚首家菴，對王雲山說法云：「有佛處不可住，無佛處急走過。」幸老檀越代語云：「落華流水卻救取王雲山一半符。」今日老檀越對黃坐營說法，可恨傍觀者不解代一轉語也。勞煩雷霆之怒，總是揚聲止響到，莫令人勘破容面，以悉不盡。

復達州王刺史

榮任達州是達州人福，想老檀越不負夙心曾教化過，是熟因熟果也。老僧耳其口碑，不勝雀躍，幸貴治一班太平人物，今日復得良晤者，信知老檀越不在做官，乃在做佛也。承分示來者，欲老僧數語，媿不識一丁，但拈官佛之語，試問是一？是二？

復嘉興眾縉紳

自王申歸蜀，不覺廿七^年矣。忽得華扎下頒，知素相與者仍復如故，喜天相吉人，自是出格。然老僧備歷諸苦，人影不到處一一親撻，況國難家亡，華華世界盡成瓦礫荒郊，想江南一帶別是一天，憾不疾插翅也。總因兩地烽煙，卒難輕舉。吾徒丈雪幸諸檀越納在愛中，刊老僧語錄行世，即如請老僧登曲条木，鼓兩片皮，說法已竟，又烏用老僧覲面為耶？吾師道場況在貴地，終不免活一日在貴地一日想也。

復[車*度]轆嚴居士

將謂[車*度]轆鑽，出自秦時，豈料兩易國朝，至今尚在，此真[車*度]轆鑽利害猶甚也。老僧讀來扎，覺當時見與今日見天淵之殊矣，老僧恐不復面。吾徒丈雪稍通口氣，借重栽培，即見老僧也，餘言不贅。

復弘覺木陳和尚

遣丈雪與先師掃塔，第不知天童法道是何人主持，尚未脩候，罪多如髮。適得賢弟佳音，知我先師靈骨猶在也，喜甚喜甚。大約愚兄年邁，只可填溝塞壑，海內玷聲每盈其耳，何如賢弟佳聲播揚海外？吾師道脈誠不虛印，想江南逸老未卜何如？若俟烽煙稍靜，可與賢弟良晤也。不盡。

復祭酒譚埽菴

屢承翰教，珍重法門，筆舌難盡。吾徒丈雪多賴培植，老僧醜態佳序揄揚，刊之甚善。東塔叢林全仗覆護，已成大觀，是貴境福。老僧恨不如命，困于關津，勢不能鼓翅也。奈何，奈何。吾蜀高梁是老僧鄰邦，得馮、朱二君子併士紳留住，經今不覺三十載矣，廢而復興，發人來貴地請書本藏，借重鼎力吹噓，早發歸來。若可苟延，再得與大金湯覲面，話吾門冬瓜瓠子禪，遍地曲直也。呵呵。

復江南眾文學

適接手教，宛如覲面，快得斗轉星移、逃天縮地，想諸檀福人自是福庇。老僧經浮沉者七，幸得脫難，復聞諸檀金聲玉振，與吾蜀大不相同，真咫尺天涯，欲晤竟不得也。且吾師道場幸在貴地，倘苟安，自是圖晤有期，恐時之不待，覺辜諸檀積念也。承遠念，謝謝。吾徒丈雪借重披目，即同老僧再來左右也。祝祝。

復東塔住持清白長老

老僧別來不覺廿七載矣，得聞一音尚不可得，況睹華扎？怪未曾有，喜吾廢才，又得賢士力量輔就，煥然一新，真應身菩薩人也。即欲策杖，想兩地不能疏通，且老軀誠難行履。況吾徒丈雪在彼，即如老僧在，何殊爾我耶？眾房老宿曾與老僧晤者，一一致意，恕不另候。堂中料理仍舊如初，料老僧不來，恐江道得通，來亦未可卜。石雲先發，併稿是老僧斟酌過，可照原稿刊行，俟緣熟何時，則人情物理自當盡也。

復丈雪上座

金城行日，前途不知何若？今得來書，知與老僧代勞，上天童掃塔過費儀物、并刊行語錄，真克家之子也，謝謝。然而刪語錄，因重繁國忌則可，老僧分中無一字，甚快。大都後人眼目，又不可不慎，其廣略在人之裁度，大以成大、小以成小。故如來以一音演說法，眾生隨類各得解者是也。原稿並新錄俱是老僧斟酌過，可付梓亦善，餘不悉。

復嘉興吳孝廉(諱泰來)

老僧自壬申離貴省歸川，不覺三十餘年矣。值此劫運，經浮沉者七，幸免無患。及今何緣得此良教，如隔世忽甦，快暢不已。來諭

中數萬言，盡是門下疑處，覺得自起自倒，理障何多？種種不能備悉倒斷。況老僧者鼓笛久未遇知音，且江南諸大老曾中他毒，竟不能以楔出楔返令毒氣發者，誠然迷顛之甚，自棄家珍甘落貧里也。此箇事尚無形段，亦無抵止，言論不足以辯、名字不足以載，惟證者方知。即如門下默識心通之說，雖不中，不遠矣。何在諄諄？若貴省與人打鄉談，祇是貴省人知，餘處人雖聞亦不知。然而老僧此說亦是對門下講書，即門下對老僧談禪也，何必、不必，任門下裁之。

復樵李古新菴清白長老

屢承繫念，竟不能遂此願也。江道雖稍通，烽煙尚未息，則往復猶懷驚恐。且東塔道場既脫，一任在處瀟灑，可行可止，隨方樂道。意欲老僧匾對，以誌不朽。老僧病甚，但題「逸居」二字，對聯云「客不到幽深境界，蜂也來熱鬧門庭。」請善書者書之，併謝。

寄覺城禪人

客歲聞有恙，第不知害著主人公否？可體取否？日間浩浩作得主否？夢裏作得主否？竟無一消息，擲吾儕拄杖頭，想病中有不病者，汝得之矣。吾儕近日住箇破院子，亦未夥人打口鼓子，倘偷閒得一那步，何如？

復南充羅西谿居士

數年來空負溝壑，將期此時，勢不及見也，豈料一朝人物更勝一朝？遠望張無盡、楊大年，尚不及肆口如是道耶，老檀越更出前輩一頭地也。何也？先輩肆口肆志，只知說禪說道，未及老檀越劈頭道箇東瓜印子者，誠然具過量見，深識老僧也耶。欲言不悉，併謝。

復語嵩法孫

承繫念，屢次復書，第不知到否？適接語錄目過，其中意句精確明悉，但尚有幾箇錯字，想是錄語者之訛。當機處務要諦當，或絕、或遲，另有開發。何云「了」之一字處處太多，宜刪卻？所謂「宗門無肯語，不放出頭人」者，此也。老僧年邁，法門重任，寄在後昆。珍重。

復忠南雲鳳胡長陽侯

老僧牧得一頭牛，惡辣鞭繩經幾秋，隨分納些收不住，走來天際問胡侯。吾人之頑性，牛也；加以鞭繩，工夫也：如是牧之，久則頑而自化為淳也。請問老居士：頑乎？淳乎？試為老僧道將一句來，一併書上，謝謝。

復離指上座

吾儕不德數年，惡名播世，藏拙是吾儕本分事也，禍患亦吾儕本分事也，返惹賢徒議論，可作將來眼耶？可作自了漢耶？思之。

復體宗上座

老僧數次書止賢徒之行，未知到否？忽聞離瀘州至渝城，不能至前，雖是以老憐老，亦當安分也，何當遠勞賢徒登涉？老僧矢念，久欲往天童掃塔，因三峽木鵝不及速鼓翅，諒雙桂有人接手，想祇在來春買棹江干，一帆到岸也。

與蓮月上座

從上來弟受師業、子承父業，理之常也。聞賢徒既遠遵義到渝城，幾處不甚相可，致令老僧一番惆悵。且雙桂堂色色整齊、般般具足，當來接手，以代一臂之勞，令老僧往天童掃塔，報師恩德，不忘遞代相承，亦見賢徒之孝順逾過老僧，誠然法門之瑞器也。艸勒耑致，萬望垂憐，至祝至祝。

復本源上座

法門雖寥落，幸一犬吠虛、萬蚩號實也。此風倡外，五丁之力莫挽，聞賢徒講經說禪，恐不出六祖道知解宗徒耳。法門重任，當竭力為人，寧可口上[嘆-口+白]，莫魔魅人家男女。老僧目語錄稿固然超脫，于中引據教乘大非了義，雖先代引經作證，如蟲禦木也。嗣後當珍重行之，益老僧望耳。

復清溪首座

老僧抱病多時，恐風燭不測，況別離之情？以言句相勘，經一載矣始得徹尾徹頭，則不負中他毒氣，且喜且幸。山中消遣，日益玄奧，亦不辜負從上來事。此任甚重，非比小小，待時節因緣到來，出語吐辭，自合機用也。囑囑。

復天峰法孫

又，七月十日接賢孫書併佳刻，目過始知語句落騷人套矣。若是吾家種草，單拈向上猶落今時，恐異日諸方檢點在，何辭鋒尖利為快耶？老僧智識暗短，就本分中徹頭徹尾，只要切當，不在攢華簇錦也。囑囑。

復壁觀上座

年來雖苦老病，不敢辜負一箇半箇，分布行道，日所呈語錄且喜精確，但麼字甚繁，宜斟酌。災木專繼竹與黃道葵同伴齋衣一頂，惠汝代勞。

復雲嶠禪人

自鳳城之別，想近日工夫愈有深進。二六時中，有放不過處，慎勿因循。胡不聞粗中有細、細中有微、微中有密？最在微細處著力覷破始得。

破山禪師語錄卷第十二

(三世孫蜀梁州石笏山性容 南浦烏龍山清亮 後池埧崇聖菴發聖 楚武攸雲山合賢 荊門圭山燈毓 宜都紫芝山發香同刻破山和尚語錄第十二卷 堆藍弘禮禪人對 秀水謝文英書 倪君亮子天章刊)

(康熙庚申年仲春月吉旦，禾郡楞嚴般若坊藏板)

拈古 頌古

舉世尊一日陞座，文殊白槌云：「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世尊便下座。

拈曰：

「大小世尊便恁麼去，也是泥裏洗土塊。」

頌曰：

「寒梅迴迴欲高吐，卻被東風折倒樹，一旦馨香特地埋，遊蜂竟不知何處。」

舉梁武帝問達磨：「如何是聖諦第一義？」磨云：「廓然無聖。」帝云：「對朕者誰？」磨云：「不識。」帝不契。

拈曰：

「佛心天子，解死不解活；壁觀婆羅門，解放不解收。故將第一義諦置在今時，無人舉著。」

頌曰：

「廓然無聖逕庭關，鐵額寧龍到此難，欲獲驪珠擎在握，須教大海幾回乾？」

舉六祖大師云：「不思善、不思惡，阿那箇是明上座本來面目？」明即悟入。

拈曰：

「者獗獠漢也解恁麼鼓粥飯氣，明上座鼻孔幸爾遼天，不然則忍饑歸去。」

頌曰：

「善耶？惡耶？之乎也者。本來面目，風吹雨灑。咄！」

舉僧問趙州：「狗子還有佛性也無？」州云：「有。」曰：

「既有，因甚撞入者箇皮袋？」州云：「為他知而故犯。」又僧同前問，州云：「無。」曰：「一切眾生皆有佛性，因甚道無？」州云：「為他有業識在。」

拈曰：

「趙州古佛，廣長舌上善擺鎗旗，美則美矣，只是有些驢糞氣。」

頌曰：

「狗子佛性有，螻蛄眼裏翻筋斗；狗子佛性無，汪洋水上捺葫蘆。趙州老，田庫奴，裂破舌頭定有無，當時若遇寧龍客，一攔

攔腮莫教羈。」

舉南泉兩堂爭貓，泉拈起貓云：「道得即不斬，道不得即斬卻。」眾無語，泉便斬之。趙州外歸，泉舉前話，州脫艸鞋頂頭上出，泉云：「子若在，卻救得貓兒。」

拈曰：

「王老師有獨超物外之懸記，卻被一箇貓兒一迷迷倒，不遇趙州肘後靈符，幾乎蘿蔔頭遍地。」

頌曰：「揮霹靂手，奪虎口食，千古作家，天然有幾？華貓刀斷兮，血盈海底；艸鞋頭戴兮，氣衝天際。咦！大小南泉弄死貓，濃濃滴滴惹蠅蚋。」

舉肅宗帝問忠國師：「百年後所須何物？」師云：「與老僧造箇無縫塔。」帝曰：「請師塔樣。」師良久，云：「會麼？」帝云：「不會。」師云：「吾有付法弟子耽源卻諳此事。」云云。

拈曰：

「老大國師，猶作者箇去就，幸爾是箇慈悲天子，不然連根拔起，倒卓空中，未為分外。」

頌曰：

「四稜著地影團圓，擬欲描兮隔萬山，後被耽源開一縫，至今泥水亂翻翻。」

舉僧問趙州：「萬法歸一，一歸何處？」州云：「我在青州做領布衫，重七斤。」

拈曰：

「謾天說價，就地還錢，須具大方手眼，始解翻騰者也。若是裁長補短、較重論輕，總是新奇，亦成滯貨。」

頌曰：

「百尺竿頭進一步，蹋翻海底蒼龍窟，活驚活笑癩頭龜，咬住波斯尋屎骨。」

舉趙州行腳到上菴主處，問云：「有麼？有麼？」主豎起拳頭，州云：「水淺不是泊船處。」便去。又到下菴主處，亦同前問，主亦豎起拳頭，州云：「能縱能奪，能殺能活。」便禮拜。

拈曰：

「趙州八十行腳，步步拖泥帶水，專要污人門戶，惹是招非。大眾且道：那裏是他招惹是非處？」眾無語，復合掌云：「我不敢輕於汝等，汝等皆當作佛。」

頌曰：「艸王闔外樹千秋，蕩蕩山河得自由，忽遇單刀直入者，干戈勇銳莫能休。旗鼓大張兮，暗引機謀；沉陸私通兮，明賣風

流。誰知趙老生涯活，二虎雙雙一箭收。」
舉婆子供養一菴主，經二十年，一日，令女子抱定云：「正恁麼時如何？」主曰：「枯木倚寒巖，三冬無暖氣。」女子歸，舉似婆。婆曰：「我二十年祇供養一箇俗漢。」遂遣出，燒卻菴。

拈曰：

「大唐國裏少者僧與婆子不得。何也？暗含春色，明露秋光。」

頌曰：

「落華流水漫同調，和者應須著眼高，莫被陽春轉新律，當頭錯過好風騷。」

舉雪巖欽詰高峰：「無夢無想，主人公在什麼處？」峰苦志五年，推枕子墮地，大悟。

拈曰：

「日間浩浩，夢裏如如，且道是主人公？不是主人公？試簡點看。」復鼓掌呵呵，云：「也是逼牯牛生兒。」

頌曰：「無夢無想，劈面便掌，主人公惺惺著，莫學猢猻弄伎倆。」

舉三聖問雪峰：「透網金鱗，未審以何為食？」峰曰：「待汝出網來向汝道。」聖云：「一千五百人善知識，話頭也不識。」峰云：「老僧住持事繁。」

拈曰：

「將謂淵源不別，誰知網網非同？雖弗能去甲披鱗，也惹一場氣悶。」

頌曰：

「搖頭擺尾饑難禁，逐浪飄飄被網羅，擬欲翻身遊巨壑，誰知甲下更乾波？」

舉九峰在石霜作侍者，霜遷化，眾請堂中第一座接續住持，峰不肯。

拈曰：

「逢強即弱，遇柔則剛，所以觀世音菩薩將錢買餬餅，放下手卻是饅頭。」

頌曰：

「碧珠簾外白雲封，非比尋常一色功，撞著盲龜並跛鰲，出頭來顯勢崢嶸。擬動步，便西東，千古萬古有奇風。」

舉仰山問中邑：「如何得見佛性去？」邑曰：「譬如一室有六窗，內獼猴叫，外獼猴應。如是，六窗俱叫，六處俱應。」山云：「和尚譬喻無不明了，祇如內獼猴瞌睡時，外獼猴作麼生相見？」邑下禪床把住云：「猩猩！我與汝相見了也。」

拈曰：

「大小中邑，錯下名言，又喚作佛性、又喚作獼猴。」復鼓掌呵呵，云：「是何言歟？」

頌曰：

「腳跟點地鼻遼天，一任獼猴內外喧，喚作猩猩留不住，阿誰共與打鞦韆？」

舉南泉示眾云：「不是心、不是佛、不是物，畢竟是箇甚麼？」

拈曰：

「酒逢知己飲，詩向會人吟，王老師恁麼賣弄，也是赤土畫簸箕。」

頌曰：

「擊塗毒鼓，灑甘露漿，不是心也體之堂堂、不是佛也相之光光、不是物也用之昂昂，飲之者醉，耳之者狂。咦！幾欲不遭良將手，除非身帶返魂香。」

舉馬大師不安，院主問：「和尚近日尊候如何？」大師云：「日面佛，月面佛。」

拈曰：

「人之將死，其言也善，可惜飯袋子不知時節。」

頌曰：「高枕繩床舒兩足，夢魌魌地渾無物，卒然院主問如何，日面佛兮月面佛。」

舉靈雲見桃華悟入，述偈云：「三十^年來尋劍客，幾回葉落又抽枝，自從一見桃華後，只至如今更不疑。」玄^沙聞云：「諦當甚諦當，敢保老兄猶未徹在。」

拈曰：

「一翳在眼，空華亂墜，不是玄沙善用金錘，幾乎成箇瞎漢。」

頌曰：

「香滿枝頭，華滿谿流，靈雲一見，撫掌輕酬。咦！誰知更有桃園客，不放春風逸兩眸。」

舉鹽官一日喚侍者：「與我將犀牛扇子來。」者云：「扇子破也。」官云：「扇子既破，還我犀牛來。」侍者無對。

拈曰：

「侍者太煞不靈利，活卓卓箇牛兒，不解穿卻鼻孔。」

頌曰：

「咄！老面皮詢之，扇破覓牛兒，可憐不是當家子，辜負蒼蒼兩道眉。」

舉滄山問香巖：「我聞你在百丈先師處問一答十、問十答百，此是汝之聰明學解，但向父母未生前道將一句看。」巖進數

語，不恰。歸白巖三年，一日，拾瓦礫擊竹作聲，豁然大悟，述偈呈為山，山然之，仰山不肯，仍呈數偈酬荅，仰亦然之。

拈曰：

「為山教人上樹，仰山逼人落水，大似一條拄杖兩人扶，不是瓦礫荊棘，向香巖露頭露面了也。易分雪裏粉，難辨墨中煤。」

頌曰：

「日前巧計百端，卻被為山折合，三年死志白巖，一擊疏通者著。呵呵！象被雷驚華入牙，犀因玩月紋生角。」

舉瑞巖問巖頭：「如何是本常理？」頭云：「動也。」曰：

「動後何如？」頭云：「不見本常理。」巖佇思。頭云：

「肯，則迴脫根塵；不肯，永沉生死。」巖即悟入。

拈曰：

「將金博金，瓦罐不離井上破；以楔出楔，水母何曾離得蝦？縱使瑞巖漆桶子快，也是君子可人。」

頌曰：「本常理，無見聞，有何生死與根塵？肯兮不肯向吾道，劈脊還他三十藤。」

舉船子問夾山：「垂鉤千尺，意在深潭；離鉤三寸，子何不道？」山擬開口，子便打山落水，山纔起，子云：「道道。」

山擬開口，子又打，山豁然大悟，乃點頭三下。

拈曰：

「老不歇心，少不努力，誠為是難。只饒將身命棄於水底，換箇做羹湯飯主顧，猶是掩耳偷鈴。」

頌曰：

「艇橫渡口，月朗波沉，輕風浪裏，罕遇金鱗。垂鉤千尺兮，難吞易吐；離鉤三寸兮，易吐難吞。老華亭，老華亭，三十年來求負命，者回點首遂慙慙。」

舉臨濟將示滅，囑三聖：「吾遷化後，不得滅卻吾正法眼

藏。」聖云：「爭敢滅卻和尚正法眼藏？」濟云：「忽有人問

汝，作麼生抵對？」聖便喝，濟云：「誰知吾正法眼藏向者瞎驢邊滅卻？」

拈曰：

「每每事從叮囑生，臨濟將蜜果子翻作苦葫蘆，騙三聖入瞎驢隊裏氣悶一上，方復人身。」

頌曰：

「一喝如雷震太虛，大方獨步那能拘？正法眼藏分明也，莫道渠儂果瞎驢。」

舉臨濟問黃蘗佛法的大意，如是三度問，三度被打，不契，指參大愚。

拈曰：

「頑皮癩肉，那知痛癢？不是大愚與他刀刀見血，焉解奪轉鎗旗惡聲播世？」

頌曰：

「三頓痛棒，未深相委，轉參大愚，徹骨徹髓。拏龍捉虎兮○，呵佛罵祖兮○，從茲殃及兒孫，代代冤家到底。」

舉陸互大夫問南泉：「肇法師也甚奇怪，解道天地與我同根、萬物與我一體。」泉指庭前牡丹華云：「時人見此一株華如夢相似。」

拈曰：

「見境生情，托物比興，不妨就路還家，有何不可？若然如是，卻被牡丹華笑殺。何也？橫開不在春枝上，別有風流一段奇。」

頌曰：

「古木林中枯槁者，鷓鴣啼出華悠悠，香風幾陣過東壁，換卻許多人鼻頭。」

四喝。

一喝金剛寶劍揮，髑髏遍地血星飛，當時有箇賣糟漢，聞著從教吐舌歸。

一喝金毛獅子吼，狐狸野干盡飛走，獨行獨距大雄峰，百億文殊難下手。

一喝竿頭探影艸，長長短短知分曉，傾湫倒嶽迅雷機，擬議不來空自惱。

一喝不作一喝用，白拈賊慣偷糟甕，平民陷殺不為冤，大抵門風千古重。

法華舉訪瑯琊覺相見因緣。

主賓驀筇地相逢，宛似雙獅距爪籠，莫道米中無有飯，那堪石上更栽松？珠走盤兮可羨？盤走珠兮莫窮？腳去拳來雖互換，妙圓樞口轉靈通。

殃掘行乞，遇產難，長者云：「瞿曇弟子當有何法可救？」掘云：「我初入道，未知此法，待回問世尊。」云云。

頌曰：

「魚行水濁，鳥飛毛落，多口阿師，無繩討縛。呵呵！堪笑釋迦老人，向葛藤窩裏露些圭角。」

吾常於此切。

吾常於此切，萬里一條鐵，忽得太平時，紅爐飛片雪。呵呵！堪笑曹洞雪峰，三人證龜成鳖。

世尊拈華迦葉微笑。

特地拈華猶自可，微微冷笑笑藏刀，人天百萬悚然失，此道從來聲價高。

臨濟行化。

家常添鉢，太無厭生，兩箇八兩，原是一斤。咦！曾憶大蟲裊紙帽，須知好笑又驚人。

南泉斬貓。

刀下貓兒卻活來，一聲痛快一聲哀，艸鞋也解生涯別，[跳-兆+亨]跳令人夢眼開。

月光童子。

通身是，遍身是，激水童兒非遊戲。動靜莫作等閒看，殺活須教箇瓦礫。

趙州勘破婆子。

一錯過，二勘破，盡向阿婆圈裏坐。咦！別有胡笳一韻長，流來千古無人和。

我為法王，於法自在。

法王法令皆由我，我且不然誰是誰？試問誰家鬼活計？布籃挑水上須彌。

鼓山赴閩王請。

雪峰心行太無端，兩箇憨雕一箭穿，將謂通霄還有路，豈知毒發自翩躚？

聯芳偈

付空外大達禪人

破山鼓笛從君打，疑殺承噓接響人，三泖渡頭橫獨棹，華亭公案又重新。

付四維普寬禪人

曾聞教外有單傳，撥艸瞻風得悄然，珍重蜀南箇義虎，爪牙漫莫露人前。

付象崖性斑禪人

宮商一韻落胡笳，和者還須風月家，鰲鼻蛇頭分付汝，顛拈倒弄任周遮。

付含璞淨燦禪人

萬峰角虎距川東，赫奕威凜迥不同，任是四來狐兔客，全身盡喪爪牙中。

付靈筏印昌禪人

萬峰出箇小蝦蟆，喫著砒霜便當茶，此去深山開毒口，放些毒氣毒三巴。

付破雪道璽禪人

幾度愁腸欲話誰？一簾風月弄寒梅，歸來不覺枝頭白，惺人鼻孔任雷垂。

付字水圓拙禪人

火爐頭句親分付，撥著令人一爆煙，散徹九龍風月冷，依然別是鷓鴣天。

付破浪海舟禪人

冤有頭兮債有主，箇中消息誰為伍？艸鞋蹋遍始應知，隨處任君打口鼓。

付竺微智泰禪人

放出江南赤梢鯉，搖頭擺尾風雲際，有時騰躍碧波中，攪得魚龍箇鱉地。

付無漏印涵禪人

去去來來怨艸鞋，其聲瞥爾貫吾儕，鉢囊兩手親分付，一任山城飯舖開。

付體宗道寧禪人

六年執役輔叢林，一旦殷勤遂此心，分付火爐頭句子，等閒撥著便知音。

付離指方示禪人

久默無暇舉似人，相逢有則絕疏親，驀拈坐具法堂舞，撲地聲驚龜畫城。

付尼足如瀾禪人

偶聞高洞十和尚，且道渠儂第幾人？雖不同生共鼻孔，本來面目自分明。

付本明圓徹禪人

驀筍相逢也便休，一聲因地令人愁，裝風抵對聾兩耳，笑殺鎮州蘿蔔頭。

付雪臂印巒禪人

楚水巴山意可圖，何如箇裏弄神駒？有時返擲尋芳艸，蹋折一華五葉蘆。

付圓明德印禪人

千松日韻誰知音？一旦冲霄杰鳳林，不許緡蠻覓所止，惟留羸鶴對巢吟。

付敏樹如相禪人

一度華開一度嘶，幾乎鼻孔落依稀，今朝觸碎歸山去，瞎馬瞎驢臭罵伊。

付淡竹行密禪人

心羸膽大氣如王，到處逢人打一場，惟有佛恩分外別，裝聾賣啞歇疏狂。

付孤石真憲禪人

米裏有蟲飯有沙，蛀人肝膽飲人牙，老僧匙箸輕挑撥，便解和盤逸興賒。

付燕居德申禪人

萬峰客作已多年，一世眼高期浪傳，分付冬瓜與瓠子，大都種艸自天然。

付丈雪通醉禪人

現身惡世可深藏，莫逐周胡嚴李張，只待兔冰蛇吐火，始拈柏子祝吾香。

付蒼松印鶴禪人

忽地相逢伎倆窮，當年中毒今復逢，鋒鋌不犯悄然去，聖箭一枝射九重。

付壽山性福禪人

毒中天童今始甦，機緣有待漫糊塗，頻頻拈出膠盆子，刺腦南濱星月孤。

付竹帆印波禪人

千里特來呈舊面，一朝取食到鉤頭，分身更囑逢橋止，莫向桑谿覓飲牛。

付默石道悟禪人

法法從來無法法，無無法法亦無無，老僧今付無無法，石鼓輕敲聲五湖。

付覺城明柱禪人

喝聲未絕掌連轟，勝過楊岐栗棘蓬，任是難吞而易吐，從教江海釣鯨龍。

付東川呂相國

黃檗室中三頓棒，大愚肋下便還拳，老僧撞著呂公縛，祖代冤流如是傳。

付雪眉方坤禪人

數載殷勤立遠志，臨行云怨路頭遙，老僧無別相分付，城市山林接俊豪。

付蓮月印正禪人

喫人涕唾弄精魂，一喝從教海嶽昏，濟北家私何所似？舌頭無骨眼生筋。

付靈隱印文禪人

憶替烏窠吹布毛，而今特地覺風高，老僧翻藉慈明口，罵徹淵鱗上九霄。

付西瞿印望禪人

萬里無雲誰肯住？一聲呼喚不抬眸，鳳凰頭上白拈賊，偷得杭州作汴州。

付石龍印雪禪人

古人皮履繼宗風，老破僧鞋又不同，分付闍黎行腳去，雲山蹋遍始稱雄。

付慧覺照衣禪人

惟佛與佛乃能知，比若天高無物齊，大有慧公親薦得，捕風捉影任拈提。

付靈木印綬禪人

幾將底事扣金城，一旦無疑拂袖行，川北川南藏不住，逢王杓卜聽虛聲。

付僧可印實禪人

師徒廿載亂離居，兩地烽煙意致殊，寄柄西來箇拂子，闍黎將去指迷途。

付三際如通禪人

木鵝汎上錦江灘，勢欲翬霄力未堪，忽地烽煙消宇宙，五湖四海鼓波瀾。

付雲幻印宸禪人

雙桂堂前雙眼開，幾人鼻孔著穿來？有時高桂枝頭上，香遍天涯莫妄猜。

付普天印圓禪人

七十^年來不歇心，老當益壯亞叢林，而今不負時初勉，況有餘機盡陸沉？

付密行寂忍禪人

蚊子喁喁上鐵牛，無容下嘴處難酬，紛紛一夏歸山去，遇虎逢龍攜出頭。

付大吼印傳禪人

群獅隊裏幾經來？大吼聲驚獸膽灰，自此收威斂爪去，人天指日鼓風雷。

付本源海液禪人

三登九上徹根源，徹得根源非偶然，分付闍黎珍重去，逢盧遇簡共相傳。

付碧觀印嵩禪人

未分玉石始為奇，剖出令人深重之，一段清光玷不住，瑚璉豈敢並傳持？

付象含寂定禪人

老僧再復高梁山，意欲尋人人更難，幸得闍黎珍重去，因緣祇在剎那間。

付月宗印星禪人

耳聾惟豎指頭禪，一任時人胡亂攢，卜度不知飯米做，強分裕後與光前。

付寂光印豁禪人

坐破蒲團不記年，硬如生鐵軟如綿，三冬九夏寒溫事，漫莫逢人吐一言。

付易菴印師禪人

截流香象斂全威，任世任時堪所依，四隅八荒藏不住，始伸牙爪活頑機。

付古城印堅禪人

憐梅久萼病深山，一度華開一度歡，汝笑東風真不際，東風笑我醉闌干。

付清谿道昶禪人

羊腸古路鐵蛇橫，縱步遭他一口吞，喜得艸鞋寧似虎，蹋翻海嶽任升沉。

付耶湘印[、/(、*、)]禪人

連連痛棒徹人魂，追到懸崖撒手行，不顧深坑並岸，瞎驢撲滅上元燈。

付聖可德玉禪人

捏拳展掌露家私，撒手逍遙一並齊，橫骨暗抽容易得，舌頭明墮少人知。

付快雪印國禪人

怒雷轟出無文印，意氣全彰雙桂前，日日吞雲吐霧去，休將鼻孔漫遼天。

付石幢寂壽禪人

源頭一滴自曹谿，派派分流莫與齊，四海五湖關不住，傾湫倒嶽任施為。

付秋水智能禪人

義虎從來無別知，枝枝葉葉自相隨，漫道西山亮座主，雖然隱顯不同時。

付無私海源禪人

無文密印印真機，卻印真機何所疑，莫道丙丁云是火，丑寅恐落是依倚。

付百城印著禪人

疑機不遂此何時？老大關頭誰箇知？不是老僧輕觸逆，從來佛法不饒伊。

付萬竹通葦禪人

一箇拳頭一活機，誰知兩載不如斯？而今分付歸山去，有日還同北雁飛。

付遺聞如幻禪人

二十年來志不輸，眉毛廝結口盧都，驀頭劈面迎風掌，生死無明當下蘇。

付兩生真從禪人

東家中毒西家發，豈料西家毒更深？白棒頂[寧*頁]開正眼，乾坤爍破血淋淋。

付直指性歸禪人

飯罷貪涼繞砌行，抬眸忽見野情生，小池石上開雙菊，泄漏茫茫宇宙春。

付六岫海奎禪人

鼯鼠飲河量頗過，小中現大大如何？從來箇事無抵止，一任曹源泛碧波。

付九彥慶曆禪人

白牛露地穩眠時，雲影天光逐漸隨，水艸不須重打算，崢嶸頭角任施為。

付勝幢印鎧禪人

餓虎巖前嘯一聲，威寧雄踞惡風生，有時展步泥沙上，狐兔見之肝膽傾。

付唯旃印道禪人

兔瑞歷朝因守株，烽煙頓靜入皇都，雖然榮耀不勝喜，且喜聲名播五湖。

付中天照朗禪人

龍翔天際怒風雷，驚起叢中萬木回，發榦抽枝與麼去，榮枯自是繼將來。

付三止印昇禪人

鐵蛇古路久眠時，撞著人來毒氣施，若是命根猶未斷，除非癩肉與頑皮。

付千松印萬禪人

良馬已隨鞭影馳，追風千里合如斯，將來國債可須爾，沒箇人兒偷去騎。

付深省德純禪人

契不契兮只一言，一言縱奪自翛然，而今觸碎泥團去，漫莫逢人弄倒顛。

付禦木印章禪人

梅華衣也應當時，惟有馨香飄納谿，今日重逢無異說，好生將去指愚迷。

付凝真性定禪人

聖解凡情沒兩般，但能盡處自翛然，而今鼻孔遼天去，不逐驢前並馬前。

付慈門性毓禪人

義虎離窩三十年，重逢愈覺爪牙銛，贈伊一柄鐵如意，將去尖山打聖賢。

付忍微性道禪人

鰲鼻蛇頭著一錐，痛聲大作忍乎微，而今毒氣猶如勝，癩狗泥豬任指揮。

付耕雲澄鑑禪人

行盡山窮與水窮，轉身依舊落牢籠，艸鞋路債錢還畢，裹米深山制毒龍。

付古拙印可禪人

抱拙年深伎倆窮，艸息息地喪家風，雖然未稱拏雲手，強逼生蛇欲化龍。

付當臺印森禪人

三冬九夏冷心腸，一旦忙然思故鄉，此去若逢丁鄭李，始將吾醜播諸方。

付卓爾普文禪人

就路還家始是奇，免教帶水與拖泥，須知兩口一無舌，纔得指東又話西。

付含光真玉禪人

老不歇心來杖頭，深錐痛筍始知休，臨行與柄龜毛拂，將去川南指聖流。

付四不行弘禪人

四不從來法定否，一枝秀發驚霜叟，有時搖落不知春，千古萬古何枯朽？

付雪嶠印水禪人

正法眼藏瞎驢滅，此中嫉忌都教徹，三冬九夏與麼過，薦取當年白拈賊。

付九昭惟朗禪人

非但老僧心太孤，世間草木也榮枯，雖開幾朵來生色，密印昌昌識祖符。

付竺意普傳禪人

年年雙桂飄香遠，惟有今年華亦無，秀氣不知何所拔，眉州因此出三蘇。

付寶峰洪慧禪人

楷瓢曲阜到高粱，聲價文風流派長，落澗甘霖掬半杓，逢寅逢丙灑蒼桑。

付穎初印顯禪人

幾來雙桂冷煙浮，一旦冰心始徹頭，再伴老僧三五載，深懷毒氣毒迷流。

付不會通法禪人

得吾眼也覷浮沉，淺則淺兮深則深，莫學瞎驢大隊，破沙盆句對誰吟？

付蒼峨德海禪人

得吾耳也聽疏鐘，聲落聲洪絕異同，分付闍黎珍重去，五湖四海攪魚龍。

付嘯宗印密禪人

得吾鼻也缺中交，一吸一呼透九霄，帝釋宮中觸碎了，唯香唯臭任飄飄。

付指北通鑑禪人

得吾舌也苦言詮，能說長篇與短篇，言滿天下無口過，軟如鐵石硬如綿。

付靈源印淵禪人

得吾身也曾禪床，老大蘇公手腳忙，雖是詞窮腰解王，高風千古有誰長。

付如岳覺無禪人

得吾意也守幽閒，覲面何如隔萬山？放去孤危尋不見，收來只在剎那間。

破山禪師語錄卷第十三

(康熙庚申年仲春月吉旦禾郡楞嚴寺般若堂藏板

嘉興倪君亮子天章刊)

示偈一

示融一禪人

人無遠計，德無全合。水和泥，了飯錢，不意當年濟北老，大愚脅下任還拳。

示須石禪人

深山不隱隱谿口，相共漁樵雪一蓑，雖未登臺作釣叟，魚龍莫敢往來過。

示蕊蓮禪人

箇事從來不可把，頭頭物物任瀟灑，百千三昧問將來，老大羴拳驀口打。

示慧理禪人

東塔眉毛不易窺，長長短短涉離微，有時歡瞎狸奴眼，不許黃頭問路歸。

示達愚禪人

鼻祖西來謂別傳，賺人特地起[糸*廉]纖，已知濟北風顛漢，拄杖頭邊自豁然。

示靜涵禪人

山橫五六路羊腸，驀直去來荊棘昂，忽地與君通一線，艸鞋腳底盡生光。

示毒風禪人

幾度曾遭義虎來，縱然有口也難開，老僧不是閑相識，痛棒當頭百念灰。

示威力禪人

當年行腳怨路滑，而今行腳怨自家，一口沙糖一口屎，橫拈拄杖遍天涯。

示剔眉禪人居山

行腳居山各有時，莫將容易縛茅茨，人來不是輕回話，急欲當機剔起眉。

示渙如上人

幾度扶筇過小橋，為尋知識共雲飄，偶然談及無生句，亂墜空華破六鰲。

示里巷禪人

蹋破芒鞋伎倆窮，倒身應笑少林宗，遲機只為分皮髓，賺我雲山千萬重。

示靈隱禪人

末後如何吐露渠？攔腮劈脊痛嗟噓，機前薦得非三聖，錯恨當年訶瞎驢。

示自若侍者

三度尋師三度打，一番呼喚一番新，有時摸著牛兒也，騎向街頭滿世驚。

示朗愚侍者

二六時中豎起眉，直教覷破話頭疑，師承喚處急須薦，莫待隨聲逐色迷。

示得元關主

箇裏工夫勿論休，惟憑捏定死蛇頭，只遭一口通身徹，毒氣賁賁射斗牛。

示述明典座

變生作熟承誰力？土面灰頭只自知，染就通身油膩氣，放收不下瀉山師。

示牛山見斯禪人

來到牛山不見牛，煙雲影裏恣優游，鼻頭拽轉渾無事，拍手童兒始自由。

示純一禪人

立地死漢幾時活？夢眼開兮始行腳，蹋遍雲山應自知，艸鞋不問腳頭闊。

示直指菴了塵主人

鼻祖曾來此岸頭，家風賣盡冷如秋，兒孫幸得霑春力，五葉一華開未休。

示正元禪人

喫緊工夫在己躬，何須華浪待春風？灼然是箇金鱗子，安到龍門掌握中。（時師住龍門）

示文光禪人

禪客豫章來錦江，艸鞋錢盡可承當，老僧拄杖對君說，血滴滴時雪上霜。

示玉光禪人

萬峰山裏去逃禪，蛇虎相忘一枕眠，彼此了無生死夢，更容何夢夢驢年？

示無漏禪人

福城一蹋絕荊棘，負痛應知丈扭鼻，野鴨不曾飛去來，空將羅網張天地。

示興渭成居士

就中一句要君知，待客迎賓箇是誰？忽地蹋翻滑石子，頭頭物物不須疑。

示成居士

不將色見與聲求，箇裏如何始徹頭？試問耳聞及目睹，谿聲山色自悠悠。

示茂瞿向居士

五龍谿詠有聯詩，沒箇人來讀斷時，怒起老僧施一喝，與君決破死生疑。

示瑞環陳居士

僊儒業滿陳君志，下手工夫眼最明，惟恐乘雲跨鶴去，題詩留伴老僧行。

示君實蒲居士

茶酒筵中興不同，一般喫到淡和濃，各人肚飽尋歸處，笑指谿山落日紅。

示繪先黃居士

汝非三十年前事，戒酒除葷骨不凡，更向箇中知痛癢，棒頭喝下長優曇。

示棘生白居易

吾將水艸按牛頭，一度生懽一度愁，只待芒繩爛卻鼻，蘆華明月任沉浮。

示鐵壁黃居士

身如鐵壁意如山，一點迷雲任往還，因地聲開星月朗，照來明暗不相干。

示桂字張居士

指君父母未生前，面日本來如儼然，青則青兮白則白，更無一處不生妍。

示心字胡居士

鼻祖西來意若何？一江星月鼓風波，蘆華未向枝頭洩，已_紅到魚龍脊上過。

示德字萬居士

觸背關頭一點疑，直教透過始應知，聲前不許容無物，處處逢渠卻是誰？

示瑞華李居士

先入玄門後釋門，二家活計不須論，就中若也知端的，鼻孔依然搭上唇。

示玉所班居士

阿誰拖汝死屍來？口不開兮眼不開，為要與些酸子話，石頭瓦礫笑吾儕。

示仁吾陳居士

金剛會裏金剛種，萬億佛前結下來，更把話頭空四相，任從馬腹與驢胎。

示聘吾黃居士

白業紅塵盡不開，道人無事只閒閒，老僧覲面無閒話，幾箇金剛圈跳難？

示廓宇黃居士禮峨眉

艸鞋得得上峨眉，為睹賢師白象兒，覲面已知成妄想，原來輸與萬峰騎。

示閭所班居士禮法華

萬仞崖前禮法華，一行一字白牛車，生公昔日曾拈此，頑石點頭始到家。

示周居士

生死不明發一問，山僧只對不明明，有時明得不明處，半夜烏雞雪上行。

示默石禪人(師示眾說偈，命眾續後句，凡有續者，師復聯而示之，此紀其七。)

生死已盡，還續甚麼？雖有見諦，啞人哩囉。咦！更向烏龜前作揖，不妨拍手笑呵呵。

示唯心禪人

山水依然是故鄉，草鞋錢盡可承當，祖翁一片閒田地，幾度耕來幾度荒。

示心融禪人

露出摩醯眼放光，破沙盆是雪加霜，此回不遇盧醫手，金屑依然成翳瘡。

示師中禪人

者點靈光不覆藏，輝天鑑地露堂堂，老僧不識狸奴面，誤認師姑是阿孃。

示大疑禪人

萬古長輝不夜光，兩眉中處盡全彰，貧兒不識在衣裏，乞食沿門道短長。

示南詢禪人

惟有清風明月長，驚人無事下禪床，孃生面孔纔輕觸，幾點寒梅白曉窗。

示遍拙禪人

瓦礫石頭皆放光，無遍無正絕商量，有時變作崖前虎，威距峨眉白象王。

示雪臂巒禪人

破衲頭陀不會詩，顛拈倒弄自呈癡，筆尖點盡天中影，豈許馬師笑簸箕？
猗猗翠竹任疏狂，落節招人截短長，養就雄才堪敵國，算來無處可承當。

示唯也禪人

堪笑今時逐塊流，妄將水艸按牛頭，老僧不是成閒管，恐擬真金溷作鉅。

示蒼松禪人

毒中當年一禍胎，而今拽杖走雲崖，忽然撞著瞎驢也，劈脊攔腮夢眼開。

示壽山禪人

乘雲忽地步孤峰，快得杖藜卻化龍，盡夜怒雷風雨作，曉來紅日又當空。

示靈隱禪人

靈隱山中靈隱堂，為人不徹露鋒鋩，老僧非是成閒管，總要渠儂得所長。

示慧心禪人

道人無事隱江干，夜月當空心膽寒，不識就中端的旨，揮毫珍重莫瞞顛。

行腳住山心未了，卻來者裏落荒艸，艸深無處覓龍蛇，無奈我家中毒早。

祇有一張無用紙，卻來教我寫新詩，忽然想得無交涉，也是心空及第兒。

示靈木禪人

推蓬月下弄鉤竿，負命金鱗任往還，若得煙輕風浪盡，始敲漁火過巴關。

示微言關主

曾將伎倆弄關頭，今對老僧無所酬，古德尚遺磚鏡喻，車牛不活打車牛。

示靜虛禪人

拳頭巴掌活當機，活得當機覓指歸，滿肚荒荊不解薦，疑心疑性落依稀。

示心田戒子

老僧不戒戒初機，正欲初機入理微，皎若冰霜佛所印，菩提心地戒光飛。

示無著禪人居山

鋤頭高閣白雲中，不掘西來便掘東，翻出玄沙枯櫟杌，劃開腳指笑虛空。

示六疑禪人

疑盡淨兮釋六疑，竿頭進步少人知，有時識得玄沙虎，便是西河師子兒。

示復源沙彌

學道英資在少年，身強力健道心堅，豁然得見自家底，始信如來不妄言。

示悅可禪人

一重山又一重山，竹杖芒鞋不得閒，送往迎來無別旨，都盧只為鐵蛇關。

示悅心禪者

山重重處水重重，就裏渾無一竅通，惟有天涯雲路別，時時縹緲帶長虹。

示不我禪人

與吾相住不曾疏，總為江山間隔殊，若得就中分不隔，何天令我不毘盧？

示大慈禪人

相伴吾儕數十年，鑊頭邊事可如前，一鋤曲蟻兩頭動，試問那頭便豁然。

示半偈飯頭

幾度不知飯熟否，一回喫到肚皮空，飽餐只賸些些意，留與山童瞌睡濃。

示龍淵禪者

獨坐蒲團歲月悠，牢牢捏定死蛇頭，有時毒氣一聲發，衝倒東山石牯牛。

示得中施居士

與君覲面痛加掌，打破虛空沒伎倆，撒手只教血濺天，饅頭鐵餡令人想。

示唯然禪人

唯佛與佛皆印道，應知此道絕言詮，老僧到此云不識，試問達磨傳不傳？

示崑源孫居士

不見一法即如來，扇頭驀豎何其猷？根源徹處翻迷跡，夢眼重重撥不開。

示無宗禪人

火爐頭句口頻開，為我同門久措懷，分袂留題標梵閣，風雲無日不徘徊。

示梅熟禪人

梅子熟兮堪正味，隨風飄落濫泥地，拾來顆顆甚馨香，只恐逢人百雜碎。

示快雪禪人

雙桂堂中住兩年，腳跟未穩強參前，老僧不問路頭事，瓦塊石峰解答禪。

示心宗知客

沿途荊棘說來麼？腳下芒鞋笑口多，驀直路頭須照管，到家終不問如何。

老僧一墨盡渠勞，始信千山雲霧高，珍重腳頭腳底下，艸鞋破處恨聲號。

示仁安禪宿

七十七翁病復蘇，純鋼打就箇頭盧，有時撞破天邊月，大地風光何處無？

示道雅典座

殷勤事眾福如山，漫莫將心當等閒，非是老僧妄註腳，六年苦行得人難。

示了宗禪人

無吾宗嗣無可了，了得如如向上宗，試問箇中何可了？不勞彈指笑虛空。

示東也禪者

此來忽地遇東風，得意濃時便轉蓬，若還風力不到處，生死存亡不異宗。

示空如監院

漫道空空空如也，于中有箇不空者，試將返境入空時，亦是鑽龜並打瓦。

示瑞雲禪者

扶筇直上翠微巔，滿目風聲颯颯然，路上許多荊棘刺，與君說得我逃禪。

示二隱禪人

佛祖機鋒動靜中，開田拽石不他宗，雖然種艸一般別，受用初無有異同。

示空谷禪人

萬籟傳聲應谷響，千崖靈竅日嘶風，若將耳聽誠難會，始信巫山十二峰。

示印中趙居士

東西南北杳無際，若有纖毫即是塵，兩眼相逢對兩眼，箇中誰是出頭人？

示雙谿楊居士

曹源一滴落雙谿，問是三家村阿誰？珍重清風握在手，東搖西擲任施為。

示觀生行者

變生作熟為人勤，業盡福增覺道成，始信凡情情斷處，別無聖解與渠論。

示易菴西堂

萬竹山中無贅言，擬開口處便還拳，連連打徹自家底，勝過諸方五味禪。
相逢不謂道和難，只在工夫密密間，非是老僧慳吝法，棒頭落處月星寒。

示石幢首座

禪堂四面盡皆田，夜夜蝦蟆宇宙喧，子細聽來無別語，聲聲啼破葛藤禪。

示勒石禪宿

老不歇心心不歇，打坐坐禪禪不徹，擬欲深山埋著頭，只恐撞破天邊月。

雙桂堂中坐一夏，無端惹得老僧罵，從教鼻孔自遼天，嗅落枝頭華雨下。

示明璽禪者

學道如撐逆水舟，愈撐愈退不回頭，機關用盡渾無得，撥轉從教直直流。

示觀宇禪人

善法堂前擬聖流，淒涼蜀地祖燈秋，閑拈拄杖敲霜月，萬朵青山嘯點頭。

示惺幻禪宿

牛首山中老比丘，洞明已事到竿頭，應知艸足牛淳也，露地眠雲不計秋。

示雲嶠禪人

欲向高梁未得來，而今夢眼醒卻開，急將一句活頭語，痛為賢徒莫亂猜。

示繼竹法孫

雖是少年有大志，進堂出入非容易，忽然蹋得艸鞋穿，始信腳跟得點地。

示燕石法孫

相逢相別十餘秋，未恰老僧拄杖頭，試問何時知痛癢？白雲天際任風流。

示吼雪禪人

相逢相別十餘年，箇裏如何得悄然？今日扇頭書一語，雪華飄落梅華前。

示當臺禪人

中道機開誰箇知？如人飲水自相宜，老僧非是閒錐筍，不惜憐兒老面皮。
倒拈祖印印森森，萬壑千崖定腳跟，珍重隨緣堪挂錫，漫教獨覺惹人爭。

示四聰禪人

天然種艸不須論，動靜渾忘物外人，今日臨行書一偈，何殊箇裏絕疏親？

示笑白禪人

名山高出有名人，隨處相將淡世情，惟有破山伎倆別，頭頭物物是嘉珍。

示大素禪人

曾聞山上佛現鳥，聲到耳邊不復聞，始信返聞聞自性，普賢白象獨為尊。

示洞初禪人

佛現鳥聲日日啼，人人頑聽力猶疲，相逢漫道前村好，尚有前村隔遠谿。

示雲嶠監院

曾聞古德輔叢林，逆順機緣無易心，自此任教肝膽碎，終身相繼意深深。

示策眉禪宿

適到老僧方丈中，開言吐語盡同風，剛剛只有無情棒，要打山前老凍儂。

示無息禪人

沿途荊棘對渠說，只是渠儂總不知，始信玄沙不過嶺，腳跟未動正相宜。

示再三禪人

三番四復到吾堂，搜盡枯腸念未忘，珍重沙灘滑石子，有時腳底放毫光。

示隱玄禪者

艸鞋莫問石頭滑，行到山窮與水窮，試聽崖前猛虎過，一聲哮吼盡家風。

示宏悌葉孝子割股愈親

割股愈親雖丈夫，愈親豈在臭皮膚？聖賢命脈合如是，大道幾乎溷小途。

示秋水西堂

老僧示病卻沉疴，一日三時問者多，惟有闍黎高著眼，佛頭潑糞是如何？

示密旨法孫

沿途荊棘萬千言，說盡清涼枯木禪，只好往來留箇跡，漫將口耳誤相傳。

示朴存禪人

往往來來遇老僧，拳頭巴掌未曾伸，試將此語對君說，痛癢何如徹死生？

示懋弼火頭

勞筋苦骨壞僧衣，飯熟羹濃住火歸，撒手不知身力倦，只愁沒箇火星飛。

示明暉禪人

來來去去路頭長，帶累艸鞋腳下忙，忽地蹋翻滑石子，轉身依舊看斜陽。

示慈容上人

萬般無如出家好，出家決定沒煩惱，縱有機境不相投，渾如晴空一電掃。

示唯唯禪人

舉筆欲拈新句子，依然還落舊家風，若將短杖探溝壑，疑是深雲起臥龍。

示穎凡禪人

一箇蒲團一座山，經行坐臥得心安，豨毳破衲蒙頭睡，一任佛來天地間。

示九彥禪人

萬竹山中百日期，蒲團坐破猛提撕，忽然驚起梁間燕，痛語喃喃釋所疑。

示無私維那

竹林忽出參天筍，勢欲吞雲吐霧來，逐雨隨風多變態，渾然如醉聽春雷。

示淡月行人

老牛耕破妙高峰，不許和犁當一工，今日白雲橫谷口，藤華野鳥鬧叢叢。

示四可禪人

老僧力倦與神疲，書字無心筆筆奇，珍重帶歸他日後，石頭瓦塊尚生疑。

示先開禪者

一隊芒鞋寧似虎，遼天拄杖活如龍，相逢漫道雲遊者，箇裏機關迥不同。

示機樞禪人

與吾相伴幾經秋，眼老昏華不濟頭，只得為君通一線，南山雲起北山憂。
老僧棕履舊家風，一世眼高不與同，今日送君歸故里，蹋翻波底日輪紅。

示伴石禪者

忽起一番行腳事，蒲團拄杖並芒鞋，前途蹋破極頑石，開口呵呵笑我儕。

示心源禪者

曹谿一片墜腰石，千古令人想不來，珍重心源如是作，管教碓觜覺華開。

示南枝禪人

從來臨濟白拈賊，偷人鼻孔喫人血，無端鼓起大波瀾，魚龍攪動只教徹。

示常然禪人

忽然行腳來三教，撞著盲龜開眼睛，木孔值浮天地外，棒頭消息恰山僧。

示心止禪人

香爐山上香爐峰，日有煙雲繞碧空，珍重上天惜鼻孔，莫教觸碎與人同。

示盡浪沙彌

勤習沙彌莫等閒，相隨野叟過梁山，應知別有天然樂，鐘鼓明明示汝安。

示拈笑禪人

參禪學道須年少，色力方剛堪可了，任是楊岐栗棘蓬，吞來數數不知飽。
大道無門沒奈何，任人穿鑿定干戈，有時摸著乾坤眼，山不開華水不波。

示本空禪人

動亦如如靜亦如，漫言肘後有真符，老僧試問渠儂也，荅我須教一字無。

示三堅禪者

艸鞋只怨路頭長，行盡終無腳放光，惟有枯椿爛楫杻，與人劃血自承當。

示五空圓頭

箇事從來沒覆藏，頓開衣線露堂堂，韶陽老子曾拈出，只是時人逐臭香。

示天鏡侍者

籬菊開時霜正濃，一枝傲出嶺頭松，渾然不怕經寒暑，吐霧吞雲勢若龍。

示尼西宗關主

一半信兮一半疑，三生六十劫還遲，此回若不開心眼，難效當年尼總持。

示尼一喝

如何可是沙彌行？向道師姑莫養兒，拄杖昔年曾觸忤，及今懷滿肚皮疑。
幽居常在菜園沱，卻勝中天一大峨，白象有時輸與你，莫將騎去惑檀那。

示尼湛源

一回相見一回新，錦水灘頭釣箇鱗，若也吞雲吐霧去，尚通消息與山僧。

示尼天然

圓頂方袍大丈夫，威儀動靜體如如，時時摸著衣線下，不枉空門續祖圖。

示尼惺默

惺惺寂寂寂惺惺，默默無言始識真，若到語默不到處，始知箇裏即無生。

示尼惺凡

了知世道皆了也，即此了凡即聖因，看盡世間凡與聖，都盧別是一家春。

示尼自惺

若道自惺惺何物？阿誰知是箇中人？經行坐臥渾無事，只在當人一念真。

示尼若玉

承送老僧一隊鞋，半隨赤腳半塵埃，有時踏破腳跟露，始信機鋒不亂來。

示尼林菴主

曾問祖師蜜意，腕頭掐捏甚分明，時人不解當陽薦，錯向籬邊打葛藤。

示尼佛然

肝膽從來不可別，為忠為孝盡於期，老僧為贈臨行句，拄杖頭邊箇是誰？

示印空善人

八歲龍女尚成佛，而今人道豈難為？若然就裏知端的，華笑鳥吟不較遲。

示發閒善人

鳥吟華笑不他宗，只在工夫日用中，忽地蹋翻波是水，了知色色總成空。

示祖聯善人

生死關頭一點疑，終朝念念猛提撕，情忘識盡生荊棘，刺殺山頭老古錐。

示天階秦居士

問君讀盡幾車書？握管文成似有餘。我已搖鞭君信否？歸家應笑倒騎驢。

示劍白黃居士

高粱拔劍出營東，猛烈巍峨氣岸雄，得勝歸來分野戍，惟留玉帶振吾宗。

示桂生秦居士

歲除忽索扇頭詩，滿肚荒荊得句遲，幸有一枝梅伎倆，和風送與桂翁知。

示一吾曹居士

差別階級賢聖位，都盧一法即無為，拈來試問參玄者，眼上生毛兩道眉。

示慶吾陳居士

治亂未定道初行，引得時人生愛憎，狗肉饅頭君既喫，莫教污我破沙盆。

示榮所胡居士

山後山前幾箇松，飛飛拂拂鼓熏風，常臨耳畔通消息，只是無人達此宗。

示紹泉周居士

鐵面閻羅難摸索，銅頭衲子豈能窺？箇中一點真消息，拈向君前漏洩機。

破山禪師語錄卷第十四

(辰州浦峰四世法孫性炁 沅州明山四世法孫惟梁同刻破山和尚語錄第十四卷
堆藍弘禮禪人對 秀水謝文英書 倪君亮子天章刊)
(康熙庚申年仲春日，嘉禾楞嚴般若坊附藏流通)

示偈二

示猊曹禪人

漫道沿途無法說，石頭瓦塊弄精魂，相將只恐迷來路，腳下無疑意最親。

示厥中禪人

相共老僧十數年，半隨雲水半隨緣，而今試問如何也？驀口痛遭一大拳。
東西不變厥乎中，左右四方煙雨濃，試問前村牛卜卵，忽然生出活如龍。

示蒼然禪人

獅子峰前獅子兒，全威踞地爪牙齊，有時返擲一聲吼，百獸聞之盡皺眉。

示三笑上人

幾曾駐錫赤牛城，一度加鞭一度淳，試看人牛俱不見，煙雲影裏任縱橫。

示蓮之禪人

覲面與君箇話頭，即離雙放又雙收，有時[跳-兆+孛]跳上天去，逼得通身冷汗流。

示九昭禪人

特地來茲共寂寥，忽將底事動吟豪，始知不負新行腳，他日雲山去吼哮。

示松虛上人

昔日平西話別來，而今雙桂學癡猷，有時漆桶從前快，夢眼重重盡放開。

示慧融行者

幾向叢林行行來，肩頭腳底始知回，若然輕重得分曉，萬里晴空聽一雷。

示輝乾禪者

世出世間無兩法，修行惟在道心堅，若然聖解不須立，也要凡情脫得圓。

示光藻沙彌

小小沙彌要勤學，休將癩墮生輕薄，有時發奮步青雲，獨取驪龍頭上角。

示月痕禪者

去去來來怨艸鞋，羊腸古路誠悠哉，此回若不開心眼，瓦礫石頭亦禍胎。

示碧[王*函]禪者

逼得生蛇欲化龍，何愁無處不春風？有時驚動須彌走，四海五湖盡不通。

示居山清月禪人

一瓢一衲住名山，萬苦千辛要耐煩，他日道場開了後，普賢為汝敘溫寒。

示心宗監院

已分半院居三載，共守寂寥始六時，淨業參禪無異路，歸根去作天人師。

示大奇禪人

雙桂堂前無賸言，教人活計只開田，生涯就裏天然別，種艸生生續正傳。

示月樵禪人

走盡諸方參盡禪，適來杖底叩三玄，有時裂破孃生面，始信鼻頭在口邊。

示體心禪人

安貧樂道足生涯，艸不逢春木不華，若是上林黃鳥叫，應知箇裏活龍蛇。

示正祿禪人

發意來參雙桂禪，腳頭腳底艸鞋穿，有時踢破極頑石，漫道生公不現前。

示居山天竺禪人

老僧策杖過山來，惟見佛音吼似雷，若是主人能善聽，管教夢眼一時開。

示印善居士

世出世間無別法，所圖一味道心堅，忙閒動靜開心眼，任是牛皮也著穿。

示懷德飯頭

煮熟金牛飯未曾，一回火候一回新，來來往往參禪客，饑飽何如舉似人？

示靈源禪人

行一程時又一程，腳頭腳底水雲生，忽然蹋破極頑石，拍手呵呵笑不禁。

示本來禪人

萬竹山中且學猓，逢人漫果將心灰，有時摸著孃生鼻，始信吾儕曾說來。

示太和禪人

幾來雙桂坐枯禪，未破蒲團鞋也穿，露出腳跟猶且可，漫教蹋碎箇疑團。

示碧雲禪者

學道渾如急水流，漫將文字在口頭，有時吐卻天涯外，一任魚龍破浪遊。

示止止禪人

一生癩病教誰解？萬里清風祇自知，珍重時時常在握，卷舒一任合其宜。

示若也禪人

高梁發足上峨眉，兩處山山莫與齊，此去艸鞋開毒口，毒人行腳笑怡怡。

示展[𠂔@日]上人

三峽錦江峰十二，尚飛一座冷泉亭，不知曾中何人毒，吐霧吞雲宇宙昏。

示美石禪人

適來蜀地又思楚，行到楚中思甚麼？惟有老僧拄杖子，撐天拄地念摩訶。

示不違火頭

只愁沒箇火星飛，日日關柴入影微，撥著不知煙是火，從來佛祖悟榮歸。

示默識行者

擔囊負鉢到叢林，切莫上辜雲水心，腳下艸鞋蹋露骨，始知肝膽對人傾。

示世美胡居士

幾度行茲幾度傷，歸期卻也遇天荒，老僧此夕無他贈，返棹池州鶴夢長。

示玄初莊主

雙桂堂中一隻虎，有時踞地獅兒吼，兩來不問勝和輸，千古令人翻觔斗。

示玉若圓頭

一帶能教天地潔，千^年不許落塵埃，重重分付只教徹，漫莫和塵掃下來。

示星北禪者

少^年學道莫因循，終日^{滔滔}勿外論，但到計窮力盡處，始知佛法不容情。

示寶峰禪人

覲面渝城尚未知，忽然迴脫得相宜，始知箇裏新行腳，不負艸鞋磨腳皮。

示發重居士

聖賢一語利如刀，恩愛從前定不饒，只待胸中消息盡，始知佛祖道風高。

示正如和居士

不是心兮不是佛，不是物兮是甚麼？偶然蹋著者些子，大地山河無彼我。

示別傳書記

雙桂堂中坐一期，工夫無間猛提撕，有時扭卻孃生鼻，吸露吟風更不疑。

示西性禪者

撥開荊棘到山中，不覺寒威起臥龍，牙爪雖然不具足，將來吐霧躍長空。

示蒼峨禪人

雙桂堂中坐幾年，蒲團七破非偶然，莫將學解為知解，始信天龍一指禪。

示涂居士

頑石堆堆尚點頭，安知爾不曉春秋？老僧只此堪說法，試問曾敲煙雨浮。

示常參典座

廚前灶後家常參，一飽無餘莫放憨，任是金牛來笑我，踢翻飯桶語喃喃。

示清虛上人

雙桂堂中飯眾齋，一回得飽一回來，從今莫問禪和道，自此歸菴養聖胎。

示博達法孫

幾曾音問寄林丘，始信望中煙雨浮，今日與伊擲句子，亦將春艸按牛頭。

示不會禪人

散期正好做工夫，漫謂禪堂規矩無，坐臥經行只者箇，原來始是赤鬚髯。

示真修上人

五龍山裏五條龍，獨有一條來萬峰，且去天邊行雨澤，他年自是得雲從。

示水月禪人

頂笠腰包雙桂來，禪參無驗學詩才，老僧白棒忙收拾，不打癡頑亦是猷。

示涵之禪人

四來不問禪和道，一定要求字與詩，可惜芒鞋蹋斷鼻，依然腳下長頑皮。

示非外禪人

箇事從來在者裏，非空非內亦非外，若人向此開雙眼，任是刀山渾不礙。

示居山見愚禪人

避喧求靜方為靜，風動水流又若何？倘得鬧中能作主，亦同我佛住娑婆。

示決菴禪者

楚雲飛上巴山頂，一片東來一片西，忽地作風又作雨，苦人帶水與拖泥。

示晉山禪者

南北東西雖有別，當仁千里卻同風，老僧非是長于舌，筆底如春起臥龍。

示常先沙彌

沙彌小小初行腳，蹋倒東山並泰嶽，四海五湖任麼遊，身心煉得同雲鶴。

示如岳禪人

昔日相逢今日來，兩回有口也慵開，臨行書箇住山偈，歲久年年深成禍胎。

示息之禪人

嘗聞雲水是家鄉，道脈相將流派長，珍重竹陽行腳士，谿山切莫錯時光。

示佛旨水頭

肩頭腳底事如何？腰繫一根爛麻索，漆桶有時得快來，雲山蹋遍露行腳。

示心師禪人

澄清絕點性如之，一道天然只自知，今日老僧無別贈，更添渠號即心師。

示汝密沙彌

道冠天人何不惺？東三西四即遲遲，從今始識來時路，蹋破芒鞋弗自疑。

示鏡南沙彌

出家務要學沙彌，勤習須教發大疑，忽得腳跟絲線斷，釋迦原是小廝兒。

示源初禪者

終身供養無一字，意欲老僧打葛藤，不是拳頭並巴掌，原來一棒一條痕。

示慧圓戒子

入道初機只恁麼，無容毫髮莫蹉跎，但將衣法行持去，自有交光互網羅。

示冰源戒子

得吾戒也受吾學，動靜忙閒無繫縛，只此便是了死生，任他佛祖尚難摸。

示繼初禪人

意欲老僧名與號，老僧直示不明名，從來佛祖尚難識，今日如何舉似人？

示歸宗禪人

斬蛇手段有歸宗，殺活從教繼祖風，今日老僧重說破，他年漫莫與人同。

示智林禪人

未曾覲面一番去，教我如何指示渠？長憶當年保福輩，隔江招手悟猶遲。

示恒一上人

自出家來本幻栖，看空身世孰如之？蒲團竹椅松堂坐，一任流光東復西。

示泐石禪宿

雙桂堂中坐一夏，無端惹得老僧罵，從教鼻孔自遼天，嗅落枝頭華雨下。

示摩雲禪者

鵬搏萬里勢摩雲，飛落有時還自尊，群鳥任他較勝劣，南溟終不比其倫。

示紹吾巖居士

行腳多年志已灰，萬峰山裏把頭埋，相逢只有無情棒，打得時人夢眼開。

示守山禪人

東風昨夜吹空雲，迴迴銀蟾出海門，照地照天還照物，山僧獨指照禪人。

示明川張居士

話頭一句始牢關，坐臥經行只此參，參到情忘心絕處，白雲依舊覆青山。

示棟林李居士

裁長補短趙州衫，溽暑祁寒身上穿，伎倆若將星子定，七斤猶未盡風寒。

示磐石余居士

目前萬物自瀟灑，不必空空空是也，擬欲分心取捨中，羴拳劈口通通打。

示收飯行者

不避風霜揀易難，肩頭活計日關關，兩盛珠飯銀光爍，幾箇男兒解飽參？

示卉木禪人

種田漢，勤苦耕，鋤頭到處是佳珍，披星戴月如何契？散淡風顛佛祖親。

示月相侍者

叫一聲，應一聲，師承喚處要知音，曾憶鳥窠囑侍者，布毛吹起續傳燈。

示德雲侍者

侍者三喚，如是成現，德雲德雲，回頭轉面。呵呵，不負千古下一朝相見。

復石帆岳司馬

一覺長伸休問道，三餐茶飯懶參禪，破山不是閒相識，拄杖挑來箇箇圓。

復青城陳居士韻

老僧白棒久生塵，試問當機熟未曾？只恐鐵鞋逢滑路，冤家撞著對頭人。

華嚴法界有誰知？幸我維摩提一提，畏憶佛魔相比並，鳳巢終不許雞栖。

復華仲李居士

聞如鐵壁與銀山，透了一關又一關，逼得西湖顛倒走，那來枕子著其間？
將謂渠儂笑枕子，誰知枕子笑渠儂？都盧拋向西湖裏，春枕梅華夏枕風。

復于礪郎居士來韻

逆順道行行有時，有時行道道如之，老僧何用機關眼？賢聖從來毋自欺。
老僧行徑令人猜，舉世人為皆妄來，試問妄來何罪福？人人箇箇覺華開。
髮之長短有何時？可去可留安用疑？疑則別參君且信，始知信處有誰知？

復黃居士來韻(道號六解)

六解還從一結來，就中知結解徐開，華巾綰結分明示，反惹今人胡亂猜。
婆心佛祖甚殷勤，百計千方豁己靈，四十九年除糞具，而今翻作臭糟餅。

復鱗伯吳居士

良晤君兮話亂離，半言肝膽半言詩，偷心未敢窺前哲，恐我相將學賣肥。
流落天涯十載餘，老將安枕欲何居？怪行索隱皆荊棘，惟有同塵即敝廬。

復蟾賓鄧文學

偶撐短棹到蘆煙，攪動魚龍浪拍天，纔把絲綸輕一擲，吞鉤盡是口頭禪。
難兄難弟吐華詩，試問幽人知弗知？不覺春秋將七十，還來江上共攢眉。

復梅生鄧居士

不覺相違五六秋，已知藥病自相投，老僧筆力尚如此，未信如何始徹頭？

復焦山寄雲主人

病僧終日只偷安，無意和人下釣竿，果是鯢龍翻碧浪，斷然不肯困澄潭。

復破浪禪人

梅華雪子兢峰頭，開落渾然春信浮，觸到面門須著眼，莫教穿過臭羶膻。
堪憐爾我是同鄉，略露鄉情偈兩行，莫道歸家心便了，蓬州谿口路羊腸。

復淡竹上座

千般伎倆到吾儕，一袖懷歸語似雷，珍重闍黎惺兩耳，莫將啞謎隔山猜。

復燕居上座

無端平地起風波，惱殺孤漁沒奈何，擬把絲綸輕一擲，吞吞吐吐復來麼？
惡聲大發太心孤，險似當陽捋虎鬚，分付一枚蜜果子，逢人漫道苦葫蘆。

復萍石關主

若箇團標若箇關，其中住者漫偷安，閑將死句拈活句，月影山光任自看。

復覺城禪人

伎倆不將筆舌盡，封來愈覺露多文，老僧目過回覆，一任闍黎意縱橫。

復怡聞禪人

者裏何容是與非？阿誰打瓦並鑽龜？老僧性命幾乎喪，只為留眉接鈍機。

復隱初禪人

龍蛇隊裏溷龍蛇，現躍飛騰不作家，既具吞雲吐霧口，何妨露爪與張牙？

復維那辭執事

爾之執事向吾辭，吾欲辭兮卻向誰？爾我者條窮性命，不知還活幾多時？

復塔坡法孫

三過錦江心未悄，一鳴白鹿覺風高，老蘇騷骨今猶在，蜜感時人來見招。

復以門修知客

堪笑逃禪小苾芻，風霜纔冷自榮枯，將期別有陽春日，誰道翻加氣息無？

號象崖西堂

象骨崖前拄杖拋，艸叢打折瞎驢腰，有時鰲鼻蛇吞卻，吐向鳥窠吹布毛。

號靈筏禪人

苦海常常駕鐵船，經風經浪渺無邊，有時度盡驢和馬，又去虛空接聖賢。

號雪臂禪人

萬里勞勞八翠巒，竟將底事叩三玄，老僧不問西來意，直指神光雪臂傳。

號丈雪禪人

劃斷蒼崖倒碧岑，紛紛珠玉對誰傾？擬將鉢袋橫攔住，只恐蟠龍丈雪冰。

號非如禪人

巧尚無兮拙亦無，無無頓盡卻非如，老僧信意拈來贈，千古芳名載祖圖。

號念空禪人

念空空處更空空，方可臨行路路通，若有絲毫空不去，牛頭馬面捉如風。

號嘯宗禪人

蜀山蜀水萬千重，行盡空教杖化龍，遲機只為分皮髓，而今堪笑少林宗。

號時雨禪人

萬籟榮枯周復始，其中一點需時雨，根頭潤透葉森森，引動熏風忽地起。

號指南寂法禪人

寂法無言始一關，到來誰易復誰難？而今不問禪和道，即此安心是指南。

號石傘禪人

雲門慣把驗龍蛇，今日遭逢箇作家，兩手握來晴雨處，撐開半滿蓋天涯。

號梅林禪人

天然貴異壓群芳，幾受風塵幾受霜？忽地一枝開劫外，滿腔馥郁任馨香。

號平谿禪人

曹源一滴自平谿，派派分來莫與齊，獨有鏡公親薦得，傾湫倒嶽任施為。

號天樹禪人

地生畢竟非天樹，天樹華開勢若王，眾鳥飛騰栖是處，儼然放出如來光。

號爾赤馮居士

試看奇哉石上蓮，根頭迴出劫初前，非青非白亦非赤，那許瞿曇信手拈？
不向今時與劫前，超然迴出石中蓮，者回落在山僧手，舉起令人笑破顏。

號若崖華柱禪人

天王華屋與華柱，只要尋門堪可入，幸得老僧別號之，堂堂一竅若崖窟。

號慶雲禪人

試問雲根印在谷，有時出沒任奔騰，祇能惠澤潤枯槁，不許隨龍帶縱橫。

贈流長蘇居士

同在靈山付囑來，君為宰相護吾儕，法幢建立文峰下，舉措令人夢眼開。

贈高梁田邑侯

嘗聞否極泰來時，天假仁風安亂離，泉石已經霑雨露，雷轟口豎道傍碑。

贈松影律主

虎錫輕飛南北遊，瞻風撥艸懶同儔，歸來結箇茅茨住，又被人天引出頭。

贈正彌律主

虎錫龍盂跨海東，威寧獨踞振宗風，一聲咆哮西郊外，驚起群靈俯握中。

贈山居念一禪人

佛印山頭結箇菴，不容腳跡到人間，柴門雖是無封鎖，常有雲來把住關。

贈山居不二禪人

村居足有好生涯，水演頻伽風弄華，碌碌道人何所事？飽參後更一杯茶。

贈心蓮院主開接眾堂

空門無法不包羅，誰是誰非肯恁麼？指向飯籬開隻眼，叢林自此接禪和。

贈行可住持

喜君位入雜華林，祖祖相傳只此心，大小住持人事畢，倒提海印意深深。

贈石年曹居士

點頭曾憶生公法，壁立天涯勢卓然，始信八風吹不動，維摩堪好作同年。

贈蒼松上座

麤拳驀築掌連轟，大結冤家佛祖同，此恨橫胸機峻峭，鉤竿隨處攪魚龍。

贈偕之劉居士

老僧出沒路多岐，石塊不疑瓦塊疑，喜得狀元騎馬過，鏗鏘聲落鳳凰池。

贈蓮月上座

省覲老僧策杖來，沿途荊棘口頻開，十年鉢袋阿誰補？深喜而今成禍胎。

贈東林黃居士

十二巫山路嶮巖，腳跟下事阿誰知？扶危蹋破峨眉月，白象終輸夫子騎。
獨坐山齋沒伎倆，揮毫對子說無生，烏龍拄杖來吞卻，逆吐黃河徹底清。

贈顯餘上人書經

白馬駝來只一滴，摩騰費盡紙千張，何如更有雙桐土？鎮日揮毫放墨光。

贈鑑吾居士出家

頓脫樊籠到我家，無拘無束混龍蛇，有朝忽地風雲合，一任當空露爪牙。

贈靈隱上座

道行川楚自曹源，發脈無分後與前，任是銅頭鐵額漢，須教喪命爪牙邊。

贈廖縉書生

小小書生膽志奇，出言協語有深思，從吾雙桂堂前過，不獨偷香折一枝。

贈隱初上座

八十人過最後機，志堅愈遠埋愈微，驢年尚未安名色，誰敢當前著眼窺？

贈三笑上人

閒坐無詩伎倆窮，毫揮有則振家風，老僧欲寫天邊月，恐落池中驚臥龍。

贈忘我侍者

昔日烏窠吹布毛，今朝雙桂墨香飄，兩重公案齊拈出，益爾巾幘聲價高。

贈蜀眉姜孝廉(持在雙桂剎變)

做官做佛兩忘情，是箇無依出格人，今日已經雙桂手，鋒刀掃盡絕紅塵。

贈龍丘陳撫憲

因邪打正道相親，布服糲羹不改仁，只恐風雷轟日腳，夢崖頑石也生情。

贈御錫陳居士

祝融密密汗征鞍，逸興引鞭榮任還，觸目尖山雲五色，甘霖指日灑邊關。

贈小山于將軍

城開王化松雙栽，為鼓風濤引鶴來，近日如何枯不並？獨參天地靜氛埃。

結義樓頭松兩株，一枯一茂意何如？可知伎倆天然別，日鼓風濤聽嶽呼。

贈魁寰段總戎

平西杰出箇英雄，志量過人迥不同，烈性懶搥塗毒鼓，時來蕭寺聽疏鐘。

贈公旦文文學

亂離之後逢知己，知己之情何日已？徐子為君寫艸蟲，徹吾病處較些子。

贈任卿譚元戎

夜宿天城景物幽，風濤聲徹水雲頭，耳邊聽久無消息，夢入深深何去留？

贈雲幻上座

獅子窟中獅子兒，漫將牙爪對人施，有時戮瞎狸奴眼，哮吼一聲天地威。

贈靜也江居士

二十八^年彈指間，童顏殊覺已蒼顏，喜君曾作煙霞侶，錯縱風塵為我閒。

贈薛總戎

鞭牛鞭馬各成功，做了將軍又務農，大抵合時春興好，就中更不與人同。

贈三祐陳童子

忠臣之子苦飄零，國運何時得太平？有日上蒼開隻眼，任教頑石也生情。

贈亦峻劉文學

既從釋也又從儒，二教何嘗病有無？已具蟾宮折桂手，莫同蛙步止泥途。

贈鳳寰楊副戎

李白桃紅自一村，蜂喧蝶攘舞嘉，門幽人本不貪幽趣，趣亦存兮人亦存。

贈鑑玄禪人

奇山異水是僧居，柏木沱邊結艸廬，淡飯黃齏隨分過，天然有目報皇都。

贈印良禪人

同與老僧數十秋，幾番患難孰能酬？淵澄清淨傳心印，四海鯨鱗任爾收。

贈幽之侍者

變生作熟爾勤勞，有日風雲聚會高，始信獅林無異獸，恐將谿水汎全潮。

破山禪師語錄卷第十五

(四世法孫 潭州白鹿寺性慧 辰州龍山常杲 晤寺海藏 雲棲山海定 曲州磚鏡堂憨石修觀同刻破山和尚語錄第十五卷 堆藍弘禮禪人對 秀水謝文英書 倪君亮子天章刊)

(康熙庚申年仲春月吉旦，禾郡楞嚴般若坊藏板)

示偈三

送善菴禪人歸五臺

柳眼臨風匝匝開，意分南北幾經來，一回艸履錢還足，恨不如飛到五臺。

送微言禪人歸楚

長連床上幾經秋，忽地翻身活話頭，走起欲拈行腳事，艸鞋先到楚雲樓。

送百拙書記歸閩

驢年結下苦冤家，今日相逢興不賒，且去鼓山時喝水，快來只此驗龍蛇。

送含璞禪人歸秋林

紫胡狗子睡沉沉，賊打籬笆解轉身，此去再來吞佛祖，莫耽影響吠秋林。

送死心禪友住山

與君同處又同參，廝結眉毛不忍刪，付箇火爐頭句子，有時撥著也心甘。

送丈雪上座南遊

雪骨冰肌誰箇知？臨行相贈扇頭詩，清風贏得還歸握，漫莫逢人露一絲。

送體宗上座歸方山

此番相別真惆悵，一箇西來一箇東，珍重瀘陽雲水客，相從漫莫與人同。

送燕居上座病歸楞伽

瓢笠新新逐暑行，相忘到處可容身，不因病斷膏肓骨，孰向楞伽問水雲？

送觀止法師歸黃龍寺

數年著意此竿頭，一日輕拋未易收，擬把南溟較尺水，黃龍奚肯類泥鰍？

送六融禪人

六融融處更融融，廓落無涯天地空，恁麼海山風月去，艸鞋腳底活如龍。

送無隱禪人歸里

百艸頭邊春信萌，老身必也付歸筇，前途撞著高低路，履歷無疑似萬峰。

送大休法師歸巴江

不覺歸兮悵水雲，巴江講案久生塵，可分半座同行化，為信當機熟未曾。

送蒼蘊禪友行腳

肩荷長長箇蒺藜，煙山煙水去尋師，石頭踢破孃生腳，帶累芒鞋喫苦皮。

送悟玄上座住大樹堂

新秋紅葉滿天飛，珍重闍黎衣鉢歸，大樹堂前開飯眾，四來狐兔盡收威。

送丈雪上座之江南

辭我江南走一走，江南機熟許何久？佳音不敢自囊藏，露布些來看果否？

送彼岸禪人住山

此去深山學逸叟，逢人罵徹始，任他千佛出人間，衲被蒙頭不知有。

送禦木禪人歸里

久擲江干隻眼龜，值逢浮木尚依稀，而今斂爪歸瀘合，但聽風雷活鈍機。

送耕雲禪人歸里

瓢笠孤征毒熱時，此回行腳欲何之？想來故國雲煙杳，望子榮歸路不迷。

送含光禪人歸里

二十五年頃一過，相逢對理葛藤窩，此回歸到瀘陽去，漫莫逢人唱哩囉。

送覺城上座歸平都山

十二年來夢一場，顛三倒四溷時光，而今覺得平山好，分付闍黎去舉揚。

送斷峰禪友歸黃山

痛喫烏藤咄咄歸，逢人漫把惡風吹，沙鐮土灶埋深澗，活煮清泉接鈍機。

送蓮月上座歸九青山

一回相晤一回新，媿我爐錘生愛憎，珍重闍黎千里驥，揚鞭蹋碎嶺頭雲。

送幻融禪人結茅

計窮力極如何歇？刈把山茅打箇結，動靜忙閒解不開，此中正是安身訣。

送靈隱上座之楚

傑出巫山十二峰，遼天杖底攪魚龍，楚雲望斷堪收餌，漫笑華亭推破蓬。

送別枕石法孫

但行吾道即親覲，何必千辛萬苦來？慙及扇頭書小偈，好生將去展襟懷。

送別紫芝法孫

相逢相別意匆匆，幸遇巫山十二峰，帶著峨眉星月走，照人肝膽啟吾宗。

送隱初上座住大寧寺

濤聲萬派自曹谿，分布只教絕所疑，漫道老僧那半院，盛山法乳任施為。

送耳毒法孫歸寶蓮

百里乘駒破暑來，引鞭逐動寶蓮開，老僧沒卻半邊鼻，珍重吾孫袖帶回。

送石雲禪人之江南

吾孫瓢笠到江南，祖脈依稀血未乾，珍重臨行端的句，麥寒寒處水寒寒。

送語之法孫荷師靈骨之峨眉入塔

荷師靈骨上峨眉，始信承當足此宜，氣傲不隨風雨落，時時親覲普賢師。

送指月之川北

艸鞋只怨路頭長，箇樣如何歸故鄉？珍重道傍荊棘刺，漫教撻破爾衣裳。

送天吼法孫

世亂攜鋤住白華，半融芋子半融茶，客來管待般般具，始信風流出當家。

送話石禪人

擬將程限記歸工，蹉過巫山十二峰，幾箇玲瓏幾箇怪，吞雲吐霧不他宗。

送聽雪法孫歸牛山

老僧遺物尚存之，始信龍天作護持，今日重逢為證據，牛山法道任施為。

送朴存禪人歸里

昔年曾住平都山，今日相逢扭鼻酸，珍重持歸作供養，漫將脫去與人看。

送印璋吳居士歸渝州

數載相逢一旦別，獨憐爾我風塵客，錦江曲去奪高標，掉棒只打波心月。

送順空禪宿

留君不住送君行，馬首雲霜逐漸輕，索我歸家端的句，揚鞭處處柳條青。

別我劬樊居士

三顧高巖心未悄，九年面壁意如何？須知此調人難和，接拍新新唱楚歌。

別秉素牟居士

為尋知己汎扁舟，密意風帆孰與酬？共建法幢拈未了，點頭石笑祖燈秋。

別首四譚居士

幾回良晤老維摩，一默榮歸信我何？今日與君開半道，他年有願復來過。

別行素牟居士

差別無為最上談，策君語默轉身難，忽然人報茶來喫，暗笑癡蠅度紙關。

別昭慶松雲主人

幾番行腳幾番來，走破孃生鐵艸鞋，將謂此間多住住，誰知柱杖吼如雷？

別太石長老

吾儕終日著袈裟，伎倆無能盡爪牙，卻被闍黎分半座，共拈一朵合歡華。

別君一院主

瞎驢隊裏幾經來，糞氣全身成禍胎，莫道自心還白了，盧能米熟要師篩。

別悟心長老

悟徹心頭一點疑，能為可作天人師，破沙盆是正法眼，鄧傘丫 非汝住持。

別文字牛居士

忽然良晤在渝城，久熟機緣豈讓人？臨別墨華香宇宙，等閑不與世同春。

寄東川呂相國

老僧行徑惹人疑，不作將三就兩時，桃李也隨肝膽露，難兄難弟吐華詩。

寄遠離毛總制

賣弄曹山酒一壺，顛三倒四醉模糊，閒神野鬼纔驚散，瓠子冬瓜逐隊扶。

寄林一牟將軍

人戶門前滑石版，幾能起跌幾能遠？老僧曾向此經過，雖覺深深猶淺淺。

寄玉光禪人

抱恨歸家豎法幢，酬師漫可自拈香，天池近日多些子，為等闍黎代舉揚。

寄破雪關主

三月桃華謝復開，靈雲見也念都灰，叮嚀囑付三巴子，漫寄關頭一著來。

寄離指上座

十載相聞喫一驚，片言堪可話三更，師徒衷曲終難盡，付與歸筇上碧岑。
翛然滿室無他物，養成一具傲物骨，老僧只此達知音，試問如何三五六？

寄淡竹上座

自從離亂不相聞，忽見人來報喜音，始信吾徒安靜處，一聲白鹿振叢林。

寄雪臂上座(時師目語嵩語錄)

馬度虛名播蜀南，老僧何日得乘鞍？令徒如是加鞭策，試問巒公閒不閒？

寄慧覺上座

七載無音一旦來，始知臭口對人開，龍天且具風霜眼，爍破乾坤笑我儕。

寄聖可上座

見山忘道是偷安，見道忘山非等閑，珍重闍黎恩聖可，漫將滴水當波瀾。

寄六岫上座

兩聞慮我老空山，我慮空山非等閑，況子八關關不住，又餘蛙步走江南。

寄鄒元戎

東北生靈瘴癘消，挺然傑出箇英豪，老僧說法堪依賴，為旭為霖破寂寥。

寄龍門涌泉禪人

一回相見一回新，拄杖權為荅話人，試問髑髏前見鬼，始知就裏有冤親。

寄炎雪禪友

自在桃華嶺畔別，渾然如醉薜蘿中，通身長出參天棘，刺殺山頭瞌睡翁。

寄嬾石法孫

夢眼何如不放開，癡癡蠢蠢臥江隈，老天恨煞雲縹緲，無片高飛到我來。
雲無一片到吾儕，今日何多散漫開，想是谷幽原不定，流來不盡復流來。

寄伯符法孫

自從記翦靈山頭，一字無聞已六秋，今日龍天推送出，令吾懽喜令吾憂。
師子貨中師子吼，群英一見翻觔斗，忽然輓出混天毬，一應邪魔皆拱手。

寄居山聞初禪人

數載雲封不見來，一朝春迅吼如雷，已知在養子牙爪，不覺蒼龍出瀑崖。

寄養玄譚向化侯

吾蜀巫山十二峰，勢參天地有誰同？而今與國堅關鎖，日吐風雲益外中。

寄忠路敦源覃司君

不覺相違十載餘，世情更變人情疏，而今記得當年事，李子機緣熟也無？

寄素菴田居士

瓢笠放身天地走，相逢沒箇逃禪叟，錦江覺得多金鱗，試釣不知機熟否？

寄教宗禪宿

寄與深山老比丘，終朝活計火爐頭，懶贊曾來煨芋苳，高風千古孰為儔？

寄萬壽寺主人

老僧來到沒人陪，幸有當門楊柳垂，只見楊華開又落，不知春夢幾時回？

寄蓮月上座

住山行道要應時，莫學將三就兩而，了得箇中渾不顧，打風打雨尚遲遲。

壽夔州拙谿熊太守

野衲瓢囊無特物，單單一箇死貓頭，拈來獻上瞿塘主，壽與波濤曉夜流。

壽壽伯涂兵憲

我與先生隔一宿，先生長我十餘春，漫將此語論延促，見也觀河悟未曾。

壽淡如劉居士

受生長生與無生，孰箇生生足可論？就裏若知端的意，黃華翠竹一般春。

壽節也黃孝廉

百年三萬六千春，一度禾香一度新，大結霜華輸王粒，穀臺滿載許誰爭？

壽榮寰趙居士

年年四七經華祝，惟有今年預祝何？想是榮催桃李熟，千枝萬顆益三多。

壽乾德張居士

春光初度始為奇，梅柳前村野鳥啼，聽得壽圖添新句，聲聲惟道與天齊。

壽雪臂上座

吾徒母難渾忘期，野衲誘人未足奇，拄杖驢前開正眼，莫將艸料亂離支。

壽蒼松上座

滑石風高與壽齊，挺然獨露小谿西，往來狐兔皆驚異，幾箇惺惺幾箇疑？
茅菴靜坐觀山河，華笑龍吟鳥助歌，就裏不隨聲色者，等同仁壽薦來麼？

壽石砮嵩山馬司君

彈丸之土聲天下，千古阿誰敢擬價？惟有將軍骨不凡，雕弓高向蟠桃射。

壽丈林上座

禪喜菴中逸老禪，與同修竹作同年，同年況有風晴興，贏得心虛節更堅。

壽心修禪人

絕頂孤峰結把茅，了知半世諸塵勞，無生自有無生句，水月空華伴寂寥。

壽九彥禪人

萬竹山中不老禪，與同鹿鶴日蹁跹，風雲日日閒來往，時韻千秋繞法筵。

壽繼竹法孫

一年一度動寒威，報道隴頭春信歸，想是賢孫添壽日，普天匝地放光輝。

壽世知上人

通身是病通身藥，藥病除時壽亦長，試問知公薦得否？與同鹿鶴漫較量。

壽可度禪人

眼前物物何曾改？不改應知法法如，了得箇中不改者，河沙難盡箇頭驢。

壽笑宇唐居士

山水年年笑宇宙，時人不薦生情竇，震威喝徹老維摩，永證金剛無量壽。

壽天池居士七十

箇事從來無數目，誰將七十更為題？庭前祇種一枝柏，嚴霜凜凜愈加奇。

壽敬之呂居士

六十七年彈指中，急須莫把念頭鬆，牙關咬定只教徹，不徹依然昧己躬。

壽合江馮居士

人人不覺老春秋，對鏡方知白了頭，試看村前龍澗水，無分今古壽長流。

壽達吾馮居士

石梁橋是古今傳，活水湍流豈變遷？君壽與之風月老，半瀾江海半瀾天。

壽泰寰張居士

蟠桃核自種驢年，不逐春秋風雨便，就裏有仁能合掌，壽令拄地與撐天。

壽總戎袁聯宇

威名久蜀東，浩氣何雄雄？問我千秋旨，荅君山海同。

壽燦碧楊居士

菊華此日綻，根自種驢年，壽量不思議，傲霜氣骨堅。

壽昇所冉居士

倚杖看龍城，煙雲巖畔起，君同不稍異，所異非君矣。

壽瑞岐楊居士

父子孫三代，完人尚幾家？年年逢此日，壽算過河沙。

壽瑞亭張居士

生也者裏躲，死也者裏躲，薦得者裏時，神僊不如我。

壽紹籌范總戎

益君福祿壽，符合天地人，如此長生術，任從萸萸更。

壽道之胡總戎

忠南多傑者，雲漢了無依，試看江上柳，年年拂釣磯。

壽光大卉生行者

蹇大得生日，**年年**冬與春，雖然有更變，鏡樹識無生。

壽乾素徐居士

君壽比南山，南山尚崩倒，就中不倒者，同與君不老。

壽龍城上座

幾箇極頑石，老高堆上頭，況同仁者壽？溷沌過春秋。

示清白禪人

細細山頭雨，飄飄不見蹤，有時風送樹，和葉落庭中。山中不得閒，共隨雲雨住，艸鞋腳底忙，踏破青苔路。

示湛林禪人

遠意來頻頻，索我痛開口，欲對達磨禪，曹山好顛酒。

示禪石禪人

其性堅且永，其機若禪石，坐破蒲團時，透露箇消息。

示完篤座主

曹山好顛酒，到口絕承當，醉醒合如是，磨磚鏡放光。

示禪木禪者

試問驢**年**事，驢**年**尚未窮，擬將筆舌盡，驢糞卻生蟲。

示若愚監院

期期盡竭力，處眾德猶寬，欲繼葉縣省，豈將常住慳？

示見雅禪者

白雲有深旨，來招我心師，幾度長空舞，笑聲落虎溪。

示語嵩禪人

鼓笛恁麼打，知音幾箇隨，調高人寡和，接拍獨君歸。

示引之禪者

力耕與筆耕，此道可相親，只見田中稻，誰知古佛心？

示習儀戒子

既受諸佛戒，即同諸佛子，老僧亦於中，況復如何耳？

示止止禪人

枯腸欲搜盡，無字與人書，若識無無處，無無要亦無。

示葦東禪人

一葦向東來，十問九不開，如何得的確？九年成禍胎。

示不我禪人

三生六十劫，夢眼幾回開？撞著燈籠笑，露柱卻懷胎。人來問我禪，開口只一咄，此是何意旨？笑中常帶哭。

示牛目禪者

牛山幸有目，爍破四天下，何啻得如之？無人敢擬價。

示岫木禪者

說起新句子，呵呵笑不休，笑中藏利害，漫莫此輕浮。笑裏且藏刀，知之在爾曹，爾曹若不會，辜負我揮毫。

示參微戒子

特來受吾戒，吾戒非淺學，珍重戒法嚴，是名無繫縛。

示完谷禪者

遠遠懷瓣香，來吾雙桂堂，臨行贈一偈，歇腳便承當。

示古拙禪人

幾來雙桂苦，行腳一番新，罵徹尿床漢，如何更問津？雙桂堂前行，蹋翻幾片雲，指頭沒半箇，卻與世人驚。

示若鏡禪者

蹋翻艸鞋來，欲尋歸路急，難參雙桂禪，白紙書黑字。萬竹山中坐，蒲團能幾破？試參枯木禪，只見空華墮。

示佛語法孫

相見易得好，久住難為人，我已拈來贈，任君天下行。

示谷崖法孫

谷崖可深隱，雲散覺天清，適得一輪照，山河艸木新。

示忘我禪人

父母未生前，如羊伴虎眠，不知此利害，妄想當參禪。父母未生前，本來無面目，時人若不薦，開口還一咄。

示大奇禪人

來參雙桂禪，夜板不成眠，更有奇特處，種丘晚穀田。

示發用上人

達本原不二，隨業露多名，本來無一物，發用滿乾坤。

示燕樵禪者

程途經萬里，底事卻如何？欲到含元殿，長安從此過。

示爾寧禪人

住山須忘道，見道卻忘山，若道忘機處，鳥魚任往還。

示四聰禪者

來吾雙桂堂，佛法可商量，試問歸家句，峨眉佛放光。

示心空碗頭

雙桂行門滿，急欲老僧書，莫道乾坤窄，其如聲五湖。

示鳳臺毛居士

試問主人公，相逢驀面掌，可知痛癢否？不識隔霄壤。

示白崖禪人

山中住幾許，道念卻何如？只見華開落，興同木石居。

示寶月禪人

冒險來雙桂，得聞一葉香，此回歸寶月，照徹永無殃。

示燕巢禪者

來參雙桂禪，箇裏沒中邊，始信老僧事，驀頭痛與拳。

示懷素禪者

萬竹山中坐，高節要心虛，若了其中旨，法法與人殊。

示戈文禪者

峨眉山頂月，迴迴照十方，始信前賢說，馬駒聲遍揚。

示曇雲禪者

來我雙桂堂，對渠無法說，一條短杖藜，與爾堪行腳。

示九昭禪人

不識高梁路，行來甚寂寥，禪參無意味，知此卻風高。

示玄暉戒子

來參雙桂禪，如羊伴虎眠，有時遭一口，怨聲萬萬年。

示昌昌禪者

來參雙桂禪，領眾開荒田，機用一般別，他全你不全。

示紹宗法孫

瓢笠來雙桂，征衣尚未乾，歸程卜在即，令我復心酸。

示耶湘禪人

白棒沒有人情，聞風便退去，有時知痛癢，始信大乘器。

示繼竹禪者

試看庭前竹，心虛節更堅，不隨風雨變，蒼翠到驢年。

示竺意禪人

雙桂禪堂窄，難容四海人，一朝得瞥地，千古為冤親。

示萬一禪者

欲參雙桂禪，猛力開荒田，佛法亦如是，何愁不現前？

示靈碧行者

磨墨真心苦，求書沒奈何，老僧纔舉筆，已是葛藤窩。

示見若禪人

獨坐小樓中，看雲起石峰，握之不可得，是竅皆玲瓏。

示徹天知客

乍入此禪期，高賓罕盡知，迎來送出去，且道是阿誰？

示現知禪者

來參雙桂禪，語默俱悄然，忽地驀頭打，其如痛癢前。

示物外禪者

物外有諸方，諸方多意氣，不學文字禪，方得大成器。

示徹也莊頭

不知身是苦，以苦欲捨之，試問其中妙，插鍬尔已知。

示意玄戒子

為道歷千山，艸鞋錢孰還？有時逢滑石，管取腳頭寬。

示本一禪人

涉水與登山，徒勞將自瞞，豁然腳底下，踏破艸鞋穿。

示默念莊主

做就莊家活，田園五穀豐，諸方禪衲子，共享太平風。

示無私禪人

一葉飄秋落，千山雲覆藏，我家渾不戀，即此兩相忘。學道從來別，天涯星月孤，早知天盡處，雲霧起江湖。

示世美胡居士

遠來索我書，不以文章賦，但可得其全，天下始有悟。

示見吾李居士刺股愈親

毀形盡忠孝，忠孝終不妙，即此嬰重心，公然合至道。

示李居士

索我臨行句，當頭一棒親，痛聲情未瞥，忽見本來人。

示張文學

偶共嵩呼語，相期別有時，且將乾屎橛，分付與君持。

示付衣成居士

跳出金剛圈，吞得栗棘蓬，破山門下過，莫道不相逢。

示見字熊居士

竹杖行山去，雲山撥轉頭，要知腳底下，黃葉滿空浮。

示桂寰彭居士

居家人應佛，出家人非佛，究竟是與非？不知佛何物。

示尼心源

精進持禁戒，猶如護明珠，若然知動靜，真是大丈夫。

示玉亭鄧居士

偶面忽然別，情濃境亦濃，天城山水渺，卻與老僧同。

示見字李居士

同來雙桂堂，歸去各飄香，穿透世人鼻，無人自感傷。

送蓮月門人歸渝州

說起臨行句，山頭萬木新，和煙折一手，相送杖頭春。
破山禪師語錄卷十六

(四世孫 楚澧州 龍潭明初 慈利道林明善 鼎州大龍光膺 蜀新寧牛山真
樞 萬州百福山天圓寺廣徹 潭州西峰益聞同刻破山和尚語錄第十六卷 堆藍弘禮
禪人對 秀水謝文英書 倪君亮子天章刊)
(康熙庚申年季春月，嘉禾楞嚴般若坊附藏流通)

佛祖讚

釋迦老人

冷坐六年，頓空三際，號釋迦文，說波羅蜜。咄！不知老面皮厚了多少，來借山僧鼻孔出氣？
不坐潔白地上，慣要落草盤桓，說去說來，末後自了，自是瞿曇。

彌勒大士

者箇彌勒，似同活賊，立向人前，不勝懽悅。打開布袋曰：「有收有放。」露出胸襟頭，無巧無拙。本欲善取一文，誰料強生枝節？呵呵！施者、受者意如何？總是當他笑臉不得。
著甚麼急？討甚麼碗？擬欲奉承一棒，只是伸手不打笑臉。

觀音大士

觀音大士，獨坐崖中，手執如意，其窟玲瓏。曾有悲願，無刹不融，欲人所感，現應非同。三十二相，一目圓通，全身普現，豈止血書？流遍塵刹，音徹五湖。噫！想是多生願力，與人供、與人圖。

玲瓏巖畔，紫竹林中，淨餅楊柳，鸚鵡鳴空。如是謂之觀音，普天匝地雄雄。

鸚鵡如是白，竹又如是紫，獨坐普陀巖，善應諸方耳。蓮華洋兮波騰徹底；梵音洞兮潮聲不已。呵呵！堪笑願力來，送上麒麟子。

普賢大士

萬行莊嚴，獨標西蜀，主峨眉山，光國王土，有情、無情，今度、當度。拈出白象，鼻卷華舞。馨香射人，如塗毒鼓。耳者膽喪，睹者目瞽。何其普賢圭角太露？

三大士

文殊騎獅，普賢駕象，釋迦老人端坐其上。雙松所倚，韋馱相向，離三而一，一不成兩，號令人天，時時瞻仰。咦！也是一番榜樣。

伏虎尊者駕象普賢

伏虎尊者，尚解虎鬥。勢在錫，果不唧溜。若降虎威，目觀乎後。呵呵！堪笑象普賢，共尊者一並漏逗。

羅漢

天然椅上，古餅古爐。有何物，樹也珊瑚。黑面碧眼，手卷經書。咦！雍雍胡跪蒲團上，讀斷海函一字無。

過海羅漢

十六尊者，各逞奇能。振錫兮則虎嘯；捧鉢兮則龍吟；持杖兮攪長河為酥酪；揮塵兮變大地作黃金。一任水鬼之伎倆，難寫羅漢之應真。

降龍羅漢

明珠光相耀長空，非白非青非綠紅，引得毒龍降鉢內，莫言尊者弄神通。

達磨大師

者漢西來，虛頭賣弄，逢人駕蘆，遇水珍重，面壁嵩山，心安骨董。咦！任從天下縱橫，一切魚龍擾動。毛頭毛腦，懶剃鬚髮，撥無因果，不會佛法。形狀古古怪怪，言語兜兜荅荅，者箇慘怪東西，如何畫得相恰？呵呵！若面羊皮鼓，不打自響，是甚麼？嚦嚦。

握杖達磨

者箇老漢，全無計算，前不搆村，後不抵店。握條拄杖，橫打豎打。千古瞎驢，東賺西賺。

南嶽讓和尚

甚麼物也恁麼來？八載遲疑一念灰，修證不無染不得，倒提磚鏡碧塵埃。

馬祖一和尚

車牛俱打意何如？逐動金剛禪忽蘇，三十年來無賸物，獨餘鹽醬滿江湖。

百丈海和尚

摩天野鴨與麼飛，觸著鼻頭哭笑歸，次日法堂來卷蓆，欲人無說發人機。

黃檗運和尚

昆蟲艸木皆如夢，一聽春雷蟄戶開，走者走兮秀者秀，黃鸝休向舌邊裁。

臨濟玄和尚

東家中毒西家發，不覺西家毒更深，轟掌築拳秘不住，風顛從此播叢林。

昭覺勤和尚

三佛之中一佛強，滅吾宗者乃承當，西來祖意庭前柏，影逐金雞啼過牆。

虎丘隆和尚

見猶離見非真見，頭上安頭便豁然，柔易試看磕睡虎，爪牙終是露人前。

東明岳和尚

豎枯脊梁涌扶桑，爍破乾坤不覆藏，影落安谿三十載，魚龍濟濟任奔忙。

天童悟和尚

遠續曹谿，近嗣龍池，**年**將九九，鬚髮銀絲。婆心不歇，示外威儀，脫於紙上，命不肖題。欲讚欲罵、且信且疑，付之以焚，真報吾師。

相違數十**年**，一見生懊惱，誰脫於紙上？吾將秃筆掃。非題亦非讚，是歹亦是好，都盧付一棒，此棒豈艸艸？咦！痛癢今朝識兒孫，原是賣柴蔣三老。

吾師貌古，渾若猛虎，不露爪牙，超佛越祖。咦！遍地兒孫，都打者鼓。

謂是吾師真，認真還是假，真假俱不立，痛棒驀頭打。觸著堆柴近目前，情無情也俱翛然，纖塵不許輕回話，連喝和聲驀豎拳。四六**年**來影復逢，儼然如在稠人中，一瞻一禮酬三拜，皮髓應教落下風。

老漢七十七，其年終天地，一條白棒頭，千古令人憶。噫！為人切處太心孤，與佛祖昂昂出氣。

徑山雪嶠和尚

者箇毛頭瞎秃，僧又不僧、俗又不俗，坐斷雙雙，道通天池天目，有時喝風棒月，有時神出鬼沒。我昔曾遭魔魅，至今冤入髓骨。不打六十年前鼓笛，且向語風居裏作箇古佛。

自讚

石蓮馮居士請讚

者箇病和尚，生來古怪樣，撞著李次公，十畫有九相。髮際鬢鬆鬆，眼界空空蕩蕩，住止東塔街頭，遊戲南海岸上，肚裏無滴墨水，慣要興波作浪。蹋出虛空骨髓，橫按一條拄杖，任他魔佛人天，都來喫頓痛棒。阿呵呵！莫道破山本分艸料不成供養。

念中程居士請讚

身服藍衣，面如黃蠟。無心世間，有志林下。問是阿誰？破山老衲。

侍橋程居士請讚

舌長口窄，語淺義深，說處難曉，令人易惺。莫是箇乾屎橛、荊棘林？嗅者腦裂，視者刺睛，無端惱殺丹青。咦！畫虎畫皮難畫骨，知人知面不知心。

東川呂居士請讚

燕額虎鬚，碧眼螺髮，身披紫衣，拽杖抬捺。呵呵！堪笑四川川老蜀，原來是箇破布衲。

二祖雪臂門人請讚

者箇臭糟餅，逢人覲面呈，氣昌流俗輩，顛態風魔僧。棒喝如掣電，機鋒若弄雲，兒孫請我讚，千古留罵名。

昭覺丈雪門人請讚

推不向前、拽不退後，畫又不成、描又不就，惱殺丹青，出吾百醜。呵呵！且道是誰？破山病叟。

蒼松首座請讚

兩浙喫交，三巴絕倒，崖居穴處，食木衣艸。苦志出頭，任人天保，打翻觔斗，以老賣老。咦！是甚麼活跳蚤？

德山竹帆門人請讚

看此老，沒帳算，一條拄杖全身現，有時特地攪魚龍，鼓起波濤逼霄漢。本是竹陽一野夫，逢人只向他道箇，莫惡少、莫閒賤。

默石門人請讚

咄咄咄兮明四喝，棒棒棒兮透三玄。一任人卜，我是神通妙用；一任人卜，我是法爾如然。

開縣令萬鼎臣請讚

白紙渾無像，何須更圖狀？若人體任之，即是破和尚。

空如監寺請讚

萬峰山上曾住，雙桂堂前任時，可謂法無定相，翻轉今昔面皮。
咦！幸有遼天拄杖，亦可指人悟、亦可發人疑。

玉泉蓮月門人請讚

者箇川老蜀，渾無奇特處，問禪禪不知、問教教非熟，癩散三十年，
人天忽推出，握條短杖藜，打佛兼打祖。

天樹禪人請讚

髻^年傑出，三巴三峽；做箇禪和，沒偈沒[仁-二+(天/韭)]。錯過春秋，五十有餘，住持已滿，十大名刹。噫！原來熟處難忘，
只得將七將八。

天柱禪人請讚

謂是老僧像，全然都不相，若將作影響，欲讚返成謗。噫嘻！堪笑者阿師，
握條大白棒。

天池禪人請讚

婆心為人，握條拄杖，東打西打，天謗人謗。呵呵！堪笑不知痛癢，
都來依葫蘆畫樣。

常明禪人請讚

道是老僧面目，全然無甚可述，不如翻轉面皮，天下浩然獨步。

月朗禪人請讚

即字即像，留來供養；離字離像，人天榜樣；字像俱非，破山和尚。

靈隱門人請讚

年經六十九，作事不唧溜，撞著惡金毛，遭他咬一口。莫是萬峰中破山病叟，現身雙桂堂，面南看北斗。咄！

師林禪人請讚

千出醜，萬出醜，無奈兒孫繼其後。一日三度瞻禮，不惟有益，返惹人咒。咄！

心朴禪人請讚

名欽四海，道重天下，人若問著，驀頭便打。呵呵！堪笑胡椒老鼠，毒氣恁麼惡辣。

可可禪人請讚

身披法服，道出尋常，手持白拂，儼如放光。噫！未審此中說何法？當機拄杖著忙。

雲幻侍者請讚

棒不打人，塵生一尺，縱然有眼，倚牆靠壁。噫！任教拄地與撐天，還借拂子頭出氣。

丈林門人請讚

曹山酒，臨濟棒，惟有老僧更倔強，撞著泰山石敢當，逢人痛與一頓棒。咦！試問何人？破山和尚。

大吼門人請讚

種自渝城，姓標蹇氏，大竹生長，枝葉遍地。嘻嘻！笑殺尔與我，同坑土無異。

本源門人請讚

天上天丁，舉世無比，入廛垂手，逆行有幾？呵呵！堪笑三巴國內，難著渠萬竹山前，與人煩惱、與人懽喜。

壁觀門人請讚

一手執杖，一手撫膝，試問如何？有所不必。咦！條條直直儼然是，覲面逢人道不識

水月禪人請讚

年經七十，污人紙筆，畫又不相，描亦不似。道行江北江南，禪通山間水際。呵呵！堪笑不唧溜的老漢解說波羅蜜。咄！

印水監寺請讚

曹谿水源，天童木本，雙桂飄香，四海難隱。呵呵！堪笑天人師與一切冤親平等。

寂光門人請讚

無名無像先天兆，有是有非後覺知，不涉有無真面目，永遺代代天人師。

靜行禪人請讚

棒頭有眼，爍破天下，撞著箇人，一戮便瞎。耳其聲兮似恰，窺共色兮惡煞。呵呵！堪笑雙桂老凍儂，逢人一味鞭撻。

參之侍者請讚

鬢鬆螺髮，妙年青姿，握條拄杖，打人祖師，若知痛癢，相繼承之。呵呵！堪笑世人，何其太癡？

本空禪人請讚

者箇老和尚，顛倒渾無然，一任佛與祖，都盧喫頓棒。噫！自從胡亂後，三十年不少鹽醬。

易菴西堂請讚

千古一杖，萬年一念，魔佛俱非，誰通一線？咦！也是矢上加尖，空中掣電。

耶湘書記請讚

破頭山上喫交，福城東際開口，揚聲只教痛煞，沒箇人來對偶。噫嘻！也是蝦跳不出斗。

雲拙禪人請讚

曾住破頭山，尅羸甚不堪，口唇猶剝棗，病面若藏柑。楮火供暖，毳毼衣避寒，龍天推出世，留與在人間。

石幢首座請讚

萬竹山中打坐，雙桂堂前鼓舌，一任鑽龜打瓦，總教痛快不徹。咦！逢人一棒一條痕，機下一掌一握血。

天竺禪人請讚

白棒打人，鮮血遍地，要知痛癢，始識其意。呵呵！堪笑臨濟兒孫，倒有些惡辣氣息。

無私維時請讚

年老六十有三，口頭終日喃喃，說些沒滋味話，與人放曠打熬。噫！手持一柄拂子，試問諸人好參。

百城門人請讚

握杖不打人，知是機不濟，始信頑石頭，顛三並倒四。謂是吾之真，況無衲僧氣？呵呵！堪笑川老蜀，魔宮虎穴遊戲。

六岫首座請讚

年登八八，返倒瀟灑，竭力為人，人不知也。祇握一條白棒，付與天下兒孫，撞著佛也是打、魔也是打。

三止禪人請讚

握杖為人，人多生障，直條條地，絕其伎倆，且道是誰？破山和尚。

深省門人請讚

者箇老凍儂，隨處得自在，揮塵山石間，說法俱無礙。有時看雲去雲來，有時看華開華落。咦！一任四海五湖，卻把老僧勘破。

禦木門人請讚

本是四川老蜀，逢人驀面震威咄，不知此意是何如？山自青兮水自綠。

忍微門人請讚

得粒金粟，撒遍天下，一雨二露，三冬九夏。果蜀華吳，滅梁生大，若聖若凡，沒偈沒[仁-二+(天/韭)]。有時高高峰頂立，超佛越祖；有時深深水底行，痛打臭罵。率性撥轉蘆頭，慈航倒駕。呵呵！如此行徑，反增聲價。

耕雲門人請讚

萬峰活埋，雙桂飄香，一般意味，千古難藏。狂蜂亂舞，粉蝶伏墻，一條拄杖，驀頭便打，唯要人人點首皈降。

當臺門人請讚

打又不嗔，罵又不喜，一日九拜，活活咒死，老僧薄福，與世人作箇綱紀。

雲嶠監院請讚

遠繼曹谿，近嗣龍池，破山末後，好老面皮。咦！漫道源遠不絕，永作人天之師。

穎初首座請讚

一又不成，二又不像，惱殺丹青，百古百樣。未知是誰？破山和尚。

笑宗門人請讚

本是竹陽老僧，為人一味甘貧，杖頭有子氣，終只想打人。咦！也是路見不平。

指北知客請讚

華開樵李，果熟蠶叢，驀筍撞著，電卷雷轟。咦！子去江南歸來，與吾金剛圈栗棘蓬。

西來禪人請讚

手持白拂，身靠幽石，東土婆心，西來大意，擬欲讚謗，翻成賸跡。咦！也是餬餅裏呷汁。

朴存禪人請讚

惱煞丹青，出吾百醜，眼橫鼻直，河目海口。咄！說出幾句毒死人話，一任禪和南奔北走。

兩石上座請讚

口似磔盤，眼如掣電，手持白拂，當機浪卷。左拂兮佛也不前，右拂兮魔亦不見，任渠搬盡伎倆，且向第二頭侍者邊挺身自薦。

立雪禪人請讚

是相是真，罵亦不嗔；是真是相，讚亦成謗；讚謗俱非，泯絕真妄。如是平等轉大法輪，至令信者、疑者無復以此為憑。

伯符法孫請讚

欲吾真字，即吾真像。字像俱非，冥然何狀？

石雲禪人請讚

年方六十有二，作法顛三倒四，說是破山和尚，偏然到底不識。

紫芝法孫請讚

頭髮鬢鬆，揮塵談空，山巔水際，行止如龍。道是破山和尚，也是喚甕作鐘。

密旨禪人請讚

萬竹山中，雙桂堂前，捉摸不住，孰聖孰賢？若道是破山和尚，夢到驢年。

燕石法孫請讚

將吾字兮作吾像，即此乃為真俱養。若道老僧返顛倒，劈脊痛打三十棒。

身靠幽石，手持白拂，無法可說，但觀瀑布。左右侍者，拄杖如意，適全其用，不拘文字。呵呵！堪笑者破山病叟，令人嘻、令人戲。

三壁法孫請讚

生不逢時，處於惡世，棒不打人，倚牆靠壁，只用三寸綿軟舌，說去說來沒蹤跡。咦！也是糊餅裏呷汁。

牛目法孫請讚

惡性頭陀，非佛非魔，握條拄杖，如何若何？驀直打人，機扣禪和。咦！也是平地生波。

徹靈禪人請讚

拈塵說法，人莫之曉，慈悲之故，只得落艸。咦！拄杖靠背，虛空笑倒。

法印禪人請讚

數十年來，說法行道，經歷艱險，無顛無倒。呵呵！堪笑拂子亂拂，拄杖一棒棒倒。

發印禪人請讚

字像從來沒兩般，兒孫滿地得安然，幾將欲入蒼龍窟，只恐時人去妄傳。

靜浪禪人請讚

遊戲山林，回觀山谷，握條拄杖，逢人便咄，打著箇漢，指條活路。嘻嘻！惱殺丹青，寫吾皮、露吾骨。

發榮居士請讚

握杖山水間，以之恣遊戲，看來人世中，幾箇空名利？珍重老維摩，供養亦如是。

修福禪人請讚

道真必是假，道假必是真，真假俱不立，且道是何人？咦！也是觸體裏眼睛。

湛宇禪人請讚

者箇毛頭毛腦，佛法有所不曉，握條白棒為人，端要驚蛇打艸。

繼六禪人請讚

坐盤陀石，手執塵拂，細思量起，口說不出。噫！也是鎮州蘆葢。

見南禪人請讚

靈山發脈，曹谿始嗣，流派馬駒，道昌臨濟。噫嘻！至我天童，兒孫遍地。

天鏡侍者請讚

打人棒頭，撐天拄地，正見撥開，光徹三際。咄！雖然沒甚恩威，返道有些虎勢。

守一禪人請讚

物外諸身，諸身物外，一條杖藜，周遍法界。噫嘻！堪笑老凍儂，猶有鄉情在。

本來禪人請讚

徹骨為人無一物，打風打雨令人怖，有時立在妙高峰，四面八方沒回互。

何善人請讚

竹陽百姓，臨濟遠孫，二諦融一，一非所存。致令見者、聞者、供養者，直教棒下薦取無生。

海玉李居士請讚

年經七十，常住在世，鬚髮皓然，眼橫鼻直。呵呵！堪笑此老翁，連自猶不識。

大奇禪人請讚

無像之相，是名真相，但著點染，已成別樣。若得不別，不在丹青筆上。

洞源禪人請讚

者箇禿物，穿紅穿綠，惡貫人天，來觀瀑布，任是高山流水、華木石竹，一段風光盡向拄杖頭邊獨露。

本一禪人請讚

握杖閒行山間林下，看雲飛，看雨灑，逍遙物外。何人問者？莫道破山，老宿開口便打。

尓寧禪人請讚

六十甲子，牢籠不住；四十僧臘，打擾不開。又值年荒世亂，只得學箇癡獸。咦！拄杖頭邊出佛祖，震威一喝吼如雷。

彼岸禪人請讚

江南江北，幾曾行腳？天上天下，惡聲已播。見者、聞者、供養者，快得安隱，即得解脫。

心空禪人請讚

生處竹陽，出世高梁，六十有五，經幾相忘，忽然撞著，丹青寫吾骨格、供吾衣裳。

忘我侍者請讚

如汝髻頭，無是髻頭；若無是者，無二髻頭。呵呵！談笑遍天下，沒人與我同流。

渭陽金居士請讚

烏髮碧眼，燕額虎鬚，為人切處，拄杖不離，打得徹骨徹髓，莫教分肉分皮。咄！

繡石禪人請讚

圓頂方袍，嗣祖英豪，墮在其數，一世眼高。呵呵！堪笑錦江理沒，卻來高梁震威一喝。

悟玄禪人請讚

者箇老和尚，生來沒勾當，逢人不說禪，開口便成謗。圭角太露兮，日就月將；形神最妙兮，百般五樣。呵呵！笑煞天下人，不識破和尚。

月如禪人請讚

口若磔盤，說法無聲，逢著便棒，何疏何親？咄！也是弄鬼眼睛。

凌虛禪人請讚

體吾真，識吾面，一切聖凡如閃電。呵呵！笑倒老維那，一下鉗鎚兩處薦。

東也侍者請讚

若現半身、若現全身，拄杖在手，勿論疏親。咦！魚龍眨眼，鬼神喫驚。

昌昌禪人請讚

遊戲山林，看華開落，已知生滅，無得無說。咦！也是一番行腳。

雲谷禪人請讚

懶散自若，志耽丘壑，以何為人？拂子當頭一劃。

明暉禪人請讚

為僧不習威儀，端要敲骨打髓。手握一條白棒，逢人直打到底，雖然當下不徹，過身卻了生死。咦！

湧泉禪人請讚

握條白棒，不順人情，逢佛遇祖，一並施行。咄！始知不枉為臨濟兒孫。

南溟禪人請讚

出世三十三，名剎五處五，佛法總不知，只解打口鼓。
破山禪師語錄卷第十七

(荊州善信 姚君之 詹洪耀 王元海 熊洪璧 樊發仁 胡養讓 于發修同刻
破山和尚語錄第十七卷 堆藍性同禪人對 秀水謝文英穎仙書 倪君亮子天章刊)
(康熙庚申年季春月，嘉禾楞嚴般若坊附藏流通)

雜偈一

金粟辭師歸蜀

適來此處寄殘身，不覺疏慵病日深，慚愧坐消檀信食，躊躇辜負
行人心。艸鞋腳底龍蛇競，拄杖頭邊佛祖沉，八萬四千功德聚，
了無一法報叢林。

業業瞻風五六秋，腳跟下事愈沉浮，且隨夢眼回川去，刈把山茅
來蓋頭。火種刀耕糲粥飯，于騰萬倒養高流，有時穿著吾師鼻，
拽向人前賣不休。

辭樵李檀越

打水魚頭漸覺酸，不如歸去且圖安，零星佛法奚終用，些子離騷
曷足歡？月冷南山飄箇葉，舟行西國入重巒，此方未盡鋒鉞興，
在處推蓬下釣竿。

次我叻樊總制韻

兩來此地適奇逢，一棒當頭繼祖風，行腳尚乖荊棘路，歸家應笑
野狐蹤。忘機喜見窗前鳥，落節愁聞飯後鐘，不是老僧多賣弄，
長人筆底逞詞鋒。

復法弟石車和尚

自喫吾師痛棒來，通身惡息吼如雷，艸鞋已解翻龜背，破灶先能
出鬼胎。潦倒然燈交露柱，癡憨彌勒笑樓臺，話長話短隨豐儉，
一任禪和臭口開。

復君山文督學

古音落節阿誰調？客作隨人敢見招，日聽妖氛將瓦解，時聞劫火
正冰消。填溝癩犬難搖尾，塞壑饑民易折腰，雖是與君同陋巷，
聖賢一脈不寥寥。

懷和石孫居士

不枉同開選佛場，相隨八九野郎當，華開樛李承君力，果熟蠶叢在我揚。煙雨樓臺惺醉艇，峨眉山月照禪房，此情此景人難盡，付與曹源流派長。

壽培之李總制

威鎮蜀南與蜀東，賢豪傑士盡輸衷，桃園果熟邀僊子，巴國民頑起化公。義膽忠肝扶社稷，血衣汗馬鼓玄風，而今祇用綿軟舌，說徹洞中丹鼎紅。

宿玉屏山

玉屏高聳萬山中，道涉懸崖路欲空，一箇病僧閒憩錫，兩行雲樹怪嘶風。禪床夜永驚清夢，佛殿燈澄省舊容，擬把鉢盂吞日月，為憐居者要降龍。

因事感懷

年將六十覺顛連，病眼空華從自妍，不住雲岑隨鶴舞，忽逢魔子索腰纏。栖心竟到貧如洗，格物愈期富若淵，漫謂松堂星月冷，鉤錐時對野狐禪。

雙桂警眾

朝朝縱逸三家村，靠壁扶籬倚樹根，叫笑不知參有路，狂歌翻謂學無門。將期道遠絕孤獨，豈料法微殃子孫？醒眼看來渾是夢，希賢希聖復何存？

天祐遣懷

卜得山居歲月艱，身貧覺落許多閑，無煩香積頻吹火，嬾拄柴門早放參。衲被蒙頭酣睡足，糲羹塞腹耐饑安，也知樂道因時逐，豐儉隨家莫妄攀。

警緇倫

出家僧行有千差，莫道形同無正邪，瞥爾不遭溫飽鎖，俄然又帶靜禪枷。儀容濫膺人恭敬，過惡輕遮鬼錄查，叮囑緇流休錯會，羽毛鱗甲失袈裟。

平西營居

隨營縛箇茅茨住，八口三餐歲月艱，乞食杜門僧空走，買糧斷路客無還。安心學圃蟲苗稼，舉意逃荒虎野山，種種愁哀對鳥語，高飛莫妄忘其間。

插秧口占

三家村裏老農忙，未得天明閒普柳，垢面去隨泥水淨，閒身來逐鼓鑼狂。歌聲大發倦人膽，笠影橫遮散雨光，雙桂住持非剋薄，要將底事勝諸方。

茶臺山居

九嶺山中九帶禪，一谿風鼓一蒲團，時聽古洞傳新律，日舞枯藤惺舊顏。壁立豈堪容意馬，崖虛擅可縱心猿，此中不許紅塵到，破衲和雲枕石眠。

從軍行

削髮為僧三九^年，將期此世得完全，誰知趨吉遭塗炭？始信乘危受倒懸。濟眾日攜解虎錫，從軍時荷趕山鞭，老來不問賢愚節，半學兵書半學禪。

忠路大樹堂與雪眉上座言懷

隨遇安身到九夷，頑機莫化自淒淒，無心學得偷天日，有口宜將挂壁時。城地況同山地靜，世廚豈異香廚齊？爐頭撥火拈新句，益我師徒解皺眉。

夏日訪虛白禪友憩蟠龍洞

為尋知^己此經過，忽聽風濤汎碧波，消暑不須吞半杓，穩龍奚用怒多訶。蠻生石甲疑滄海，旋長風藤別薜蘿，擬議欲貪堪說法，

白雲催我上高坡。

母難有感

閒將筆硯展愁眉，寫上雲箋雨淚垂，報滿百^年思去半，眼高一世覺來遲。從前知^已今何在？格外交肩始信誰？莫道我儂空我相，人人尤命不尤時。

午日復太常古文學

萬峰白兔若萍蹤，兩度無依惆悵中，峻壑不堪眠艾虎，瀑巖豈肯臥蒼龍？王城乞食攜盂嬾，野戍談兵握劍慵，數日蒲樽非得意，還尋藤笠與君通。

復東林黃居士

每每事從叮嚀來，句裁裁句句誰裁？蒲團對月塵心破，拄杖逢人夢眼開。瀟水魚龍奔浪靜，宕山狐兔逐雲猜，想君舊有登壇約，相共拈華七寶臺。

復象崖上座

吾儕蜀地幾經秋，煅煉山童解牧牛，水艸頻頻饑復飽，鞭繩數數放還收。披蓑日演松間月，揮麈時驚江上鷗，六處煙村難覓跡，一聲麥笛喚回頭。

復澄靈禪師

因僧問我西來意，話及居山有數年，折腳鐺煨三合米，爛麻繩補一條肩。雲根每見穿危石，月渚常流透碧泉，恍惚不通方外術，時添艸料瞎驢前。

和水月禪師韻

五湖風月罷孤征，駐錫山隈近虎城，日誦貝多遮耳目，時吹麥笛樂昇平。鳥飛枯樹樵留影，華落泥田鉢應聲，今古聖賢無異路，相承只貴眼雙明。

勉祇園禪師山居

奇逢不覺四年頭，志節孤危迥上流，乞食爛瓢過玉爵，禁寒破衲傲王侯。遼天拄杖斷還接，脫鼻芒鞋棄復留，欲學隱山聲價重，無何谿口菜波秋。

送性空禪人歸山結茅

行腳多年計已窮，誅茅隨處結茅蓬，道餘何用三條篋？行滿非從一日工。空口鉢盂常上醖，實心拄杖每生蟲，枯腸漫向人前寫，畏米深山制毒龍。

與文初禪人

搜盡枯腸無一字，傾湫倒嶽任施為，泥牛曾向野田去，木馬長驚柳岸移。怪石若聞應點首，奇華如見也生疑，老僧不是頻饒舌，痛為禪人惜兩眉。

復宗白上人

杖影翩跹落小谿，魚龍輕觸亂招提，不隨跛鱉吞香餌，安做癡蠅逐臭醯？肯縱禹門奚點額，欲騰霄漢始為題，筆尖哀曲付猿鳥，叫遍天涯徒自啼。

訪空如禪人

莫道相逢不相識，今朝相識又如何？曾聞壁上高僧輩，試看江頭漁父蓑。雪夜但將綸線理，鐘沉漫把織機梭，我來不問人愚智，惟有松扉挂薜蘿。

哭雲門湛然和尚

師逝江南動五湖，光潛特地水雲孤，白沙堆裏霾松月，濁浪谿邊淹濟蘆。顯聖宗風千古韻，天華貝葉一時無，昔來覲面法堂上，今日如何哭畫圖？

弔福嚴費隱和尚

忽聞吾弟歸何速，益我勞勞苦不休，西蜀高粱驚雨淚，東吳崇德冷煙浮。人天福果纔生色，佛祖爐錘又值秋，願得早開三峽口，木鵝展翅五湖遊。

舟中弔震字張都督

雄雄氣宇出都門，兩岸蘆華風月迎，玉帶更增山海秀，錦衣逾顯鏡臺清。洗心愛聽名僧話，染耳愁聞貴子聲，莫是洞天閒骨董，偶來塵世暫為賓？

弔太常古文學

筆硯同心剛兩年，何期先我去逃禪？蠹魚欲吐三生夢，小玉頻呼一粥緣。倒砌殘紅誰解舉？摩天嫩綠自能妍，可憐昔笑今成哭，冷淚如冰落柩前。

弔榮吾姚薦紳

忠孝仁人欲盡之，惟公不與眾相馳，亂機靜壑安天日，治況封疆樂地時。家廟已增千古慶，錦堂早謝一身遺，漫言聲價無泥水，尚繼凌煙有去思。

悼李邑侯遇難

字之宦海汎扁舟，風浪徐經逐石頭，伎倆日撐還就岸，機關用盡別成讎。忠肝義膽將何益？蠅利蝸名豈自由？堪笑時人不解薦，頻拋白骨露荒丘。

弔象崖門人

遙聞鐵鶴已翀霄，留下空巢期寂寥，瓢笠恩隨雲水散，風幡義逐雨華飄。廿年鼓粥終初志，十處開堂始是豪，同汎錦江三峽上，豈知爾去益吾勞？

弔破雪門人

將謂驢年一禍胎，誰知先我別塵埃？空搖斷舌法堂冷，遠送殘衣方丈開。四海傳聲驚木落，三巴取淚灑吾儕，專人特地來相語，

願子靈機永古錐。

弔默石門人

不覺已經歸二七，孤光寒影落平西，伊蒲妙供勤來學，寶炬冥錢識所知。成佛尚同翳在眼，就中奚取蓮開池，臨行忍聽諸方罵，媿我鉗鎚未辣施。

弔覺城門人

歸蜀經今三十秋，逢危遇險落沉浮，雖將鉢袋期推托，豈料萍蹤不怨尤？道邁羅山堪繫鶴，堂開錦水可停舟，只緣緣分生修短，苦我無成到白頭。

弔心海法師

前面尋君未面君，今來特地感何伸？空留講肆奔雲水，驀剔孤燈示暗明。千佛尊尊誰欲做？殘經卷卷自敷陳，我來冷淚流霜眼，半洗空山半洗塵。

弔玉屏山無著禪師

絕頂孤峰結艸標，修行得力業來消，了知魔障禪非遠，始信西方路不遙。鐵脊豎枯堪有定，蒲團坐破本無聊，老僧即此權為弔，常寂光中媿我曹。

贈密空禪友伴親柩

瞿曇摩耶一坑埋，免致兒孫疑去來，霜樹葉吹風引日，金河水瀉石生苔。道殊半滿誰堪委？機合偏圓孰肯裁？不是密公高履處，空門那有活棺材？

聞虛白友人訃音

積懷將謂還同居，豈料專人報訃書？百世愁腸斷易續，萬年愛網密難疏。風高白兔隨亭冷，雲滿蒼龍聽岳呼，驛路若前車馬縱，荒荊欲待阿誰鋤？

留別石砭嵩山馬司君

南濱石砭景幽幽，杖影飄然信意遊，逸目莫過山與水，或高或低聲濟濟。山林為我生雲愁，我遠山林色正秋，倦鳥欲啼霜樹上，狂猿伎倆空惆悵。栗橙無意戀枝頭，開落有時還放收，霄漢不能遁其跡，東西南北安拘繫？扶搖之氣吞斗牛，佛祖位中何所求？此去涪陵二百四，頻頻舟馬往如織，留題奉別我檀那，福永壽彌同劫石。

福城留別

住持千日好，言別一時難，去水留能復，來雲定不還。人天追意急，瓢笠放身閒，欲會必何處，相逢只指彈。

寄別法弟石車和尚

共葉連枝句，臨行話別難，且飛千里錫，聊挂一風帆。燈燦城東塔，華開金栗山，艸鞋蹋遍處，漫作水雲看。

登太白崖

太白危崖坐，舞華飄杖藜，穿人鼻孔句，為我省詩脾。調古噴寒玉，風高長紫芝，詞壇騷骨在，付與林鳥啼。

過白兔亭

白兔何時去？亭空歷有年，塵埃堆半壁，詞賦疊三川。古路重荊棘，靈泉接洞天，潔公新此地，卻以待蹠躅。

次東川呂相國韻

病骨南征日，剛逢毒熱時，七重天可上，九節筇安支。蜀道明驚險，吳顏暗密移，不因法乳約，瓢笠復何之？

宿九峰山

不負道情約，來投一宿覺，忘機同虎蛇，出語類木鐸。輦曉馳復驚，林泉志初豁，臨行喜二雲，時話月小大。

贈養玄譚向化侯

獨踞雲陽地，萬民咸賴之，如天盡企仰，似海任奔馳。容易叨恩寵，誠難克己私，幸黏張傲骨，隱顯應今時。

贈士心譚慕義侯

立定腳跟處，鬼神尚莫知，纔開決勝地，已致倒邊籬。結舌來戎馬，聞風先杖藜，悔無良晤語，鞭影追遲遲。

贈西崑譚涪侯

海內擬賢豪，惟君居上首，能為將相師，解作獅子吼。壁上之高僧，江頭之釣叟，夙因啟自吾，試問當機否？

贈君維余僉憲

為尋金石友，得得到天城，始信昨來士，應知箇裏人。松堂時未久，桂閣月初新，談笑聲天下，恐驚世弗仁。

贈梁山林邑侯

鋤荊開故國，剪蔓撫殘黎，任怨一時恨，留芳千載思。守城多虎豹，搆屋廣茅茨，指日風雲合，道傍添口碑。

贈祐衢李廣文

十六年來也，雲雷久未聞，豁然醒大夢，始適困淵鱗。擬鼓風徐至，高飛翅疾生，想來文運泰，否極數當亨。

留別蒼松上座

漏聲催欲盡，寒夜獨悲吟，殿滿燈光靜，窗橫雪照深。三思詩眼疾，孤枕念同心，寥落一身外，萍蹤何處尋？

別流長蘇居士

祥符分袂日，及第已心空，書債半生夢，佛冤千古風。食牛氣乳虎，吞海勢太鵬，珍重臨行句，火蓮繼此宗。

贈馬孔育陳天毬過訪

楊柳池生煙，垂雲接大賢，投機畢竟棒，得意便忘詮。薄粥奚留客，麝茶尚荅禪，山居伎倆別，夜板不成眠。

贈大休法師

雖未交肩久，咸承佛印來，記君為大樹，敕我作浮杯。機別瑚璉器，道殊府庫財，依依況不諾，萍水復何裁？

贈靈木監院

老僧分半院，與眾同甘苦，本為人調羹，益勞我口鼓。天中快蒲樽，盛節懼艾虎，珍重理叢林，他年吞佛祖。

贈怡聞座主

數年鑽故紙，一旦卻知非，有口挂壁上，無心安鈍機。佛來山霧廣，僧靜洞雲稀，忽地蒲團破，相將罵所依。

復匡山李居士

病骨填溝壑，渾忘天地秋，不知昨來士，是我舊時儔。闊論群英節，誠分千古憂，試看玉帶叟，今復出人頭。

復忠路敦源覃司君

遠承嬰念重，得此適心安，大樹鳥來集，虛堂雲復還。瑞圖添柏子，苦李破三關，今日重拈觥，他年多指南。

贈李君石不仕

此道雖消長，仁人一任之，處窮兼處達，誰智復誰癡？造物皆由命，欺公盡怨時，寧將節志苦，匪聽利名移。

送士心譚檀越赴川北蒞任

久未得良晤，心前身不前，病剛纔有省，馬墜卻無緣。置我老溝壑，成君樹聖賢，四川川北近，一臂始摩天。

送維敘田居士蒞任

開民何等福？感我歸仁人，政暇學農圃，禪餘惺物情。盛山生瑞色，臨水罷清津，況有登壇約，秋風豈調貧？

送鍾山陳僉憲

旅邸得良晤，投機索我詩，我詩不文字，文字非所之。快我棒喝習，醒人迷悟岐，雲山杳莫定，談笑復何時？

送雲嶠禪人住山

幾來相共住，欲去隱深山，器界覺寥闊，根身何往還？蒲團挂霜壁，竹杖倚闌干，任是龍蛇競，收歸不斷間。

送穎本法孫行腳

吾孫長夜夢，一棒覺深省，先聖病離師，老僧懼自肯。石頑尚點頭，磚鏡奚安枕，此道阿誰知？曹谿源未冷。

送井觀法孫歸宕渠

欲我投機句，投機非淺淺，震喝若雷奔，怒棒如雨點。打徹石人頭，撥開正法眼，問渠渠不知，此道終綿遠。

送佛冤法孫之江南

說起江南行，心中難割捨，艸鞋腳底忙，竹杖肩頭把。前路黑漫漫，聿身光灑灑，去來彈指間，我問答何也？

寄語齋李孝廉

千里何同風？七枝佛尚宗，知君久矣薦，愧我適纔通。欲跳金剛圈，須吞栗棘蓬，此關不勘破，端受人牢籠。

寄壁觀上座

雙桂飄香遠，聞風蝶亂飛，歇狂雖八九，鼓舞任芳菲。易摘枝頭魄，難窺月裏微，清光誰不欲？分汝弄斜暉。

寄無塵禪宿

同里悲秋晚，夜長覺夢多，呈編高學步，錄派別餘波。曉鷺守谿岸，暮珠布網羅，想來滿饑腹，白髮老蹉跎。

寄蒼然禪人

老僧飄泊外，歸信尚遲遲，只為繫吾腳，所開雜華期。雲煙生鉢袋，暑氣阻征黎，寂寞聊無寄，扇頭賦此詩。

寄古高原法孫

源頭一鑿開，萬派吼如雷，可以豁壘曠，宜將惺去來。落華偏有意，流水正無埃，且喜賢孫得，時分潤我儕。

寄五眼毓法孫

一棒撥人眼，虛空粉碎時，了知獨足立，方釋死生疑。頑石應點額，桃華動笑眉，臨風寄羽扇，僊佛亦如之。

寄竹山多福夏護法

欲行君子道，竭力為人難，不入寧龍窟，安臨猛虎山？蘇民志鐵鑄，報國心幽閒，即此盡肝膽，如坡解玉還。

喜友人話舊

鄉曲情愁慘，其聲不忍聞，幸從天寶寨，尚獲地靈人。瞪目風刀遠，客心雨箭頻，勞勞氛宇內，清勝得誰能？

示秋水西堂

去來逢酷暑，冷熱逼枯禪，一載空法相，三生了世緣。關頭驀豎指，客夢枕湖天，珍重臨行句，買山不用錢。

示百城禪人

杖笠入高梁，三冬始歇狂，愁腸思欲斷，客作意將忘。荊路穿雲鳥，嘉聲到夕陽，想來原不隔，即此便承當。

示穎初禪人

儀容藏百拙，筆氣走千山，引動風雲合，翻疑星月還。竹聲驚野鶴，松影弄幽關，不盡胸頭物，權將作指南。

與忠宸張居士話舊

肝膽不可秘，相逢話舊奇，尋詩鉢煮月，摘句水生芝。訶凍幽人嬾，臥陽逸士疲，與君終志節，益我在何時？

示兩石禪人

幾度來巖艇，詩瓢未盡懽，欲離文字學，且逐水雲山。拔劍安人忌，揮鋤得路還，此行真太息，無復弄釣竿。

示青萃禪人

禪人構逸居，時與情尚疏，磚鏡照成佛，危崖陞官圖。老僧曾寄榻，新額亦前書，今復扇頭寫，寫君樂艸廬。

示指北禪人

曹谿一滴水，遍滿閭浮提，枯木霑春力，殘華落雨時。吞雲開正眼，吐霧活端倪，珍重臨行句，歸家猶恨遲。

示參之侍者

與吾相侍久，漆桶快何如？逐日三呼喚，臨時一句無。布毛吹意密，庭柏話榮枯，即此懸遠識，頭驢糞五湖。

示止止禪人

世亂人心亂，東西路莫論，杖頭驚鳥夢，螺響落猿魂。艸木疑征錫，雲瓢別野村，住行須好伴，似我若萍情。

示三明禪人

從未書一字，其字尚難書，欲知此書字，其字滿江湖。我亦從難學，君持漫易符，再三並再四，莫與世人殊。

示不我禪人

老僧纔病起，禪者來索書，不會文章賦，安能山水圖？揮毫無筆力，裁句有思殊，漫道詩脾滑，口開一字無。

示自誠戒子

來受老僧戒，與同諸佛等，生生不捨離，世世超群品。靜室翛然坐，心頭徹底冷，老僧信筆書，為汝發深省。

示雲田法孫

山居喜白雲，出沒太勞生，匪有摩天翅，寧無遍地情。薄田堪借宿，深澗欲鋪平，散漫隨風致，榮枯起臥鱗。

示公調吳居士

我法對君說，君機對我寫，墨華笑水雲，棒喝驚松舍。愈覺復愈疑，轉疑堪轉者，試看不物前，誰是誰非也？

示三客禪人(時師寓三臺)

扣門識賢者，野外話頭回，壁透安心旨，機投結念灰。長松富一枕，短錫聲三臺，戲語益君省，怡然笑我儕。

示泰寰李居士

靈山曾有約，今日始相知，雖未得玄秘，已歸無上師。善緣漸共長，福果頓同施，我以特相贈，君恩孰報之？

示印殊殷善人

佛語心為宗，無門為法門，心雖人人具，不識心之靈。常在動靜中，亦復時見聞，可得六根淨，覺迷處自冰。

示悟徹善人

住世即出世，並無兩般理，若知渠是誰，即便了生死。可謂如來印，即同佛所使，珍重善人依，老僧無別旨。

示尼常樂

受戒登佛位，即同諸佛子，是大因緣生，便證無生理。以此是佛學，學亦安心旨，日久月又深，珍重威儀耳。

擬燕送醒世尼歸忠南

試看梁上燕，來去自應時，得步舊巢跡，頻呼新阜泥。作成安樂處，復憶翬霄兒，忍苦全其節，高飛誰為誰？

壽培之李總制

仁壽同天壽，民安即國安，錦江成字水，鷺嶺現巴山。松竹梅三友，鹿龜鶴一班，都來舞殿下，預慶紫泥頒。

壽太府潘公

時值正春省，聞君初度臨，不知霜鬢白，只見香禾青。國復天心順，民安農業寧，短章非所贈，相共說無生。

壽首四譚銓部

相共無虛日，昭昭耳目新，罔知從上事，大負苦心人。忠孝重賢節，綱常尊大倫，無生真極樂，何復學長生？

壽向化侯譚養玄

舟汎文武水，山分楚蜀雲，不昌忠義節，安繼祖孫榮？灩澦砥三峽，瞿塘疏五丁，陣圖開地道，仁壽起芳聲。

壽涪侯譚西崑

我參居士禪，居士知禪否？南浦從六松，西崑栽五柳。輕煙弄羸鶴，薄霧驚霜叟，壽比江心磯，長生共不朽。

壽總戎譚任卿

華封六月一，甚喜祝三多，開國勳臣子，安天脫趣歌。四野香禾熟，五湖雲客過，老僧亦預數，共慶壽山河。

壽總戎譚虞卿

見水有消長，見見復何如？自此罔知處，誰將理合符？計君無量壽，況我名數珠？三歲與今歲，相逢沒異途。

壽總戎譚永譽

此日壽亭誕，喜君先一期，威名播宇宙，義氣振鬚眉。池舞菖蒲劍，山搖艾虎旗，古今雖有別，功業亦如之。

壽元戎姜完初

王母蟠桃熟，驢年種下來，生生壽不已，顆顆僊無埃。鳥道誠難入，蟲門敢易開？候君當此日，紅白滿瑤臺。

壽石砮司君馬嵩山

海屋添新籌，河沙算莫休，鬼神亦弗測，寒暑將安偷。比若南山石，尚頑曾點頭，壽乎無所及，誰復同春秋？

壽桂生秦居士

客愁忘歲月，華祝幾經心，幸錫安天地，福君靜陸沉。空囊無特物，禿筆有餘吟，贈以添籌處，高標傳玉音。

壽西瞿上座

蟠桃開有日，仁自種驢年，枝葉敷天下，榮枯放劫前。夢崖石虎嘯，清味洞猿顛，怒起東方朔，偷來祝聖賢。

壽月宗上座

年年逢此日，此日當深省，髮有兩鬢霜，心無一刻冷。蒲團枕石床，竹杖穿雲嶺，腳底恁麼忙，如何得法忍？

壽總戎姚聖瑞

上元多一日，燈月互相酬，吐燄謙光靜，吞雲浩氣浮。桃杯剛酌酒，海屋復添籌，比若南山石，雖頑亦點頭。
破山禪師語錄卷第十八

(芙蓉信官彭應舉 楊應龍 州信官王聯芳 艾奇英 武昌信官馬海山 蘄水黑里盆信善李超浚同刻破山和尚語錄第十八卷 堆藍發悟對 秀水謝文英書 倪君亮子天章刊)

(康熙庚申年季春月，嘉禾楞嚴般若坊附藏流通)

雜偈二

遊靈谷寺

偶來靈谷法堂上，坐聽松聲遞遠鐘，莫是誌公時說法？廣長舌底露機鋒。

過七佛菴

拄杖敲開七佛頭，濃濃法乳四泓流，崖前石虎多驚怪，吼起鯢龍逐浪遊。

宿閱藏菴

半是街頭半是山，鬧叢叢地自閑，夜深欲坐無燈火，便把殘經對月看。

金陵靜心禪師請題指月軒

幾句閑言話滿天，中無一句可君前，法堂艸長深千尺，未敢題詩指月軒。

永慶寺

踢倒須彌鏡影空，逢人徒鼓舌尖紅，黃鸝不識吾師意，叫落庭前一樹風。

崖艇

孤艇危崖款乃聲，而今滿載未通津，天僊橋自牢關鎖，直至驢年不放行。

圓津禪人請題推蓬室

船子推蓬數十秋，一朝取食到鉤頭，煙波不許人偷住，帶月和魚卻覆舟。

佛恩寺除夕

二十餘年山海遊，歸來特地一場愁，兒孫伎倆驢年盡，難盡佛恩深莫酬。

宿三臺寺

夜宿三臺景物幽，夢魂深入古谿頭，魚龍不許淹留住，放出波心月滿樓。

寓三教寺

為月開門笑滿山，光樓聲發骨毛寒，老僧無別營清供，待客惟將竹數竿。

大覺寺

大覺堂前無夢人，眼光炯炯射眉橫，有時爍破四天下，更許誰來打葛藤？

天福菴

天福精藍傍石開，藤華幽鳥任徘徊，此中結就西方境，更不如何雜念來。

白兔亭

奇異山川忽地靈，雲巢月窟復誰新？於中白兔今何在？笑指崖前瀑布聲。

三過蟠龍洞值雨

艸鞋三過路頭窮，只見蒼崖不見龍，轉盼和雲飛杖底，打風打雨躍長空。

中慶寺水口

雲樹千重山鎖之，中分一派透曹谿，艸鞋也解騎香象，截流直上翠微西。

雪獅子

平空降下雪獅兒，牙爪雖伸未喫時，引得白拈賊智起，連更曉夜要偷騎。

木魚

鱗甲通身解吼哮，皈依三寶勿辭勞，連經棒打如何說？只為頑皮困寂寥。

鐘

晨昏走起一聲鐘，下下聽來徹底空，惟有棒頭緩急處，阿誰向此悟圓通？

燕

去年東住今年西，只為翬霄幾箇兒，養得兒肥母卻瘦，高飛不憶臥巢時。
燕語喃喃來上堂，隨邪逐惡肆顛狂，也知法大機難荷，血口徒將挂短牆。

拄杖

直條條地性忠良，遇險逢危善主張，歷盡千山與萬水，偏能扶弱不扶強。

佛手中柑

莫道無情不說法，無情卻又有多知，踊身高七多羅樹，也解捏拳誑小兒。

竹

月明簾外打之邊，荊棘林中走出頭，拄地撐天應有節，雄風猛雨亦無愁。
出土寧芽洞劫前，離披晴雨勢參天，有時作舞風雲際，贏得心虛節更堅。

竹鞭

盤根錯節老山林，不守煙霞逐陸沉，落在老僧惡辣手，追風千里聽鞭音。

移新荷

種自污泥開白蓮，就中無染是天然，應知濁世多賢哲，豈在隨方又逐圓？

即事

源頭一滴向東流，汎漲聲驚客夢浮，不是橋梁關鎖住，彌天彌地孰為儔？

偶成

茅屋深林人罕知，悄然做首蒲團詩，念來句句無平仄，引得冬瓜瓠子疑。
昨夜胡人來說夢，一天星月照長空，翻身挨得枕頭走，疑是繩床化毒龍。

過瀘陽

竹杖肩輿入市廛，大驚小怪亂言傳，雖無道況垂千古，卻有禪名播萬年。

留別

相逢相別遠桃谿，拄杖頭邊雨淚垂，點點盡成萍水意，不知何處又同期。
自別巫山十二峰，杖頭腳底意重重，分明為了兒孫債，拈得三巴飽肚中。

世變口占

生不逢時業障多，無端將我老身磨，若能空得無何有，隨處披襟唱哩囉。

夢中占

夢裏人來問道，驀頭痛與一拳，不知他醒？我醒？惟見血痕現前。

師被蜈蚣螫口占

小小蜈蚣百隻臂，大悲千手亦如是，雖然示現不同途，總要令人中毒氣。

眾乞開示，師拈梨子示之，眾不契，遂占此。

雲水紛紛覓指歸，病僧倏倏頓開扉，目前無賸閒家具，惟有酸梨接鈍機。

眾備禮儀，進方丈為師慶生，師拈拄杖一時打散，以偈復之。

滿堂雲水亂紛紛，竟為吾儕引禍根，怒起茶條惡辣辣，為人開口說無生。

癸巳冬，師謂能事畢矣，欲建活埋菴于佛香寺之後，時二三子請題，師信筆書之。

韜名晦跡隱山阿，雲任高飛鳥任過，堪笑諸方水火葬，無能奈我活埋何？

和會稽女郎三首

英姿一旦破風塵，把筆三行淚滿身，題罷墨華香宇宙，等閑不與世同春。

肩戈荷戟征途遊，虎穴巢窠歲月悠，可惜不從忠烈死，空將淚墨染牆頭。
錯節盤根問阿誰？撐天拄地復何悲？分明一具風流骨，留與風流人淚垂。

上天童悟和尚塔前

師逝江南十載餘，烽煙不息阻征途，汗顏擬則機緣去，恐我同門罵瞎驢。

師至柳橋寺，冰鏡上人乞偈。

偶來柳上鼓玄風，吹起波濤瀾望中，跋鰲盲龜俱浸殺，唯拋一縷釣獰龍。

次秋潭大師題茂敘孫居士嘯竹亭韻

獨為逃禪遠世尋，雙谿橋去水雲深，想君共我同流也，日坐蒲團嘯竹林。
無意時時把念消，有來買石得雲饒，前村幾箇籬笆竹，節節枝枝長過橋。

美人卷(呂相國請題)

古卷呈來索筆書，毫端說法令人蘇，圖成一具風流骨，時與老僧圓戒珠。

一陽李將軍請為小青龍說法

現躍飛騰久蜀東，功成名遂可行空，老僧降在鉢盂裏，靜聽君王指日封。

含輝王居士請題牡丹、梅、竹、蒲萄四畫

豐隆富貴天然別，錦繡叢中第一苗，不逐四時風雨，然突出眾英豪。
嚴霜寒盡露春色，六出香飄傲雪前，落得幾枝撐破月，清光點點映池邊。

風晴雨露倒斜陰，話盡節堅虛內心，拄地撐天赤骨聿，任教枝上葉森森。
枯藤茂葉垂多子，引得鴉穿並鼠侵，珍重主人生愛惜，錦堂顆顆復生生。

天錫姚文學請題畫蕙

華開幽谷正芳芬，引得遊蜂亂碧岑，媿我詩人無措手，隨風飄落野情生。

圓知禪人請題血書《華嚴經》

海墨能書我佛經，如何不滿上人心？金刀斷舌血流筆，寫盡河沙數轉深。
船子捨身為法，夾山掩耳知音，不如梵禪客舌尖上轉根本法輪。

寄均一契友

聞君結箇尖頭屋，坐臥經行煨榾柮，撥火星飛品字爐，瀉山公案重拈出。
噫！你也呵呵，我也咄咄。

號塊雪禪人

凝凝塊雪，靡同眾例，儼若銀山，宛如珂月。清光爍爍兮梅分餘襲，
寒威凜凜兮柏轉奇色。龐公曾問泉禪客，當下聞風而結舌。

號白山禪人

卉木叢林幾墮淚，了無一地可生根，衲僧腳底纔輕觸，瓦礫石頭皆動瞋。
呵呵！白山白山，其惟公親。

贈紹光禪宿建塔

四野青黃菜麥田，中通一竅自天然，吾師法性皆充滿，永胤兒孫續祖傳。

訪悠也上座

白雲深處老僧多，笑月吟風只恁麼，非我安心欺佛祖，從來不打葛藤窩。

訪西林鏡宗主人

斂衣赤腳過西林，步步泥蹤蹋翠岑，獨有鏡公善著便，一瓢惡水洗煙塵。

雖愚王春元赴京會試，舟中著險，請偈復去。

浩渺洪波始徹機，雲雷相送入龍扉，涌身躍出長安道，已是心空及第歸。

瑞虞蕭居士為母誕請偈

千古蟠桃味異常，等閑不與世人嘗，裏頭仁自驢年種，一度華開一度香。

訪遍周上人

貪幽獨坐小齋中，話及當年有異同，拄杖到山開正眼，依然還是舊家風。

示心所曹居士

一腳蹋破觸髅，豁開頂門正眼，洞徹虎穴魔宮，了知佛心祖膽。呵呵！任君天下縱橫行，莫道破山門庭半開半掩。

敬樓孫居士七十請偈

七十年前未有身，就中孰肯契無生？知君已得桃園令，莫道重陽菊不春。

安然上座入山呈偈，師拈此復之。

畢竟如何是本意？腳跟點地鼻遼天，萬峰自不行周禮，時把芒鞋顛倒穿。

與拱北羅居士坐話

子期善聽伯牙琴，流水高山共此心，古調試將今日操，坐中能得幾知音？

現儒楊居士元宵獻燈請題

一機纔動萬機隨，出入縱橫任所之，只為就中三昧火，令人生出許多疑。

目光秀上人倣陳艸蟲

正言艸蟲光秀放，其中秀氣過天壤，有時撞著鐵崑崙，千古令人無限想。

警眾

堪笑時人筆硯禪，攢華簇錦露[糸*廉]纖，若然可當生平事，七破蒲團是浪傳。

弔西崑譚涪侯

蜀東山水起王侯，惱恨灘高不讓流，委盡一身全故國，忠魂千古自悠悠。

弔首四譚銓曹

五十餘年極樂邦，何須更去覓西方？蓮華迴出污泥外，狼籍枝頭多少香？

弔蒼松門人

祇望蒼松鶴夢長，誰期巢冷自乖張？頻揩淚眼空惆悵，依舊收歸破鉢囊。

弔耳毒法孫

大哉法道繼兒孫，水有源頭木有根，一旦不知誰薄命，獨留孤雁淚荒村。

重晤本明上座

干戈隊裏幾經秋，恐我師徒難聚頭，今日相逢舒一笑，兩城煙水共悠悠。

重晤蓮月上座並目語錄

一別剛十載，道行天下聞，足徵平素志，處處不人情。

寓公高居士西園看新荷

久在淤泥裏，堆堆出水奇，風生魚性悅，挨落香滿池。突出清波外，香風莫可論，鼻尖情未瞥，空付買舟人。何處來奇種？孤標出污泥，自知較一半，信口曰芙蕖。

坐禪箴

赤肉團，強名心，似物非物於中靈，達者承當剎那頃，一失空教十萬程。最微密、極精明，日用尋常當念存，靜無跡，種有聲，擬取卻成兩箇人。終日默默坐石窟，蒲團幾破成癡兀，但看庭前柏與松，迴然獨露傲霜骨。

學道四箴

念佛一聲，漱口三日；若不佛念，如水浸石。
打魚念經，經且是路；若不修行，如風過樹。
戒急乘緩，乘急戒緩；若不持犯，如雞卜卵。
一句話頭，擊塗毒鼓；若不因循，如貓捕鼠。

病中十二時歌

病到子，熱退寒微起。取被加，誰覺誰生死？
病到丑，曉雞盡開口。聲縱橫，幾穿人耳右。
病到寅，窗光射枕頻。眠不住，起聽烏鴉聲。
病到卯，瓔珞粥熟了。滿鉢盛，只要肚皮飽。

病到辰，斗室漫經行。鞋蹋破，露出箇腳跟。
病到巳，焚香打鼓笛。誰知音？拍拍令如是。
病到午，坐究拈八苦。法安閒，何用強張主？
病到未，無米飯炊至。任飽餐，一種沒意味。
病到申，烹茶活命根。渴可解，漫道趙州賓。
病到酉，落日驚霜叟。擬欲慳，蝦跳不出斗。
病到戌，黑風來迷目。度紙燈，照破無明窟。
病到亥，衲被蒙頭蓋。忽醒來，麤齋何處在？

頌普明禪師牧牛圖并次韻

頭角崢嶸便吼哮，奔兢煙水路迢遙，牧童艸料渾無戀，孰肯平田犯稼苗？
牛兒鼻孔被繩穿，放去收來不假鞭，擬向東西兩處觸，一回入艸一回牽。
年深日久嬾奔馳，雲影谿光逐漸隨，任是上林華鳥過，聲聲難喚牧兒疲。
計窮力極喚回頭，漫把鞭繩閒放柔，七縱八擒縛樹下，山童猶未肯停留。
山間林下水谿邊，一飽無餘慶快然，撒手童兒歸路晚，牛相隨去渾忘牽。
穩眠露地自如如，陽燄空華何所拘？松韻山頭弄鐵笛，輕輕吹醒樂無餘。
南北東西任運中，腳頭腳底艸茸茸，飽餐只賸些些意，留與山童瞌睡濃。
雲牛一片白其中，那有雌黃與異同？就裏欲分纖細子，騰騰任運復西東。
牧童鼓掌自閒閒，始信牛蹤沒此間，遂得殷勤漫且喜，猶存星月照幽關。
人牛頓盡絕形蹤，浩浩光吞宇宙空，明月蘆華來問的，東風吹起自叢叢。

題梵儀上人小像

手持塵尾，身靠幽石，雖不在焉，儼然如是。呵呵！也不向伯牙處知音，只愛打宗門中鼓笛。

題行圓珠上座小像

坐維摩床，披忍辱鎧，持塵為人，無人喝采。呵呵！堪笑丹青，恨不與渠描出箇瀟瀟灑灑。

題不二禪人小像

長松之下，瀟瀟灑灑，問是阿誰？不二道者。呵呵！經風經雨老春秋，然自不知幾年也。

題茂敘孫居士像

者漢痛快，攜僧物外，欲談佛書，指聽天籟，悟是音聲，開茲情解。口耶？耳耶？無在、不在。咦！嘻嘻！雄心漫作冷灰然，健足且完山水債。

題超然居士像

咄哉，賢士！曰之超然，優游物外，心性乃恬，可惜不曾遇毒手，至今猶欠艸鞋錢，赤雙腳走，方又不方、圓又不圓，鈍置在紙畫上山水間，孤獨獨地守到驢年。

題西橋陳居士像

紅塵堆裏藏身，白法門中著腳，賺去賺來，一生臨危，無得無說。復震威喝一喝，云：「低聲低聲，切不可驚醒我孤松下底羸鶴。」

題良玉施居士像

若道是假，眉目分明；若道是真，動靜不形。真既真不得、假又假不成，真假俱不立，畢竟是何人？呵呵！堪笑本源自性天真佛，只為脂粉難脫身。

題君錫程居士像

一株松下一堆石，獨坐其中消白日，真箇渠儂得自由，卷舒畢竟無蹤跡。

題育吾金居士像

松雲密密飛來去，來去無心無巴鼻，只此分身兩處看，盤陀石上多兄弟。

題念中程居士像

者箇怪樣，畫來到相，蒲團坐穿，一味倔強。

題默臺凌居士像

髭鬚眉目儼然爾，是箇赤窮好漢子，獨坐靜聞山石中，一聲野鶴松濤起。

題瀛台吳居士像

是一卻成二，道二仍不是，放下兩頭機，松鍼錐滿地。問取老人意若何？吾知壽命等幽石。

題象崖門人像

描亦不成，畫亦不就，說是吾徒，恐非唧溜。呵呵！堪笑落於人天，痛與兒孫作箇領袖。

題永真上人像

手握金扇，餅插桃華，始得渠力，香遍天涯。靈雲見而不疑兮，笑倒玄沙；鹽官索而有意兮，惱殺渠家；拈此二物而格真兮，知音可嘉。咦！卷舒密密全生殺，開落明明示正邪。

題碧虛禪宿行樂圖

行住坐臥，人之威儀；松竹梅石，世之秀氣。器、界、根、身，萬法歸一。爾鼻兮，香金爐；爾足兮，蹋頑石；爾耳兮，聲幽松；爾手兮，執如意。尚餘梅與竹，堅節而素質。呵呵！堪笑爾碧虛堂堂乎若是。

頭戴棕笠，腳繫芒鞋，握條鋤柄，聲震如雷。祖翁田地兮，何愁不辦？狐兔窠窟兮，誰懼不摧？有時向三家村裏刈茅鏟艸，有時向萬壑雲中誅藥採萊，有時向孤峰頂上乞丐尋蛇打，有時向浩渺

波中淘沙聚塔來，說甚麼佛、魔、孔、老？論甚麼化、溼、卵、胎？咦！都盧到者漢手裏，一坑活埋。

題空外門人行樂圖

真空物外，物外真空，有口如啞，有耳如聾。問渠似木雕泥塑，打伊若電拂雷轟。今日卻知些須痛癢，列在獅子群中。咦！青松雲樹，參前參後；白棒羈拳，打雨打風。

題慧林上人行樂圖

懶散自若，志耽丘壑，茶烹松柏，粥煮瓔珞。有漏笊籬，無漏木杓，半生參方，始遂行腳。行腳之事，慧公蹋著，走破鐵鞋，歸家穩坐。

題敬雲施居士行樂圖

手攜竹杖，頭頂箬笠，就塵勞中，作諸佛事。一日卻來山邊水際，悟徹源頭不隔咫尺，欲予書讚，無可呈似，只好將錯就錯，借伊杖頭出氣。

題岷瞻趙居士行樂圖

華屋裏，幽松下，同雲鶴，任瀟灑。咄！問是君子儒？小人儒？總不出者箇之乎也者。

題華仲李居士行樂圖

一具傲物骨，老高堆世上，為人直稜稜，行事空蕩蕩。咦！莫是訶佛罵祖之流，做箇出格在家和尚。

題玉可張居士行樂圖

山邊水際暫跏趺，風送華聲落畫圖，兩耳圓通忽悟得，呼童叉手罷琴書。

題洪宇黃居士行樂圖

迴迴孤孤出小松，其中坐者亦於同，四時不怕經寒暑，誰肯低頭立下風？

題廣生費居士行樂圖

聲和響順，形直影端，罵之、讚之，亦無兩般。阿呵呵！堪笑七十餘歲底老漢興同龜鶴齊年。

題華宇吳居士金蘭文會圖

八箇弟兄，兩箇姊妹，共遊林園，各逞習氣，有者向華柳岸上賞不盡底風流、有者向茶酒甕頭飲不盡底滋味、有者向黑白盤中搬不盡底伎倆、有者向竹石山間談不盡底妙義。咄！到此勿論僧俗、男女、愚之與智，總是一番戲具。

題古淑沈居士行樂圖

山有奇峰，峰有奇松，松濤日吼，音穿洞口。古淑坐中，悟耳圓通，手持竹杖，經行沼上。看白鷺鷥，疑是雪飛；以杖逐魚，渾忘我殊。疑此、信此，非人不爾；夢之、覺之，吾何汝師？

題棧道圖

山山有雲，樹樹有鳥，谿谿有橋，路路有艸，唯我蜀道之更難，人馬平空而縹緲。

題非非禪人自謂息息關

息息關，息息關，雲底月，水底山，風自鼓，波自瀾，人自鬧，心自閒，看華落，看鳥還。非非老，莫顛預，莫顛預。

題去凡嚴居士自謂[車*度]轆道人

與世人交，獸心人面；與衲子交，人心獸面。出其言也，驅雷掣電；發其機也，當鋒拄箭，擬非莫非，欲辯莫辯。者箇慘怪東西，如何形容得善？呵呵！大清國裏難著渠，甘作秦時[車*度]轆鑽。

號敏樹門人

堪笑陳蒲鞋，記濟為大樹，蓋蔭天下人，其根深於土。土因地道殊，則產人亦異。斯人叩我前，取我授懸記，信口而號之，敏樹亦如是。

號語豆李孝廉

萬籟有聲皆語也，而語風、語雨、語木皆聲之應響也，則未契聲前，不物為何物也？昔古德見僧看經，即語曰：「數黑豆作麼？」曰：「黑豆換人眼睛珠。」又，善財參遍處，黑豆未生芽。凡聖人示教乃豆耳，故以語豆號之，令天下人從生至生、從劫至劫，計窮力極，數莫能盡。

萬峰景

寶石坡

萬壑千崖盡薜蘿，中通一徑插天窩，隨明隨暗隨時鑑，是故稱石寶石坡。

金鵝池

山頂有池天自開，無清無濁無塵埃，絲毫不放人間去，留與金鵝飛往來。

響山子

響山獨不為誰響，人去人來驗伎倆，輕重須教腳下裁，知音幾箇行高上。

天龍峰

天龍高出萬峰中，耀日騰輝迥不同，四海波濤無處覓，源頭向此為開通。

大歇場

一條驀直山巔路，到頂分明大歇場，多少往來尋劍客，不知幾箇肯承當？

蒲峽口

兩岸藤華封峽口，中流一派水聲香，茄瓢也解生天耳，攞下池中掬起嘗。

馬鞍石

路傍有石名馬鞍，不許人來騎上山，留與老僧標境致，太平永不借征番。

滑石板

千尋滑石鎖深谿，一片油苔長渺瀰，珍重往來高著眼，莫教沿路生狐疑。

涼水井

高原平地不思住，卻住山腰大路傍，為要與人濟熱惱，千金難換冷心腸。

虎跳丫

連節峰中通一竅，雲煙未敢私籠罩，有時徹底浪桃華，贏得龍遊並虎跳。

飛雲石

頑石如雲挂碧空，半隨煙雨半隨風，天然竅裏分清濁，不許時人話淡濃。

虎兒崖

崖穴深幽別有奇，亦藏猛虎亦藏獅，眼窺宇宙人無數，能得幾來偷去騎？

長松嶺

一畝長松堪繫鶴，數竿修竹可留僧，道人已是深山客，俗駕如梭不到門。

琴案山

天然琴案迴崖山，終日風雲不倦彈，靜聽箇中何曲調？聲聲韻出萬年懽。

寶石坡，金鵝池，響山消息勿狐疑，大歇場中選佛祖，太平寺裏喝獅兒。

天上坐，痛快居，竹籬茆舍四窗虛，其中盡是白雲父，來去無蹤意自如。

破山禪師語錄卷第十九

(中州信善符雲臺 韓慧深 劉發清 蔡應龍 江陵信善陳明性 朱妙圓 馮發德同刻破山和尚語錄第十九卷 清谿發泰禪人對 秀水謝文英書 倪君亮子天章雲望刊)

(康熙庚申年季春月，嘉禾楞嚴般若坊附藏流通)

雜著

臨濟三十四世語錄序(白山布公集成請序)

三十四箇老古錐，被忤逆兒孫一串穿卻鼻孔，拽向十字街頭，要人著價，白山布公痛以龜毛繩、兔角杖恨命捆打一頓，然後不作貴、不作賤，且諸人作麼生著價？出來道道看。

先覺宗乘序

碧眼胡僧遙觀東震旦國有大乘根器，特特航海而來，不覺被瓦礫荊棘之繁、瓊枝日細、鼬狸鼯鼠之糞淨器時污，只得飲氣吞聲、九年特地，始得焦芽而漸茂、穢器而漸潔，點點甘霖、源源獅乳，滴一器而傳一器、潤一枝而接一枝，滿大地而有餘、盈滄海而無贖。是以海昌黎眉居士不隨瓦礫、荊棘、鼬狸、鼯鼠一夥人腳跟所轉，彙是書目——先覺宗乘。予遊兩淞時獲是書，歸蜀擲案頭，塵埋二三載。一日忽開縣本來黎公過訪，予深器之，想與者一夥人同也。以是書囑梓，公唯唯任之，索予數言為序。予愧細根穢器，與者夥人廝唾廝罵也。

風穴雲峨禪師語錄序

雲峨喜公蜀人也，始從老僧棒頭喝下深中此毒，自覺與眾不群，買艸鞋行腳至吳越參諸方，眼高一世，道逗群機，毒氣一時陡發。幸吾弟林野劈頭一劑消道解毒湯，渴可解、毒可散，自毒既瘥，便能毒人。但著毒者，直教命根頓斷，不復更轉別症，返陰復陽，雜毒入心也。欲老僧隻字片言以冠其首，愧鈍根不文，只得向佛頭著糞，一任罵我、一任笑我。

絕知禪人請題持金剛經序

嘗聞受持、禮拜、書寫、供養皆六種法師，然而老僧則不然也。若六種持經之益，不若向一言一句處理會得，其益愈多。試向我釋迦

老人收衣鉢洗足已敷座而坐處著隻眼，知須菩提讚歎希有，益我持經之功亦至不思議，百分千分萬億分不及其一者，是阿誰得之耶？

寂聞程居士請題鳩友結社

斯社中人，堅其心、確其志，復何所為？曰名耶？曰利耶？名高而累己，利廣而害身，諦知名利場中罕有一人半人而遠是窠臼，動經塵劫，入生入死、改頭改面，不知幾千劫數始可出頭，猶且不知向上關捩。因我聞子布巾葛服，真慨龐老餘風，在貧道處朝參暮請，每喫痛棒熱喝，意欲就塵勞而作佛事，鳩諸精進善侶同結是社，遞相束斂、遞相警策，有時語、有時默，究竟徹頭徹尾處稍知痛癢，與三世諸佛把臂共行。歷代祖師挨身有分，亦不枉來東塔門下借路經過。

棘生白居易請題山居詩序

鼻祖西來，不立文字、不離文字，皆直指斯道，無可不可而已。然道在人弘，或拈鎚豎拂、或棒喝交馳、或歌詠偈頌、或資生業等，即無機處發機、無用處顯用，猶驅耕夫之牛、奪機人之食也。吾子棘生從通州來，又即塵勞而善作佛事，樹赤旗於擒縱之際、搥毒鼓於殺活之間，如是雄猛、如是勇銳傑出，生死關頭作山居詩三十首，言言句句悉是太平中風味，予器之，題片言以佳志焉。

而敕錢居士請題聽竹樓詩序

香嚴擊竹而敕聽竹，竹之有聲愈擊愈出，聽之有耳，愈聽愈悟。是聲滿樓、是竹滿地，詩從中流，不屬文字。呵呵！乃教外之別傳，非三乘之所及。

開禪堂緣起

蓋聞佛法無主，要假人弘，得人則興、失人則廢，所以達人不可無也。是人也，非生而知之者也。吾教建叢林、立規矩，意在養育賢才，陶鑄後學，繼往開來，如日月昭示乎天下也。奈何海內叢林悉忘此意，予不得不犯天下所忌，敢以古今興廢試一論之。

上古叢林聚眾朝夕激揚，使悟本心，冀各為一方眼目，輾轉傳化，續佛慧燈，故古時穎脫者不知其數。此佛法得人，所以興也。邇來叢林雖在，古法盡忘，招賢弘教，杳絕無聞，自愚愚人，輾轉蒙

昧，致使初學有志者無處栖泊、無人薰陶，蹉跎白首，不知佛義。此佛法失人，所以廢也。不思叢林者何所取義？如來無量劫中修行難得無上菩提，演布三藏，欲後人講誦參討，自見本心。古人知此，所以建禪堂安學者身心，使用力於此，即知是中代出高人，如林內具諸棟木，故以叢林立號。豈如今日驅賢養愚，忘本逐末，以了叢林之事？此非木之叢，實艸之叢也。況諸施中，法施為最。如來為法降生，為佛子者不知本末先後，謂之倒置，致佛日不明者，誰之咎與？故知達人必出叢林。興廢關乎主者，唯主人權柄在手，指呼是從，蒞是位不行是道，佛祖寧不皺眉耶？

明自參學以來，經歷多載，見今思古，每自傷歎，何今古相反若是？古亦人也、今亦人也，古人何增？今人何減？特因昧本忘恩，不思不行而已。若海內叢林一一皆能體佛心而行佛事，則天下咸成佛國，何今古之間然？況今教、禪、律人各執一邊，互相矛盾，鮮窺大全，豈知無上妙道出於口為教、運於心為禪、軌乎身為律，三法本一人行，今乃分疆自畫，去佛法遠矣。

明不揣薄劣，憂佛道之不行、慮人心之忘古，欲於通津大郡建一學業叢林，集有志緇流究性相之深詮、窮離文之妙旨，破目前之堅礙、消歷劫之固執，融五教十玄於毛孔之中、會六相五宗於揚眉之處，通變自在迴異常情。達磨不向東來、釋迦未曾出世，以斯先覺復教後覺，內外典籍貴以貫融，罷參者休心無事、初進者勵志向前，不計歲月，以徹為期，圓性達人，必從此出。心包法界，體合真空。即一切、非一切，雖度生而無生可度；佛即我、我即佛，雖成佛而無佛可成。佛法之興，安有涯量？故曰：「佛法興，莫先於得人；得人，莫先整叢林以教後學。」捨此而欲佛法興者，吾莫知之也。

由是觀之：無賢主則不出達人，無達人則不興佛法，反覆推尋，主人為最，此位任大，毋自抑小，宜去高去慢，虛心待物，視此身為天下學人之父母，視天下學人皆我一家之子弟。內則為之聚糧、辦衣、供油，以資其歲月朝夕之需；外則為之請出世名宿，以作模範，薰之陶之，日益日損，方不失為主人之實。

雖然，明更有說焉。如來昔以佛法付囑國王大臣，誠有見於末法之弊，非主持世道者不能弘揚吾教。願今舉世宰官達士，世道既平，亦宜傍興佛法。蓋三寶乃世間福田，下得一種，收得一斛。諺云：「山中無老僧，朝中無宰相。」安知滿朝文武非昔修行苦行僧耶？惟冀不忘前因，各出手眼，共報佛恩，使天下叢林俱興佛法，賢者進而愚者化，佛教則煥然一新，王道亦不教而善，此二教兼化並行而不悖也。願與同志共遵之，無負靈山之付囑也已。

題復生柏

萬峰山去邑二十里，此山居眾山之上，乃萬峰圍繞，四龍拱峙，則雲霧煙波無時不啟人耳目，就中十里許一平如掌，建梵剎曰「太平」，係田氏捨地，心海法師開山，予與之同參，而師以法愛請予居也。

一日同二三子遊寺前之東，見柏樹四株，同一枯椿上各生出一枝，已成材，被無知者伐其一，尚存三，予名之曰「復生柏」。且群木之復生，則松柏之不復生似超群木之上也。況松柏不復生而生之者，不但上上，而更奇異之最最耳，猶絕後再甦。然自我朝遠歷唐宋，不下枯木復生為喻，且本不生而生之者，孰以難喻難而易喻易哉？誠迴難易之外，別有千枝萬葉蓋蔭今世後世者，莫若斯也。

偈曰：人亦傑兮地亦靈，枯椿柏樹弄精魂，枝頭泄盡箇消息，不到驢年始復生。

宕渠黃龍寺碑文

自鷲嶺分燈，而冷光熱燄莫可勝記，則幢幢列剎相望者，無越黃龍第一也。是寺去城北二十里，建我朝隆慶年間，興而復廢，遞至天啟三年頃，出觀止法師，於是作獅子吼，地搖六震，道逗群機，若合符節，則殿閣堂宇煥然一新，咸乘師之疇昔願輪所致也。而固慮法久生弊，始問記於予。且予幼未經學，不識一丁，敢以鼠尾續貂？只可向冷冷孤光處撥燄、寥寥疏影時洞機，聊瀉滴墨以災劫石，永同金剛常住不朽之記云。

募盂蘭盆疏

竊聞蘭盆一事是我釋迦老人金口親宣，教誡世人年年七月十五煮合羅飯，飯自恣僧，調解倒懸，致令存歿宗親離苦得樂、雪罪增福也。故往往設之，有訛謬、有淺深。從淺者，簡也、要也，以一色一香而合羅，不薄乎，以為少也；從深者，廣也、勝也，以百珍百寶而合羅，不厚乎，以為多也。則淺、深之作法一法也，厚薄之竭誠一誠也。以厚而不誠，縱百珍百寶不及一香一色；以薄以誠，即一香一色而過百珍百寶。第我縣中仁人君子隨力隨分，厚薄淺深悉從斯舉，而圓成法食之合羅、厚薄之合羅、淺深之合羅，則凡聖之未有合羅者。試請雷老先生筆下倒斷，未有阿誰不向此中合羅也？

募茶疏

周檀越因病渴喫茶、喫茶愈加病渴者，信知茶味毒過砒霜，是以汎汎之流終日喫茶而不知茶味何若，亦復不知施主心行何若。果有四來者，害是病、患是渴，露一滴、飲一瓢，豈不從斯陡發熱惱而頓獲清涼者哉？如周檀越善識茶味而告知病叟，病叟信筆露布，如許葛藤都盧付與，正如程居士手裏一刀兩段也。呵呵！

化薑

東塔長老別無奇特，淡飯黃齏，隨緣遣日，口貪滋味，推人助力。呵呵！十字街頭撞著箇賣生薑漢，成就我些惡辣氣息。

五雲山塔銘

五雲山者祖方斗寶蓋，疊嶂重巒雄雄而來，垂兩寺，曰三教三臺，皆南濱名勝道場也。而三臺住持碧虛尚公係安岳尹氏子也，從幼出家，瓢笠斯地，自捐衣鉢建彌陀殿，志攻淨業歷有年矣。每見妖氛遍作，終不免三災禍也。復卜五雲山中建普同壽塔，面拱玉屏，石砮雪谿，環繞溶溶，勝概一目覽焉。然地直人宜，則靈傑又不可逮也，生焉、歸焉，則四方六和又庶幾不虛也。

一日忽問序於老夫，而老夫愧鈍根不文，但以實境實事露布，而序之銘曰：

五雲之峰，	高標普同，	人天眼目，	佛祖遺風。
素蓄衣鉢，	浩功立充，	雪螺結頂，	拳石砌空。
岑閣南倚，	古樹東蓬，	梅岡發秀，	野圃叢叢。
幽谷苔響，	遠水溶溶，	泉涌左右，	聲吼外中。
存歿居者，	耳根圓通，	金剛不朽，	共入吾宗。
敘也銘也，	山水莫窮。		

偶言

康熙甲辰九月，下東平定，李總制旋師，凱音方唱，訃音倏至。李耑田差官至雙桂請師說法以薦，師以李前屢請未赴，今不可辭，十月三日乃告眾上渝。弔慰事畢，告辭，李曰：「大和尚宜住大府城，何得區區辭之？待開奠後乃治葦席敘謝。」師云：「齋乃山僧常分，非為令先慈齋也。昔戊子年曾寓李一陽營中，見殺業太甚，力為感化。李曰：『和尚喫肉，我即不殺人。』乃一時事也，後亦有譏議者。山僧對李道：『要得和尚不喫肉，除是將軍不殺人。將軍不殺人，以德忠君父；和尚不喫肉，以戒報佛祖。老僧纔喫數片

肉，尚惹眾將軍生厭；眾將軍終日殺人，上天豈無厭耶？」李遂出示止之。經今不覺十有六載，天下大定，國家無事，眾將軍已封刀，殺業已盡，山僧豈可無因而再喫肉耶？況大柱國深荷重任，且喜忠孝兩全，當清心林下，猶其遲也。」李曰：「今日方知和尚行徑。」師遂辭歸。

松谷禪人乃忠南聚雲吹萬徒也，持聚雲小參紙一幅，中有數言，謂：「從上古人，單教明心見性便是的當。」次叱五家宗旨污卻古人面目，為自屎不覺臭。又叱今時授受有據，明眼行道者妄行棒喝等事。病僧披覽過，不覺痛淚如雨，孰料老胡絕望之日近矣？嗚呼！此害不細，不得不饒舌以救將來。

蓋法本無弊，羊、鹿、牛之器不一也。渠謂「明心見性」為當，試問心是何形？性是何物？若以心、性是無，則不應言飯是米做；心、性是有，則法法頭頭不外于是。信夫飯出于米，米豈外飯乎？法出于心，心豈外法乎？如是，則知米、飯，心、法一也。達一而不外五家者，明矣。

而又謂行棒、行喝以至五位君臣者盡是窠臼，是分別、是取捨，敢保渠未夢見也。若夢見，必不謂棒者拄杖子也。如是，古人不應曰：「先照後用，先用後照。照用同時，照用不同時。」又云：

「喚作拄杖子則觸，不喚作拄杖子則背。」又云：「你有拄杖子，與你拄杖子；你無拄杖子，奪你拄杖子。」又，僧參一老宿，入門便棒，進云：「打豈慈悲耶？」忿然欲去，老宿云：「你作打會耶？」其僧乃悟。上古目為道具，在人持捉非止一端，有持木叉者、有持竹篋者、有持弓箭者、有持刀劍者，難道盡是六祖擊碓頭三下始當？時擊碓頭三下乃杖，非弓、箭、刀、劍之種種。渠謂是窠臼、是分別、是取捨，則古人大機大用，脫羅籠、出窠臼，虎驟龍驤，星馳電激，轉天關、回地軸，負衝天意，氣用格外，提持悉成贅語也。

又謂拂者，先儒談經塵尾也。如是，則百丈再參馬祖，祖不應，舉起拂子，丈云：「即此用，離此用。」祖挂拂舊處，祖又問丈曰：「子已後將何為人？」丈取拂子舉起，祖曰：「即此用，離此用。」丈挂拂子，祖便喝，丈大悟。儒之所用塵尾意有辯別，然塵尾在群鹿中居尊，以尾東拂則群鹿隨之于東、以尾西拂則群鹿隨之于西，故儒者用表指揮群徒亦猶是也。然而儒家用、祖家用尚隔天淵，寧溷同一意也耶？

又謂喝者，咄咄聲也。如是，古人不應有言：「我有時一喝如金剛王寶劍，有時一喝如踞地獅子，有時一喝如探竿影艸，有時一喝不作一喝用。」又云：「一喝分賓主。」又云：「一喝分五教。」難

道也是馬祖一喝始當？時百丈被喝，耳聾三日；其餘一喝，分賓主五教。寶劍、獅子、探竿者，何耶？

又謂圓相者，馬鳴所現日輪也。如是，古人不應變為九十七種。目為圓相暗機，義海、字海，意語、默論，種種不一者，難道也是馬祖送道欽書始當？時只有馬鳴所現日輪，何得又有各樣差別者？何耶？如渠實未夢見，自是弄精魂漢，何冤先代為窠臼？為分別？為取捨？

悲夫先代立意，各從悟證處百計千方，直指迷流，圓契此事，不可執一而無餘、執餘而無一。所謂一有多種，二無兩般者是也。渠意以一而不餘，餘則為窠臼，為分別、為取捨，正是一眼之龜值浮木孔，千聖尚訶，安用病僧今日如是口業耶？只因渠是獅子身中蟲，反喫獅子身中肉，恐將來者去聖時遙，中渠毒藥，而上辜先聖，下負己靈，切以是而告諸云。

佛事

為乘空禪人下火

師以火炬打圓相，云：「乘空上座！會麼？此是一把無明火，光前絕後赤裸裸，放出些來滿太虛，教伊驀地難推躲。」攏下火炬，云：「咦！」

為受菴禪人下火

師以火炬指面，云：「者漢恁麼自在，向今世門頭洞明劫外，雖有聲色睹聞，更無一點留礙，只饒撩起便行，猶欠官錢私債，未審眾中可有人替彼了得者麼？」顧視左右，云：「如無，待山僧替彼降下丙丁童子，與伊了卻。」攏下火炬，云：「烈燄光中休眨眼，寒冰冷地莫存身。」

為味玄禪人下火

師以火炬打圓相，云：「味上座！會麼？於此會得，便見來無影、去無蹤，來時清風送明月、去時明月送清風。」攏下火炬，云：「從茲赤骨冰心去，自在靈光獨湛然。」

為念修禪人下火

師以火炬舉起，喝一喝，云：「看看。」攏下火炬，鼓掌，呵呵大笑，云：「只是無人著眼。」

為恆超禪人下火

師舉起火炬，云：「恆超恆超，自秉吹毛，佛來不讓，祖來不僥。今日落在山僧手裏，與伊一把無明火，管教骨爛皮焦。」攏下火炬，云：「脫體頓超塵象外，靈光一點步青霄。咄！」

為半偈禪人下火

師舉起火炬，喝一喝，云：「向道無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觸、法。正當此際，淨裸裸，絕承當；赤灑灑，無回互。是我半偈禪人親證親得底時節。大眾且道：他證得箇甚麼？」以火炬攏下，云：「要識真金火裏看。」

為本無圓頭下火

師舉起火炬，云：「雨灑灑，風飄飄，涅槃山上寂寥寥。分付空中主火者，放鬆一著燄頭高。」攏下火炬，云：「急著眼覷，莫要燎卻眉毛。」

為敏言禪人下火

師舉起火炬，云：「性火真空，性空真火，南北西東，無可不可。燒盡觸體人不知，無根樹子華朵朵。」攏下火炬，云：「咦！」

為悟圓禪人下火

師舉起火炬，云：「一二三四五，金木水火土，箇中會得來，隨處打口鼓。咄咄咄！逢人切莫莽鹵。」攏下火炬便行。

為寶蓮行人下火

師舉起火炬，云：「細雨紛紛落翠微，涅槃山上冷淒淒，爐煨品字松根火，燒出摩天鐵鷄飛。」以火炬遶一匝，云：「大眾還見麼？九霄雲外，卓卓巍巍。」攏下火炬，云：「咦！」

為無我庫頭下火

師舉起火炬，云：「觀汝風塵卻有身，契之法性本無我，也曾幾跳金剛圈，今日當爐不避火。咦！光前絕後，蓮開朵朵。」擲火炬便行。

為含平禪人下火

師舉起火炬，云：「含平含平，捨死趣生，撒手去處，火燄騰騰。」攬下火，云：「大眾舉阿彌陀佛送伊一程。」

為慧光行人下火

師舉火炬，云：「一生破活計，苦守到今日，付與火柴頭，燒乾髓汁。」攬下火，云：「箇箇圓成，人人本具，慧光慧光，何用取我求實？」喝一喝。

為慧宗禪人下火

師云：「生從何來？馬腹驢胎。死從何去？刀山火聚。」喝一喝，云：「卻被山僧一喝，都盧冰消瓦解了也。」以火炬打圓相，於中擲下，云：「南海岸，東塔頭，千古萬古孰為儔？」

為樂安行人下火

「樂安樂安，志已超凡，去投水火，光射谿山。」以火炬打圓相，云：「大眾見麼？始信去來無罣礙，方知生死不相干。」遂下火。

為心通碓頭下火

「曹谿贈塊墜腰石，老宿記條蛀米蟲，惟有心通無所得，臨行端坐火蓮中。雖然如是，要且行門不別。」以火炬打圓相，云：「心通心通，還會不別處麼？艸鞋走破千差路，腳底終無一線通。」攬下火炬，喝一喝。

送尼淨空靈骨入塔

師云：「皮膚脫落盡，惟有真實在，內外與中邊，無障亦無礙。咄！信手安在無縫塔裏，永同金剛不壞。」

為靜林禪師移骨塔

「黃金一具骨，久蘊此山中，只為人希識，移來別過峰。如是，則層層落落，卓卓巍巍，四方八面，無所覷窺。」以拄杖擊塔頂數下，云：「靜林師！靜林師！塞卻頂門者一竅，青松翠柏日皈依。」

為覺凡監院舉龕

「覺凡覺凡，通身破殘，早知是苦，出入何難？」以拄杖擊龕數下，云：「拄杖頻敲開隻眼，一聲佛送涅槃山。」遂引至火場，舉火炬，云：「山僧示汝爛酸梨，向道相逢不識渠，今日幡然變堆火，燒得渠儂沒面皮。」遂下火。

為皂林覺知監院下火

師舉起火炬，云：「苦骨勞筋住皂林，老婆真箇老婆心，火神昨夜通消息，燒破閻黎鐵面門。」攬下火，喝一喝。

為發慧優婆夷舉龕

師以杖擊龕，云：「者箇模樣，一生倔強，撞著老僧，痛與頓棒。發慧！發慧！還委悉痛癢也無？不然且隨老僧到火場裏鍛煉一上。」遂引行至火場，舉火炬，云：「發慧發慧，女身男志，持戒參禪，正因修習。不用棺材，惟需火炬，性命今日落在山僧手裏，要來便來，要去便去。」以火炬打圓相，召大眾，云：「箇箇翻轉面皮看，發慧頓入火光三昧。」遂火。

為月井禪人舉龕

師云：「一氣不來，東倒西歪，大眾齊舉一聲佛號，直送百寶蓮胎。」遂導至火場，舉起火炬，云：「隔牆見角，已知是牛；隔山見煙，已知是火。性火真空，性空真火，驀箇相逢，無處容躲。咄！老僧無別相為，助汝者一把火。」遂下火。

為行首行人下火

師舉火炬云：「行首行首，出家未久，妄念忽生，東奔西走。老僧助汝一把火，燒得汝氣沖牛斗。」喝一喝。

為無隱侍者下火

師云：「無隱老侍者，終身尚不捨，欲吾火柴頭，燒破髑髏也。」以火炬打圓相，云：「颯颯真風滿地生，紛紛舍利如雨瀉。」

為林菴禪人下火

「林菴林菴，苦志住山，掘折鋤柄，覓吾指南。咦！老僧助汝一把無明火，燒得汝頭上漫漫、腳下漫漫。」

為廓虛禪人下火

師云：「廓虛廓虛，出沒無拘，撒手便去，火光自如。咦！大眾同念《彌陀經》一卷，助伊東播西馳。」

為可可禪人下火

師以火炬打圓相，云：「可可印六，印六可可，富順開華，梁山結果，返覆追尋，無可不可。咦！老僧助汝一把火，燒得汝光燦燦、淨裸裸。」

為空如知事下火

師以火炬打圓相，云：「空如空如，會麼？生年六十五，僧臘十有六，功行圓滿時，震威咄一咄。今日落在老僧手裏，與汝據款結案，乘願往生，安養國土。」遂攏下火便行。

破山明和尚行狀

住郢州當陽玉泉嗣法門人印正撰述

師諱海明，號破山，萬曆丁酉歲生蜀北果州之大竹，先籍渝州蹇氏忠定公裔。十九歲，詣本郡佛恩寺大持老宿脫白，旋聽慧然法師講

《楞嚴經》。師問常住真心，然種種開示師不決疑，於是出蜀，住楚之破頭山三載，只是胸中廝結不開，必欲明此事，乃依高峰妙祖，七日為限，剋期取證法子。

一日發極，到懸巖上立定，自誓云：「悟、不悟，性命在今日矣。」立定既久，眼前惟見一平世界，信步經行，不覺墮於巖下，至夜有省，天明，高聲叫云：「屈，屈。」

落山參諸方，罕可師意，上徑山參雪嶠和尚，雪問：「你是那裏人？」師曰：「西蜀又過西。」雪云：「我徑山八十一代禪師也有幾箇是你四川人，獨四川人最是惡賴。」師叉手前云：「合蒙高鑑。」因崑山來數衲子，至夜喫茶，雪舉木香爐云：「看看是箇甚麼？」師便奪來，作撲碎勢，雪連忙兩手托住，師喝一喝便出。

癸亥冬，參顯聖湛然和尚，師問：「紅臉是關公，笑臉是彌勒，未審此二老出身處，請師決一決。」湛云：「你看我麻臉是甚麼？」師曰：「不審，不審。」湛云：「你圖口快。」師曰：「蒼天，蒼天。」又，晚參次，師作禮起曰：「學人得箇小休歇，來禮謝和尚。」湛合掌云：「爭得底？」師曰：「婆婆原是小新婦。」湛云：「前三、後三相見，又作麼生？」師曰：「滾鍋不是養魚池。」湛云：「白鷺下田千點雪，黃鸝上樹一枝華。」師曰：「和尚不顧性命，冷熱也不知。」湛曰：「好箇冷熱也不知。」越明年，補維那職，受具足戒，時師二十七歲也。

甲子春，聞天台密雲悟和尚赴金粟請，師懷香詣金粟參悟。悟問：「那裏來？」師曰：「雲門。」悟云：「幾時起身？」師曰：「東山紅日出。」悟云：「東山紅日出，與汝甚麼相干？」師曰：「老老大大，猶有者箇語話。」悟云：「我既如此，你者許多絡索又是那裏來？」師喝一喝便出。

次日，同石車和尚進方丈，悟命坐裏首，師曰：「昨日走得，今日走不得了。」悟云：「作賊人心虛。」師云：「是賊識賊。」悟領之。少頃，悟翹一足，云：「喚作腳則觸，不喚作腳則背，你喚作甚麼？」師曰：「婆婆原是小新婦。」悟云：「饒你道得是，我只不肯你。」師曰：「用肯作麼？」便出。

一日，猛雨轟雷，悟出堂示眾，云：「假饒雷來打我，汝等如何支遣？」一眾下語不恰，師曰：「要遣作麼？」悟便歸方丈。

悟一日落堂，眾集久之，悟惟默然，師問：「正恁麼時如何？」悟云：「你可到恁麼地否？」師震威一喝，悟便打。師連喝兩喝，悟云：「你再喝兩喝看。」師推倒禪床，拂袖便行，悟追上，驀頭一棒。師曰：「恁麼為人，要瞎卻天下人眼在。」悟舉三聖因緣未畢，師又喝一喝。悟咦一聲，出法堂去。至夜，師進方丈，作禮

云：「今日觸忤和尚。」悟云：「屈打你。」師喝一喝便出。悟趕至門外，云：「我倒不恁麼，你倒恁麼。」

悟室中延茶，師赴稍遲，悟藏過茶杯，云：「你來遲了，茶杯也沒有。」師將悟前茶杯舉起，云：「者不是？」悟笑之，乃出其杯，命西堂職。

一日，與悟相遇，悟云：「好新鞋，與汝踏些泥。」師倒與悟一踏，傍僧云：「和尚也好頑。」悟云：「雙獅距爪，你作頑會。」師入室，悟向師面連打兩噴嚏，師與一推，悟拈拄杖出方丈，師曰：「者老賊又恁麼去也。」

侍者寮留師喫茶，悟復來，顧師，師曰：「者老賊又恁麼來也？」悟便臥侍者榻上，師便向悟背撫一掌，云：「裝死賣活作麼？」便出。叢林公論：「當仁不讓於師，惟師有之。」

丁卯春，悟書曹谿正脈來源一紙付師，師受之，辭悟，出山，寓苕谿福山。

崇禎己巳秋，受嘉禾東塔請，入院闡揚全提正令，龍象扣擊，聲譽日隆。

庚午，金粟悟和尚專使送法衣至，師上堂，云：「大庾嶺頭提不起，雞足山前成滯貨，山僧今日獲一披，如雲普覆華王座。」師於此剎樹赤幟三年，凡垂手接人機鋒迅捷，遠近觀光罔不悅服，道風遂大振於江南矣。

然師又欲唱道於故鄉，還蜀抵夔，萬有馮銓部郎中伯井延師於梁山萬峰卓錫焉。蓋西川自宋圓悟大隨，而後少室綱宗久矣絕響，人皆習為講誦。師一提最上極則之事，遠近瞻風，心懷畏愛，道望又於是乎大著矣。

及遷中慶後，則有開之栖靈、大寧、紫雲、栖鳳，宕渠之祥符，大竹之無際、佛恩，敘瀘之蟠龍，南浦之萬福，至若金城、雙桂，皆師逸老最久最盛之地也。

住祥符則有江南飽參歸來，均一老宿蘇薦紳流，長大開道場，高敷床座，叢林體裁無事不備。

大寧則有徐居士道臣，先蟠龍之請而不獲先蟠龍行事，遂捨身官潭子，師蟠龍解制，即於大寧建禪期，與徐公說法，以酬為法懇切之願也。

蟠龍則有牟吏部尚書郎秉素奉差金陵，遇朝宗和尚，告以天童衣鉢正在破山，歸鄉與樊總制我劬肅簡，迎師於蟠龍，大振法道，風勵初學，朝夕咨決，甚愜積懷。

萬福則有譚兵部首四，闔族講武，累世談兵，雖當大亂之際，無敢侵梁萬之疆，安居在陣雲，闡化亦如治世。

末後雙桂又以昔年師住萬峰德化所洽，懷慕不忘，闔郡紳士重瞻玉毫，再領慈誨。

師法雨均霑，燐火頓息，斯時參徒常百餘人，烽煙雖未靖、蜀道猶未通，冒險乘危，不惜性命，問山尋水瓢笠同來者又不足以相容。姚公爰卜一山，有老桂二株，乃舊紳別墅，又古時鬻宮，竹樹平野，雲月曲谿，靈氣鍾焉，師葺茅安眾，以終餘年。初非有意建叢林也，越三五年而佛殿法堂高華宏壯，僧寮廊廡百度皆完，法幢高聳，爐鞴弘開，朝參暮請之眾盈萬指而有餘，得非法門之大盛哉。甲辰秋，師因三峽重開，以書三喚印正住持雙桂，欲買舟往天童埽悟和尚塔。適李總制培之請，上渝州說法薦親，應酬煩重，歸山之後，衰頹日增。

越丙午春，上堂，辭眾，以眼、耳、鼻、舌、身、意分作六偈，付授六人，趺坐而逝。經旬，顏貌如生，門人遵治命，殮以木直，祔塔於本院後山。世壽七十，僧臘四十三，開堂一十有四刹，說法三十有七年，嗣法弟子八十七人。

凡師開法席處，眾集如雲，久參、初進，絕不以詞色稍為寬假，惟拈白棒，據令而行，如獅子哮吼，百獸一聞罔不膽喪。復不問來機利鈍、器量淺深，皆施本分鉗鎚。若擬議而不能頓領、並倔[仁-二+(強-厶+口)]而妄為低昂，必以痛棒棒到底，直要逼得生蛇化龍。況尋常語默談笑，皆是陷虎之機，縱有強記座主辯似縣河，一當椎拂之下即結舌藏鋒。嗣是有志道流收入爐錘之內，錦官年來盡罷講席，知有教外別傳、正法眼藏、不立文字之旨也。蜀人僉曰：「圓悟大師復起於今日矣。」豈獨衲僧輩下頂門之鎚？即王侯公卿、宰官貴要亦不順人情，深錐痛筴，赤手提持，俾知法門烜赫，不涉世智辯聰，直教根本無明當下灰息。

如李一陽屯兵涪陵，威怒最甚。師入營中，力為感化，李乃出令止殺。師說法最猛，化物最慈，劍鋒上著足、虎口裏橫身皆所不惜。自劫運更變來，經歷七次大難，未嘗以之介懷，緣師識情斷盡，了無怖畏，戎馬場中隨直攝化。

師行腳江南時已稱奇衲子，及後謙光導物，又善協輿情，由是遠近慕道欽風，名聞四海焉。

孝廉馮百祥夢師授以墨圖扇，即舉似師，師曰：「此文墨之盛也，今料必中，令祖事佛，福蔭於公。」後果如所言，此又寤寐中信敬而悅服者。

然則師之機權超越佛祖、師之作用冠絕古今，行藏語笑、細事大綱，若見、若聞，卒莫能殫。惟述當日參叩機緣與後開堂說法實事，俾天下後世景仰其風度者亦如親炙云。

康熙癸丑年孟夏月，門人印正謹狀。

破山禪師語錄卷第二十(終)

(三世法孫 宜都善谿道東 江陵福昌發宗 堆藍發慧 竹園通聞 襄州道乾
沔州克誨同刻破山和尚語錄第二十卷 堆藍沙彌光對 秀水謝穎仙文英書 倪君亮
子天章雲望刊)

(康熙庚申年季春月，嘉禾楞嚴般若坊附藏流通)

雙相破山禪師年譜序

竊觀西來之旨，自諸祖而下惟馬大師為最盛，然後若非滹沱老驅耕奪食，勦絕知見，直指一宗，其不流為教綱理窟者幾希。近得天童密老人單拈白棒中興濟上，又得雙桂破山和尚為嫡子，參究猛厲認真，向懸崖絕壁撒手翻身，故其尋常純用劍刃上事，任他魔來、佛來，總不眨眼，一齊按下。雖有通身手眼，不覺心膽俱碎，無近傍處，嗚呼至矣。至於逆行順行、神出鬼沒，更非常情所測度，豈與夫枯椿上尋奇妙者可同日語哉？

法孫竹浪、野月二上人奉師丈雪和尚之命來禾刊老和尚年譜塔銘，補入語錄，因以示余，隨喜一過，慶快平生，輒綴數語以序云爾。康熙庚戌重陽日，樵李約菴道人施博拜題。

雙桂破山明禪師年譜

嗣法門人二祖印巒輯

平山印綬編

明萬曆二十五年丁酉。

師生於四川順慶府大竹縣，姓蹇氏，本渝州忠定公後裔，父諱弘，母徐氏，娠師十有五月始誕，眉目挺秀，父母色喜，是年正月二十一日午時也。

二十六年戊戌。二十七年己亥。二十八年庚子。

師四歲，形貌端正，七歲平滿，祇是終日不語。父母疑其不慧，憂之。師嘗語人曰：「父母謂我孩孺時發言最遲。」

二十九年辛丑。三十年壬寅。三十一年癸卯。

師七歲，有鄰士誦《金剛經》，至「若以色見我、以音聲求我，是人行邪道，不能見如來」，師隨聲學誦，父母驚且喜曰：「我子說話了也。」識者曰：「此兒不可測。」

三十二年甲辰。

師八歲，入鄉校，不以詩書為事，但喜多書上字。先生每加督課，而師仍書如故。

三十三年乙巳。三十四年丙午。

師十歲，偶遇一僧，為說世、出世間法，聞之甚喜，自此恒覓佛書，雖未深諳經意，然心中恍恍，若有契焉。

三十五年丁未。三十六年戊申。三十七年己酉。

師十三歲，納室氏，人情世事略不經心，父母責之曰：「汝不理家務，他日不知成箇甚麼人？」師曰：「看那泥塑木雕的佛尚有許多人供養，何況男子志在四方，烏可限定耶？」

三十八年庚戌。

師十四歲，父母相繼而背，師偕兄哀痛迫切，盡殯葬之禮，嗣後每以出塵之念白兄，兄不許，師志終亦不改。

三十九年辛亥。四十年壬子。四十一年癸丑。四十二年甲寅。

師十八歲，時常嬰病，自覺世間俱屬無常幻境，乃遠陟名山大川。一日忽歸，遂將妻室安置畢。兄以師為不肖，視如路人。師愈喜遊歷，更不思歸，後嘗語侍者曰：「我在家時已作行腳僧了。」

四十三年乙卯。

師十九歲，詣本郡佛恩寺，禮大持律主為師，持視師志氣軒昂，英姿出類，命名海明，號旭東，如日輪東昇，照天照地之意。

按師行實云：我十九歲時於壁間見誌公禪師勸世歌，予讀至「身世皆空」處，不覺墮淚。至夜獲一夢，如四山相逼，中間祇有一路，一僧對予頌偈云：「欲脫娑婆出苦纏，急須精進莫貪眠，聲聲只把彌陀念，自有蓮華托上天。」

四十四年丙辰。

師二十歲，持圓寂。聞延福寺慧然法師講《楞嚴經》，往彼聽受，至「一切眾生皆由不知常住真心、性淨明體，用諸妄想，此想不真，故有輪轉」，自謂：「我出家原為生死，生死豈不是輪轉意？若不受輪轉，畢竟要知常住真心；知常住真心，則不受輪轉。」遂將楞嚴十卷熟讀，於「七處徵心，八還辨見」文中恍有入處，詣室請益，法師但以因緣開示，不能決疑，呈偈云：「我為生死來出家，何須更算海中沙？無常殺鬼卒然至，錦繡文章亂似麻。」於是瓢笠出蜀。

四十五年丁巳。

師二十一歲，荊南遇一禪客同行，抵蘄水吳王廟，患痢疾，同行別去，無人相顧。偶有居士張稜溪者，見師雖病，眼光射人，遂延至家中，以藥調理三月餘，病愈乃辭謝。

四十六年戊午。四十七年己未。

師二十三歲，住黃梅破頭山三載。

按行實云：每看古人言句，如銀山鐵壁，誓願住山，力究此事。行至黃梅破頭山，見泉石幽深，遂縛茅屋：「若不明此事，終不落此山。」於是艸衣木食一生，伎倆搬盡，只是者些無意味底語疑不自決，乃依《高峰錄》以七日為限，剋期取證。做了四五日，行路似雲浮空，亦不驚、亦不怖。一日發急，到懸崖上立定，自云：「悟、不悟，性命在今日。」渾然人境雙忘，眼前惟見一平世界，更無坑坎，舉足經行，不覺墮於巖下，跌損一足。至夜，負痛有省，高聲云：「屈，屈。」有士進前問師云：「腳痛麼？」師劈面掌，云：「非公境界。」

四十八年庚申，即泰昌元年。天啟元年辛酉。二年壬戌。

師二十六歲，參憨山、博山、聞谷、雪嶠諸大師。

按行實云：予問憨山大師：「教中道，汝身、汝心皆是妙明真心中所現物，如何是妙明真心？」大師云：「一切智清淨，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予曰：「當時世尊何不與阿難如此說破？只教將心微細揣摩。」大師云：「要他自理會。」予曰：「理會即不無，要且不是祖師西來意。」拂袖便行。

參博山無異大師，問：「學人從偏位中來，請和尚向正位中接。」大師默然，予出云：「老大一箇善知識，被我一問，祇得口啞。」傍僧云：「還是你不識和尚意。」予掌云：「者掌要方丈和尚喫。」

入浙中參雪嶠大師，問：「你是那裏人？」予曰：「西蜀又過西。」大師云：「我徑山八十一代祖師，也有幾箇是你四川人，惟四川人最惡癩。」予叉手前云：「合蒙高鑑。」大師遂留之。

三年癸亥。

師二十七歲，參湛然和尚，是年圓具。

按行實云：予在顯聖，問：「紅臉是關公，笑臉是彌勒，未審二老出身處，請師決一決。」師云：「你看我麻臉是甚麼？」予曰：「不審。」師曰：「你圖口快。」予曰：「蒼天，蒼天。」後於座下頓圓大戒，補維那職。

四年甲子。

師二十八歲，參金粟密雲悟和尚，作染牛頌。

按行實云：予在杭州西山病月餘，聞天台密雲和尚赴金粟請，予抱病過金粟。師問：「那裏來？」予曰：「雲門。」師云：「幾時起身？」予曰：「東山紅日出。」師云：「東山紅日出，與汝甚麼相干？」予曰：「老老大大猶有者箇語話。」師云：「我既如此，你者許絡索又是那裏來？」予震威一喝便出。

師一日坐齋堂，顧予云：「他們都作染牛頌，你如何不頌？」予曰：「頌到有一首，只是鋪堂事忙，未暇呈似。」師云：「試呈出看。」予詣師前，畫一圓相，於中書一牛字。師云：「此是古人的。」予一喝便行。

五年乙丑。

師二十九歲，再參湛然和尚於海鹽天寧寺。

按行實云：予在天寧一期畢，辭師歸蜀。師云：「全靠爾輩光揚法門，箇箇似你都去住山，那箇是應得的？」予曰：「學人病軀難理常住事。」

師云：「我有天華、顯聖兩箇叢林，難道養你者箇病人不活？金粟老密只管東打西打，我替他擔盡干計，我老漢只用三寸綿軟舌，尚被人寫帖送我。你們要習，還習我洞上宗好。」予曰：「和尚但放心，學人固是他家種艸，正好拈條白棒，不順人情，打出禍來，大家受用。」

六年丙寅。

師三十歲，復上金粟，主維那西堂事，命造方丈。

按行實云：再參金粟，作禮次，師云：「堂中少箇打磬的，送你進堂去。」予曰：「量才補職。」師云：「正是量才補職。」予主其事。

師一日落堂，惟默然，予問：「正恁麼時如何？」師云：「你可到恁麼地否？」予震威一喝，師便打。予復兩喝，師云：「你再喝兩喝看。」予掀倒禪床，拂袖便行。師追上前，驀頭一棒。予曰：「恁麼為人，瞎卻天下人眼在。」

師舉三聖因緣未畢，予又一喝，師咦一聲，出法堂去。至夜，予叩方丈，作禮云：「今日觸忤和尚。」師云：「屈打你。」予一喝便行，師趕至門外，云：「我到不恁麼，你到恁麼。」

後補西堂，一日相撞，師云：「好新鞋，與汝踢些泥。」予倒與師一踢，師休去，旁僧云：「和尚也好頑。」師云：「雙獅距爪，你作頑會。」

復為承當造方丈，緣淺，過杭州，寓昭慶竹院房，掩關，師每以書招出。造完方丈，是冬，眾盈五百，師乃命予與五峰分攝兩堂。

七年丁卯。崇禎元年戊辰。

師三十二歲，悟和尚書曹谿正脈來源一紙并信金付師，及莫春寓苕溪福山。越明年夏，受嘉禾東塔廣福禪寺之請。

二年己巳。

師三十三歲，八月初一日入院，方伯元履丘公并孫和石茂錫起伯諸護法、縉紳居士請開堂演法寺，即清涼國師之講席，向無提持

教外別傳者，於是建立天童宗旨，開選佛場，自師始焉。
是年，石帆岳司馬相訪，問：「法臘多少？」師豎一拳，岳頓然面赤，曰：「我東南水方人民老實，莫在者裏惑亂人。」師云：「貧道行腳十五年，今日惑亂著一箇。」岳曰：「惑亂我則可，只恐惑亂愚人。」師云：「阿誰是愚人？」岳瞪目視之，曰：「我也是路見不平，見你年幼，未是你做的時節。」師云：「釋迦老子初出母胎，指天指地，難道也是年幼，未是時節麼？」岳曰：「所以雲門要一棒打殺，我今日一棒打殺你，且作麼生？」師作怕勢，云：「貧道性命幾乎喪在門下。」岳躍然拜別。

三年庚午。

師三十四歲，為[車*度]轢嚴居士送大悲像入院上堂。少司成埽菴譚居士請題紫柏大師像，通金粟悟和尚法嗣書，悟和尚耑使送法衣至東塔。

按：師上堂云：「大庾嶺頭提不起，雞足山前成滯貨，衲僧今日獲一披，如雲普覆華王座。」

四年辛未。

師三十五歲，題雪嶠大師像，題和石孫居士行樂圖，復子穀蔡居士書，題金粟悟和尚贊，示空外達四維寬法語。

起伯孫居士建大悲閣，請師上堂，云：「山僧住此二三秋，拄杖芒鞋未徹頭，千手大悲來摸索，一莖艸上現瓊樓。」

翻刻《指月錄》流通海內。

五年壬申。

師三十六歲，買舟上天童省覲悟和尚，過顯聖，掃湛然得戒和尚塔。既歸，結夏，上堂，云：「東塔今年結夏，老牛老馬歸舍，雖無水艸供看，且喜鞭繩惡辣。」

是秋，師欲還蜀，復上天童辭悟和尚。出山到寧波，慈谿爾赤馮居士延至家中請益，馮術，師力為拯拔，示以正知見，闔宅感悟。復請上堂，及歸，辭眾。按：辭眾，上堂，云：「榔栗橫擔不顧人，直入千峰萬峰去。」

辭通郡紳衿，遂抵金陵，石衲余公於集生菴請小參，示準提菴琢璞公法語，為報恩寺淨心上人題指月軒。

遊靈谷寺，題偈云：「偶來靈谷法堂上，坐聽松聲遞遠鐘，莫是誌公時說法，廣長舌底露機鋒。」

及到夔之萬縣，寓廣濟寺，高梁紳士壽北涂公、中憲瀑崖高公、古良甫叔度昆仲迎師至萬年寺，虛白公虛席延留，旦夕問道。

六年癸酉。

師三十七歲，梁山邑侯費公、馮司列善長、胡玉川居士、心海法師請住萬峰太平禪寺。師四月入院，蜀人久未響此音，師一演

唱，有志正因之士遠近趨風，爰開闢叢林制度，立九旬安居風規，為眾提持撻拂不輟，衲子獲益，互相激揚，山還水聚，道化日隆，乃有題十景之句、製先覺宗乘序。歸太竹，掃大持薙染師塔，復還萬峰。

七年甲戌。

師三十八歲，是年佛殿僧堂百廢俱舉，廊廡階砌堊墁一新，至冬落成。按：師上堂，云：「復古太平寺，悽然感廢興，寒灰八百載，破衲兩三僧。黠鼠居香積，妖狐吹佛燈，黃金重布地，不識有誰能？」

與雪灘陳太史書，復江陰馮縣令善長書，象崖珽首座初受蟠龍請，師以書勉之。

靈筏昌久親椎拂，師示以偈云：「有時度盡驢和馬，又去虛空接聖賢。」

冬十一月受中慶請。

八年乙亥。

師三十九歲，春三月，維豐朱公、登伯馮公請住中慶禪寺，四方翕聚，鍛煉既嚴，省發亦眾，遇境逢緣，轉加策進。故入院上堂，云：「山僧向南方走一回，拾得幾箇金剛圈、一籃栗棘蓬，今日對人天眾前不辭拈出，與諸人共相吞跳。」以拄杖打圓相，云：「者是金剛圈，試跳看。」復豎拄杖，云：「者是栗棘蓬，試吞看。」(云云)。

是年，悟和尚七秩，師修啟耑使上天童慶祝。復瀑崖高公問道書，復無際凌虛公書，復昭覺惟一公書。

九年丙子。

師四十歲，緇素嚮化，眾多事繁，立體宗寧為監寺，及師誕辰，萬指圍繞。復宕渠流長蘇公問道書，復雪門璨別峰璽字水拙書。是冬受開縣栖靈請。

十年丁丑。

師四十一歲，秋八月，住栖靈。冬十月結制，制中為眾提撕，略無倦色。按：病起上堂，云：「病僧為病極，說法乖法式，靜地念摩訶，尋聲入福慧。」復云：「二十年來經藥餌，不知此疾是膏肓。」

復破浪舟偈云：「梅華雪子競峰頭，開落渾然春信浮，觸到面門須著眼，莫教穿過臭髑髏。」

示竹微奉離指示法語。

十一年戊寅。

師四十二歲，冬十二月，檀越蘇流長請住渠縣祥符禪寺。先是君一老宿與蘇公闔郡紳士商確已定，欲建禪期，須行南方體裁。及

師入院，百度整齊，遂立君一公為監寺，總理院務，衲子四來，率多氣岸。按：解制，上堂，云：「祥符解開布袋，放出一群猛虎，不會獅子翻身，箇箇解打口鼓。」蜀都自此咸欽法化之盛矣。

十二年己卯。

師四十三歲，春二月，王兵馬太乙、李居士鳳山請住廣安大竹縣無際寺。師初慮故里人愚朴，難向佛頭著糞，先復王公書云：

「貧道垂髫時，視鄉黨中人多脂粉氣。今門下欲貧道唱還鄉曲，想是鵝王擇乳，素非鴨類耳。」至四月，師與眾同赴結夏安居，龍象蹴蹋展佛祖機用，一郡欣所未聞，後欲以梓里之情延師久住，時萬峰眾護法以太平開拓有年，宜永標赤幟，不可虛席也，乃強迎歸萬峰。

十三年庚辰。

師四十四歲，是冬，重整爐鞴，痛施鉗鎚，英靈泉湧，氣吞諸方。忽一僧從聚雲來，將吹萬上堂語呈似，師看畢，太息久之，乃普告大眾云：「聚雲釘椿搖櫓，妄擬祖庭，反謂嫡悟嫡據者為非，自甘嗣遠嗣死者卻是，甚至穿鑿識案，謾惑無識之輩，紐捏枝派，冒籍有宗之門。不知大慧門下有九十四人，迄今五百年來久無影響，而聚雲輩焚香發誓，結五十三人搥鼓陞堂，一旦嗣之，不知斯輩得何據乎？試問聚雲輩：夢眼何故不開？活的不嗣，而反嗣死無對證者。何不索性做箇過量人？獨擅嘉聲亦得，而乃刺腦入膠盆耶？既謂漢月致書，識聚雲為大慧種艸，則何不效黃檗、不嗣馬祖，而竟嗣百丈？今聚雲反嗣大慧而不嗣漢月，較之古人之智天淵矣。」遂作佛道聲價以闢吹萬遠嗣大慧之妄。十二月，開縣徐檀越通碧特修大寧佇候，復有敘府牟吏部尚書秉素、樊督臺我劬二護法耑啟，延師蜀南闡化。師以先受大寧之請為卻，而牟慕道之心甚切，更不相讓。越明春，重遣員役輿師，遂南行矣。

十四年辛巳。

師四十五歲，二月過酆邑，覺城柱迎師入平都山，與紳士同請益并祈法語。及抵敘州，緇素馳逐瞻仰。師曾有偈云：「拄杖肩輿入市廛，大驚小怪亂言傳，雖無道況垂千古，卻有禪名播萬年。」牟遂延於佛蓮禪院，日夕咨決心疑，滿慰夙願。以牟昔年奉差金陵，南中士大夫結社集生菴，牟得與同參。後因王程期迫，依依難別，朝宗和尚告曰：「天童衣鉢正在破山，歸而求之，何用他覓？」今入師籌室，方知朝宗和尚恩大難酬。厥後師蟠龍開爐，峨嵋瓦屋僧侶雲臻，久參、初進，一皆覲面提持。按：是期上堂，云：「凜凜朔風吹敝廬，人人凍裂箇皮膚，

就中有點天然別，分付梅華樹幾株？」時牟與樊喜法席之盛，得未曾有。

十五年壬午。

師四十六歲，春初於蟠龍解制，即放舟東下，過開縣，應徐公之請，而徐公已謝世矣。

自師南上時，致書相報，徐公適於官潭舟中開函，不能速就思緒，便投身水中。徐公本浙人也，原親覲天童悟和尚，起法名曰通碧，客於開縣有年，故慕道之篤如此，四方聞者皆謂徐公真為法忘軀人也。師為彼小參，云：「西津壩即西方境，官潭子是白蓮池。」時大眾感歎，欲久住大寧，共酬徐公之願，伊闔宅不廢初志，一一傾心大開法席，乃安徐公位於禪堂之側。

與眾同事作十二時歌，撰黃龍寺碑文。

十六年癸未。

師四十七歲，壬午冬，師在大寧聞亂風漸起，乃歸大竹之佛恩，以佛恩山深可避故也。此時人多風鶴之驚，大眾親師已久，依依不忍離其翼贊。

叢林擔荷大任者則有雪臂巒、敏樹相、澹竹密、孤石憲、燕居申、丈雪醉，三吳等重為修葺，安眾待時。

按《佛恩錄》云：「千千龍鳳從茲止，萬萬獅麟自此歸。」即豎大殿日上堂語也。

是冬，烽煙四告，師謂眾曰：「汝等遠避，老僧聽天安命。」群賊入寺，見師形貌奇偉，誤認為達州唐進士，欲加苦拷，師慈心善導，為說山中道人行履，賊皆釋疑散去。即有偈十首，其一曰：「鬚短髮長近俗容，安名立姓謂唐公，于中幸有一星別，說法聲同意不同。」時眾皆遠遯，惟雪臂巒一人不離左右，雖與難亦無怨也。厥後眾方歸，強師過萬峰，抵佛香，建活埋菴。

大清龍飛順治元年，甲申，時蜀中未通，尚沿崇禎十七年。

師四十八歲，春三月，蜀江北岸遍地干戈，惟南岸山谿險危，兼有土兵禦侮，耑使馳書達石砭司秦總戎良玉夫人處，秦即差官同永貞上人過忠州迎入石砭之三教寺，風土人情更覺淳厚，可為安居之地。

二年乙酉以至丙申年止，蜀中尚沿明號。

師四十九歲，彼司之人嚮沾法化，信敬有加，初為隱遯計而瓢笠追隨，復成法席。示壽山福、蒼松鶴、竹帆波、覺城柱、默石悟法語，示馬宣慰嵩山偈，復黃銓部郎六解書。

三年丙戌。

師五十歲，春正月，師誕辰，緇素同慶，皆以世禮尊之，師亦怡然大快。時故舊紳士或耑書慰問、或親炙座前，如秉素牟公以古

人懸艸履於門上為問，師復之最詳。與王相公春石書，與田兵憲素書。

四年丁亥。

師五十一歲，是春，近宸張公請住天祐寺，師於佛誕日入院，冬建禪期。蓋張公以司人未聞西來密旨，堅請曲垂開示，提醒人心。

鄰有三台寺，碧虛老宿事師最切，自造壽塔，乞師作銘，并乞題行樂圖，云：「行住坐臥，人之威儀；松竹梅石，山之秀氣。器界根身，萬法歸一。爾鼻兮，香金爐；爾足兮，蹋頑石；爾耳兮，聲幽松；爾手兮，執如意。尚餘竹與梅，堅節而素質。呵呵！堪笑爾碧虛，堂堂乎若是。」

五年戊子。

師五十二歲，兵戈紛起，民不能耕，所遭饑饉。有骨力衲子同甘寂寥，勇銳辦道，師亦彌加提策，即有客相訪，隨家豐儉而已。示石年曹公偈云：「為月開門笑遠山，光樓聲發骨毛寒，老僧無別營清供，待客惟將竹數竿。」

六年己丑。

師五十三歲，嵩山馬宣慰請師為祖覃太夫人良玉對靈小參，三教主人常然公為師永貞長老請對靈小參，復侍佇黃公書，示厥中侍僧法語。

二月，東川呂相國耑書迎入司中一晤，初以老病為辭，呂因軍務所羈，不能趨榻，強請再三，師乃策杖而往。一見，便把住問云：「你是呂相國麼？」呂曰：「不敢。」師云：「父母未生前姓甚麼？」呂擬議，師便棒。呂大怒，師復打。呂趨進，師笑云：「將謂將謂，原來原來。」遂說偈云：「無端平地起孤堆，嚇得虛空顛倒走，痛打金毛人不識，幾乎翻作跳牆狗。」呂出諍論，以勢相加，師又說偈云：「父母未生前句子，等閑棒著發無明，猛然省得非他物，十八女兒不繫裙。」呂乃省，送歸三教。後通書云：「承施棒喝，卻得透脫一陣黑風黑雨，原自天朗日晴，只恐一夥盲人不識此段因緣耳。」師復書云：「昨與閣下彈丸地上相逢，此奇緣也，勢不可不斗膽，果符素心，漆桶子快；不然，老僧與閣下咫尺天涯矣。承命敝檀越堅留三教，因天祐人來接歸，聊具瓢拂機緣偈語以悉鄙衷。」呂耑書謝云：「遠承切念，親囑慈旨，從今拜教多矣。他年天台山上，幸以隻手相攜。」（云云）

五月，石司亦有烽煙侵境，呂耑使請師過渝之彭水，師欲上峨嵋逸老，辭呂出江。

七年庚寅。

師五十四歲，時立陽李總戎屯兵涪陵特營精舍，堅延憩錫，師以間關險阻暫允其情，後李事師如弟子禮。師嘗謂李曰：「上帝好生，宜護惜殘黎。」李即出令，不許誤殺一人，迄今蜀東頌德不已。

小山于總戎聞師直心導物，未親法音，延至黃化城署中，頻頻請示佛祖因緣，師一一隨機獎勸，或說罪福、受報、好醜，皆以不殺為至德。于心感悟，乞垂法語，并請題雙松，偈云：「城開黃化松雙栽，為鼓風濤引鶴來，近日如何枯不併？獨參天地靖氛埃。」方欲久沾慈誨，而李復延歸涪陵。

八年辛卯。

師五十五歲，是秋，張兵與于李相戰，師復入南濱，進梨水。忠路司覃公諱敦源者，延住福田寺，禮遇甚優，有「苦李昔拈今熟也」之句，蓋覃曾親師椎拂，故契合如斯。

鐵鶴寺象崖法嗣訃音至，師悼以偈曰：「遙聞鐵鶴已冲霄，留下空巢期寂寥，瓢笠思隨雲水散，風帆義逐雨華飄。念年鼓粥終初志，十處開堂始稱豪，同汎錦江三峽上，豈知爾去益吾勞？」是冬，萬縣首四譚公以北岸地方烽煙大息，懸佇歸里，猶慕景星，耑使延師出江，重布當年法化。

九年壬辰。

師五十六歲，是春，率眾還，南浦譚公迎於太白崖萬年寺居焉，見愚賢菴玉環、續長等，獲瞻師面，如隔世重逢，左右給侍最為精勤。

首四譚公每邀譚爵臺士心、西崑兩大護法與師終日劇談，共慰多年積慕之懷。

請題太白崖詩，云：「太白危巖坐，舞華飄杖藜，穿人鼻孔句，為我省詩脾。調古噴寒玉，風高長紫芝，詞壇騷骨在，付與林鳥啼。」

緇素方謀久住之策，本明徹、西瞿望亦緣別師有年，議諸檀越梅、王、冉、徐、楊等請師過開縣休夏。及到龍城，見聞者莫不合掌加額，咸稱古佛重來。與本明偈云：「干戈隊裏幾經秋，恐我師徒難聚頭，今日相逢舒一笑，兩城煙水自悠悠。」

四月一日，於紫雲寺安居一期畢，范、楊二檀越請於栖鳳結制，師陞座，云：「紫雲解座，栖鳳陞座，雖是兩彩一賽，要且不離者箇。」以拂子打○云：「佛子住此地，則同佛受用，常在於其中，經行及坐臥。」

至冬，高梁聖瑞姚護法請住金城寺，乃為眾開爐，舊日參隨衲子同聚法筵，大振頽綱，宛如昨日。

十年癸巳。

師五十七歲，聖瑞姚公請於師，曰：「和尚門牆高大、龍象甚多，非大道場不能海納山容。弟子卜得一山，俗傳古之鬻宮，尚有老桂二株，局面恢弘，可建一大梵剎，乃屈杖履一遊。」師覽云：「此山較之，千二百五十人同居，猶其少者也。」

是秋，鳩工採木，於佛成道日豎大殿、方丈、僧堂三十餘楹，即名之曰「雙桂堂」，遂結冬安眾，頓成大觀。

十一年甲午。

師五十八歲，丈雪醉自夜郎來省覲，師命上天童代掃悟和尚塔，每告醉曰：「老僧欲詣先老和尚塔前拈一瓣香，奈年來荒亂，道路荊榛，汝不辭勞，可先為老僧一往。」遂書送行，偈曰：「雪骨冰肌誰箇知？臨行相贈扇頭詩，清風贏得還歸握，漫莫逢人露一絲。」并送法孫佛冤法語。

十二年乙未。

師五十九歲，得法弟子分化四方。凡乘者，聞師嚴峻之風，咸欲親承棒喝。奈川原曠絕，兵燹之後，百里無人。其負笈來從，有樹下宿者、有塚間宿者、有溪畔巖穴而宿者，皆冒險乘危，甚至官司嫌疑而鞫問者。如斯道路，楚水秦關猶霧擁雲臻。

是冬，立靈木綬空如禪為監寺，心宗、慧心為副寺，清溪為首座，本如為維那，道雅為典座，松溪為直歲，卓爾、朴存、燕石、繼竹為知客，雲幻聖可參之西鉢，忘我東也為侍司，分領其事，規約整齊，雙桂道風大振遐邇矣。

謝銓部郎沛之、曾邑侯勝幢入山問道，答田司李維敘書，答牟將軍麟玉書，復趙孝廉羽鏞書，復法孫語嵩裔書。

十三年丙申。

師六十歲，復李制臺培之書，復方太史神生書，復文督學君山來韻，為馮明經砥中薦先考列司善長對靈小參。是年，凡嗣法門人、遠近學侶皆集座下，同慶大年，雖遐陬僻壤，莫不繪師像而瞻禮焉。

十四年丁酉。

師六十一歲，關南平西親藩福晉耑使齎信香、法衣、并法被、爐奩、華幔、茵褥，凡法座之可嚴飾者無不備焉，請上堂說法，請題自真贊及法語以歸。緣法孫懶石聆住漢中府靜明寺，與藩府相近故，特來請法也。

十五年戊戌。

師六十二歲，慕義譚侯府士心薦先慈請說法，師命靈木綬理院務，同眾至天城對靈小參。譚感謝，請於太白巖萬年寺休夏，尋受請結制。師暇時偕諸公遊天生橋、流杯池、岑公洞，勝蹟名蹤，皆有乘興之句。

是冬，歸雙桂。時丈雪醉住嘉禾青蓮寺，東塔監院清白常勤，舊房僧慈霖洽，同紳士金太師之俊、譚司業貞默、朱郡侯茂時、汪進士挺、王方伯庭、文學施博翁、天麟法姪嚴大參等，修公啟，請再住東塔。師因巫峽烽煙未盡，猶多阻滯，以稍遲趨命復之。復徑山法弟費隱和尚書，示再三法語，示鐵印法語，示野月法語。

十六年己亥。

師六十三歲，李制臺出師夔關，耑書問道，師復最詳，更贈以偈，有「重開巴國蘇民困，再造夔門起世賢」之句，李覽大悅，志擬旋師，躬親法座。後巫峽屯兵六載，屢裁問答之書。

十七年庚子。

師六十四歲，峨嵋諸剎名宿思聆法音，欲究此事。有法孫紫芝住峨嵋之萬年寺，眾與商確，專趨法座，啟師逸老峨嵋。師辭以衰病，不能跋涉。後峨嵋高志之輩皆接踵而來，朝夕磨礪，師施以本色鉗錘，均有深省。

十八年辛丑。

師六十五歲，法堂告成，廊廡畢備，復建一楹於法堂之左隅，題曰「寢堂」。凡斲木拽石、挑磚運瓦，皆僧侶躬為之，猶有力行而恐後者。制臺李嘗問使：「雙桂叢林體制，僧徒功行何如？」使對：「以梵宇巍峨，寮舍恬靜，其中皆真誠學道之士，約萬有餘指。」李乃大書「燈傳無盡」四字額之。

康熙元年壬寅。

師六十六歲，為靈隱文題自真贊，為兩生從題自真贊，為法孫愍月燕石題自真贊，復白刺史完初來韻。師與白酬答最契，有「惆悵離騷壇未冷，平都山又墨花生」之句。

是年師歸故里，重修度親菴，安眾學道，與眾說法，用報親恩。蓋此菴建於崇禎末年，以世亂未及落成，今特為修理，亦不負度親初志云。

二年癸卯。

師六十七歲，為印貞劉夫人薦夫君譚西崑上堂，為梁山縣令飛雲彭公入山飯眾上堂，為襄陽于元戎小山題平寇伯彥侯曾公像贊，復重夔鎮程元戎萬夫書，復忠南汝止高副使書，復遵義余太守君維書，示譚虞卿任卿兩總戎法語，題天童悟和尚真贊，復風穴雲峨法姪書。

三年甲辰。

師六十八歲，是秋，巫山已定，楚蜀道通，師有天童之行，速於急湍，乃發書渝城，喚蓮月正歸。書云：「雙桂常住，汝當來接

手，以代一臂之勞，令老僧往天童掃塔，報師恩德，不忘遞代相承也。萬望垂憐，至祝至祝。」正趨座右。

時制臺李凱旋太夫人訃音倏至，即差員役進雙桂請師薦親，前歸巴渝，以候杖臨。

師命雲嶠水監院、蓮月正領眾，乃過長壽縣，及抵渝城，緇素爭先拜於街市，乃至屠兒亦皆稽首。

李延寓觀音寺，於官衙設座，請師為母說法。李跪聽母位之側，蓋思親之切而尊法之至也。

示李制臺楊夫人法語，示子李雯法語，示秉儒牛公偈，示寶峰慧偈。

後李欲留住崇因寺，師不勝應酬，辭歸雙桂，道途風雨，每有寒暑之恙，掃塔之行自茲未果。

四年乙巳。

師六十九歲，丈雪醉中興昭覺，張撫臺坤育、鄭提臺西雲、郎藩臺鈞衡、李臬臺息六、郭道臺餘菴、冀府尹蓑翁入山問道，醉以師平素行業、動靜體裁、出詞吐氣迅捷鋒銳，言於眾宰官皆懷企慕，迺力修昭覺，各通請書，師以老病辭謝。

時澹竹密自成都艸堂特趨慶祝。於佛成道日，師命秉拂上堂，以法衣、拄杖、爐拂等總付代勞。

夔州邢府尹拙溪入山問道，師示以偈：「食祿元來各有方，老僧雙桂君瞿唐，相逢沒甚好消息，拳頭巴掌絕商量。」新寧沈縣令廷勸入山問道。

是冬，南北學者及得益弟子連袂而來，趨歸如市，師命眾執事竭力開爐，彌加整飭，迺普告大眾曰：「今年不惜眉毛，重打口鼓，向後更不說禪、亦不說戒。爾等欲參禪、受戒，不可後也。」眾謂師年尊謝事之說，而不知已無意於世矣。

五年丙午。

師七十歲，正月十五日，將眼、耳、鼻、舌、身、意分成六偈，付囑六人，以終生平之事。

越廿一日，師誕辰，遠近士大夫、當道宰官、及入爐輔久近弟子左右環擁，莫不懷香瞻戀，共慶大旬。自此謝絕人事，閒居寢堂。

至三月初十日，師示微恙，落堂告眾云：「老僧年經七十，四大漸頹，報緣將盡。」眾等白言：「耑人請醫。」師云：「不可，人生去來，原屬平常，何必貪壽？但率眾修塔，乃是真孝。老僧行徑雖異諸方，然去亦不同故套。從上有坐脫立亡者、有拈拂豎指者、有奇言妙句驚世駭俗者，老僧若入涅槃，祇是起居如故，候時至則瓜熟蒂落，自然之道也。至於叢林風規，確守為上，亦

如老僧住世無二，勉之。所有竹杖、瓢笠、道具之類分與舊契，尚存衣鉢之餘可付丈雪醉修昭覺祖庭。」

至十六日午時別眾，眾皆漚然。師卻就寢，少頃復坐，指燭顧眾而逝。僧俗弔慰，哀聲震地。

丈雪醉至，欲舁棺至昭覺建塔，眾皆力爭，遂塔全身於本寺萬竹山之前，仍公舉雲嶠水為監院，眾執事如舊。丈雪醉負衣鉢爪髮，塔於昭覺影堂之側。

師建法幢凡十有五，陞堂語要、普說小參、機緣法語、拈頌偈贊、書問雜著，先是丈雪醉編成十二卷，離為二冊，刊入嘉禾楞嚴藏室流通。其有後錄、如記錄，參之秘所集，亦刊行以壽於世矣。

剃度弟子印開等凡百餘人，嗣法弟子八十七人，南北分化，各振家聲，或輔弼叢林，深養厚蓄、或誘一郡、或導一國、或居止不定，訶佛罵祖，雖未付授而昭昭然大有光明者，又未可枚舉也。若夫宰官紳士，有入山問道者、有久入參請者、有隨緣理會而漸漸發悟者、有親受鉗錘而處處露鋒鋩者、有同事攝化而弘護法道者，亦莫能盡述。

師根性猛利，天資高強，工夫急切，徹悟淵深，行腳扣擊，當鋒已少其人。出身作用接物端如掣電，所以自東塔開法，至于西川十五名藍，驅耕奪食，皆是利害腳手，鍛生煉死，無非惡辣鉗錘。凜凜威光，如岳壁千仞；赫赫聲譽，似雷震九天。縱逢劍戟武夫，瞻德容而斂其暴怒；即遇王公宰輔，欽法令而小其威權。晚年隨鄉入俗，謙光應機，笑裏有刀、泥裏有刺，或語、或默，或喜、或嗔，皆莫辨其可否，直令人懷疑而發悟。差殊品彙，教澤均沾，一知半解，雖士庶亦有焉。故示寂時，毋論遠近、貴賤、緇素，輓詞哀聲盈門而追慕不已耳。

今敬述平生出處大略，攷全錄歲月而編次之，以為後世取則云。

破山明禪師年譜(終)

破山明禪師塔銘

敕封徵仕郎、翰林院庶吉士、癸酉科孝廉巴縣劉道

開撰文

賜進士及第內弘文院編修，遂寧縣李仙根篆額。

賜進士出身徵仕郎、禮科給事中、前吏兵工左右給事中、翰林院庶吉士、廣東道監察御史劉如漢書丹。

原夫江漢炳靈、岷峨毓秀，山川間氣，聖賢篤生。自少林西來、曹溪纘緒，而南嶽一馬首誕什邡，是則宗門之盛，實吾蜀人啟之也。自時厥後，代有名宿，莫不家數智蕊、戶燦心燈。求其得髓弘宗，圓機應世，王公欽範，走卒知名，本衛法之苦心，運大人之作用，逆順莫測，遊戲無方，不得不推我萬峰老人矣。

師諱海明，號破山，俗籍順慶之大竹，元勛奕葉，相傳蹇忠定之裔孫；古佛因緣，共說昭覺勤之轉世。生含異質，幼挺奇標，堯眉舜目，幾符智者之姿，龜背鶴形，不讓純陽之表。亦娶妻而生子，同耶輸與羅睺。行年十九，忽厭塵凡，薙髮出家，挑包行腳。偶聽慧然法師講《楞嚴經》，至「一切眾生皆由不知常住真心、性淨明體，用諸妄想，此想不真，故有輪轉」，遂終日疑悶，乃閱古人公案，如銅山鐵壁，無隙可入，於是孤身出蜀，見數耆宿不能決疑。俄住楚之破頭山，刻期取證，以七日為限，逼拶至極，經行萬丈懸崖，自誓云：「悟、不悟，性命在今日了。」

時交午未，忽見銀色世界一平如掌，信步舉足，不覺墮於崖下，竟將左足跌損，從前礙膺之物泮然冰釋，高聲叫云：「屈，屈。」

自此出山南行，參數員尊宿，末後至金粟，機鋒上下，才辯縱橫，粟書源流一紙，加以信金一緘，祇受下山暫住苕溪。

己巳秋，嘉禾紳衿請住東塔，遠近學者歸之如雲，粟聆之曰：「華開樛李，果熟蠶叢。」

癸酉春回蜀，卓錫於萬峰古剎，學者歸之，亦如東塔之眾也，有「黠鼠窺香積，妖狐吹佛燈」之句，蓋鯁鯁乎有今日狂禪之慮矣。師主萬峰凡十餘年，甲申以來，刀兵橫起，殺人如麻，有李鷄子者殘忍好殺。師寓營中，和光同塵，委曲開導。李一日勸師食肉，師曰：「公不殺人，我便食肉。」李笑而從命，於是暴怒之下多所全活。昔人以澄公之於二石，如海翁狎鷗，師不但狎也、而且化之矣。拯溺不規行，捄焚無揖讓，此之謂也。然自此人目師為酒肉僧，反有藉師為口實者，師以救生為衛法之苦心，甚不得已也。壬辰癸巳間，蜀難漸平，師回梁山之金城寨。去寨半里，有舊紳別墅，尚餘老桂二株，師葺而居之。顏其堂曰「雙桂」，門曰「福國」，羈成叢林，而四方學者至復如歸。師隨其一知半解輒有付囑焉，或疑其付法太濫，而不知師於此又有深心也。蓋佛法下衰，狂禪滿地，倘一味峻拒，彼必折而趨邪。師以傳法為衛法之苦心，甚不得已者也。

師之名，上自朝廷、下及委巷，近而中夏、遠而外國，罔不聞知。總制李公奠安全蜀，數遣使迎，師皆力辭。甲辰秋再使敦請，師不得已，飛錫臨渝，盤桓九旬，相得甚歡。李公享師以牢醴，師閣箸曰：「山野昔遇惡魔而開齋，今逢善友而止葷，從茲不御酒肉矣。」遂辭而歸。

丙午正月廿一日，壽臻古稀，道俗集慶者萬有餘指。

至三月初十日，師示微恙，預申沒後之約，不用茶毘內棺外槨，便服入殮窆如俗人禮。是月十六日亥時，盥漱搭衣，以手指燭，端坐而化，壽七十，坐臘五十九。

坐道場語錄一十二卷，入嘉禾紫柏院，流通海內焉。

時有得法弟子丈雪醉公將塔師全身於梁之艮龍山麓，影堂設於成都之昭覺，走書請銘於不佞，道開矍然曰：「予何言？師之道德在天下，天下之人能言之也；操履在叢林，叢林之人能言之也。必欲予言，亦言其甚不得已之苦心耳。夫甚不得已之苦心，是馬祖之所難也；馬祖之所難而師易之，雖謂師為什邡之跨灶可也。」

爰系之銘，銘曰：

坤維禪宿，	肇自馬祖，	臨濟為仰，	兩燈並譜。
濟下兒孫，	楊岐獨盛，	傳至天童，	枝端派正。
萬峰崛起，	忠定後裔，	矯矯人豪，	堂堂法器。
十九辭家，	廿七圓戒，	不屑蹄涔，	直操溟渤。
金粟老子，	眼明手毒，	一瓢惡水，	洗腸換骨。
再振滹沱，	旁起四宗，	花開樗李，	果熟蠶叢。
九坐道場，	單提心印，	魔與魔民，	一戰而勝。
烹佛鍛祖，	補天立極，	師於祖庭，	實有助惠。
劫遭離亂，	殺人無算，	處劍戟林，	如家常飯。
遊戲神通，	飲酒食肉，	長鯨吸川，	燒豬果服。
但爾諸方，	不當學我，	伊尹之志，	有之則可。
酒肉破戒，	濫付招毀，	原師之心，	大不得已。
天子聞名，	王侯願交，	黃麻不羨，	青山逍遙。
行年七十，	化緣已畢，	雙林、雙桂，	是一？是二？
無偈可留、	無法可說，	獅子頻呻，	指燭而滅。
遺令官斂，	法同縉紳，	身後一著，	猶是逆行。
艮龍之麓，	罕堵堅好，	八部天人，	香花圍繞。
隻履已西，	幻殼斯藏，	我銘貞石，	萬祀垂芳。

破山明禪師塔銘(終)

板附楞嚴

(浙江湖州府尹副)

(曹溪正脈三十七世法孫徹巖捐貲敬刊)

(破山老人年譜補入語錄流通海宇)

(法孫 正生對 常奇書)

(康熙庚戌冬日，嘉禾楞嚴寺識)

CBETA 贊助資訊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CBETA 成立於 1998 年，於 2023 年 8 月 7 日轉型成為基金會。成立多年來，一部部佛典在嚴謹控管中轉換為數位典藏，不只數量龐大，而且文字校訂精確可信，又加新式標點方便閱讀。「CBETA 電子佛典集成」不僅獲得國際學界的重視及肯定，也成為大眾廣為運用的公共資源，如此成果都是在廣大信眾及有識之士的支持下才得以實現。

對一個從事佛法志業的非營利團隊，能夠長期埋首理想、踏實耕耘是非常不容易的。如今，CBETA 運作經費日漸拮据，但「佛典集成」仍有許多未竟之功。因此，懇請大家慷慨解囊、熱情贊助，讓未來有更多更好的電子佛典。

您的捐款本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 netiCRM 及 NewbPay 藍新金流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不管您持有的是國內或國外卡，所有捐款最終將以新台幣結算，所以我們所開立的捐款收據也將以新台幣計。

線上刷卡支持定期定額與單筆捐款。(銀聯卡不支援定期定額)

[前往捐款](#)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5 0 4 6 8 2 8 5

戶名：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請特別註明，我們會專款專用。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CBETA 引用其服務，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由於付款幣別為美元，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For donations by check, please write the check to
"Comprehensive Buddhist Electronic Text Archive
Foundation".
